전북학총서 9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 일명 전북 안내 -

우츠기 하츠자부로(宇津木初三郎) 지음
임경택 옮김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일명 전북 안내

전북학총서 9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 일명 전북 안내 -

우츠기 하츠자부로(宇津木初三郎) 지음
임경택 옮김

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일러두기

1) 원저에는 각 장·절에 일련번호가 없지만,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옮긴이가 일련번호를 일부 부여하였다.
2) 이 책의 각주는 모두 옮긴이가 작성한 것이다.
3) 모든 도량형의 단위는 미터법으로 환산하였다.
4) 모든 일본식 연호는 서력으로 기재하였다.

이미지출처(내지) :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사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과 바다에 둘러싸여 고대부터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유구한 시간동안 살아온 사람들과 지역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발굴하고 때론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라북도의 현상(現象)을 소개하기 위해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매년 '전북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학연구센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번역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군산개항전사』는 1899년 군산 개항이전과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은 1900~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직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는 1920년대 전후 전라북도 전역의 물산과 산업을 파악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이하여 시작된 번역 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북학연구센터는 축적된 전북의 근현대사 기초자료를 통해 일제 치하 암울하였던 역사 현장의 이면을 마주하고 극복의 단초(端初)로 삼고자 합니다.

신문기자였던 저자 우츠기 하츠자부로(宇津木初三郎)는 머리말에서 당시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은 무미건조하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불안한 땅이 아니라고 서술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조선의 보고(寶庫)이자 낙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황금물결 넘치는 옥야(沃野)가 펼쳐진 곳, 마한 고도(古都), 자연이 만들어낸 경승지, 옛 문화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전라북도이지만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의 상당 부분은 전북 회사, 경영자, 주소 등에 관한 내용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번 번역서를 통해 전북 상공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전북 근현대 도시구조, 도시 경관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12.

전북연구원장 권 혁 남

목차

• 발간사 5

• 서언 : 머리말 11

Ⅰ. 총설 [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15

1. 지리 : 위치 및 지세/기후/인구/교통 16
2. 교육 : 소학교/보통학교/중등학교 18
3. 금융 : 은행/금융조합/무진(無盡)회사 19
4. 농업 : 벼농사(米作)/보리농사(麥作)/육지면(왜솜)/가마니짜기/잠업/축산 20
5. 공업 : 일본인의 공업/조선인의 공업 23
6. 수산 : 어업/어획물의 처리/수산물 제조 25
7. 경비 : 경찰 28

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31

1. 군산항 : 연혁/무역/금융/군산과 쌀/군산의 명승 32
2. 전주군 : 농업/가마니짜기/잠업/축산/인구/교육/명승고적/조촌면 종계(種鷄) 생산조합 37
3. 전주면 : 인구/교육/교통/관공서·은행·회사/다가공원/길야산(吉野山) 42
4. 익산군 : 벼농사/보리농사/콩/잠업/축산/가마니짜기/면화재배/교육/임업 44
5. 이리 : 연혁/지세/기후/교통/교육/인구/금융/농장/관공서·은행·회사 48

◈ 익옥(益沃)수리조합 사업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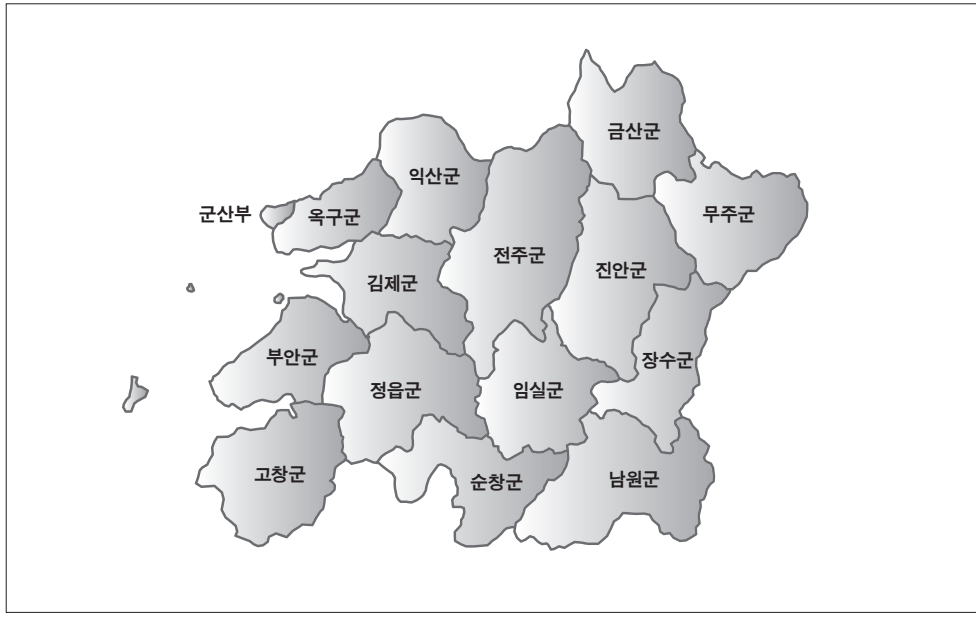
◈ 임익(臨益)수리조합의 사업 58

6. 옥구군 : 지세/교통/축산/수산/가마니짜기/인구/교육/고적 62
7. 김제군 : 호구/교육/면화재배/잠업/가마니짜기/김제쌀/공업/명소 고적/김제신사 67

◈ 동진(東津)수리조합의 사업 72
8. 부안군 : 지세/인구/교육/수산/어업/수산 제조/변산/금융/서림(西林)공원 74
9. 줄포항 : 해운/교통/금융/ 교육 80
10. 정읍군 : 산업/축산/임업/모시(苧布)/인구/교육/명소 82
◈ 고부(古阜)수리조합의 사업 86
11. 정읍면 : 관공서·회사/내장산 89
12. 신태인 90
13. 고창군 : 인구/교육/금융/임업/경비 91
14. 흥덕면 : 교육/행정/금융/선운사 92
15. 진안군 : 지세/기후/인구/교육/축산/경비/금융/명소 94
16. 용담(조선 전체에서 보기 드문 건강지) : 교육·금융·경비/용담 야마계(耶馬溪) 97
17. 장수군 99
18. 남원군 : 지리산/연혁/지세/인구/교육/교통/금융/농업 99
19. 순창군 : 지세/연혁/기후/인구/교육/금융/농업/공산품/교통 103
20. 금산군 : 지세/기후/인구/교육/농업/축산/잠업/금산인삼/경비
아사히(朝日)정미출장소 105
21. 임실군 : 임업/물감(水柿)의 원산지 108
22. 무주군 : 연혁/인구/교육/임업/연습림/경비와 금융/통신기타/명승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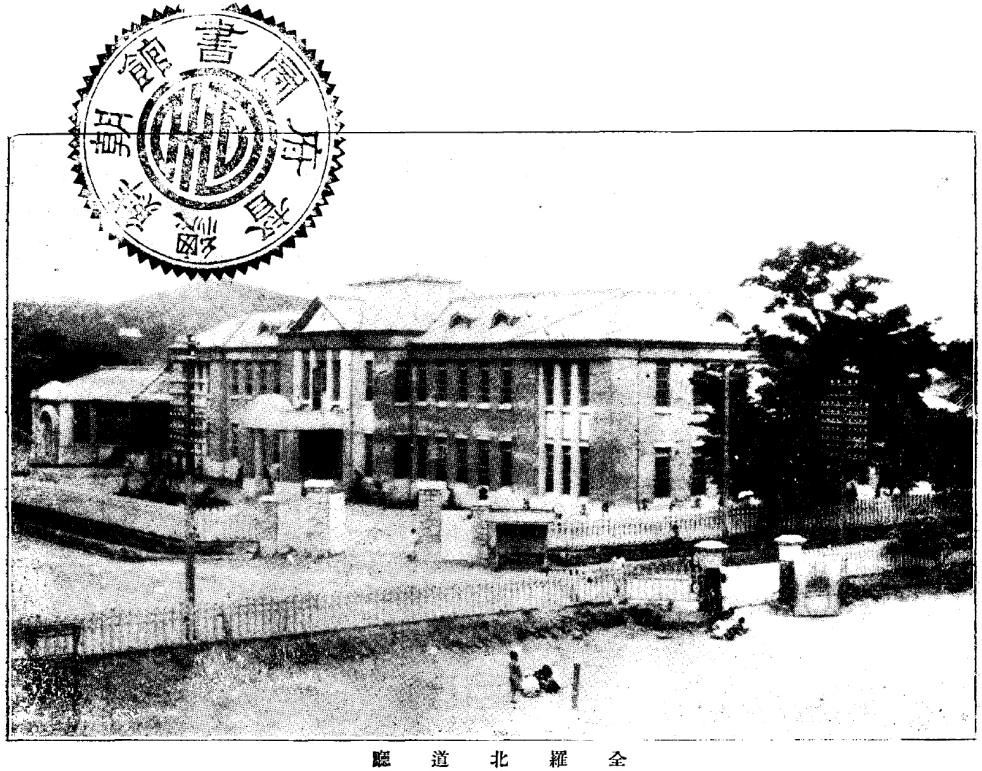
Ⅲ. 전라북도의 사업계와 경영자 113
◈ 전북 사업계와 경영자 114
◈ 전북 사업가의 경영 개황 248

• 옮긴이의 말 : 해제를 대신하여 265



〈지도1〉 1920년대 전라북도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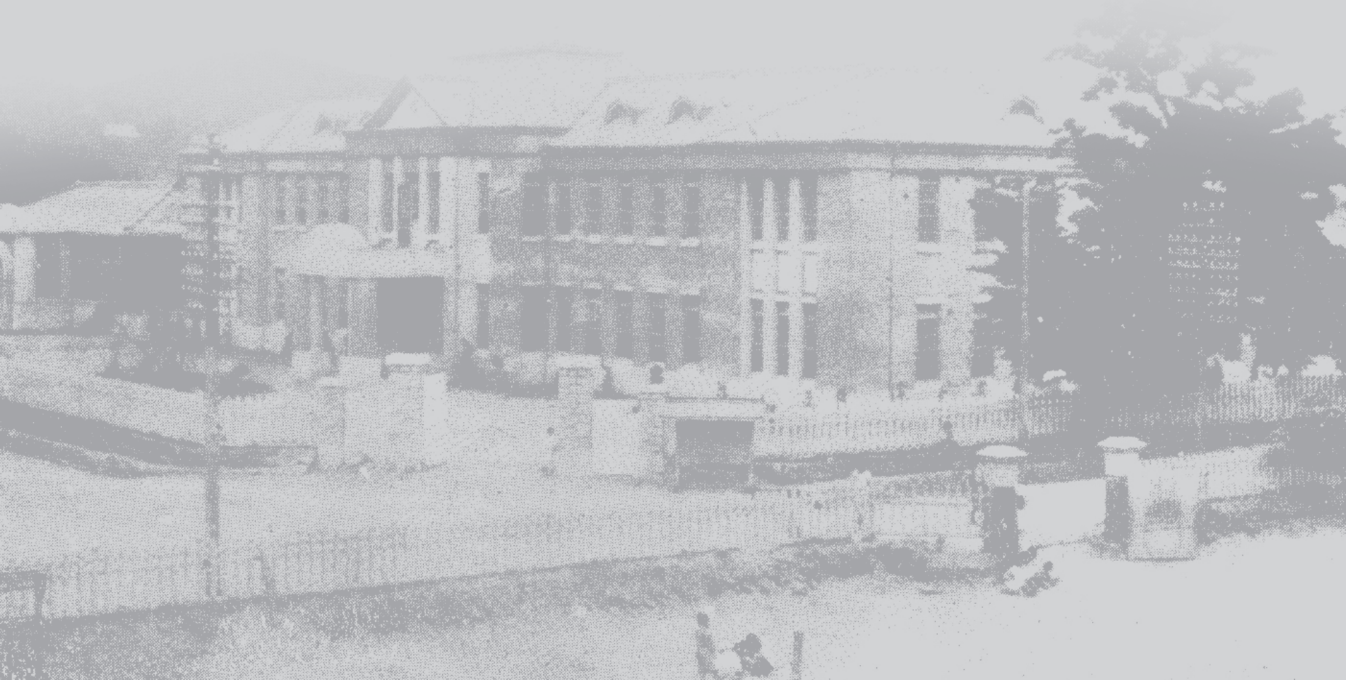
〈지도2〉 현재의 전라북도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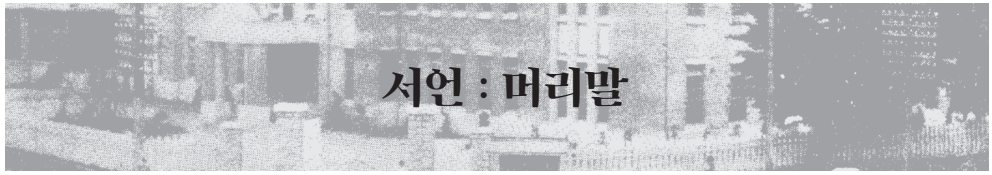


廳 道 北 羅 全

〈사진 1〉 전라북도청(1928년)

서언 : 머리말





서언 : 머리말

일본 내지(內地)[1]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면 무미건조하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불안한 땅이라고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짜 조선을 잘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선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진정한 조선은 그런 곳이 아니다. 아니 조선의 보고(寶庫)라고 불리는 전라북도는 실로 조선의 낙원이다. 지금 전북은 산업제일주의를 제창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 획기적 시대에 살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전라북도를 더 빨리 성숙시키고,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산업·공업·상업·교육·수산·인구의 분포 및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해 진정한 사정을 밝혀내어, 지극히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내지의 기업 및 투자가들에게 조선 및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그들 안에서 투자의욕이 조장되기를 희망하며, 동시에, 전라북도의 부원(富源)을 소개함으로써 전라북도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시험삼아서라도 전라북도에 한 번 와 보시라! 황금물결 넘치는 일망천리(一望千里)의 기름진 평야가 있고, 마한의 고도를 찾아 익산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풀이 우거진 왕성(王城)의 옛 자취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이 만들어낸 경승지(景勝地) 정읍 내장산으로 단풍을 찾아가 보시라, 그리고 또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교토(京都)와 닮은 전주를 옛 문화의 자랑거리들을 찾아가 보면,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풍취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일개 신문기자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것을 포함하여,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실을 실제 그대로 옮겨보려고 노력했지만, 몇 가지 점

---

1 내지는 일본제국주의시대에 일본 본국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당시의 저자의 관점을 살리기 위해 일부는 그대로 표기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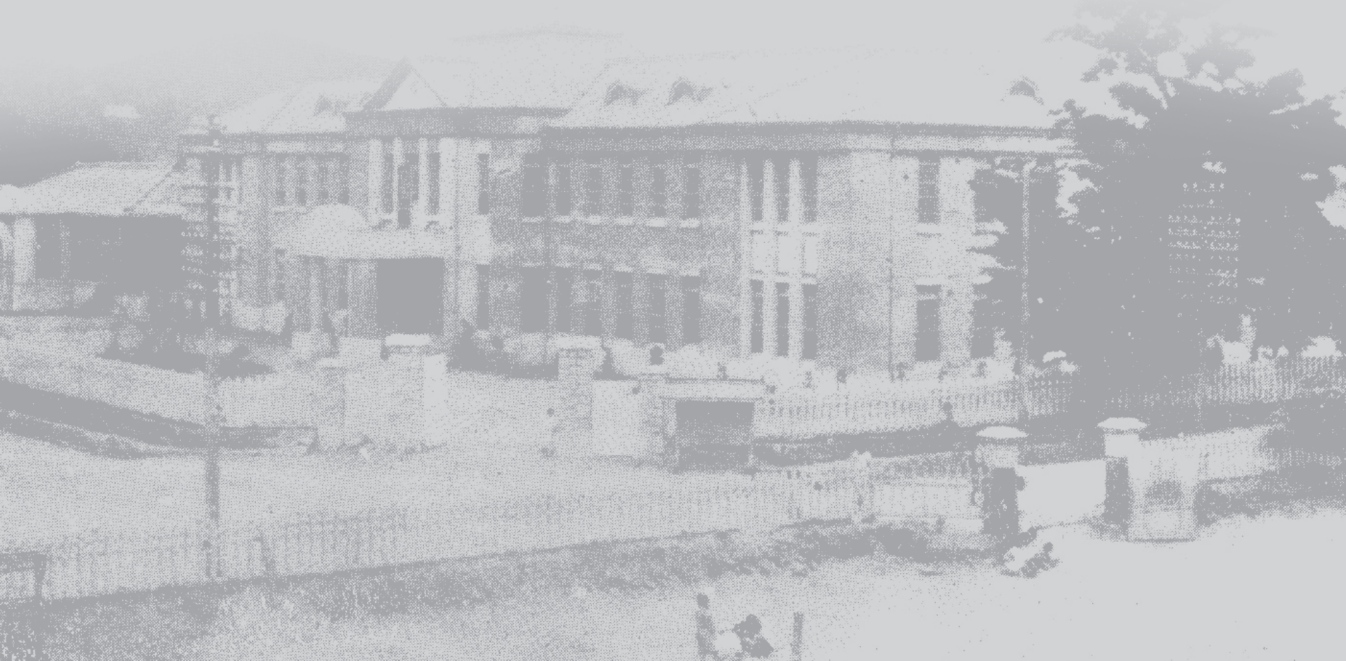
에서는 엉성하고 부정확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사업 경영자들의 고투(苦鬪)의 흔적과 분전(奮戰)의 역사도 서술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와타나베(渡邊) 전라북도 지사, 노다(野田) 내무부장 및 부장들 그리고 각군의 군수와 경찰서장 제위들에 베풀어주신 다대한 지도와 대단한 원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27년 11월 3일 첫 명치절(明治節)[2] 당일에

2 일본 제국이 메이지 텐노(天皇)를 추모하고 그 유덕을 기린다는 목적으로 메이지 텐노의 탄생일인 11월 3일을 축일로 정했다. 이 명치절은 일본제국 시대의 4대 국가 축일 중 하나이다.

Ⅰ. 총설
[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1. 지리
2. 교육
3. 금융
4. 농업
5. 공업
6. 수산
7. 경비



I. 총설 [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조선의 보고라 불리는 전라북도의 부(富)는 모든 범위에 걸쳐 있는데, 바다에 육지에 그리고 지하에 품고 있는 산물이 실로 무진장이다. 그리고 이 전라북도는 근래에 두드러지게 그 행정과 경제뿐 아니라, 상공업·산업·교통·교육·위생 등 모든 기관이 정연하게 완성되고 있어서, 여기에 신진(新進)의 전라북도라고 하는 한 구획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의 전라북도와 과거 20년 전의 전라북도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이 책은 전라북도의 과거 및 현재의 일단을 소개함으로써 내지 및 기타 기업가들에게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전라북도의 보고는 세상 사람들들이 더욱 열심히 개척하여 현재보다 더 큰 문이 열리려 하고 있다.

1. 지리

위치 및 지세

전라북도는 한반도의 서남쪽에 있으며, 동서로 191.8㎞, 남북 191.9㎞, 면적 550 평방리 12(그중, 도서 217)로서, 1부(府) 14군(郡) 188면(面)을 포괄하고, 북쪽은 충청남도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고, 동북쪽은 충청북도, 동쪽은 경상남북도, 남쪽은 전라남도와 모두 산악지역을 경계로 하여 접해 있고, 서쪽은 황해(서해)에 면해 있으며, 동부 7군 즉 진안·금산·무주·장수·남원·순창·임실군에는 산봉우리들이 완만한 기복을 보이며 이른바 전라북도의 산간부를 이루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 가면서 넓은 평야부를 이루고 있다. 평야부는 군산·전주·익산·옥구·김제·정읍· 부안·고창의 1부 7군으로 구성되

어, 동서 48㎞, 남북 80㎞ 정도에 이르고, 만경강(하천길이 100㎞) 및 동진강(하천길이 44㎞)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바다로 들어가는 이 곳은, 세상에서 전주 평야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옥야만경(沃野萬頃)은 조선에서 유수의 쌀의 산지이며 조선의 보고라고 불린다.

기후

기후는 산간부와 평야부 사이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온화한 편이다. 그렇지만 대륙성을 띠고 있어서 겨울철이 길고 봄가을 기간이 짧다. 기온은 밤낮의 차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등 내지와는 양상이 약간 다르지만, 전주의 연중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로서 경상북도 대구와 큰 차이가 없고, 이것을 내지와 비교하면 도쿄보다 2도 8분 낮고, 야마가타 지방보다 1도 4분 높으며, 우설량은 경성·원산 및 조선의 남부지방 일대와 큰 차가 없지만, 기타 지방과 비교하면 다량인 편이다. 이것을 내지의 각지와 비교하면 오사카와 대략 비슷하고, 기타 지방보다는 소량이다.

인구

192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구조사에 따르면 총 호수는 26만 5,512호이고, 구성은 일본인 7,474호, 조선인 25만 7,425호, 외국인 615호이다. 총인구는 135만 163명으로, 일본인 29,341명, 조선인 131만 8,228명, 외국인 2,594명이다. 이 규모는 일본 내지의 교토부(京都府)·사이타마현(埼玉県)·지바현(千葉県)·쿠마모토현(熊本県) 등과 백중세인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구 밀도는 조선에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내지의 각 부현의 밀도 평균 수치보다 높은 편이고, 대략 시가현(滋賀県)·와카야마현(和歌山県)·가고시마현(鹿児島県) 등과 필적할 만하다. 1907년에 일본인 거주자가 불과 5,8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이 든다.

교통

호남선의 총연장 길이는 약 281.6㎞ 정도로서 전라북도 관내에 속하는 시발과 종착 양 역 간의 거리는 약 81.6㎞이다. 간선의 북쪽은 함열에서 시작하여 남쪽은 정읍에서 끝나는 이 구간 안에, 함열·황등·이리·부용·김제·신태인·정읍의 7개 역이 있고, 지선은 이리역

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임피·지경을 거쳐 군산항에 이르는 연장 길이 22.4㎞이며, 경전북부선(慶全北部線)은 이리에서 갈라져 구 이리·대장촌·삼례·동산·덕진 등을 거쳐 전주에 이르는 약 15리, 그리고 북부선은 1930년도까지는 전주에서 남원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그 외에 1등 도로로 경성목포선(京城木浦線)·전주군산선이 있고 경성목포선은 논산을 거쳐 전라북도의 북쪽인 익산군으로 들어와 전주·김제·정읍의 각 군을 거쳐 전남 목포에 이르게 된다. 또한 2등 도로로는 전주줄포선·전주여수선·영동전주선·전주진주선·광주안의선 등이 있고, 도로망의 완성과 함께 각지에 이르는 교통은 매우 편리해졌다.

2. 교육

소학교

전라북도 내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1906년 '군산일본민회'에서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가 그 뒤를 이었고, 1909년에는 남원 및 대장촌을 더해 그 수가 4개교가 되었다. 그 이래로 일본인 이주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고, 특히 호남선 개통 전야부터 철도가 닿는 곳이면 어디나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교조합이 각지에 설치되어 현재 공립소학교를 일개교씩 보유한 곳은 군산부·진안·금산·무주·임실·남원·순창군이고, 2개교는 장수·부안·김제의 3군이고, 3개교는 전주·고창의 2군, 5개교 있는 곳은 옥구, 6개교가 있는 곳은 정읍 익산의 2개 군이다. 그런데 도 전체 36개교의 소학교 가운데 고등과가 병치되어 있는 곳은 13개교이고, 다른 곳은 심상소학교이다. 이들은 모두 학교조합에 의해 경영되었고, 경비는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수업료 등에 의존하는 외에는 모두 조합원의 부담이었는데, 1927년도의 평균 부담액은 28원 1전이었다.

보통학교

조선인 아동의 교육기관으로서 각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보통학교도 1909년에는 불과 4개교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12년에는 28개교가 되었고, 1918년에는 39개교에 이르렀으며, 1927년 3월 말 현재의 공립보통학교 수는 실로 112개교에 이르

러, 무려 1면 6분 7리(厘)에 대해 1개교의 비율이 되었다. 그중 6년제의 학교는 49개교였고, 다른 곳은 모두 4년제였다. 학급수는 535학급이었고, 남학생 26,548명 여학생 3,758명을 수용하고 있다.

중등학교

중등교육기관으로는 군산에 공립중학교가 있고, 전주·이리·군산의 각지에 고등여학교가 있었으며, 실업학교로서는 이리농림학교가 있었고, 정읍·전주에 농업학교가 있다. 그 외 전주에 사범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있고, 군산에는 수산학교가 있다.

3. 금융

은행

전라북도에 있는 은행으로는, 1906년 7월 구 한국정부 보호 아래 자본금 10만 원, 주식 수 5천 주의 주식회사로 전주에 설립된 농공은행이 시초였고, 이 은행은 1914년 1월, 자본금 30만 원으로 증가한 이래, 시세에 순응하면서 업무경영을 하고 있다. 1918년에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고, 이 은행과 합동한 이후 그 업무를 조선식산은행에서 계승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전주·남원·정읍·김제·이리 및 군산의 6곳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또한 농공은행 설립 후 조선은행·조선상업은행 및 주하치(十八)은행 등도 군산에 지점을 두고, 1920년에는 전주에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인 삼남은행이 신설되었다. 또한 1921년에는 한일은행의 파출소를 군산에 두었는데 이듬해인 1922년 10월에 이를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이어서 삼남은행은 1924년 3월에 이리에 시점을 설치하였고, 현재 각 은행들이 상당한 업적을 올리고 있다.

금융조합

전라북도의 금융조합은 촌락조합과 도시조합의 두 종류가 있고, 촌락조합은 그 숫자가 35개였고, 농민의 금융을 본위로 하여 촌락에 설치하였으며, 도시조합은 전주·이리·군

산·정읍의 4개소에 상공업자를 본위로 하여 시가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모두 조합원에 대해 자금을 융통하고 조합원 및 조합원 외의 예금도 접수하였다. 1927년 3월 말 현재의 대부금 총액은 517만 192원이고, 예금은 425만 8,300원이다.

무진(無盡)회사[3]

전라북도 내에 무진회사는 전주무진주식회사 및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의 두 회사가 있다. 전자는 1923년 12월의 설립 시에 공칭 자본금 10만 원, 후자는 1924년 2월 면허를 받았는데 자본금이 25만원이다,

4. 농업

벼농사(米作)

쌀은 전라북도의 주요 생산물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쌀의 풍흉은 실로 전라북도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항이다. 전라북도는 총독부의 시정 이래로 녹비(綠肥)의 재배, 건조 조제의 개량, 품종의 개량 등의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농사의 개발 및 발달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1935년도의 쌀 생산량은 176만여 석에 달했다. 이를 1910년의 생산량인 7천 8만여 석과 비교하면, 실로 2배 이상에 이른다. 이와 같은 쌀생산의 증가는 전라북도 수이출 무역액을 현저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농가경제의 진전을 지극히 크게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전라북도의 농업자는 호수로는 21만 807호, 인구는 107만 8,986명에 이르러, 총 호수의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급별로 보면 소농의 자작자 및 자작 겸 소작자가 점점 줄어 순소작자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무진회사란, 구좌수와 급부금액을 일정하게 정하고, 정기적으로 월부금을 내게 하여, 구좌당 추첨, 입찰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월부금 납부자에 대해 금전 이외의 재산을 급부하는 것(이를 물품무진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즉 50ha[4] 이상의 일본인 지주 63명, 100ha 이상의 조선인 지주 87명으로, 소유 총면적은 62,764ha에 이르고 있다.

보리농사(麥作)

보리의 총 작부면적은 64,733ha이고 그 수확량은 53만 9,666석이며, 그중 보리(大麥)가 가장 많으며 그 생산액은 45만 5천여 석이다. 그에 이어 밀(小麥)은 나맥은 불과 57,000여 석에 불과하다. 보리의 경우, 1910년의 생산액 15만 9,800석에 비하면 실로 3배 이상의 증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농업이 근래에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다.

육지면(왜솜)

전라북도에서 육지면을 장려하는 과정에 몇 개의 파란이 있었다. 요컨대 단당[5] 수확량의 증가로 인해 농가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부면적을 확장하여 생산액을 증가시키고자 하여, 앞으로는 재배 지도를 한층 더 집약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생산 면화를 유리하게 판매하여 경작자의 이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공동판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1925년도의 육지면 작부 면적은 12,139ha, 수확고는 542만여 kg[6]에 달했다.

가마니짜기

전라북도에 있는 논의 총면적의 약 71%는 평야부 7군에 있고, 그 면적은 10만여 ha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이 지방의 농가는 쌀농사 이외에는 적당한 부업이 적었던 반면에, 군산항이 바로 곁에 있어서 포장을 위한 가마니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가마니 제조가 농가 부업에 매우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은사수산강습소(恩賜授産講

---

4 1ha=10,000㎡

5 단당(段當). 1단은 10a(아르)이다.

6 1근=600g.

習所)에서 단기간 강습생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기대(機臺)를 나누어주고 일반농가에 가마니짜기를 장려·보급하는 중심이 되게 하였고, 그와 같이 보호하고 장려한 결과, 가마니 제조가 해마다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품질을 통일하고 개선하며, 나아가 원활한 판로를 개척할 목적으로 평야부 7군에 가마니짜기 조합을 조직하게 했다. 그 이래로 가마니짜기가 평야지방 유일의 농가부업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 생산액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1926년 4월 군농회 설립 시에는 종래의 가마니짜기 조합을 해산하고, 그 사업을 농회에서 계승하게 되었다) 1926년에는 436만 8천여 장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군농회에서 검수하여 공동판매에 부친 것만 해도 332만 5천여 장이었고, 판매 가액(價額)은 93만 5천여 원에 이르렀다. 그 전해와 비교하면 생산량이 3만 9천여 장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더욱 발달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잠업

전라북도의 기후풍토는 잠업에 적당하여, 장래에 부업으로서 가장 유망하다고 인정하여, 총독부 시정 이래로 우량 상식(桑植; 뽕나무 식재)재배 및 뽕나무 묘의 육성, 잠종(누에 씨) 제조자의 양성, 사육법의 개량 및 고치(繭) 생산과 공동판매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지어 장려한 결과, 해가 갈수록 발달의 추세를 보였고, 1911년에는 양잠 호수가 8,518호, 뽕밭이 168.7ha로서 고치 수확량이 불과 78석에 불과하던 것이, 전술한 각종 장려시설이 천혜의 요소와 어울려 지극히 순조로운 발달을 이루었다. 1926년에는 드디어 뽕밭이 2,865ha, 양잠 호수 30,816호가 되어, 고치 수확도 21,631석에 이르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축산

1925년 말의 전라북도의 축우 총수는 51,105마리였고, 농가 총 호수에 대비하여 분포상황을 보면 4호당 1마리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닭은 그 숫자가 450,661마리에 달하였고, 이것은 농가 1호당 약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상태이다. 양돈은 최근에 성행하기 시작하여 그 숫자가 지금은 109,717마리 정도이고, 품종도 개량종은 2만 마리에 불과하고, 그 외는 모두 열등한 재래종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료가 풍부하여 농

가의 사육력에 상당히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식시키고 개량하여 새로운 영역을 넓혀 주기 위하여 '버크셔(Berkshire)'종을 장려하기로 하고, 종돈의 배포, 사육법의 지도, 돈계의 조직 등을 이루어 극력 장려하고 있다. 1914년에 불과 35,000마리였던 돼지가 1926년에는 10만 9천여 마리가 되어 약 3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공업

일본인의 공업

일본인이 경영에 관계하는 공업은 그 생산액이 529만 5천여 원인데, 그 주된 업종은 정곡·양조·철공·연와(煉瓦)·전기·인쇄·제유·다다미(畳) 제조 등이고, 점차로 발달해 가는 도정에 있어서, 장래에 대성할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중에서 특히 정곡업이 한반도 유수의 쌀 산지인 관계로 가장 성행하고 있다.

조선인의 공업

조선인의 공업은 그 생산액이 985만여 원이고, 장래에 발달을 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적기는 하지만, 특히 제지·요업·석기·왕골돗자리(莞草莚)·접부채·부채·모시·삼베·무명 등은 주요 상품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본디 부업적 공업으로서 대개 그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이 공업들은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제품의 개량과 생산액의 증가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지는 산지가 10군에 걸쳐져 있고, 그 기원은 멀리 200년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원료가 되는 닥나무 껍질은 연 187만 5천 kg(50만 관)[7]을 생산할 정도로 지극히 풍부하다. 또한 그 제품의 품질이 조선 전체에서 보기 드문 양질로서, 연간 생산액이 45만여 원에 달하여 이 종류의 공업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

7 1관(貫)=3.75kg

② 요업은 연간 생산액이 약 26만 원이고, 산지가 각군에 걸쳐 있으며, 제품도 매우 다양하지만, 제조법이 유치하다. 단지 하나 고창 도자기의 이름이 높고 그 품질도 양호하며, 모양도 고려자기의 종류이다.

③ 석기는 장수군의 특산품으로서 여러 종류의 제작품이 있고, 석질의 내구력이 좋아 냄비와 솥, 화로 등을 만들기에 적당하지만, 제품 산지가 벽지인 까닭에 반출이 매우 불편하여, 생산액은 불과 2천여 원에 불과하다.

④ 왕골돗자리는 관내 이르는 곳마다 생산하고 있어서 연 7만 4천 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원료 생산에 제한이 있어서 큰 발달을 바라기는 어렵다. 1918년 조선제연(製莚)회사가 설립되고, 전주에 왕골돗자리 공장을 개시하였으나, 원료의 공급이 여의치 않아 천천히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⑤ 접부채, 부채는 주로 전주, 남원에서 제조되고 생산액은 3만여 원에 지나지 않지만, 전라북도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⑥ 모시의 원료가 되는 저마(苧麻)는 정읍 및 고창의 2군을 중심으로, 부근의 각 군에서 생산하고 그 질이 우량하여, 다수가 저포의 명산지인 충청남도 한산 및 서천으로 반출되고 있는데, 연도별 총액이 40만 원 이상에 달한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그 원료의 산지에서도 저포를 제직(製織)하는 것이 성행하여 각지에 반출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액이 10여만 원, 반가액 35만여 원에 달한다.

⑦ 삼베는 관내 어느 곳에서나 산출되며, 연 총생산액이 약 34만여 원이다. 제품은 주로 자가용 및 도내의 수요처에 공급하는데, 도외로 수출하는 것 또한 적지 않다.

⑧ 무명은 자가 소비용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연 생산액은 약 40만 원 이상에 달하며, 모시나 무명은 농가 여성들의 부업품으로 생산되며, 직조방식은 대개 재래식을 사용하여 매우 유치하다.

⑨ 이처럼 재래공업이면서 상당한 생산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고, 그 제조법을 개량하여 상당한 기공(技工)을 향상시키는 곳에서는 현저하게 진척이 되고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종래 각 산지의 상황 및 업태를 되돌아보고, 비교적 장려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지방비에서 보조금을 주어 보호하거나, 또는 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이것을

지도하고 또한 강습 및 실지전습(實地傳習)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방책을 강구하여 장려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해마다 그 면목을 달리하고 있고, 생산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6. 수산

어업

전라북도 연안에는 서식하고 있는 어족들이 지극히 많은데다가 해저면이 바다 멀리까지 얕다. 더욱이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밀물 때에는 약 5.49m(18呎)[8] 또는 7.01m, 썰물 때에는 3.96m 내지 4.88m에 달한다. 따라서 조류 또한 매우 급하고, 어업도 또한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발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수치들로 인한 것이다. 즉 세안(瀨岸) 부근에서는 조수의 오르내림을 이용하여 행하는 어전(魚箭)[9]어업을 비롯하여 하류 영근(澪筋)[10]에서 중선미망(中船尾網)·궁선망(弓船網)[11]·초망(抄網)[12] 등에 이어, 조금 더 멀리 난바다쪽으로 가면 안강망(鮟鱇網)·중선망(中船網)[13]·주목망(柱木網)[14]을 주로 하고, 그 외에 각종

---

8 1呎=1feet=30.48㎝

9 어량(魚梁)이라고도 불리며, 물살을 제한하여 그곳에 함정 어구를 놓아 고기를 잡도록 하는 것.

10 하천이나 바다 가운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수로가 되어 있는 깊은 곳.

11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하는 재래식 망어구.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어망을 뱃머리에 달고 다니면서 조류를 따라오는 새우 또는 뱅어, 조기새끼 및 기타 잡어를 잡는 데 쓰였다.

12 뜰채. 잠자리채 같은 모양의 틀에 그물을 씌워 수면 근처의 물고기를 건져 잡는 어망.

13 원추형의 긴 자루와 같이 생긴 어망 2통(統)을 어선의 양 현(舷)측에 달고 어장에 이르러 닻으로 어선을 고정시키고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 어획하는 것.

14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조류의 방향에 따라 망구(網口)를 회전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간조 때뿐만 아니라 만조 때에도 어류를 잡을 수 있다.

유망(流網)[15]·수조망(手操網)[16]·연승(延繩)[17]·외바늘낚시(一本釣り)[18] 등이 있다.

어획물은 조기가 가장 많고, 도미·갈치·새우·삼치·가오리·민어·대구·뱅어·상어·멸치 및 기타 어패조류(魚貝藻類)를 합하여, 약 141만여 원을 어획한다.

어기(漁期)는 매년 3월 중순부터 개시되며 11월 하순에 끝난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기온이 저하하여 수온 또한 내려가기 때문에, 어류는 다른 바다로 도망쳐 사라지기 때문에, 어청도 앞바다에서의 가오리 연승어업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볼만한 어업이 없다. 성어기는 5월 상순부터 6월 하순에 이르는 사이이고, 그때가 되면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 고기잡이하러 오는 것을 합하여 약 1,300척을 헤아리는 어선들이 조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다 위는 고기잡이 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 활기가 넘치지만, 조선인의 어업은 지금도 여전히 유치하기 때문에, 어선이나 어구, 그리고 또 어법도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종래에 이들 조선인 어업자들에게 '은사금수산사업(恩賜金授産事業)'으로서 어선 및 어구를 구입하여 배포하였고, 그 외에 1922년도에는 '개량어선장려규정'을 설치하여 개량어선 건조자에 대해 5백원 이내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조선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강망의 사용법을 연습시키거나 또는 어구제작의 연습을 하는 등, 전심으로 지도에 진력한 결과 진척의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어획물의 처리

어획물은 종래의 관습에 따라 지금도 바다 위에서 선상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조기와 같은 것은 봄에 도미 어업 개시와 함께, 일본과 조선에서 매입을 하러 오는 배들이 강경·군산·줄포·법성포·목포 등의 각지로부터 어장으로 온다. 그리고 조기를 구입하여 선내에 염장(鹽藏)하거나 또는 신선한 생선 그대로 운반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삼

---

15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수면에 수직으로 친 어망이다. 고기의 통로를 횡단하도록 설치하며, 그물에 고기가 끼이거나 물리게 해서 잡는다.

16 저인기망이라고도 한다. 주머니망 및 날개망과 날개망에 이어지는 긴 인망으로 된 어망.

17 주낙. 하나의 모릿줄(수평으로 길게 뻗친 원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가짓줄)을 연결하고 그 아래 낚시와 미끼를 달아 대상물을 어획하는 어구.

18 물고기를 한 마리씩 낚아올리는 어법.

치나 도미처럼 주로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어류는, 하야시가네구미(林兼組)·닛센구미(日鮮組) 등이 관할하는 활어선 어장 또는 근거지에서, 어장에서 바로 구입하여 냉장선에 적재한 후, 이것을 한신(阪神)[19] 지방으로 반출하였다. 죽도(竹島)는 이 냉장선과 생선구매선들의 근거지로서 성어기를 만나면 돛대가 숲처럼 들어서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장관을 이룬다.

수산물 제조

전라북도의 수산제조업은 어업에 비해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제품 중 주를 이루는 것은 염장 및 염건(鹽乾) 조기·염장 갈치·말린 멸치·상어지느러미·가오리·민어·새우 등의 염건 또는 말린 것, 가마보코(蒲鉾)[20]·맛생선·사쿠라보시(桜干し)[21]·해파리·도미가마보코(鯛の花) 등이고, 연 생산액 약 37만여 원에 달한다. 말린 멸치는 어청도에서 생산되고 연 생산액 약 3만 원에 달하며, 기타 각종 염장 및 염건품은 주로 조선인들에 의해 제조된다. 전라북도에서도 종래에 각종 염장 및 염건 시험 등을 시도하였고, 꾸준히 제조해 온 결과, 최근에 뚜렷하게 그 품질을 향상시켜 왔지만, 요컨대 조선인의 제조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여 염건장 및 그냥 말린 건조품 외에 특별히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친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장래에는 한층 더 주도면밀한 지도를 받아 개선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가마보코·맛생선·사쿠라보시 등은 군산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제조되어, 점차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액도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19 일본의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20 흰살 생선을 잘게 갈아서 밀가루를 넣어 뭉친 일본 음식.
21 정어리나 보리멸을 벌려 미림 간장에 절여 말린 것.

7. 경비

경찰

경찰기관의 배치는 경찰서 14·파출소 9·주재로 154·출장소 5개소로서, 직원 정원수는 경찰부장 이하 1,095명(임시정원 1,007명; 1925년 12월 말)이다. 이것을 제도 개정 이전의 경찰관 및 헌병 총수 720명과 대비하면, 기관이 확장되었음은 물론, 정원수도 현저하게 증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관할은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1부군에 1경찰서를 설치하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지만, 한 곳 군산부 및 옥구군에서는 지역 관계상 두 곳을 합쳐 1관구로 하여, 군산경찰서로 하여금 이 지역을 관할하게 했다. 그리하여 한 경찰서의 부담은 평균적으로 면적 464㎢, 호수 18,622호, 인구 93,690명 정도였고, 또한 수상경비는 연안의 중추항에 해당하는 군산에 경비선(기선)을 한 척 배치하여, 군산경찰서가 이 연안 지역의 경비에 임하도록 했다. 지금 현재의 경찰서 관할구역 상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찰서 및 그 관할구역(1925년 12월 말 현재)

경찰서명	위치	관할구역	관할구역의 면적 (㎢)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 주재소	경찰관 출장소
군산경찰서	군산부 메이지정	군산부 및 옥구군 일원	403.04	3	9	2
전주경찰서	전주면 팔달정	전주군 일월	1,072.00	3	16	—
진안경찰서	진안면 군상리	진안군 일원	818.4	—	10	—
금산경찰서	금상면 상 리	금산군 일원	597.92	—	9	—
무주경찰서	무주면 읍내리	무주군 일원	652.64	—	5	—
장수경찰서	장수면 장수리	장수군 일원	551.84	—	6	—
임실경찰서	임실군 성가리	임실군 일원	614.72	—	9	1
남원경찰서	남원면 하정리	남원군 일원	799.84	—	16	—
순창경찰서	순창군 순화리	순창군 일원	496.16	—	9	—
정읍경찰서	정읍면 장명리	정읍군 일원	720.96	1	16	—
고창경찰서	고창면 읍내리	고창군 일원	613.60	—	14	1
줄포경찰서	건선면 줄포리	부안군 일원	429.60	—	7	1
김제경찰서	김제면 신풍리	김제군 일원	523.20	1	13	—
이리경찰서	익산면 이 리	익산군 일원	555.36	1	15	—
계	8,849.28	9	154	5		

주재소의 부담은 평균면적 53.7㎢, 호수 1,493호, 인구 7,602명이고, 그 면적이 큰 것은 대략 대부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하여 경비상 지장을 느끼는 부분이 적지 않다.

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1. 군산항
2. 전주군
3. 전주면
4. 익산군
5. 이 리
◈ 익옥(益沃)수리조합의 사업
◈ 임익(臨益)수리조합의 사업
6. 옥구군
7. 김제군
◈ 동진(東津)수리조합의 사업
8. 부안군
9. 줄포항
10.정읍군
◈ 고부(古阜)수리조합의 사업
11. 정읍면
12. 신태인
13. 고창군
14. 흥덕면
15. 진안군
16. 용 담
17. 장수군
18. 남원군
19. 순창군
20. 금산군
21. 임실군
22. 무주군

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1. 군산항

군산항

군산항은 조선 제3위의 무역항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상업도시이다. 개항 전의 군산은, 작은 언덕 기슭 위에 4~5개 정도 셀수 있을 정도의 마을이 존재하던, 억새와 갈대가 무성한 일개 한촌(寒村)이었다. 파도와 해조류와 풍랑을 겪으며 성장해 왔고, 1899년 5월 1일 처음으로 개항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정부는 목포영사분관을 두어 내외 통상무역과 재류민의 보호 임무를 맡겼다. 개항 당시 불과 1만 2천 원에 불과했던 무역액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의 흐름이 진보하면서 그와 더불어 해마다 번영을 이루어 갔고, 특히 근년에는 산업이 발전하고 진흥하여 약진적인 팽창을 이룩하게 되었다. 무역액은 6천만 원에 달하려고 하며, 지금도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인구는 1927년도에 들어 2만 2천 명이었던 것이, 행정 구획도 일대

확장하게 되고, 시가지 또한 서부 하수구의 완성에 이어 동부 하수구도 완성되었고, 도로 또한 일대 개수를 하여 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처럼 대도시 건설의 일보를 쌓게 되었고, 군산의 오랜 숙원이자 중요 현안이었던 항만의 수축공사는, 285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현하게 되었다. 지금은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제 기관과 제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연혁

군산은 조선 역사상 저명한 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금의 옥구군은 원 백제의 마서량현(馬西良縣)으로, 그 후 신라가 이를 옥구현이라고 고쳐서 칭하게 되었다. 고려(高麗)시대에 이르러 태조 6(1376)년 처음으로 진(鎭)을 지금의 부청 뒷산에 설치하여 병마사(兵馬使)로 하여금 현치를 겸하게 하였다. 조선조 세종 5(1526)년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고치고, 후에 다시 현감(縣監)으로 고치게 되었다. 또한 옥구읍의 성곽은 주위 약 680m인데, 그 후 세종의 가청3(嘉靖3; 1524)년 개축과 함께, 관문에는 군산포영(群山浦營)을 두었고, 전함수함사후선(戰艦水艦伺候船)의 군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군산은 당시 군창(群倉)이라고 칭했고, 단순히 진영과 공미(貢米) 창고만을 두었는데, 그 후 군창은 군산이 되어 오늘날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1899년 개항되어 목포영사분관을 두었고, 1906년에 분관을 이사청(理事廳)으로 개칭하고, 1910년에는 다시 분관을 설치하고, 각국 거류지회를 조직하게 하여, 이곳에 체류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공공사무처리기관이 되었다. 1901년에는 체류 일본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본민회'를 설립하여 일본인의 자치기관으로 삼았고, 몇 년이 지난 1906년에는 이것을 군산거류민단이라고 개명하였고, 1914년의 제도개혁을 맞게 된다. 1910년에 총독부 지방관 관제가 발포되면서 군산부가 설치되었고, 1914년에 부제(府制) 및 학교조합령이 발포되면서 각국 거류지회 및 군산거류민단을 폐하고 법인체인 군산부를 신설하여, 상기한 양 단체에 속해 있던 사무 중 교육사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별도로 학교조합 법인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역

1928년 개항 30주년을 맞는 군산항은 산업의 발달 진흥과 더불어 무역액이 크게 팽창하고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의 무역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수이출(원)	수이입(원)	합계(원)
1926	47,328,366	19,218,715	66,547,081
1925	37,738,706	18,341,405	56,080,111
1924	35,959,057	12,729,052	48,688,109
1923	32,815,010	8,638,582	41,453,592
1922	27,127,046	7,887,536	35,014,582

금융

군산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쥬하치(十八)은행·조선상업은행·한일은행의 지점 5개소 외에 군산·옥구의 양 금융조합·군산무진회사·미곡신탁회사·상공신탁회사·군산신용조합 등이 있는데, 모두 그 입장과 취지에 따라 상공자금의 융통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 2년 간 다섯 은행의 예금취급고를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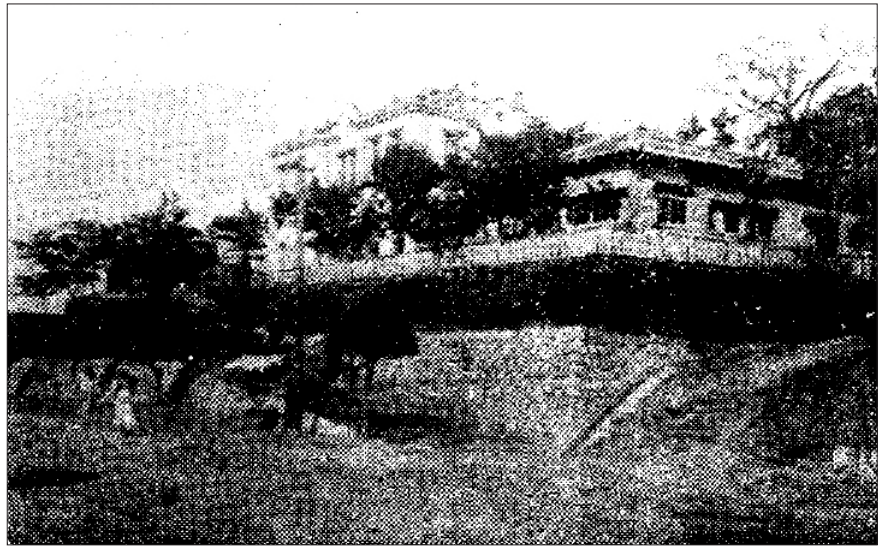
연도	예입고(원)	환급고(원)
1925	151,854,249	150,931,897
1924	150,485,426	150,073,186

군산과 쌀

왕래가 잦기로는 조선 굴지였던 항구인 군산항은, 미곡의 수이출로 조선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12년에는 10만 6천 석의 소량에 불과했던 것이 1921년에는 69만 8천여 석이 되었고, 1923년이 되면 100만 석을 돌파하여 120만 석이 되었고, 1926년

(생산연도)에는 150만 석 돌파를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142만 석의 수이출을 보게 되었고, 착착 진행되고 있던 총독부 10개년 계획의 산미개량으로 인해 200만 석에 달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군산은 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어떻게 큰 힘이 될 것인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군산의 명승



군산부청

• 군산공원

군산부의 서쪽 작은 언덕에 있는데 자연의 경치가 웅대하다. 노송이 아주 많아 푸른색의 싱싱함이 넘쳐 흐르고, 특히 꽃이 필 무렵에 벚꽃이 공원 내의 일원에 흐드러지게 피어, 전북에서 유일한 화단으로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눈앞에 금강의 긴 줄기가 가로놓여 있고, 전북의 여러 섬들과 충남의 산야를 보고 있으면 서양화도 되고 동양화도 되는 아름다운 조망이다.

• 월명산

그 이름에 걸맞게 풍류인들이 본다면 우아한 잔치를 열고 싶어지는 곳이다. 산 위에 올라가면 다리 아래로 군산시가가 전개되어 전망이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 상수도 수원지

군산부 외미면 신풍리의 협곡에 있는데, 항상 맑은 물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호수와 같다. 그 주위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봄가을에 산책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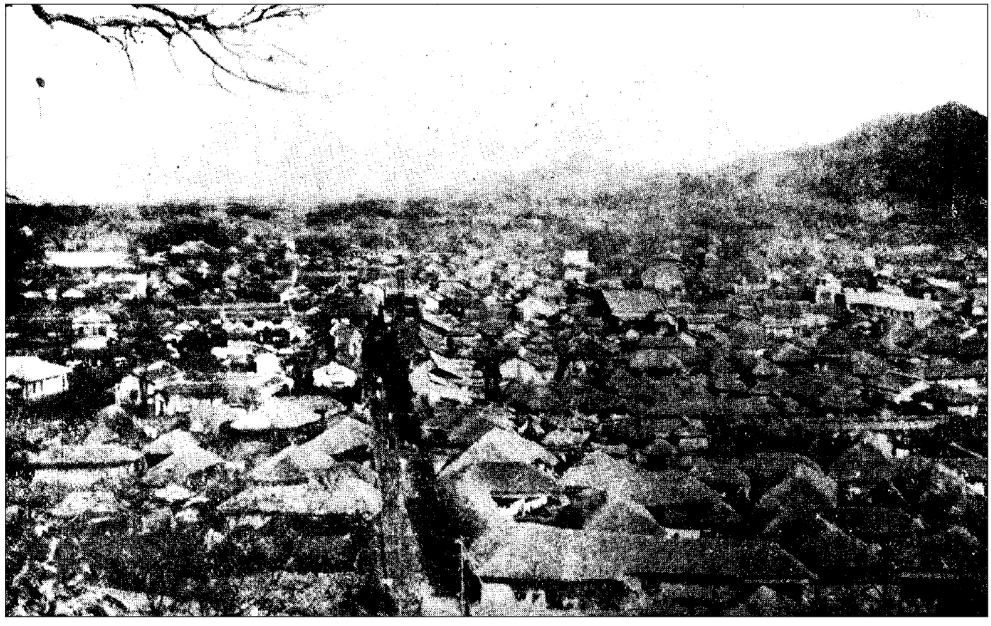
• 죽도

군산항으로부터 17㎞ 정도 떨어져 있는, 풍광이 아름다운 작은 섬이고 도미의 산지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어기에는 유람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

• 불이(不二) 간척지

불이흥업회사(不二興業會社)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군산으로부터 4㎞ 정도 떨어져 옥구군에 있으며, 사업 총면적은 2,500ha, 이미 이주해 온 일본 내지의 농민이 백 수십 호에 이르며, 전북을 시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농촌이다.

2. 전주군



전주시내

농업

전주군은 이른바 전북평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땅이 비옥하여 각종 농작물의 생육에 아주 적합한 데다가, 수리·배수시설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어서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가 적고, 농사의 진보가 말 그대로 현저하게 이루어져 있다. 종래에는 권농회·면작조합·가마니조합·잠업조합 등 특수한 기관에 의해 권장·장려되어 왔지만, 법적인 배경도 없고 게다가 여러 조합의 병립에 따른 여폐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1926년 3월 조선농회령에 의거하여 군농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군농회가 원활하게 운용되면서 유효한 활동을 전개하여 권농을 조장(助長)하는 행정의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6년의 쌀 작부면적은 16만 5천ha, 수확고는 18만 2천 석에 달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리나 콩 등도 우수한 수확을 거두었다.

가마니짜기

가마니짜기는 조선 농가의 부업으로서 각 군에서 모두 장려해 왔는데, 전주군에서도 가마니짜는 기대(機臺)를 공동구입하거나 전습회를 열거나 하여 극력 장려한 결과, 사람들이 점점 그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은 1,510호 정도가 참가하여 연 45만 장을 제조하고 있다. 공동판매가액은 8만 2천여 원에 이르며, 품질 또한 전 조선에서 손꼽힐 정도여서, 농가의 유일한 부업이 되었다.

잠업

전주군의 잠업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는데, 1916년 이래 열심히 장려한 결과, 때로는 부침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층 더 양호한 기운을 얻고 있으며, 1927년도의 누에 소립(掃立)[22] 매수는 약 5천 장이나 되었고, 사육 호수도 2,500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축산

전주군의 축산은 축산동업조합이 중심이 되어 축우와 기타 개량증식에 노력한 결과, 예상을 훌쩍 넘는 성적을 거두어, 1926년도에 경지 5.1ha, 농가 5호당 축우 한 마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축우, 돼지, 닭으로 각 항목을 나누어 상세하게 기록해 보겠다.

• 축우

관내의 축우 총수는 4,586마리로서, 전년도에 비해 166마리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주로 군내의 평야지방에서 1924년도의 가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우계(牛契)를 많이 결성하여, 그 총수가 산간부 11계, 평야부 16계 합계 27계를 헤아리게 되었고, 본년도에는 152마리의 축우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조합에서 논을 가는 소

22 알에서 깨어 나온 누에를 누엣자리에 떨어놓는 일 또는 그 틀.

(耕牛)를 구입하기 위한 대부가 증가했고, 또한 농촌금융이 점차로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아와 지주들이 소 구입을 위한 대부를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 돼지

돼지의 총수는 8,582마리로서, 전년도에 비해 891마리가 증가했다. 그 원인은 축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농촌의 금융이 회복됨으로 인해 돼지의 구입사육자가 증가하게 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비료를 채취하기 위한 양돈이 적극 주창되어 농장이나 기타 지주들이 소작인에 대해, 축우를 사육할 수 없는 소농에게는 돈계를 조직하여 양돈을 증식하라고 독려하고 도모하고 있어서이다. 장래에는 현저하게 그 마리 수가 증가할 것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뚜렷한 경향은 개량종의 급증인데, 전년도 말의 1,852마리에 대해 445마리가 증가하여 2,297마리가 되었는데, 이는 총 양돈 마리 수의 25%에 상당한다.

• 닭

닭의 총 마리 수는 53,308마리로서, 전년도에 비해 11,406마리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개량종이 총 21,871마리로서 총 양계 마리 수의 40%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다. 닭의 증식 장려를 위해 본년도에 새롭게 '개량 닭 보급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관내의 13개면에 개량계 보급부락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면비와 조합비로 종계(種鷄) 생산부락에서 생산한 종계 1,300마리를 구입하여 배포하고, 이미 설치된 양계조합인 조촌·전주의 2개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사를 개축하고 부화기를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을 내려보냈고, 양계자금의 기채(起債)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이자보급(기채금의 70%)을 신청하고, 기타 사료의 공동구입 알선, 식용란의 공동판매알선을 하는 등, 조합사업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구

1926년도 전주군의 인구는 일본인 1,258호·인구 5,156명, 조선인 27,108호·인구 144,568명, 외국인 89호·338명으로, 매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

일본인 교육은 여전히 학교조합에 의해, 조선인 교육은 학교비에 의해 각각 경영되고 있는데, 일본인 교육은 1907년 전주소학교의 개교를 시초로 그때부터 동산촌, 삼례 등 중요한 지역에 설립되어 지금은 82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을 위해서는 전주·소양·고산·화산·봉동·삼례·동산·이서·우림의 각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또한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전주에 고등여학교·고등보통학교·사범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농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명승고적

- 경기전(慶基殿)
  전주면에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458년 전에 건영되었다. 조선조의 이성계를 모시고 있다.

- 조경묘(肇慶廟)
  경기전의 배후에 있으며, 묘 내에 모신 신위는 '시조고신라사공신위(始祖考新羅司公神位)', '시조비사경주김씨신위(始祖妣祀慶州金氏神位)'라고 되어 있다.

- 오목대(梧木臺)
  전주면의 동쪽에 있는 작은 언덕에 있고, 전주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언덕 위에 '태조고제주필유지(太祖高帝駐蹕遺趾)의 석비(石碑)'가 있다.

- 남고산(南固山)
  전주의 남쪽에 있으며, 정상이 산성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성 안에 고찰이 있다.

- 한벽루(寒碧樓)
  전주 남문 바깥에 있으며, 고 월당공(月塘公)이 평소에 거처를 하던 곳. 벽국한류

(碧國寒流)의 뜻에서 취하여 한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인데, 유람해 볼 가치가 있는 곳이다.

- 다가산(多佳山)

  전주면의 서쪽 다가산의 산정에 메이지신사(明治神社)를 봉사하였고, 공원으로서 사시사철 유락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 덕진못(德津池)

  시외 0.4㎞쯤 떨어진 서쪽에 있고, 부근 논에 수리의 편을 열기 위해 설치된 연못이 있다. 연못 안에는 연이 많으며, 부근에 건지산도 있고 아주 길게 뻗은 솔밭이 있어서, 도 전체에서 비할 곳이 없다.

- 화암사(花巖寺)

  운동복면(雲東卜面)에 있고, 866년 즉 신라 선덕여왕 즉위 3년에, 화암교 개조인 일교국사(日敎國師)가 창건했다.

- 위봉사(威鳳寺)

  소양면에 있고, 신라 진평왕 때에 고승 최공(崔公)이 창건하여 조선조까지 내려와 숙종왕 을유년에 위봉사성을 쌓고 진장(鎭將)을 두어 병기를 관장하게 하였다. 심산유곡의 봉우리들이 걸립하여 피서객이 끊이지 않는다.

- 봉서사(鳳棲寺)

  용진면에 있다. 신라 성덕국 35년 갑자 3월 10일 국사 혜철이 창건하였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만 전개되어 전주평야를 한눈에 부감할 수 있다. 계곡 사이에는 폭포가 있으며, 한여름을 모를 정도이다.

조촌면 종계(種鷄) 생산조합

전주군 조촌면 종계생산조합은 1922년에 창립되었다. 당시에는 모로 야조(茂呂弥蔵)씨가 조합장이 되어 오로지 종계 개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현재 1년의 종계 생산고가 약 3,500마리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전 조선의 각지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모두 받아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는 고토 산사쿠(後藤三作)씨가 조합장인데, 고토씨는 이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이고, 또한 모로씨는 의지가 견실한 근면가이다.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전주면

이리에서 경전북부선을 타고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전주에 도착한다. 전주는 산천이 수려하고, 옥야가 4㎞나 되는, 실로 천혜의 땅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주는 교토와 같은 곳이다. 면면히 이어진 히에이산(比叡山) 대신에 호남 7봉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인 것도, 가모가와(加茂川) 대신에 전주천의 청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니시진(西陣)이나 시미즈 도자기(清水焼) 대신에 전주가 부채의 산지인 것도, 몇 번이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것도, 오래된 문화의 기록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이른바 교토미인 대신에 춘향형의 미인이 있는 것도, 낭만이 넘치는 무대인 것도, 모두가 조선의 교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유래로 보더라도 전주는 조선조 발상의 지로 그 이름이 높고, 영조 4(1697)년 관찰사의 영(營)을 두었고, 1910년 9월 전라북도청을 두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구

일본인 호수 985호·인구 3,968명, 조선인 3,850호·인구 18,720명이 거주하고 있고, 시설로는 상수도, 공설시장·보통시장·격리병사·화장장·도살장 등이 있으며, 인구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

일본인의 교육기관으로 전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전주공립고등여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은 모두 학교조합이 경영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농학교, 보통학교 등이 있고, 그 외에 미국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가 있다.

교통

현재로서는 경전북부선이 전주-이리 간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미 개수공사에도 착수하였고, 또한 전주-남원 간의 공사도 1928년도부터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전주가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외의 교통기관으로는 전주-정읍·전주-남원·전주-이리·전주-김제·전주-진안 간에 정기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

관공서·은행·회사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이자, 또한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매우 많은데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모두 전주에 있다.

전라북도청	전주군청	전주지방법원	전주경찰서
전주형무소	전주전매지국	전주우편국	전주의원
전주측후소	원잠종제조소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	남조선전기 전주지사
전라북도금융조합연합회	전주금융조합	완산금융조합	주식회사 삼남은행
전주흥산회사	조선제연주식회사	전주연초원매별주식회사	
전주학교조합	잠업단속소	물산진열관	미곡검사소
전주면사무소	전주연초경작조합	합자회사 이엽사	전주격리병사
전주면 도살장	전주 화장장	호남총포화약주식회사	

다가공원

전주신사의 경내는 거의 다가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울창한 솔밭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노송들이 구불구불 자리잡고 있어서 한층 더 풍치를 더해주고 있다. 자연이 내는 큰 바람소리는 문사들의 시 주머니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봄에는 신사의 뜰 안에 드문드

문 있는 매화 숲이 맑은 향기를 뿜어내고, 산 전체의 벚나무는 경내는 물론 밀림 사이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가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천 개의 구슬·만 개의 송이를 지닌 꽃이 비단을 수놓은 듯 피어나고, 여름에는 다가신교(多佳神橋)에서 큰 도리이(鳥居)를 거쳐 원내를 일별하듯이 당당히 서 있는 활엽림 또한 울창하여 짙은 푸르름을 뽐내면서 시원한 훈풍을 보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전주의 천변을 바라보는 일각에 산정에서부터 인공적으로 폭포를 만들어 작은 웅덩이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 아래 연못 속의 잉어는 발랄하게 헤엄치고 있고, 특히 연못 한 가운데의 분수가 주변에 그 분말을 흩뜨려 시원하고 상쾌하며, 일몰 전후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져 못 둑은 지극히 복작거린다. 가을에는 단풍과 푸른 소나무가 어울려 농염한 꽃보다 더 붉게 추초방자(秋草芳姿)를 다투는 가운데, 벌레 소리가 청량하게 근심어린 마음을 달래주어, 그 맑은 풍경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찬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듬성듬성해진 나무 위로 흰눈이 하얗게 내리는 기이한 풍경 또한 한층 더 볼만한 경관을 자아내어, 실로 사시사철 관상을 해도 끝이 없는 낙원이다.

길야산(吉野山)

다가산의 북쪽으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신설의 명승지로서, 산정에 요시노(吉野) 신사를 봉사하고 있고, 신사 곁에 세운 비명은 토고(東郷) 원수[23] 및 사이토(齋藤) 조선총독의 휘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야마모토 에츠조(山本悦蔵)가 건설한 곳으로 산 전체에 벚나무를 심어 '호남길야'라고 불린다. [지금의 화산이다]

4. 익산군

익산군은 전라북도의 서북쪽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544㎢로서, 18면 144

23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연합함대사령장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여, 동해해전(日本海海戦)에서 완승함으로써 일본 국내에서 영웅이 된 해군 군인, 토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를 가리킨다.

동리를 포괄하고 있다. 동쪽으로 전주군, 서쪽으로 옥구군, 남쪽으로 김제군, 북쪽으로는 충청남도 논산, 서천군에 접해 있으며, 이른바 전북평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논 22,400ha, 밭 5,413 ha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에 적합하고 기후 또한 온난하여 농작물의 발육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겨울에는 한기가 강하기는 하지만 농작물이 고사할 염려가 없고, 공기 또한 대체로 건조하기 때문에 수확물의 품질 역시 양호하다. 그중에서도 논벼와 같은 것은 수리관개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가 비교적 적고, 농사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진보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익산군 당국은 군농회·삼림조합·축산동업조합 등의 장려기관을 설치하여, 농사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가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농가경제의 온건한 발달을 기하고 있다. 주요 농사에 대한 개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벼농사

쌀은 익산군의 주요 농산물이고 1927년도의 작부면적은 22,870.5ha, 수확고는 22만 5천여 석에 달하며, 그중 70%가 우량품종이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확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책못자리(短册苗代)[24]의 실시·피(稗) 뽑기·적미(赤米) 제거·해작(害雀) 구제·건조 조제의 개선·자운영(紫雲英)의 재배 등을 열심히 장려한 결과, 그 성과가 최근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량종자의 통일된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근본계획에 기초하여 논벼 종자를 갱신하는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생산 종자를 일반농가에 교환·배포하여 종자의 갱신과 산미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리농사

보리도 쌀에 이어 주요농산물이다. 1927년도의 작부면적은 5,935ha, 수확고는 5만 8천여 석에 달한다. 대개 군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

24 폭 1m 전후의 단책형으로 구획을 만들고, 비료를 넣고 물을 넣어, 입춘에서 88일째 되는 날까지 씨를 뿌리는 못자리. 일본 메이지시대에 강요된 못자리 방식이다.

콩

1927년도의 작부면적은 3,218ha, 수확고는 2만 5800여 석에 이른다. 그런데 익산군 내 팔봉 및 금마의 일부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익산콩은 알갱이가 매우 커서 전 조선에 그 이름이 유명하며, 각지에서 종자용으로 쓰고자 하는 수요와 신청이 많아서 모두 다 응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잠업

익산군은 기후와 풍토가 모두 양잠하기에 적합한데, 일반농가는 농업 본위인 관계로 일부 영세농가 사이에서만 사육되고 있어서, 잠업의 발달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시대의 추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농민이 양잠은 부업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인지, 해마다 건실한 발달을 보여주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27년도의 누에소립 매수는 춘잠·하잠·추잠을 통틀어 3,057매에 달하여,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천 매가 증가하였다.

축산

소는 농경운반용을 겸하고 있고 또한 식용으로 이용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반 농민은 애축(愛畜)하는 마음이 깊지만, 익산군과 같은 평야에서는 사료가 비교적 부족한 관계로 인해 그 숫자가 지극히 적고, 그래서 경운을 해야하는 시기에는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군의 감독 하에 축산동업조합을 통해 개량과 증식을 위해 열심히 지도와 장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1927년도부터 퇴비를 생산할 목적으로 돼지 사육도 장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닭은 축산동업조합이 수년 전부터 개량종의 보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총수의 70% 이상이 개량종으로 바뀌었다.

가마니짜기

가마니짜기가 농가의 부업으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받아, 농민들이 1916년에 가마니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그것이 가마니짜기의 통일적인 지도장려 기관이 되었고, 연습회 등을 열어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경기회,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그

우열을 비교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기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의 공동구입을 권유하여 생산의 증가를 도모하는 등 극력 장려한 결과, 농민들도 점차로 가마니 제조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연 생산액 90만 장을 헤아리는 성황을 보여주고 있고, 품질은 전 조선에서 으뜸이라는 평을 얻어 해마다 생산은 증가하고 있고, 결국 현재는 농가의 유일한 부업이 되었다. 그리고 품질의 향상과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모두 생산검사를 시행하였고, 판로에 대해서는 지정판매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수급 관계가 지극히 원활해져서 생산을 조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추이가 진행되고 원료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150만 장의 생산을 달성하도록 극력 장려하는 중이다.

면화재배

익산군의 면화 재배는 1915년 북일·팔봉·익산의 3면에 걸쳐 약 3천ha를 재배한 것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 4월에 면작조합을 설립한 이래로 통일적 기관이 열심히 장려한 결과, 한때는 수십만 근의 생산을 보기도 했지만, 점차로 다른 유리한 사업에 압도당해 역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품평회나 지정면작리 등을 설치하여 극력 장려하고 있는 중이지만, 1927년도의 실 수확고는 17만 1천kg(28만 5천여 근)이었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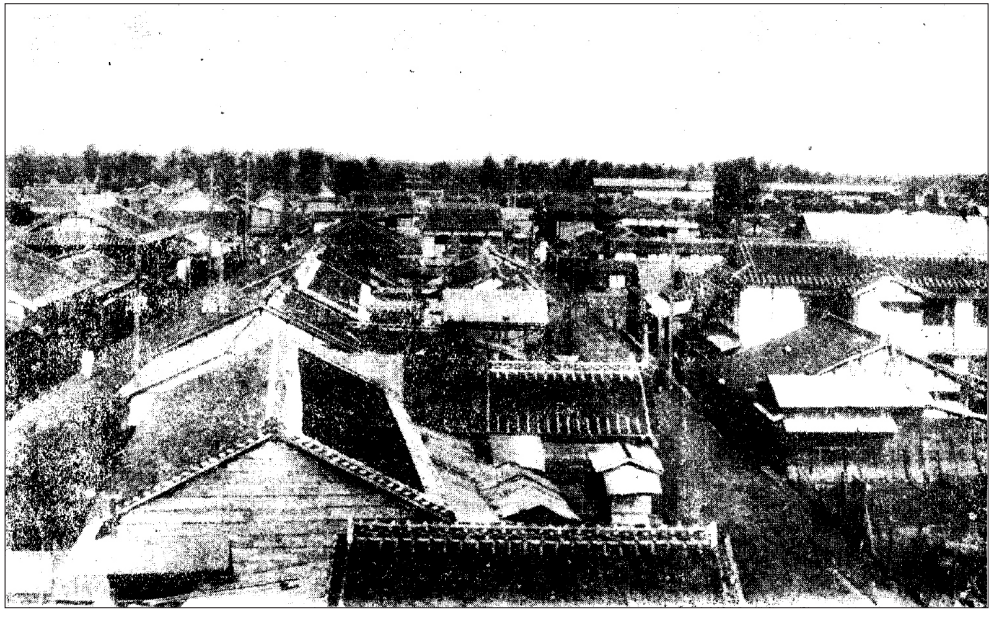
익산군의 일본인 교육은 1909년 대장촌소학교의 개설을 필두로, 그로부터 일본인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각지에 소학교가 설립되어 지금은 이리·오산리·대장촌·황등·함열·여산의 6곳에 소학교가 있고, 조선인 교육기관으로는 이리·금마·용안·함라·여산·웅포·춘포·오산·팔봉·삼기·왕궁·황등 등에 12개의 보통학교가 있다. 그 외에 중등교육기관으로 1922년 4월에 개설된 이리고등여학교(이리학교조합 경영)가 있다.

임업

임야 면적은 24,520ha이고 신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식림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벌을 엄중하게 단속하게 하여, 치수(稚樹) 보호의 길을 강구한 결과, 현재는 가는

곳마다 치수가 밀생하고 있고, 나무가 없는 땅은 전체 면적의 15% 내외에 지나지 않는 정도까지 되었다. 익산군 삼림조합은 그 이후 국유임야를 대부하여 개인조림을 장려하는 등, 민간시설과 함께 산림행정의 완성을 기하고 있다.

5. 이리



이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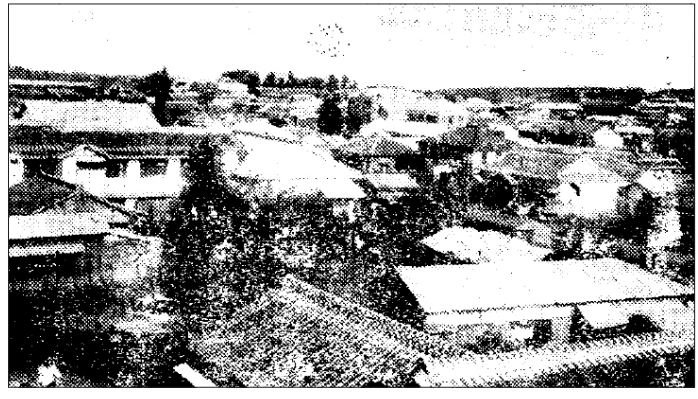
연혁

조선의 개척. 이곳에는 상당히 큰 사적이 남아 있고, 나아가 산업, 교육, 상공업 등의 분야에서 한층 더 진전을 보이고 있을 때, 그 어느 곳보다 더욱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던 신 개척의 땅 호남선 이리는, 지금은 경제와 교통, 상공업 발전이라는 점에서 전 조선을 통틀어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1906년 무렵에는 일본인이 불과 1호에 지나지 않았던 한촌 이리는 이와 같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팽창하여 인구는 증가하고 일본 내지로부터 많

은 사업가들이 이리 및 그 부근으로 이주 투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전북평야는 치수관개 시설과 농사 개량 등이 맞물려 호남에서 중요한 대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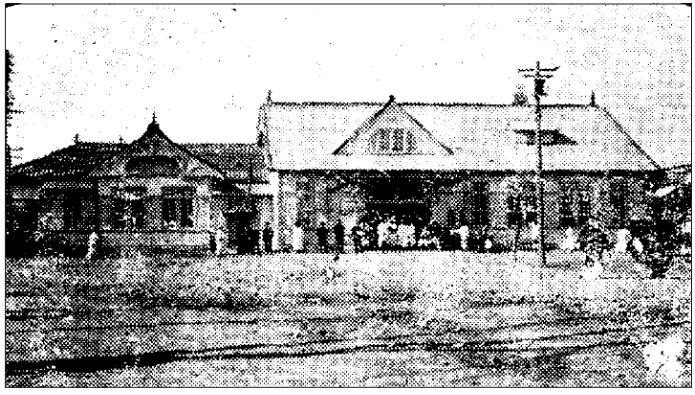
익산면은 전라북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리는 그 익산면의 중앙에 있으며 대전·목포·군산·전주로 가는 철도교차점이다. 시가지의 동북쪽은 푸른 빛이 떠도는 작은 언덕이 물결모양을 이루고 있고, 서남쪽은 만경강을 끼고 이른바 '옥야 천리'라 불리는 전북평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리에서 북쪽으로 약 2.4㎞ 떨어진 곳에 요교호(腰橋湖) 및 배산(盃山) 승지가 있다. 요교호는 그 둘레가 31.26㎞이고, 이 기형의 호수 주변에는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호수는 담수로서 부근의 관개에 이용하며 호수 가운데에는 뱃놀이 편도 있다. 배산은 요교호와 마주 보는 기암과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사이로 푸르른 평야를 바라보는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또한 이리의 동남쪽 약 1.7㎞ 지점에 월담호(月潭湖)가 있고 호수 주변에는 툭 튀어나온 반도형의 산맥이 뻗어 있으며, 그 위에 자리잡은 푸른 소나무와 어울려 풍광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이 산맥에 자리를 정해 이리신사를 건립하여 부근 일대를 월담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리 시가지 일부

기후

기온은 7-8월의 한여름에 32℃, 12-1월의 한겨울에는 영하4~영하3℃가 보통이기는 하지만, 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다. 여름에는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있고, 한겨울에는 삼한사온(四溫日和[25])이 있다, 물이 맑고 음료수로 적합하며 토지가 높아서 공기가 건조하여 건강한 땅이라 자랑하는데, 지금까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만연한 적이 없고, 땅이 비옥하여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고, 교통편도 매우 편리하여 실로 살기 좋은 낙원지이다.



이리역

교통

철도는 대전까지 88.1㎞, 목포까지 170.6㎞, 군산까지 22.9㎞, 전주까지는 24.8㎞ 떨어져 있고, 이리역의 승강 인원수는 매년 70만 명을 돌파하여 조선 굴지의 역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로는 이리역에서 직통하는 군산 및 전주선, 황등 및 함열선, 금마선과 대장 및 삼례선, 임피선이 있고, 각 방면 모두 정기 및 임시 자동차편이 있다. 또한 수운은 철도 개통 이전에 만경강을 이용하여 군산항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운송로였다. 철도가 개설된 후에는 조금씩 폐각되어 가는 느낌이 있지만, 해산물 수송선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

25 일본어의 사온일화는 겨울철에 4일간 따뜻한 날이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맑은 하늘까지 표현하는 말이다.

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만경강 개수공사가 완성되면 운수편이 크게 일신될 것이다.

교육

이리는 호남지방에서 상공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도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현재 있는 학교는 공립이리농림학교·공립고등여학교·공립심상고등소학교·공립보통학교·사립이리유치원 등이고, 1년에 드는 경비가 약 14만 4,130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인구

1927년 6월 30일 현재, 조사에 따르면 익산면의 인구 중 일본인은 호수 920호·남자 2,112명·여자 1,985명으로 합계 4,097명이고, 조선인은 2,112호·남자 5,121명·여자 4,418명으로 합계 9,539명이다. 외국인은 31호·남자 135명·여자 5명 합계 140명이며, 이리의 인구는 매년 평균 일본인 300명, 조선인 500명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이리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 이리지점·삼남은행 이리지점·전북상사주식회사·이리금융조합·익산금융조합 등의 금융기관이 있고, 모두 이리 경제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이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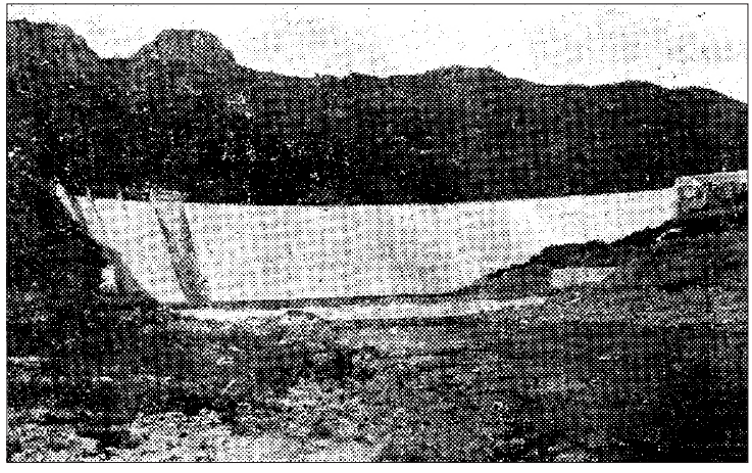
이리에는 다음과 같은 농장이 있는데, 모두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리지점·화성(華星)농장·우근(右近)상사주식회사 남선출장소·주식회사 대교(大橋)농장·주식회사 삼중(三重)농장

관공서·은행·회사

익산군청	익산군농회	이리경찰서	이리우체국
이리역	이리기관구	이리보선구	

조선총독부 내무국 이리토목출장소　조선총독부전매국 전주지국 이리출장소
전주지방법원 이리출장소　익산면사무소　이리학교조합사무소
익옥수리조합　전라북도 곡물검사소 이리지소　내외토지주식회사
제국재향군인회 이리분회　이리통송 합자회사　조선잠업합자회사
조선잠업주식회사　합자회사 사와다(澤田) 제사장
조선면화주식회사 이리조면공장　전주연초원매별주식회사 이리지점
호남총포화약주식회사 이리출장소

◈ 익옥(益沃)수리조합 사업 ◈



익옥수리조합 대아리저수지

계획의 개요

익옥수리조합은 주로 고산천(高山川)의 상류인 전주군 동상면 대아리에서 이전부터 총독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홍수방어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던 제언(堤堰) 지점에 석조 제언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비비정(飛飛亭) 부근의 만경강 입구를 개축하여 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종전의 약 3배로 만들어 대아저수지와 하천 수의는 충분히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지역의 끝자락 부분에 있는 간척지의 일부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비관개 기간에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를 끌어들여 기계의 힘으로 양수·저류하여 수량의 안전율을 높이고, 나누어주는 물이 부족했던 현상을 보충하였다. 나아가 임익수리조합지역에서 아래로 흐르는 탑천의 말단에 완벽한 일대 갑문을 설치하여, 그 잉여수를 이용함과 동시에, 탑천의 배수를 완전하게 하여 소요 면적에 대한 용수의 충실을 기함으로써, 물의 배급상태를 상류와 하류지역 모두 균등하게 조절하였다.

전주군 동상면 대아리의 제언은 고산 읍내에서 동쪽으로 6㎞ 떨어져 있는 지점에 천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낭떠러지 아래를 흐르고 있는 수로(河身)를 보로 막은 제언은 최고 수심 33.7m, 만수 면적 143ha, 수량은 약 2,030만㎥이다. 현재의 수로를 제언으로부터 8㎞ 정도 아래로 흘려보냈고,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는 고산 읍내로부터 하류 쪽으로 약 2,730m 지점에 어우리 (於牛里) 보로 재래의 취입 수로를 확장하여 봉동면 구미리에 이르게 하고, 이하 그 부근의 배수로를 이용하여 별산천으로 들어가 비비정 수로에 도달하게 하여, 경전선 삼례역 부근에서 구 임익 남부 수로로 유입시켰다. 한편, 구 임익남부수리조합의 현재 취입 언(堰)은 그 수위를 60㎝ 정도 상승시켜 영구적인 고정 봇둑으로 개축함과 동시에, 그 길이를 약 3배로 확장하여 수해를 제거하고 취입수량은 약 8.3㎥까지를 적당하게 취입할 수 있는 소요 정도로 각 수문 및 수로를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전익(全益)수리조합 수로를 잠관(潛管)으로 건너가게 하고, 이하 계획수로는 구 임익남부수리조합 수로를 확장하여 동산리를 통과하고 목천포(木川浦) 전군가도(全群街道)에 이르게 하고, 이곳에서 수로를 양분하여 하나는 재래의 간선(川手支線)으로 구 임익남부수리조합 지역 일대를 관개하고, 다른 하나는 전군(全群) 도로의 남쪽을 따라 서쪽으로 달리는 수로를 신설하였다. 이것을 다시 구 임옥수리조합지역의 기점인 지경역 부근에서 세 갈래로 나누고, 그 중 두 선은 구 임옥수리조합 개정면 지선 및 회현면 지선으로, 다른 하나는 그 중앙에 신설하여 서쪽으로 달리게 하고 옥산면 전유동 부근에서 구 임옥수리조합 남북옥산지선과 교차 분수시켜 구 옥구 읍내의 남쪽, 이곡리 부근을 통과한 후, 옥구서부수리조합지역을 횡단하여 미면 개사리 부근에 이르러 새롭게 확장된 간척지 지역으로 들어가 이 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다시 남북으로 분류시켜 남쪽은 구 읍면 하제리로 북쪽은 미면 산북리에 이르게 했다. 어우리 보에서 간선 수로 사이의

길이는 약 72㎞에 이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산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데에, 어우리 보는 재래식으로 호안공사를 실시하여 종래의 관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익수리조합지역 및 어우리 보 이하 삼례에 이르는 본 조합지구 외의 관개는 필요 수량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종래 모내기철의 가뭄으로 인해 7월에 들어서야 모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어졌고, 종래에 비해 아주 완전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본 계획은 지구 외의 수리도 완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계획수로는 지세로 보더라도 유효한 위치를 통과하게 했고, 지질 관계로 인해 상류에서 한 번 관개를 하고, 삼투수는 하류에서 본 계획수로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로를 지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은 아주 근소해졌을 뿐만 아니라, 만경강으로 삼투한 물은 우선 구 임익남부수리조합 취입 언(堰)에서 끌어들여, 그 물을 다시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중에 구역 바깥으로 물이 분수될 염려도 전혀 없게 되었다. 특히 여름철에 만경강의 수량은 산간부의 강우로 인해 물이 불어나는 일이 종종 있지만, 대아리 제언의 저수량이 이것으로 인해 조절됨으로써 그 효과가 한층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강우로 인해 만경강의 물이 불어나고 삼례 취입구에 끌어들인 수량이 증가하면, 그 양만큼 대아저수지에서 나오는 급수량을 감소 조절하게 된다). 그리하여 옥구 저수지는 비관개기간에 만경강의 물을 끌어들여 기계력으로 양수·저류해 두고 관개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저수지의 면적이 322ha·평균 수심 33m가 되었다. 탑천의 잉여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갑문을 입석리 및 오산리천 하류에 설치하여 만경강 연안의 저평지를 관개함과 동시에, 출수 시에는 배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상시에는 조수의 역류를 방어하는 방식이다. 즉 관개와 배수를 겸비하는 장치인 것이다.

구역 및 면적

익옥수리조합의 구역은 익산군 익산면 동산리 만경강에서 시작하여 남쪽은 만경강을 경계로 하고, 북쪽은 익산면 송학리 부근 및 군산지선 또는 전군도로까지이고, 서쪽은 구 임옥수리조합지역으로부터 구 옥구 읍내 부근의 작은 언덕을 넘어 구 읍면 및 미면의 미간척지를 포함하며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조합의 이익을 받는 면적은 9,780ha로 실로 조선에서 보기 드물게 광대한 땅이다.

수원(水源)의 상태

대아저수지의 위치는 만경강의 상류 고산천(유역 3,180㎢)의 한 지류로서 그 유역이 약 125㎢(면적 12,000ha), 비비정 부근 만경강 취입구 지점 근방의 유역 880㎢의 약 1/7을 조금 넘는 정도에 상당한다. 그리고 유역 내의 토질은 모두 편마암으로 되어 있고,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이 많아서, 대개 산 정상에 뾰족바위가 노출되어 있고, 수목은 작은 활엽수가 많으며 침엽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강우의 집수율이 비교적 크고, 토사 유출도 많지 않아서 저수지 유역으로서는 이상적이다. 제언 축조지점은 그 하상 및 오른쪽 기슭에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왼쪽 기슭은 약 10m의 덮은 흙(覆土)이 암반에 닿아 있다. 제언의 구조는 총연장 277m, 일류(溢流) 아치형으로 중앙 일류부의 연장은 187m, 양측에 물이 넘쳐나지 않게 한 부분(防溢部)의 길이는 약 80m이다. 저수 최대 수심은 34m이고, 넘치는 일류의 최대 수심은 1.6m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익

이미 설치된 수리조합 지역 내의 수확량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한결같지는 않지만, 단당(段當=0.1ha당) 평균 수확을 벼 1석 7말 5되라고 어림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여겨진다. 공사시설 후의 수확량은 단당 평균 4석에 이르지만, 이것을 3석 5말이라고 보더라도 평균 증가 수확량은 1석 7말 5되를 얻는다. 즉 벼 1석에 12원인 경우에 증수는 단당 21원에 상당한다. 또한 확장구역 내 천수답에는 공사시행 전 단당 평균 수확이 1석 내외였지만, 시행 후에는 적게 어림잡아도 단당 수확량이 벼 3석은 될 것이므로, 벼 2석을 증수하는 것이 된다.

- 2모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미 설치된 조합지역 내의 2모(보리)작 작부면적은 수리 불완전 등으로 인해 전 면적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사 시행 후의 작부면적은 거의 전 면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50%라고 예상할 때는 그 증가 면적이 약 2,800ha이고, 단당 평균 수확을 보리 1석으로 보면, 2만 8천 석에 달하게 된다.

• 노동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미 설치된 조합지역 중 상류 약 500ha를 제외하고, 그 외에 모내기 때에 물을 급수하고 보충하는 등 물을 대기 위해 물을 길어오는 노임은 실로 경시할 수 없다. 이 노동은 일반 농민이 가장 고통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노동력 사용의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선 단당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으로 전 면적을 평균하여 좀 적게 보아서, 1.5명을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사 완성 후에 감소된 인부 수는 실로 8만 4천 명에 이르게 된다.

사업비

사업비 금액 6,033,517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금액(원)
①	공사비	3,902,875
②	용지비	567,352
③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및 영선건축비	456,725
④	거치기간 중 이자	489,975
⑤	창립비	27,293
소 계		5,444,220
⑥	구 양조합 기채 미상환액	589,297
총 계		6,033,517

이 재원은 다음과 같이 일부가 충당되었다.

	내역	금액(원)
①	보조금	1,039,998
②	기채액	4,401,000
③	잡수입	3,222
총 계		5,444,220

부담금

① 기채액 4,401,000원 + 그 외 구 채무액 512,797 = 4,990,297원

② 이자

- 구 채무 512,797원은 연 8%
- 동(구 채무) 76,500원은 연 8.5%
- 신 채무 1,500,000원은 연8.5%
- 동(신 채무) 2,901,000원은 연 9.3%

③ 연부(年賦) 상환기간

- 구 채무 475,757원은 1929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 동(구 채무) 37,040원은 1935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 동(구 채무) 76,500원은 1950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 신 채무는 1951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④ 1년간 원리균등상환액 511,772원

⑤ 1년간 경상비 102,628원

⑥ 1년간 경비 총액 614,400원

상기 금액을 이익을 받는 총면적 9,600ha에 할당할 때에는

⑦ 0.1ha당 총 급비 6엔 40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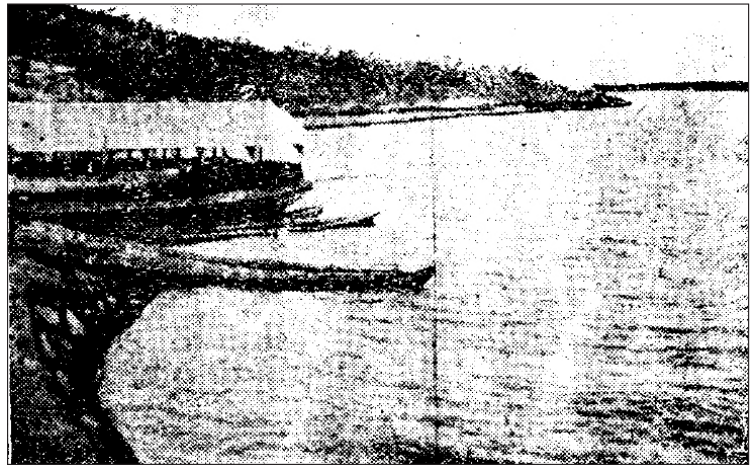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의 완성은 종래에 안고 있던 수리의 불확실성을 탄식하지 않고, 전주평야 서쪽 절반을 이상적인 상전(上田)[26]으로 만들어 매년 벼 19만 7천 석을 증수하게 하고, 기타 2모작 및 급수노동력의 이익 등을 합쳐, 매년 259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곡가가 1919-1920년도와 같이 고가가 되었을 때, 그 이익은 실로 6백만 원을 헤아리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 수반되는 부업의 발달 등을 포함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군산항 부

26 수확이 많은 좋은 논.

근의 경지개량은 그 효과를 한층 더 적절하게 하여, 갑진(甲辰)년[27] 이래로 농업경영의 발달이 뚜렷해졌다. 이 지방의 사례가 농사개량의 목적을 완전하게 납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현 조합장은 후지이 칸타로(藤井寬太郎)씨, 이사는 나카무라 야스오(中村安雄)씨이다. 그중에서도 나카무라씨는 이사로 취임한 이래, 사무를 쇄신하고, 녹비의 재배를 장려하는 등, 밤낮없이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임익(臨益)수리조합의 사업 ◈



〈사진〉 임익수리조합 황등저수지

사업 개황

임익수리조합은 1909년에 현재 조합장 후지이 칸타로씨가 수리사업의 급무를 통감하고, 그때부터 수차(水車), 우물 파기, 용골차(龍骨車)[28] 등 모든 수리 방법을 실험했는데, 임시변통으로 시행한 국부적인 수리는 아무래도 완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에, 대

27 1904년.

28 물을 자아올려 논밭에 대는 기구.

규모의 수리관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널리 부근의 산야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여, 고대(古代) 수리의 흔적을 찾아내어, 이것들을 부활시켜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현재의 요교제(腰橋堤)를 복구·수축(修築)하고, 여기에 수심 2.7m 즉 1,946만톤을 저수하여, 이 물로 옥구·익산의 양군 사이에 있는 논 약 3,400ha를 관개할 계획에 기초하여, 1909년 10월 1일에 그 취지로 창립 인가를 받았고, 이듬해인 1910년 2월 1일 기공, 1911년 5월 31일에 준공하였다.

공사

임익수리조합에서 시행한 공사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 요교제 남단 연장 54.6m 물넘김둑(溢流堰) 공사
- 요교제의 북단에 제2 관개용 수문을 설치하고, 매년 안전하게 저수를 할 수 있도록, 전주군 비비정으로부터 저수지까지 연장 12㎞의 용수로를 개발하고, 전익수리조합과 계약하여, 어우리 취입구부터 취수하여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고산천 용수를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공사.
- 전항에서 언급한 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 중간에 가로놓인 익산천을 넘어가기 위해 연장 118m의 '사이펀(굽은 유리관)'을 강바닥에 부설하는 공사.
- 위의 도수로가 당산천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연장 18.2m의 홈통다리를 설치하는 공사.
- 위의 도수로가 두천면에 있는 소산을 횡단하도록 하기 위해, 연장 673m의 터널을 굴착하는 공사 및 양 입구를 절취하는 공사.
- 관개용수를 배급하기 위하여, 제1 관개용 수문에 접속하는 관개수로 및 제2 관개용 수문에 접속하는 제2 관개용 수로 등, 간선 연장 31.7㎞의 건조공사.
- 전술한 간선수로에서 분기하는 지선 161조(條)[29], 연장 177.3㎞의 공사
- 관개수로로부터 지거(支渠; 분기된 개울)로 물을 나누어 주는 다수의 통문 공사. 용

29 이 조(條)는 토지를 구획하는 방식으로, 세로방향으로 나누는 구획의 단위이다.

수로 및 관개수로와 지거에 가설하는 다수의 교량 공사.

사업비

본 조합의 제1기 총액 20만 원을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아, 당시의 전주농공은행에서 차입하여 이자가 연 8.4%이고, 3년 거치 5년간 연부 상환 계획이었는데, 그 후 사업의 확장과 함께 사업비는 점차 증가하여 1921년도에는 61만 3,900원이 되었다.

완성 후의 이익

조합구역 내에서 종래에는 0.1ha당 수확은 현미가 불과 3-4말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으나,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1석 3-4말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최저 증가율이 약 1석이 된 셈이며, 총면적 3,400ha에 대해 3만 4천 석이 증수되었던 것이다. 쌀값은 평균 1석당 30원이었으므로, 0.1ha 당 1년에 102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수리의 완성과 함께 종자 및 시비 및 경작법을 개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1년 조금 후에는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여 13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적극적 사업

조선에서 농사는 모두 개량할 필요가 있지만 그 실행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수리조합의 성립을 기초로 하여, 조합이 일치단결하여 농사개량을 단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종 사업을 결행했다.

첫째, 종자의 개량—조합구역 내 전역에 걸쳐 우량종자의 개량을 실시 중이다.

둘째, 녹비의 일제 재배— 수리조합의 완성으로 인해 최대의 문제였던 홍수와 가뭄 피해는 완전히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종전과 같이 시비를 등한시하였던 탓일까 지력이 점차 쇠미해져서 더 이상 수확증가를 바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빈약한 조선농민들에게 고가의 비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워서, 조합지역 내는 녹비 자운영을 일제히 재배하게 하여, 최저가로 유효한 비료를 얻을 계획을 세워 192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량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셋째, 경지정리—조합지역 내는 가장 평탄하고 고저가 거의 없는데도, 경작도로, 배수

로 및 논과 논의 구획 등이 불완전하여 경작하기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고, 따라서 토지이용도 매우 비경제적이었다. 그래서 관개용수로의 지선의 간격을 각 455m로 하되, 직선으로 평행하게 하고, 그 중간에 배수로 및 경작 도로를 만들면서 논의 구획도 일정하게 하여, 지구 전체를 정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경작의 편의를 도모한 것.

넷째, 양어ㅡ조합 저수지 요교제는 그 둘레가 실로 40㎞에 이르고, 면적은 1천ha에 달하는 광대한 호수여서, 용수가 빠져나간 뒤에도 수심이 항상 40~112㎝인 곳이 약 150ha를 넘어서, 둑 내에 잉어를 방생하여 조합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근의 농민들에게 부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가마니짜기의 제조 부업의 장려ㅡ본 조합 설립 당시에 조선에서 일본 내지로 이출된 미곡은 매년 평균 150만 석 내외였고,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가마니는 300만 장에 달했다. 그런데 농사가 여전히 조잡하여, 양질의 볏짚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마니짜기에 사용하기조차 적절치 않아서 막대한 운임을 들여 모두 일본 내지에서 이입하는 현실이었다. 원래 이 지방의 농민들은 단순히 벼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부업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농한기에는 공허하게 빈손으로 무위도식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농민들을 빈곤하게 했고, 그 다수의 빈민에게 부업을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것은 실로 통절한 시대적 요건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 조합수리를 완성한 후에는 종자경작법을 개량하고, 충분한 시비를 하여 양질의 볏짚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가마니를 제조하는 법을 강습하여, 적당한 부업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한 결과, 지금은 구역 내에서 산출하는 가마니가 실로 수십만 장에 이르고 있어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 외에도 또한 당 조합원의 단체를 기초로 하여 서로 협력하여 각종 부업을 장려하고 있다.

부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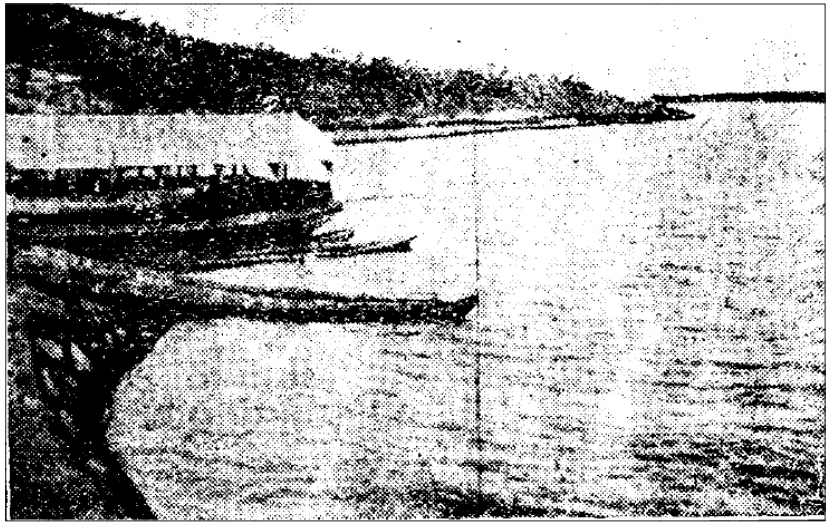
1926년도에 조합에 부과된 면적은 3,403.2ha로서, 부과금액은 11만 9112원이었다. 0.1ha당 3원 50전, 부과 인원은 669명이다.

조합장

현 조합장은 후지이 칸타로씨이다. 이 사람은 조합 설립 당시부터 조합장을 맡아서 오

로지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고 완성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사업성적이 양호해져서 오늘날의 호황을 보게 되었다. 또한 이사 기리하라 히코키치(桐原彦吉)씨는 사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운영의 재배를 장려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점차적인 수확의 증가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6. 옥구군



옥구군청

지세

옥구군은 전라북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84㎢ 안에 10개면 90개 동리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은 익산군에 접해 있고, 북쪽은 금강을 경계로 하여 충청남도 서천군을 마주 보고 있으며, 서쪽은 황해에 임해 있고, 남쪽은 만경강 너머로 김제군과 이웃하고 있다. 동북부 일대는 대평야지대로서 보통 전북평야라고 불리고 있고, 각종 농산물의 재배에 적당하며, 전라북도의 주요 농산지이다. 또한 연해 일대는 해산물이 풍부하여 연 생산액 100만 원을 돌파하는 성황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

교통기관으로는, 호남선 이리역에서 갈라져 군산항에 이르는 철도가 옥구군 관내 임피지경역을 거쳐 군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고, 또한 군내의 서수면의 일부는 호남선 황등역으로 나온다. 또한 도로는 일등 도로 전군선이 철도선로와 나란히 관내를 관통하고, 그 외에 삼등 도로는 대야면에서 임피면과 서수면을 거쳐 강경에 이르는 군강선, 군산에서 미면, 옥산면, 회계면을 거쳐 김제군으로 이르는 대포선, 대야면에서 김제군에 이르는 지경신창진선 및 임피에서 익산군 이리에 이르는 임피이리선 외에, 주요 지역 및 각 면사무소로 연계되는 등외 도로가 있다. 그래서 교통에 큰 불편은 없지만, 앞으로 상당히 개수할 필요는 있다.

축산

옥구군의 소는 주로 산간부에서 생산한 우량소를 구입해 왔지만, 최근에 이르러 일반 민간에서 우량 목우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종모우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 있어서, 축산조합에서는 6마리의 종모우를 배부하여 번식생산을 장려하는 길을 추진하였는데, 실로 놀랄만한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1927년 3월 현재 1,150마리가 있어서, 이는 농가 10호, 경지면적 15ha에 한 마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돈은 자급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까닭에, 옥구군에서는 개량종인 버크셔종의 증식 장려를 도모하고 있다. 지세상 군산부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부내의 일반 상가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이용하여 양돈의 개량증식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당 조합으로서는 점점 더 우량의 돼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종돈 버크셔를 구입·대부하여 개량 장려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 양돈 수는 6,200여 마리이고, 그중 개량종은 2,700여 마리이다. 그 외에는 모두 체격이 왜소하고 고기 맛도 좋지 않은 재래종 돼지이지만, 옥구군에서는 사료가 풍부하여 농가의 사육력에 잉여가 충분하기에 장래에 한층 더 증식을 시키고, 품종개량을 한 단계 더 높여 농가의 유일한 부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부하여, 군산·미면·개정면의 3개 면을 종돈생산부락으로 정하고, 개량증식보급장려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양계는 농가에 적합한 부업으로서 부녀자의 여가와 농산 및 주방 잔재물을 이용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 농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점이 적지 않다. 지금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함께 달걀과 닭고기의 수요가 날로 증진하고 있어서 필연적이다. 옥구군의 축산동업조합에서는 1924년도까지는 흰색 레그혼종, 나고야종, 로드아일랜드렛트종을 종계로 하여 장려해 왔는데, 2종류 이상 사육하게 되면 잡종을 생산할 우려가 있어서 1925년도부터 달걀과 닭고기 겸용으로 가장 우수한 로드아일랜드렛트종 한 종으로만 개량증식을 하려는 계획을 입안하여 로드아일랜드렛트종 생산에 전력을 쏟고 있다. 현재 양계 수는 1만 8천여 마리이고 1928년도까지는 철저하게 양계장려를 하여, 양계 수 5만을 헤아리는 성황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산

옥구군 관내의 수산업은 연도·죽도·개야도·오식도·고군산도·어청도 및 기타 다수의 도서를 근거지로 하며, 거주어업자는 1천여 호를 헤아리는데 일본 내지로부터 고기잡이를 하러 오는 통어자(通漁者)는 1천 8백여 명, 타도에서 온 입어자(入漁者)는 2,1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근래에 어구 어업의 개량발달과 함께 해마다 어획고가 증대하고 있고, 그 액수도 실로 1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 어획물은 주로 '조기·대구·민어·도미·멸치·삼치' 등이고, 이 가운데 제품화하는 것은 '말린 염장 민어·말린 염장 조기·말린 멸치·염장 조기·염장 대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 생산액은 19만 원 내외이다. 또한 어청도·고군산도·개야도·오식도 등에는 어업조합을 설립하여 일반수산에 관한 공동시설사업 및 어구개량사업에 힘쓰고 있다. 한편 어로의 개량발달을 기하기 위해, 어선을 개량하거나 어구를 건조하거나 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매년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보급을 도모하고 있는데, 1926년도부터 '근해 어선 보조규칙'이 시행되어 그 건조비의 1/3 이내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출원자는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방식은 실로 수산의 발달을 조성하는 길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본년도부터는 청류망(鯖流網)어업에 대해서는 어구 구입비에 대해 500원 이내에서 무이자 3년 연부 상환법을 설정하여 자금 대부를 시행하고 있고, 그와 같이 근해 어업의 장려를 도모함과 동시에 본년도부터는 '굴' 양식업자에 대해서도 그 시설비의 3/10 이내의 보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근해어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간척지 갯벌 이용의 양식사업에 대

해서도 각각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가마니짜기

옥구군 당국 및 민간 유지들은 조선 고래의 정성(情性)적 폐습을 타파하고, 농가경제의 완화와 자각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근검의 미풍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마니 제조가 매우 유리하고 적절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것을 장려하는 기획을 세우고 싶어 했다. 종래에 이 지방의 일반 관습 등을 참작하여 고려한 결과, 그 제일보를 내디딜 수 있는 모범 최적지의 선택에도 정성을 기울여 점진적으로 개발지도를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옛날에 왕골 및 죽세공 등의 부업을 했던 원 임피군 나포면 주곡리의 한 부락민을 장려의 제1 목표로 정했다. 그때부터 그 부락민들에게 역설하여 드디어 1911년 10월에 처음으로 가마니 제조조합 조직을 결성하게 하여, 손으로 짜는 수직제 가마니기계 20대를 일본 내지로부터 이입하여 제조 전습을 개시했다. 그 이래로 유지의 열성과 노력, 그리고 당국의 지도에 의해, 점차로 군내의 각 면에 제조조합 보급의 기운이 일어나 각 면에서 선발된 독지(篤志)강습생은 각자의 부락에 귀환하여 배치활동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가마니제조업이 발흥의 서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민간 유지들은 더 많은 제조판매조합을 창설하여 제조를 장려하고, 제품의 개량 및 통일판로의 확장에 진력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임피산업조합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동안 수 차례 파란곡절의 세월을 겪은 후, 드디어 1916년 10월 전라북도의 방침에 근거하여 각 면 조합을 통할하기로 하고, 새롭게 옥구군 가마니개량조합이라 불리는 군내 10면 8천여 명의 대단결을 조직하였다. 1921년 옥구군 가마니조합이라고 개칭하여 점점 더 그 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그 판로가 전 조선 각지 및 만주의 일부에까지 미치고 있고, 1년간의 검사 수는 150만장의 거액에 달함으로써, 부업 수업의 확고한 바탕을 쌓을 수 있었다. 초기의 목적을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는 기쁘기 그지없는 성황을 보기에 이르렀다.

또한 조합은 전라북도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생산과 관련된 가마니에 대해 검사를 하여, 검사가 끝난 제품을 당해 기간 내에 매수계약자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대금을 건네주기로 결정했다. 일반사무는 군수가 조합장으로서 이것을 통괄집행하고, 검사소

는 본부를 군산부 사카에초에 두고 임피 및 지경에 출장소를 두어 지방조합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조합은 군농회 설립과 함께 농회로 인계되었다. 또한 장려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김 군수와 스에오카(末岡)서무주임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축예금의 장려

가마니짜기의 수검판매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10전 미만의 잔돈이 생겼을 때는, 현금 대신에 우체국의 우표를 받아 그것을 자신 명의로 우표저금으로 만들어, 이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인출할 때에는 조합 주사가 인증서(認章)를 발부하기로 했다. 본년도부터 이 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을 실시하는 데 즈음해서 조합은 오로지 저금의 필요를 선전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제1회에는 회원 200명을 한도로 하여 자발적으로 입회 신청을 하게 하였더니, 수일 만에 정원을 채웠다. 그리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못 했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다시 제2회 100명의 입회를 허가했는데 이것 또한 금방 정원을 채우는 바람에 조합 사무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바빠져, 결국 따로 전무를 두어 취급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제3회 모집 때에는 1, 2회의 가입자가 스스로 저금 수속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킨 후에 신규 모집의 계획을 세웠다. 조합은 이 성적을 검토하여 우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려금을 각자 저금에 부가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② 부락에 저금조합(계)

조직 장려 생산자의 집단인 부락의 유지들에게 조직하게 한 저금조합은 그들의 자발적 계획에 의해 그 취지 및 성적이 지극히 양호했기 때문에, 조합은 특히 이러한 종류의 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원하여 더욱 조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조합원 중 빈곤자에 대해서는 가마니 짜는 직기를 급부하고 오래된 것은 교환해 주는 등, 특별히 보호 장려를 하고 있다.

인구

군내의 인구는 일본인 호수 482호·인구 1,818명, 조선인 호수 12,321호·인구 84,737명, 중

국인 51호·173명, 외국인 5호·11명으로, 합계 호수 16,859호·인구 86,739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

일본인의 초등교육기관으로 서수·불이·어청도·옥구·지경에 각각 소학교를 설치했고, 조선인의 교육기관으로는 임피·옥구·대야·신풍·성산·개정·어청도에 보통학교가 있어서 약 1,70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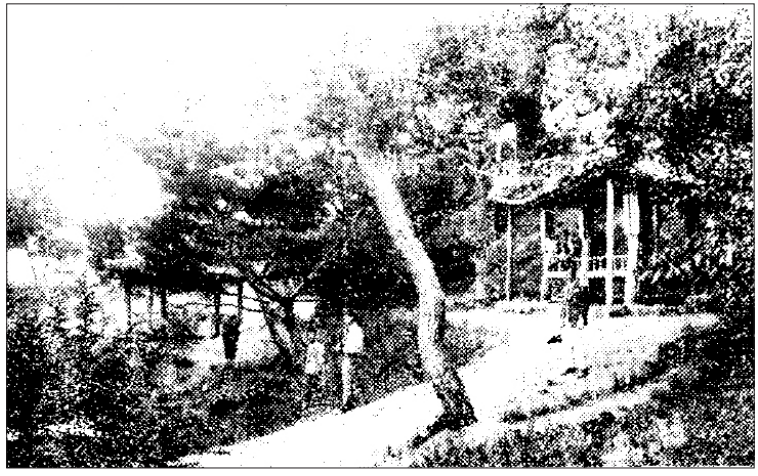
고군산열도는 크고 작은 2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며, 군산항에서 서남쪽으로 약 37㎞ 떨어진 바다 위에 있다. 옛날에는 수영(水營)의 소재지로서, 그리고 선박의 피난항으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져 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여러 봉우리가 솟아 있어 마치 성채와 같아서, 그래서 군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했다. 수영의 옛터는 선유도의 중앙 북면의 언덕 위에 있고,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의 옛날에 아군인 백제를 도와 나당(羅唐) 동맹군과 금강의 부여에서 싸우기 전에, 장졸들을 쉬게 하고 군용을 가다듬었던 곳이 바로 여기이다.

가까이는 20여 년 전의 청일전쟁에서 도요시마 해전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도 이 땅이다. 그 중에서 선유도는 풍광이 가장 명미하고 흰 모래와 청송, 게다가 바다 멀리까지 수심이 얕아서 해수욕을 하기에 적절한 서해 제일의 명승지이다, 어청도는 군산에서 74㎞ 떨어진 바다 위에 떠 있고, 동서 2.2㎞, 남북 1.7㎞이고, 둘레는 약 8㎞이다. 그 섬의 서쪽 언덕 위에 노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곳에 전횡묘(田橫廟) 있다.

7. 김제군

김제는 호남선의 중앙에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두 강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이며, 김제에서 동북쪽으로 24㎞ 떨어진 곳에 전주, 북쪽으로 12㎞를 가면 전군가도로 통하고, 또한 남쪽으로 4㎞를 가면 동진강과 만나게 되어 운반교통이 대체로 편리하다. 이곳도 호

남선 개통 전까지는 벽지의 한 소읍(小邑)에 지나지 않았지만, 1910년 철도공사가 개시되면서 호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일본의 이시카와현(石川県) 농업회사는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농사 경영을 개시하였다. 그에 이어 일본인 이주자가 증가하였고, 최근의 김제역 부근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김제 성산공원

인구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김제군의 인구는 일본인 623호·인구 2,572명, 조선인 22,034호·인구 120,232명, 중국인 43호·118명으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쿠마모토현(熊本県) 출신이 148명이고, 그 다음은 야마구치현(山口県)의 40명,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39명, 이시카와현(石川県)의 34명이다.

교육

일본인 교육기관으로 김제 및 부용에 공립소학교가 있는데, 김제소학교는 1911년에 개교하여 34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관리자인 하시모토 아키라(橋本央)씨는 1921년 10월에 부임하여 적지 않은 사재를 털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서기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씨도 여기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서기를 맡아 일해

온 근면한 사무원이다. 조선인의 교육기관으로 11개의 보통학교가 있고, 85,558원의 경비를 소요하며, 3,432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있다.

면화재배

1926년도의 작부면적은 899ha였고, 수확고는 343,837kg, 공동판매고 31,443kg으로 금액은 5,313원이었다.

잠업

김제군의 잠업은 1923년경부터 현저하게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뽕밭 면적이 315ha, 양잠 호수 722호, 누에소립 2,112장, 누에고치 수확량은 901석이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비율이 전라북도 제일이다.

가마니짜기

가마니의 제조는 조선 농업의 부업으로서 장려되고 있다. 1917년경의 1년 생산량은 불과 164,700장 정도였는데, 1924년도에는 일약 138만 5천 장 정도의 생산량을 보았다. 1926년도에는 146만 8천 장으로까지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가마니 제조에 종사하는 호수는 5673호이고, 판매가격은 27만 8,893원에 이르러, 1호당 평균 수입이 49원 16전이 되었다.

김제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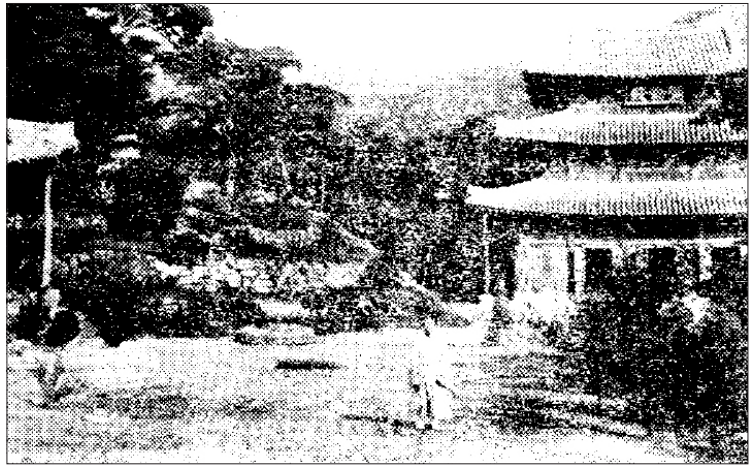
김제쌀의 특색은 품질 우량, 적미나 토사의 혼입이 없으며, 품질은 이시야마조(石山粗)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김제쌀의 명성은 전 조선에서 으뜸이라 알려져 있고, 오사카 시장에서의 시세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항상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 본년도의 이출 예상액은 48만 가마니에 이를 예정이다.

공업

공장으로는 정미 및 매갈이(糙米) 공장(23곳), 술 및 간장 양조장, 그 외의 공장이 있

고, 공업제품으로는 가마니·누에고치 제품, 면직물은 갓·무명과 비단 제품 등이 있으며, 연 생산액 약 3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명소 고적



김제 금산사

• 금산사

김제군 수류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326년 전인 백제 법왕 원년에 왕이 직접 관여하여 건설된 일대 고찰이다. 신라 선덕왕 2년에 자장법사가 칙명을 받들어 당나라에서 석가세존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탑을 만들고, 그 아래에 모셔서 현존하게 하였는 바, 그것이 바로 현존하는 송대석종탑(松臺石鍾塔)이다. 또한 신라 경덕왕 23년에 율사 진래(陳來)가 미륵존불 외 2개의 불상을 만들었고, 삼층보전을 건축하여 여기에 안치했다. 미륵불의 높이는 약 1.1m이고, 철과 흙을 섞어서 만든 불상이다. 후백제왕 견훤(甄萱)이 이 절을 우러러 신앙하는 마음이 두터웠으나, 그 아들인 신검과 불화를 겪어 여기에 유폐된 후, 신검이 고려에 항복하여 후백제가 멸망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1천년 전의 일이다. 이 절이 가장 융성한 것은 후백제시대였는데, 당시에는

승려 1,000여 명, 전당 수가 100개를 헤아리는, 전라도 내 사찰 중의 으뜸으로 각 절들을 통할하였다. 그 후, 절의 운이 쇠퇴하여 가던 중, 임진왜란 때에 불타버려서 재가 되어 버렸다. 현존하는 것은 그 후 재건한 것들이다. 후에 고종 21(1884)년에 약간 보수를 하였고, 1916년 특별보호건조물에 편입되어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 그 면모를 크게 일신하게 되었다.

김제신사

김제신사 창립에 관한 논의는 김제에 체류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다년간에 걸친 숙제였는데, 우연히도 1924년 봄에 '황태자 전하 성혼기념사업'[30]으로 추진하자고 중의를 모아, 김제읍내 성산의 땅을 택하여, 그 방면의 대가인 혼다(本多) 박사의 지도를 받아 건립하게 되었다. 신전은 1926년 5월 25일 상량하고, 다음 달 28일에 진좌제(鎭座祭)를 거행했다. 또한 신사에 인접한 곳은 김제성산공원으로 이름이 높고 정상에 오르면 김제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실로 풍광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김제신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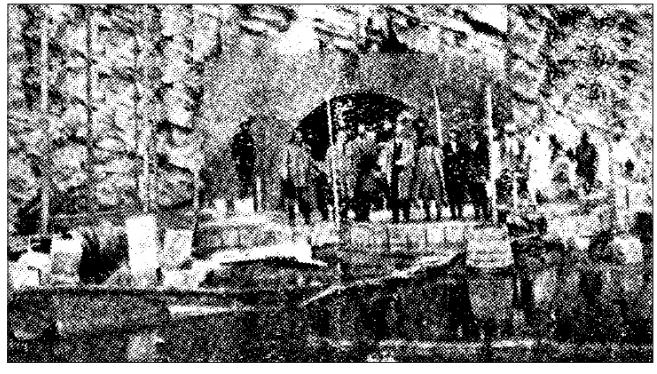
30 당시 일본 황실의 황태자였던 히로히토(裕仁)의 결혼식을 가리킨다.

◈ 동진(東津)수리조합의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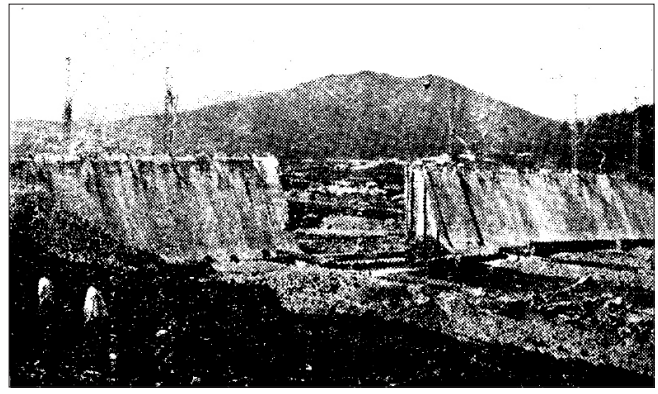
동진수리조합은 전라북도 평야부 중 김제, 정읍, 부안의 3군에 걸쳐, 14,560ha의 논과 간척지에 급수·관개할 수 있도록 1925년 8월에 인가를 얻어 조합이 성립되었다. 이 조합의 목적은 동진강 평야 1만 수천 ha의 가뭄 및 중류부의 약 6천여 ha의 홍수 피해를 제거하고, 산미의 증식을 도모하여 농가경제의 향상발달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지방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점이 적지 않다. 조합장으로는 계획 당초부터 공로자였던 전 전라북도 지사 이스미 추조(亥角仲蔵) 씨가 취임하여 사무소를 김제면에 두었고, 그때부터 착착 공사가 진척되어 1928년 5월에 전체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용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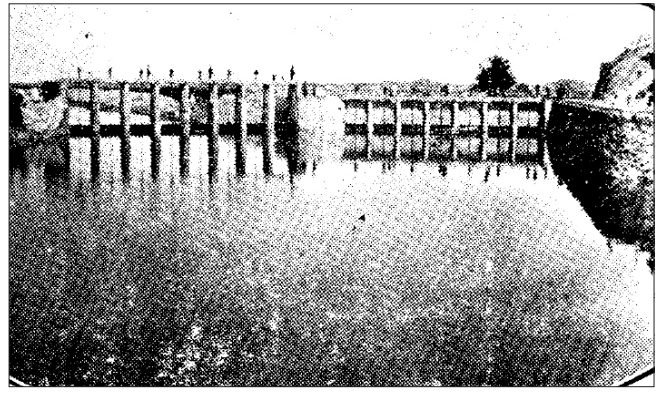
본 조합의 이익을 받는 지역의 관개에 필요한 수원은 저수지로 하기로 정하고, 섬진강의 본류와 추령천의 합류점에서 하류로 약 1.3㎞ 내려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주소(舟所) 마을에 진흙을 섞은 둑을 설치하여 유수를 가두어 저장한다. 그 저수는 제언의 상류 약 4㎞ 지점인 김제군 운암면 운정리에서 터널을 파서 정읍군 산내면 종산리로 낙하시켜 동진강으로 유입하게 하고, 그 물을 김제군 태인면 낙양리에 이르게 하여 취입구를 설치하고, 이것을 좌우의 김제·정읍 양 간선 용수로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낙양리 취입구 상류 및 각 간선에는 지선을 분설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지거(개울)를 만들어 평야부인 몽



동진수리조합 저수지 길닦기 공사



동진수리조합 저수지 공사 상황



동진수리조합 평야부 낙양리 취입구

리 지역으로 배수하는 것이다. 또한 김제 간선의 말류 지방 관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하고, 죽산보 및 신평보를 개수하여 종래의 수원을 이용하기로 한다.

배수계획

벽골제의 동쪽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약 6,000ha의 홍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종래 죽산면에 설치되어 있던 죽산 갑문에 이어붙여 새롭게 갑문을 신설함으로써 배수 능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원평천을 개수하고, 또한 정읍군 감곡면 삼평리를 기점으로 하여 벽골제를 거쳐 김제군 죽산면 연포리에 이르는 신 배수로를 파고, 연포리에 갑문을 신

설하여 동진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

김제군 성덕면·월촌면·백산면을 흐르는 신평천 유역 약 600여 ha 및 정읍군 이평면, 부안군 백산면으로 흐르는 저지대 약 400ha는, 종래에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 간선이 이 지방들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홍수 피해가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에 배수시설의 필요가 생겨났다. 그래서 종래의 하천을 개수하여 새롭게 배수를 위한 지선을 신설한 것이다.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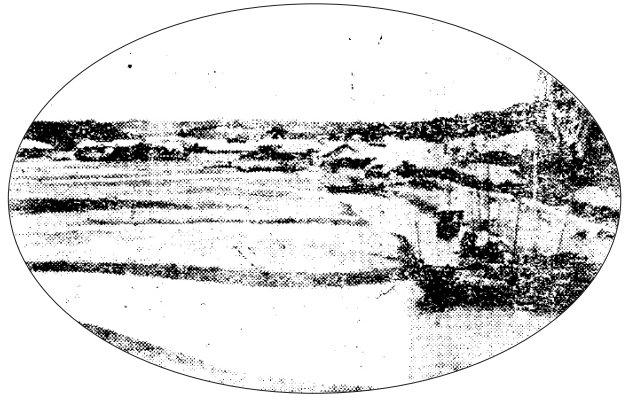
본 조합 사업 이전에는 평년의 총 수확량이 23,4170여 석이었고, 사업 완성 후에는 403,560여 석이 되어 정산을 해 보면 0.1ha당 1석 1말 6되, 합계 169,800여 석이 증수된 셈이다. 지금 이것을 1석 13원씩으로 계산하면, 매년 증수고가 실로 219만 8,100여 원의 거액이 되고, 전술한 것 중에서 연부 상환기간 중의 매년 부담액 659,945원을 빼고도 153만 8,100여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0.1ha당 약 10원 56전의 이익에 상당한다. 그리고 그 외에, 짚의 증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면, 0.1ha에서 짚을 약 101kg 정도 증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1년에 16만 원이 되고, 또한 2모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 현재는 조합 지역 내의 2모작(보리) 작부면적은 갯벌을 제외하면 전체 면적의 5/100에 불과하지만, 공사 시행 후의 작부면적은 거의 전 면적(갯벌은 염분 제거 비료 등의 관계로 인해 당분간 작부가 불가능하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내부적 관점에서 싸게 견적을 내어 30%라고 하더라도, 그 증가 면적은 약 3,500ha이 된다. 0.1ha당 평균 보리 1석이라고 보면 35,000석에 달하며, 가액으로는 35만 원의 이익이 된다. 또한 그 외에 물을 끌어올려 하는 관수·수리 감시 등 그 외에 필요한 노동력 방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다.

8. 부안군

지세

부안군은 전라북도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정읍·김제의 2군, 남쪽은 고창군

에 접해 있으며, 서북방 일대는 황해에 임해 있고, 작은 하나의 반도를 이루고 있다. 서남부는 산악이 중첩되어 있어서 이것을 변산이라고 부르며, 산중에는 내소사·실상사 등의 명찰이 있다. 동진강은 부안군과 김제군과의 경계를 흐르고 있고, 40여 ㎞가 넘는 유역의 땅이 비옥하며 농경에 적합하여 전라북도의 주요한 농산지이다. 그리고 동진강은 만조 시에 강 입구에서 대략 8㎞ 지점에 작은 배가 항행할 수 있을 뿐 연안은 일반적으로 바다 멀리까지 수심이 얕아서 배의 정박지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다만 줄포항은 배후에 고부 평야가 자리잡고 있어서 고부·정읍·흥덕·고창 등의 각지로 통하는 요충지에 해당하며, 또한 어항으로서도 전라북도 유수의 항구이며, 특히 군산-목포간을 항행하는 기선의 기항지이다.



줄포항

인구

줄포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부안군내의 인구는 일본인 174호·727명, 조선인 15,123호·75,567명인데, 일본인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

일본인의 교육기관으로 줄포공립심상소학교 및 부안공립심상소학교가 있다. 부안공립심상소학교는 1913년 5월에 개교하였고, 현재 생도 수는 58명이다. 또한 그 외에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부안·줄포·부서·백산·주산의 각지에 보통학교가 있고, 생도 수는 2,190명에 이른다.

수산

부안군의 해안은 일반적으로 바다 멀리까지 수심이 얕고, 조석 간만의 차가 뚜렷하며 갯벌이 이어져 있어서, 조개류의 양식이나 염전을 하기에 적합한 넓은 구역을 가지고 있다.

연해가 일반적으로 바다 멀리까지 얕은 까닭에, 대형 배나 거대 선박이 닻을 매어두기에는 편리하지 않지만, 다만 줄포만 내 웅연도는 수심이 깊고 만 내에 항상 파도가 없어서 목포·군산 간의 정기 아침 우편 기선이 기항하고 있다. 어선의 근거지로서는 계화도·문포·의복리·격포·도청·웅연·줄포 등이 있고, 수산물의 집산지인 줄포·의복리·부안읍내는 봄·가을의 어기에는 어획물 운반선의 입진 및 입하가 많고, 특히 줄포는 유명해서 매일 수십 척이 입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류는 쓰시마 해류 및 리만 해류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근해 멀리 고군산열도가 늘어서 있어서 자연스럽게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어류의 회유 또한 풍부한 해역이다. 어획물은 연안에서 생산되는 조개류와 함께 조선인들의 기호에 맞아, 연 생산액 4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어업

부안군의 어업은 종래에는 연안어업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 근해 어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던 상태였지만, 관청의 지도장려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더욱이 근해에 일본인 통어선이 몰려 와 사방으로부터 받는 자극들이 발전의 기운을 촉진시켰다. 연승·안강망 등 일본식의 어업으로 개변(改變)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된 어획물은 조기, 갈치, 민어, 준치 등이고 모두 연 생산액 30만 원 내지 40만 원 이상이며, 도미·삼치·방어 등은 어획이 많지 않지만 그 회유가 풍부할 것이라 예상되어 장래에는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 촉망받고 있다. 현재 어업의 주요한 흐름은 의복리 및 줄포만 내의 방렴(防簾)[31]·계화도 근해의 연승, 고군산도 근해의 안강망 어업이다.

---

31 바다에 발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재래식 고기잡이.

수산 제조

어획물은 조선인의 기호 및 소비시장과의 관계상 주로 날생선 그대로 반출되고 있어서, 제조업으로서는 특별히 볼 만할 것이 없고, 어업자 또는 거래업자를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규모도 작은 것은 물론이고, 제품도 조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로 염장 조기·염장 갈치·염장하여 말린 조기·새우젓 등의 산출이 있을 뿐이고, 도내 또는 인근 도의 수요에 겨우 맞추고 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제조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동진면의 새우알 젓갈·말린 새우·의복리의 말린 새우·말린 오징어 등은 생산액이 아직 그리 많지는 않지만, 특산품업자들은 장래의 수출용 제품으로 어업의 발전과 함께 생산액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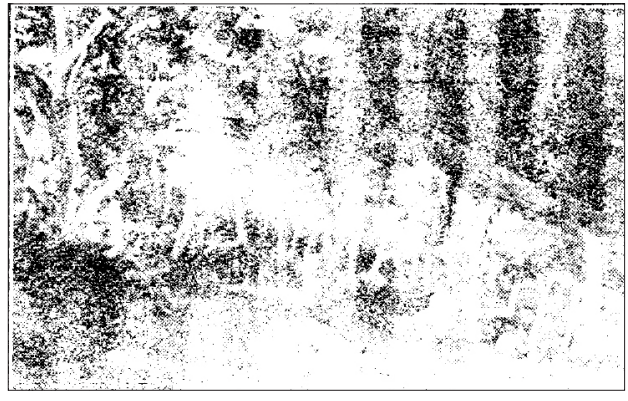
변산은 부안군의 한쪽 끝 해면에 돌출되어 나온 작은 반도이고, 고래로부터 능산(楞山) 또는 봉래산이라 불렸다. 산속에는 가는 곳마다 기이한 명승고적이 산재해 있고 이른바 남부 조선의 금강이다. 옛날에 나라의 재부(材府)라고 칭해졌고, 하늘을 가릴 정도로 솟아오른 나무줄기들이 늘 마르지 않고 울창한 대삼림을 만들고 있다. 그 면적이 11,600여ha이며, 궁실의 선함 제작에 사용되는 목재는 모두 이 산에서 나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황장봉산(黃腸封山)으로서 보호받아 왔지만, 1894-95년경부터 관리 기관을 폐지하고, 사람들이 남벌하거나 폭취를 해도 방임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각 주위의 청림을 제외하고는 아름다운 숲이 모두 그 자취를 감추고 붉은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적은 기암괴석 사이로 구불구불하고 마디가 많은 소나무만이 드문드문 서 있거나, 또는 몇 군데 노령의 잡목이 군생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어린 나무나 잡초만 무성한 풍경을 볼 수밖에 없는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숲의 부활을 기하고자 1913년에 구분 조사를 완료하고 바로 변산삼림보호구를 설정하여 아주 열심히 보호·단속에 노력하였다. 동시에 산림과 출장소를 설치하여 '무립목지조림치수보육임종(無立木地造林稚樹保育林種)'의 갱신을 도모하여 온 결과, 오늘날에는 가는 곳마다 푸르고 아름다운 숲이 있고,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일변하게 되었다. 한편, 사유림이나 연고림 등도 법규를 주지시키고, 당국이 지도하고 장려한 결과, 근래에는 무모한 벌채

를 하는 사람이 줄었고, 숲의 양상도 급속히 양호해지고 있다, 그중에서 석포리의 상수리나무와 적송의 혼합림과 같은 것은 전북의 모범림으로 자랑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고, 내소사의 전나무숲·월명사의 적송림·쌍선봉의 대삼림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유물로서, 그 우아하고 웅장함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변산은 가까운 장래에 남부 조선에서 무진장의 삼림변산으로 미화되고, 경승지로서 조선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천연공원이 되어 유람객들이 칭송해 마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금융

부안 유일의 금융기관으로 부안금융조합이 있다. 이 조합은 1912년에 창립되었고, 현재의 조합원은 837명, 대부금은 총액 14만 2천 원, 예금액 12만 원으로 점점 더 견실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 이사 요코야마 쿠니오(横山邦雄)씨는 1924년 7월에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내외로부터 모두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서림(西林)공원



부안 서림공원

• 상소산

상소산은 부안 읍내의 뒷편에 넓게 펼쳐져 있는 해발 150m의 산으로서, 그 모습이 품위가 있고 조망이 절경을 이루는, 호남에서는 드물게 보는 명산이다. 산 전체의 일면에

백일홍, 단풍, 벚꽃 등의 낙엽수가 울창하며, 평탄한 산길은 자동차가 넉넉히 산봉우리까지 올라 가기에 충분하고 그 중턱에 서림정이 있다. 고풍스러운 정자 부근은, 봄에는 싱싱한 신록과 백화가 흐드러져 봄의 아늑함을 맛볼 수 있고, 여름에는 나무그늘에서 삼복의 뜨거운 열기를 잊을 수 있고 가을에는 단풍에 술을 데워 가을 경치를 상찬하게 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산 전체가 모두 흰 눈꽃으로 장식되어 은빛 세계로 바뀌는 풍정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한 폭의 명화이다.

서림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읍내는 숲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하고, 광활한 조선 제일의 대평야를 사이에 두고 멀리 소백산맥의 봉우리들이 보인다. 여기서부터 산을 몇 구비 오르면 해망정이 있다. 조망이 넓고 활달하여 사방으로 전개되고, 한가롭고 우아하며 청신한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라 미기(美妓)를 데리고 술 한잔 기울이며 아름다운 시를 음미하는 것 또한 하나의 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산허리에 혜천이라 불리는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고, 그 부근에 노출된 암반에는 고금의 명사들의 시문을 새겨둔 것이 널려 있다. 산봉우리에는 성황사가 있고, 멀리 바라보면 망망한 황해가 펼쳐져 있으며, 땅끝 멀리 운무 가운데로 계화도와 고군산열도가 마치 꿈처럼 떠 있어서, 만상의 경치가 천변만화하여 말 그대로 호남의 일대 낙원다운 느낌이 든다.

• 부안 읍내

부안 읍내를 중심으로 신태인·김제·정읍·고창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사통발달하여 김제·신태인·줄포·전주 사이에는 정기자동차 편이 있고, 인마(人馬)를 연결해 주는 역으로서 그 왕래가 매우 빈번하다.

• 서림공원

상소산은 옛 이름을 성황산이라고 하는데, 당의 장수 소정방이 이 산에 올랐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그 후 다시 상소산이라고 칭하고, 옛날에 산 중턱에 육각정을 세워 서림정이라고 이름한 지 수십 년이 흘러 나무가 썩고 노후화하여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져버렸다. 현 부녕면장이 이를 크게 염려하여 동분서주한 끝에, 올해 봄에 군내의 유지들로부터 1만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현재와 같이 규모가 광대하고 미려한 서림정을

신축복구하였다. 그리고 해망정을 건립하고 산기를 보수하여, 완전히 구태를 벗어나 그 면목을 일신하게 하였다. 민중들을 위한 시설로는 중턱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산기슭에는 사정(射亭)이 있고, 가까이에 탕춘대·애풍각 및 공회당, 신사 등을 건설하고자 계획 중이다. 서남쪽으로는 멀리 변산을 바라보고, 동남쪽은 넓고 아득한 조선 제일의 대평야가 펼쳐지고, 그 안에 신태인·화호리·김제·정읍 등의 도회지들이 점재하고 있다. 부근 일대는 동진수리조합·고부수리조합의 이익을 받는 구역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설하게 될 부안수리조합을 가지고 있어서 관개 시설면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다. 또한 북쪽에는 안성보가 있어서 충분히 발전의 여지가 있으며, 이곳으로 여행오는 사람도 날마다 증가하는 경향이다.

9. 줄포항

줄포항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어항이고, 또한 서해안에서도 유일한 항구로서 이미 세상에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항만의 설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큰 배들이 정박하기에는 편리하지 않지만, 다만 줄포만 내의 웅연도가 수심이 깊고 만내에 항상 파도가 없어서, 목포-군산 간의 정기아침 우편 기선의 기항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줄포는 다나카 미츠마사(田中光政)씨의 간척사업 및 시가지 계획이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줄포는 완전히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성되는 날에는 좋은 항구로서 그리고 어항으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줄포는 어항으로서가 아니라 미곡의 집산지로서도 매우 주요한 위치에 있고, 현재도 줄포항에서 군산과 다른 지역으로 이출되는 미곡은 매년 약 10만 가마니를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줄포항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어항이기 때문에 연간 어류의 어획고는 40만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줄포의 유력자로는 다카하시(高橋)·아오키(青木)·도가시(冨樫)씨가 있고, 그들은 일치 협력하여 이 지역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해운

줄포항은 바다 멀리까지 수심이 얕아서 큰 선박이 들고 나기에는 불편하지만, 미곡의 집산지이기 때문에 범선의 출입이 매우 빈번하고, 또한 군산항과의 해로 연락을 위해 줄포해운조합이 있다. 이 조합은 1912년 9월에 창립되어 현재는 2척의 기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산·줄포 간을 직항으로 해운 편을 온전히 담담하고 있다. 조합장은 김계수(金季洙)씨이고 다카하시 젠타로(高橋善太郎)씨가 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1908년에 줄포에 거처를 정한 이래 이 지역의 발전과 조장을 위해 공헌해 온 원만한 평화주의자이다.

교통

교통기관으로는 줄포운수조합이 있다. 줄포-정읍·줄포-부안·줄포-흥덕 사이에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정읍-줄포 간은 매일 아침·점심·저녁 세 번 왕복, 부안-줄포 간은 매일 1왕복을 하여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가시 켄고씨가 경영 임무를 맡고 있다. 도가시씨는 이 지역의 학교조합 관리자를 맡고 있는데, 의지가 견실하고 사려가 깊으며 식견이 풍부한 인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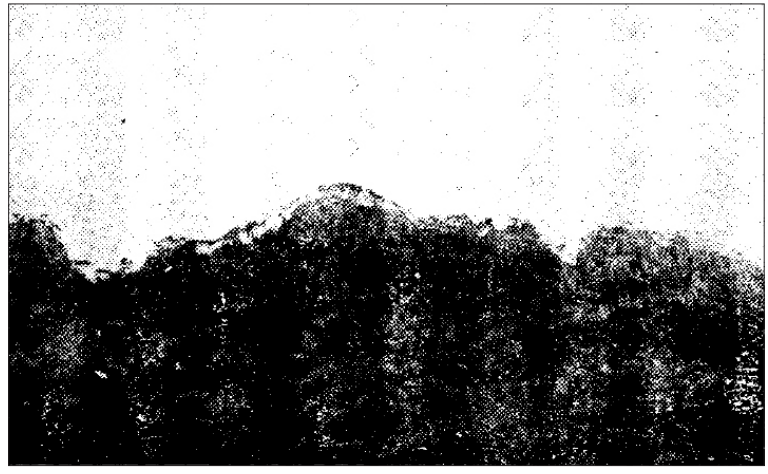
금융

이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조선식산은행 줄포파출소가 있는데, 이곳은 매년 결손을 계속하고 있다. 그 외에 줄포금융조합이 있다. 1921년에 설립되어 현재 조합원 546명·대부금 8만 4천 원·예금 3만 8천 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 이사 가와나베 카네오(川邊兼雄)씨는 1923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이사로서 업무의 확장과 지방금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사이에 신용이 두텁다.

교육

줄포의 교육기관으로 공립소학교 및 공립보통학교가 있다. 소학교는 1910년 개교하여 현재 조합원 66호, 경비는 매년 3,300여 원이 소요된다.

10. 정읍군



정읍 내장산

산업

보통 농사는 정읍군 산업의 주체이고, 풍흉 여부와 진보의 속도는 농가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일본 내지의 식량문제의 해결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보통 농사의 진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1927년 말의 정읍군의 농가는 총 호수 21,089호·인구 123,618명으로 군내의 총 호수 26,201호 가운데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면으로 보면 90%에 상당하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지주 259호, 자작농 818호, 자작 겸 소작농 6,386호, 순소작농 15,827호로서, 자작 겸 소작농 이하가 95% 이상이고, 농업의 중견을 이루는 자작농은 3.5%를 조금 넘는데 불과한 상태이다. 또한 매년 경제계의 불황으로 인해, 토지를 방매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주가 자작농이 되고, 자작자가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21년의 소작농이 1923년에는 850호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1921년에 농가 1호 대비 논 면적 0.79ha, 밭 0.31ha였던 것이, 1924년 말에 0.82ha, 밭 0.32ha가 된 것은, 농가 외로 전업을 하거나 또는 군 외로 이주했기 때문에 감소한 일면도 있고, 황무지 개간 등으로 인해

면적이 확장된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 농회에서는 벼 종자 갱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벼 종자를 갱신하고, 또한 원종답(原種畓), 면주(面株)종답 등을 설정하여 우량종자를 배포하고, 단책형 못자리와 피뽑기·볍씨 고르기·벼 개량증수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산미증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1927년도의 벼의 실 수확고는 184,344섬이다.

축산

정읍군의 가축 총수는 축우 3,646마리, 돼지 10,403마리, 닭 52,439마리로서 농가 호수 21,089호의 사육 보합을 나타내면 농가 7호에 대해 축우 한 마리, 돼지는 농가 2.5호에 대해 한 마리, 닭은 농가 1호에 대해 2.8마리의 상황이다. 그리고 정읍군의 경지면적 26,300여ha에 대비하면 7.3ha에 대해 축우 한 마리의 비율이다. 그런데 육성 사역지인 평야부 각 면이 10ha 내지 14ha에 대해 축우 한 마리의 상태라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즉 정읍군 증식표준인 농가 10호에 대해 축우 5마리, 돼지 8마리, 닭 40마리의 소요를 생각하면 심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량증식은 촌각을 다투는 급선무이다. 생산지인 산간부는 암소를 사양하는 곳이 많고, 농가에서 2-3호에서 사육하는 소의 비율이 한 마리임을 보여줌으로써 정읍군 증식표준에 조금 가까이 다가갔고, 평야부는 농경 관계로 인해 숫소의 사양이 많은데, 모두 체고 140㎝ 이상의 숫소를 사육하고 있다. 그리고 정읍군의 축산조합에서는 개량증식에 극력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개량방침은 아래와 같다.

• 제1 개량방침

① 축우는 체격의 증대를 완비하는 것은 물론, 빨리 성숙하고 빨리 살이 찌는 성질을 부여할 것

② 돼지는 전라북도의 장려종인 버크셔종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 이것을 재래종과 교배함으로써 잡종 생산을 도모하여 빨리 살이 찌는 성질을 부여할 것.

③ 닭은 여러 종의 개량종이 있지만, 본 군은 단관백색의 레그혼종, 나고야종, 미카와(三河)종을 개량의 방침으로 삼는다

• 제2 개량의 목적

① 축우

가. 두부 및 귀는 너무 길게 만들지 않고, 이마가 넓고 코 기둥이 똑바르고 뺨이 풍성하고, 둥근 뿔은 그 질을 치밀하게 만들고, 눈은 크고 쾌활하며 콧구멍은 골이 크게 넓어져야 한다.

나. 목은 머리 및 견갑부의 부착이 양호하고, 너무 길지 않고 중등급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고 융기된 가슴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상으로 발육한 것, 암컷은 반대로 가늘고 길 것

다. 앞쪽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고 견실하며, 양 어깨 사이에 적당한 폭을 가지고 현저하게 열려 있지 않고, 어깨 뒤편의 근육이 충실하여 앞쪽 몸이 넓고 또한 깊어야 한다.

라. 가운데 몸 등선이 똑바로 열려 있고, 갈빗대가 넓고 허리는 수평으로 이어지고 넓으며 또한 배는 풍부하고 굳건하며 정강이는 조금 깊어야 한다.

마. 뒷몸 십자부의 엉덩이 부분이 넓고 대퇴부가 충실하며, 꼬리와 등선이 일치하여 요각(腰角)의 수평부에서 아래로 향하고, 꼬리살이 풍부하고 유두는 정위치에 있고 유좌가 넓으며 유선이 잘 발달하고, 수컷은 음낭이 적당하게 아래로 향해야 한다.

바. 네 다리 및 걷는 모양이 사지가 강건하고 관절이 크고, 힘줄이 굵고 건조하면서 긴축되어 있고, 앞다리는 정제되어 연결부위가 분명하고 길지 않으며, 발굽은 그 모양이 바르되 작지 않고, 치밀하며 견고해야 한다.

사. 피모 및 피질의 탄력이 있고, 털은 적색 또는 짙은 적색이고, 아주 촘촘하고 광택이 나야 한다.

아. 체구의 비례. 체격의 완성기에 수컷은 139㎝ 이상, 암컷은 132㎝를 목표로 하되, 체구 각부의 비례가 좋아야 한다.

임업

정읍군의 임야면적은 약 38,000ha인데, 정읍군 전체 면적 7만여 ha에 비하면 실로

56%를 차지한다. 따라서 그 임업정책의 적부(適否)는 단지 임산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산업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것이 소멸하고 성장하는 것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군 삼림조합에서는 학교를 설립하여 생도들에게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근로의 미풍을 양성하거나 또는 사영(私營) 묘포(苗圃)를 설치하여 사영 조림을 하게 하는 등 조림을 위해 극력 노력하고 있다.

모시(苧布)

정읍지방의 모시는 옛날부터 유명한 중요 산물이었고, 현재 작부면적 250ha, 생산량 93,750kg에 이르며, 1관(3.75kg)의 모시풀로 모시 5단(反)[32]을 생산하게 되면, 125,000단이 되고, 1단당 5원이라고 하면 이 가격은 62만 5천 원까지 상승한다. 정읍군의 중요 산물 중에서 그것을 상회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정읍지방에서 산출되는 모시는 대개 충청남도 서천지방으로 반출되어, 그곳에서 부녀자의 손으로 직물을 만들어, 우아하고 고상한 한산모시의 이름을 붙여, 조선 내 어느 곳에나 판로를 확장하여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원료의 산지인 정읍에서 생산하는 모시는 불과 3만 6천 단에 지나지 않고, 또한 판로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하등 모시이기에, 지극히 조잡한 제품만을 산출하는 슬픈 지경에 있어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매년 쇠퇴의 형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모시업에 관한 영업자를 망라하여 모시조합을 조직하였고, 이 조합에 여교사와 모시 검사원 각 1명을 두고, 또한 군에는 산업기수 1명을 두었다. 모시조합원에게 개량 베틀 바디 2,500장을 구입·배부하였고, 산업기수 및 여교사는 각 면리를 순회하며 저포·저마 등의 증산 및 크기(길이는 경척[33] 64척 즉 2,419㎝, 폭은 경척 9.2척 즉 348㎝)와 품질, 표백개량에 대해 실지 지도를 하고, 검사원은 각 시장에서 저포의 품질과 크기 및 표백의 좋고 나쁨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호장려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결과, 지금은 크기가 일정함은 물론, 품질도 현저하게

---

32 필이나 피륙의 단위로 사용될 때에는, 길이 약 10m, 폭 약 36㎝ 정도의 천을 가리킨다. 1반으로 어른의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다.

33 피륙을 재는 자의 하나(곱자로 1자 2치 5푼으로 약 37.8cm).

개량되어, 거래도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증산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1928년도에는 산업조합을 조직하여 모시조합원으로 하여금 산업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점점 더 판로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인구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정읍군의 인구는 일본인 596호·인구 2,568명, 조선인 호수 26,115호·인구 136,821명, 외국인 66호·218명이다.

교육

일본인의 초등교육기관으로 정읍·태인·신태인·화호리·고부·천원 6곳에 심상고등소학교가 있고, 또한 정읍에는 관립 농업학교가 있으며, 조선인의 교육기관으로는 정읍·태인·무성·신태인·화호리·고부·덕천·천원·소성·산외 각지에 보통학교가 있다. 약 3,300여 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명소

정읍역에서 동남쪽 12㎞쯤 떨어진 곳에 남금강(南金剛)이라 불리는 내장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했다.

◈ 고부(古阜)수리조합의 사업 ◈

연혁

고부평야의 경지 중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유지 600여ha가 있다. 이 회사는 1912년부터 그 토지의 관개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공사를 시행할 것을 제창하여, 당시 동 회사 기사장 나가사키 다케히데(長崎武英)씨가 설계에 착수하였는데, 이 기사는 도중에 사망하고 토목과장 세키야 타다마사(関屋忠正)씨가 그 뒤를 이어 설계에 종사하던 중에, 다른 경지소유자 중에도 그 사업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을뿐더러, 관

청에서도 관계 지주들에 대해 종용하고 권유하는 곳도 있었다. 그 결과 회사와 사업을 함께 하게 되어, 1916년에 인가를 받아, 1917년 4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1919년 4월에 준공했다.

이익을 받는 구역

조합 당시에 이익을 받는 구역은 고창·정읍·부안의 3군에 걸친 10개 면 30개 리로서, 4,326ha 였는데, 1921년 다시 흥덕면 석우리 159ha를 새롭게 조합구역으로 편입시켜, 현재 혜택을 받는 구역은 4,322ha에 달하고 있다.

저수지

고부수리조합의 저수지는 고창군과 흥덕면에 걸친 311ha라는 실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표척(標尺)[34] 수위가 683㎝, 약 1천만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고, 798ha의 저수논을 만들었고, 약 500만톤의 물을 저수하여 안전하게 관개하고 있다.

사업비

조합은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28년부 균등상환 계약을 맺고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총액은 1,215,300원의 조합채를 조성하였는데, 1928년 4월 1일에 이미 126,597원 10전의 원금을 상환하였고, 나아가 조합채의 이자 63만 2,226원을 상환하는 등 성적은 매우 양호하다.

조합비

현재의 조합원은 일본인 122명, 조선인 904명이고, 조합비는 1년에 1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2명, 5천 원 이상이 5명, 1천 원 이상이 10명, 5백 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이 10명, 100원 이상은 111명이 있어서, 조합비의 단당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1등 5원 27전,

---

34 수준을 측량할 때 쓰는 자.

2등 4원 74전, 3등 4원 35전, 4등 3원 95전, 5등 3원 56전, 6등 3원 16전, 7등 2원 24전으로, 평균 단당 3원 98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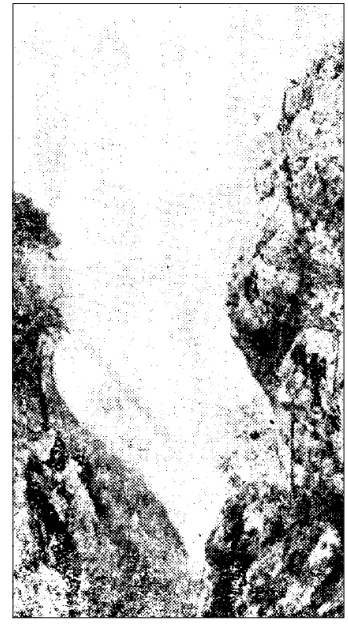
사업의 이익

조합구역 내에서 종래에 1년의 단당 수확은 현미가 불과 3-4말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공사 완성 후에는 1석 3-4말 이상 2석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최저 증가율을 약 1석으로 보면, 총면적 4,300ha에 대해 4만 3천 석이 증수되는 것이다. 미가가 평균 석당 30원 정도이므로, 조합구역을 통해 실로 1년에 129만 원의 생산력이 증가하여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수리의 완성과 함께 종자 및 시비경작법의 개량 등과 맞물려 더 이상의 증수를 보는 것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조합장

현 조합장은 가와노 나가히사(川野長久)씨. 이 사람은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栄太郎)씨의 뒤를 이어 조합장에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조합의 업무를 잘 처리하여 많은 난관을 헤치고 나와 오늘날의 호황을 보게 되었다. 또한 이사 오쿠자와(奥澤)는 근엄하고 청렴결백하며 또한 기골이 늠름한 데다가, 좋은 이사로서 이 지방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다.

11. 정읍면


정읍 내장산

전북의 현관인 이리역에서 호남선으로 남행하면, 부용·김제·신태인역을 지나 정읍역에 도착한다. 정읍은 전북 평야부에서 보기 드문 물의 도시이다. 또한 꽃의 도시이기도 하다. 춘사월에 현란하게 피고 지는 벚꽃을 보고, 누군가 꽃의 도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또한 단풍의 명소로서 조선의 남금강이라 불리는 내장산에서 발원하여 힘차게 흐르는 정읍천의 줄기와 만고 불변의 산봉우리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시처럼 떠 있고, 붉은 등과 미주(綠酒)와 노래가 떠들썩하게 들리는 불야성의 모습이 물에 비춰져 한층 더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썼다고 해서 정읍이 윤락과 탐닉으로 문란해진 도시라는 것은 아니다. 신흥의 의기가 넘치고 녹색의 자랑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이다. 호남선 개통 이전의 정읍은 작은 조선인 부락에 지나지 않았지만,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여 현재는 일본인 323호·인구 1,215명, 조선인 2,407호·11,410명, 중국인 30호·127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나날이 발전의 길로 가고 있다.

관공서·회사

정읍은 정읍군의 행정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공서와 회사가 있다. 정읍군청·정읍경찰서·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정읍우편소·정읍공립농업학교·정읍심상고등소학교·공립보통학교·면사무소·정읍금융조합·초성(楚城)금융조합·학교조합·미곡검사출장소·정읍군 농회·정읍군 삼림조합·정읍군 축산협동조합·정읍군 모시조합·정읍역·남조선 전기 정읍지점·식은 정읍지점·연초경작조합.

내장산

남조선에는 네 군데의 금강산이 있다. 경북의 주왕산, 충북의 속리산, 경남의 가야산, 그리고 정읍에 있는 내장산이다. 내장산은 정읍역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 있고, 지금으로부터 1286년 전, 즉 백제 무왕 38(637)년 병신년에 행안선사(幸安禪師)가 창건한 영은사지가 있고[35], 산속에 들어가면 계곡이 많고 한 계곡 또 한 계곡, 그리고 계곡 안에 또 계곡이 있고, 산위에는 구름이 살고, 좌우의 산기슭은 거의 수직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죽순처럼 줄지어 서 있는 곳도 있다. 산 전체에 송백과 단풍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남금강이라고 부르며 호남 제일의 절승지로서 여름의 녹색과 가을의 단풍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 특히 조선 8경의 하나로 손꼽히게 된 후에는 이 경치를 보러 오는 손님이 점점 더 늘고 있다.

12. 신태인

정읍역과 김제역 사이에 신태인이 있다. 신태인은 미곡의 집산지이자 또한 태인쌀의 산지로서 그 이름이 매우 유명하다. 전라북도 각지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쌀 중에서도 태인쌀은 항상 다른 쌀에 비해 격차가 있고, 78전으로 비싸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태인쌀이 얼마나 우량한가, 조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태인역에서 수출되는 1년의 수량은 38만 가마니를 돌파할 기세이다. 정미업자가 40호 이상에 달하고, 미곡상조합을 설립하여 산미의 개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5 영은사를 지은 것은 영은조사이고, 행안선사가 고려 숙종 3(1098)년에 새로 고쳐지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3. 고창군

인구

고창군은 전라북도의 서북부에 있고, 산악지형이 많으며, 최근의 고창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인구는 일본인 109호·355명, 조선인 21,093호·인구 107,003명으로 일본인의 증가율은 극소수이다.

교육

현재의 교육기관으로는 중등학교인 사립 고창고등보통이 있고, 그 외 일본인의 학교로는 고창·고흥·무장에 소학교가 있어서, 95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 교육기관으로는 고창·흥덕·무장·해리·대산·부안(富安)·성내·석곡·성송에 보통학교가 있어서 1,868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있다.

금융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면 우선 첫째로 금융기관의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고창군의 금융기관으로는 고창·흥덕·무장의 세 곳에 금융조합이 있다. 고창금융조합은 1909년에 창립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1926년에 조합원 944명, 대부금은 12만 6,500여 원에 달하며, 지방경제계가 순조롭게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 지방의 발전에 크나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 이사 모리 세이조(森正蔵)씨는 1921년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오늘날과 같은 발달을 가져온 것은 그가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한 결과이다. 또한 그는 온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임업

고창군의 임야면적은 35,000ha인데, 대부분은 천연의 적송 숲이고, 어린 나무들도 자라고 있다. 석곡·고수면의 일부에 온대 남부 고유의 솔로코나라 단풍나무류의 낙엽수림인 곳도 있다. 높은 산의 중턱 이상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고, 다년간 남벌한 결과 적송이 침입하여 적송의 단순림 또는 적송과 낙엽수의 혼합림을 이루고 있다. 삼림조합에서

는 식수 애림의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식수·면유림·학교림의 보호와 단속·묘목의 양성·온돌의 개량 등을 실시하여 조림에 힘쓰고 있다.

경비

고창읍내에 고창경찰서가 있고, 그 외 군내 15곳에 순사주재소가 있다. 서장은 쿠메가타 하야이치(久米形早市)인데, 그는 담백하면서도 격의가 없고, 더욱이 일을 할 때는 열심하고 근면한 사람이다.

14. 흥덕면

흥덕면은 원래 흥덕군에 속하면서 군청 소재지였는데, 1914년에 군제 개정에 따라 고창군에 병합되었고, 동시에 흥덕군청은 철폐되었다. 그 결과, 한때는 쇠퇴로 기울어지고 거주자도 감소하는 슬픈 운명에 빠졌지만, 이 지방은 고창군 사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점차로 쇠퇴를 만회하고 현재는 평화로운 땅으로 군청 철폐 당시에 비해,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다. 우편소·금융조합·소학교·보통학교·면사무소·경찰관 주재소 등이 있고, 고창·정읍·부안·줄포로 통하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교육

일본인의 교육기관으로 소학교가 있다. 1920년 6월 1일 개교했고, 조합원은 34호이고, 경비는 2,300원이 소요된다. 관리자는 아사노 키하치로(浅野喜八郎)씨인데, 그는 우편소장이면서, 또 군농회 부회장이고, 재향군인 분회장으로서 고창군은 물론 고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 교육을 위해 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

면장은 진초섭(陳初燮) 군이고, 1924년 면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근면하고 솔직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시종 사무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호

구는 일본인 11호·인구 33명, 조선인 1,018호·인구 6,112명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금융

흥덕에서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흥덕금융조합이 있다. 1922년 10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조합원 651명, 9월 말 현재 대부금 105,115원, 예금 29,360원에 달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사 와타나베 린조(渡邊倫造)씨는 1925년에 취임한 이래 오늘날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의지가 굳고 두뇌가 치밀하며 더욱이 민완가로서 조합원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선운사

호남지방에서 기적같은 절경의 선운사는 고창군 석곡면 선운산 기슭 유곡에 있고, 지금으로부터 1,340여년 전 삼국시대에 건립된, 조선 굴지의 사찰이다. 지금부터 아래에 역사 및 고적이 똑똑히 증명하는 것을 적게나마 기술해 보겠다.

선운사는 신라 진흥왕이 왕위를 버리고 이 산록의 한 암굴에 거주하게 되면서 중애선운도솔(重愛禪雲兜率) 등의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중애라는 이름은 여왕의 별호를 인용했고, 도솔이라는 이름은 왕후의 별호를 인용한 것이며, 또한 선운이란 참선와운(參禪臥雲)의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진흥왕이 거주하던 암굴을 좌변굴이라 하였는데, 왕의 별호를 좌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호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또한 이 암굴을 진흥굴이라고 칭하고 후세 사람들이 오랫동안 왕의 위업을 전하고 있다.

그후 성종대왕은 친히 이 절에 행차하여 선왕의 선가(수레)를 위해 수륙법화회를 조직하였고, 승려들과 상의하여 중수해야 한다고 결의를 하고, 당시 세조대왕의 삼남 덕원군이 크게 베풀어 주어서 드디어 사원을 중수하여 그 면목을 일신했다(지금으로부터 442년 전). 이것이 지금의 대웅보전이다. 또한 인조 20년(지금으로부터 310년 전)에 원준(元俊) 선사에 의해 일부가 중수되었다. 태종대왕 6년 병술년에 불가의 모든 종파의 사찰을 폐쇄했지만, 이듬해인 태종대왕 7년 정해년(지금으로부터 518년 전), 삼한 이래의 명찰 대가람은 존치를 허가받았다. 이 명찰들로 인해 여러 지방의 자복사(資福寺)라고 여겨졌고, 이 선운사도 그 사격을 인정받아 자복사의 하나가 되었다.

• 고적

9층 석탑. 이 탑은 선운사 대웅보전 앞에 세워져 있고, 천 수백 년 전의 것으로 신라의 조각을 탐구할 수 있는 조선 굴지의 탑이다.

• 석조불(약사유리광여래)

광정암 터 남쪽 뒤편의 기슭에 있는 바위굴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백제 시대에 제작된, 지금으로부터 1,326년 전의 것이다. 조각이 교묘함의 극치를 보이고, 천하에 둘도 없는 훌륭한 물건이라 지금은 본전으로 옮겨서 모시고 있다.

• 석불

참당암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고, 그 절의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십왕석불과 함께 모두 조선에서 유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5. 진안군

지세

진안군은 해발 290m 지점에 있다. 동쪽은 장수군, 남쪽은 임실군, 서쪽은 전주, 북쪽은 금산·무주의 각 군에 접해 있고, 산악이 중첩되어 있으며 금강과 섬진강의 수원을 이루고 있다. 군의 남부 중앙을 횡단하는 마이산맥 때문에 저절로 남북으로 기울어져 있다. 모든 하천 유역은 땅이 비옥하여 농업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경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적다. 교통은 산악의 기복이 심해서 불편하지만, 도로를 개수하여 전주-진안 간·진안-장수 간·진안-금산 간에는 모두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

기후

진안군은 산간부이지만 기후는 대략 온화하여 여름철 최고 35℃, 겨울철 영하 10℃를 내려가지 않고, 풍치가 넘쳐난다. 첫눈은 매년 11월 상순에 내리고, 끝눈은 3월 하순에

항상 내린다.

진안공원

인구

진안경찰서 조사에 따른 진안군의 최근 인구는 일본인 67호·195명, 조선인 13,058호·남자 33,939명·여자 31,362명, 외국인 5호·16명, 총 65,512명이다.

교육

일본인의 교육기관으로는 지금 진안에 진안소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학교는 1922년 현재의 장소에 교사를 신축하여 수업을 개시했다. 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올해 약 18평을 증축하게 되었고, 9월에 기공하여 11월에 준공했다. 현 관리자는 야부키 분고(矢吹文吾) 씨이고 학무행정에 진력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진안·용담·주천·마령·정천·안천·백운에 보통학교가 있고, 1,127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있다.

축산

진안군의 축산은 전라북도 중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다. 축우 5,121마리, 말 37마리, 돼지 9,580마리, 닭 23,139마리가 있고, 소를 키우는 호수는 5,086호에 달하며, 농가 총 호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진안군이 축우의 생산지로서 얼마나 적당한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한 총독부는 여러 종류의 조사를 한 결

과, 이 군의 마령면 연장리를 종우 생산부락으로 정하고, 여러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여 종모우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안군의 축산은 점점 더 유망해지고 있다.

경비

진안읍내에 경찰서가 있고, 그 외 군내 11곳에 순사주재소가 있다. 서장은 스즈키 야조(鈴木彌蔵)씨인데, 성격이 진지하고 침착하며, 더욱이 원만하기까지 한 데다가 모나지 않고 진실하여 경찰관으로서는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금융

금융기관으로서 진안금융조합이 있는데, 대부금 약 101,000원, 적립금 25,000원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방금융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이사 노사카 무네키치(野坂宗吉)씨는 천성이 온화하고, 근검한 노력파여서, 이 조합이 온건한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부지런히 일한 결과이다.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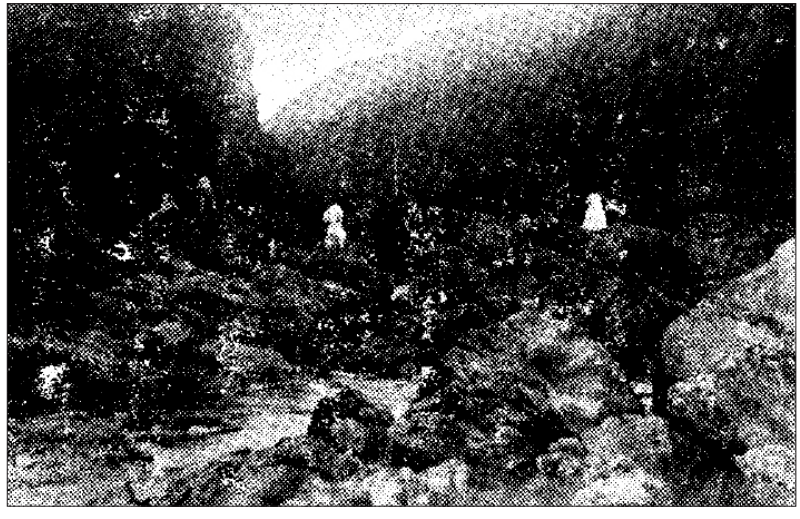
우화정(羽化亭)은 읍내 군청에서 110m 정도 떨어진 기암 가학대 위에 있고, 중턱에는 옥류천이 있어서 약수가 솟아나고, 산기슭에는 진안천의 청류가 흐르고 있으며, 옛날에는 백학(白鶴)들이 서식하였다고 하는 노송이 있다. 그리고 옥류천의 약수로 녹각교(鹿角膠)를 제조하여 국왕에게 헌상한 적이 있다. 1919년에 우화정이라는 정자를 세웠고, 1925년 가을에는 공원의 기초설비를 갖추었고, 1926년 봄에 벚나무 수백 그루를 심는 등, 해마다 점점 더 풍치를 더하고 있다. 또한 마이산은 읍내에서 서남쪽으로 약 2.7㎞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령산맥의 마지막 고령으로, 산봉우리 위에 봉우리 두 개가 더 높이 하늘로 솟아 있는데, 그 모양이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옛 이름은 동금산(東金山)이라고 불렀고, 땅속 깊숙이 금을 소장하고 있는 영산이라고 여겨졌고, 일명 부부산(夫婦山)이라고도 부르면서 지방민들이 존숭하는 곳이었다. 쌍봉은 모두 한 덩어리의 흙 없이 콘크리트로 쌓아올린 것처럼 아주 진귀하고 기발한 영봉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서, 일단의 풍치를 더해주고 있다. 감상하는 사람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16. 용담(조선 전체에서 보기 드문 건강지)

진안군 용담은 조선 전체에서 보기 드문 건강지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원 용담은 백제의 물거현(勿居縣)으로 신라 경덕왕 때에 청거(淸渠)라고 개칭하고, 진례현(進禮縣)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 충의왕 5년에 용담이라고 이름을 고쳐 현령을 두었고, 조선의 대군주 즉 고종 32(1895)년 군으로 고치고 군수를 두었다가, 1914년 진안군과 병합한 것이다. 이 지방은 건강지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량의 쌀 산지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 지방에서 금산 방면으로 나가는 쌀은 대부분 일등쌀, 이등쌀로 합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일 하나만으로도 용담쌀이 얼마나 우량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 점에 착안한 군산 아사히(朝日) 정미소 금산 출장소는 1927년에 용담에 분공장을 신설하였고, 다카사키 다이키치(高崎大吉)·기무라 시게오(木村茂雄) 두 사람이 주로 활약하고 있다.

교육·금융·경비

조선인의 교육기관으로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남자 178명·여자 13명의 아동을 수용하



용담 야마계

고 있다. 현 교장은 요시이 기즈미(吉井善澄)씨인데 열과 성을 다해 아동의 교육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용담금융조합이 있고, 이사 백승기(白丞基)씨는 진지하고 근면한 사무가로서 조합원의 신망이 매우 두텁다. 그리고 경비기관으로는 순사주재소가 있고, 주임 마츠모토 다케요시(松本猛吉)씨는 이 지방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발전을 소개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의 용담 야마계(耶馬溪)의 소개와 같이, 그는 솔선해서 여가를 이용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깊이 감사드리고 있는 바이다. 성격이 담백하고 격의가 없는 데다가 무슨 일이든 열심하고 근면한 사람이다.

용담 야마계(耶馬溪)

진안면에서 26㎞, 용담면에서 8㎞ 떨어진 주천면 주양리에, 거암괴석이 중첩된 높은 봉우리들이 이어지고, 그 안에 명도명덕(明道明德)한 높고 험한 봉우리들이 서로 대치하듯이 구름 위로 솟아 올라 있고, 절벽 높이가 330m나 되는 계곡에는 계류가 흐르고, 기암괴석들이 수없이 깔려 있다. 그 계류의 수원지는 대불리 운장산이다. 수량이 풍부하고 항상 도도하게 흐르다가 바위에 격하게 부딪히면서 급류가 되거나, 얕은 여울이 되거나 또는 푸른 연못의 심연이 된다. 물이 맑고 투명하여 물속의 돌을 헤아릴 수 있고, 옛날에는 통로도 없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최근에 통로가 열리고 탐승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명도명덕의 준봉이 대치하는 곳이라 겨울 해는 비치질 않고 봄가을에는 하루 중 아주 잠깐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천에 떴을 때만이라 하여 반일암이라고 불리고 있다. 용담 아마계란 최근에 붙인 이름이다. 울창한 소나무 노목이 뒤엉켜 있어서 풍치를 더해 주고, 봄가을이 되면 천초만목의 꽃으로 장식을 하고, 가을바람이 한 번 지나가면 온 산은 단풍으로 뒤덮여 그 풍경이 절경을 이루는데, 그것은 조선 전체에서 매우 보기 드문 풍경이다. 교통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소개되지 않았다. 용담은 이렇게 천하의 절경지이고 건강지이자, 자연의 대공원 모습을 띠고 있다.

17. 장수군

장수군은 전라북도에서 잠업이 가장 발달한 군으로서, 누에소립 숫자에서나 고치생산액에서나 항상 전라북도 1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장수군은 축산 행정, 지세, 기후 풍토 모두가 잠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여, 농가경제가 등한시되고 있는 장수군과 같은 곳에서 부업적인 축산사업의 장려는 긴급한 사항에 속하므로, 적당한 지역에 개량종의 닭·돼지·벌을 장려하기에 크게 유망하다고 인정되면, 철저한 사육사양 방법을 개선하여 일반에게 모범을 보인 후, 부분적 장려방침으로 혁신하여 농가경제의 협조를 도모하고, 부업적 이익을 증진시켜서 소 구입자금을 충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축산의 장려에 힘쓴 결과, 현재는 숫소 144마리, 암소 2,280마리, 돼지 4,235마리, 닭 33,585마리가 되었다. 그 외에 이 군에 대해 특기할 사항은 별로 없다.

18. 남원군

전주에서 자동차를 타고 약 3시간을 가면 남원에 도착한다. 남원은 오래된 도시로서 다양한 역사가 풍부한 곳이다. 보라! 거대한 석각 수십 개가 떠받들고 있는 창연한 누각이 영주(瀛州; 고부의 옛 이름)·봉래(蓬萊; 대만)·방장(方丈)의 삼도의 풍취를 띄우고 있는 못 안에 들어서 있다. 이것이 바로 광한루의 경치이다. 경성의 경회루의 견본이자 본보기라고 할 정도로 남원 인사들의 자랑거리이다. 옛 기록에 따르면, 경회루는 70년 전에 대원군이 창건하였고, 광한루는 5백년 전 조선 초기의 재상 황희가 시작한 곳이라고 한다. 아무튼 경회루와 동일한 양식의 건축이고, 건축사가가 조선 건축에서 절대로 없다고 하는 현관이 붙어 있고, 게다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현관의 난간이나 난간의 조각이 남양의 동물인 것도, 조선 남부지방의 민족비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광한루는 전술한 건물·연지·세 개의 섬 외에 섬 중 하나인 영주에는 영주각이라 부르는 작은 누각이 있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풍류놀이를 하는 회합장이 되었다. 또한 연지에는 오작교가 있다. 다리는 네 개의 홍항문(虹肛門)으로 되어 있고, 둥근 천장이 곧 아

치형인 것도, 이 지방만의 진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5백년 전의 토목공사의 기교를 추측해 볼 수 있기에 충분하다.

하루종일 이 광한루 옆에 서서, 단아하고 청초한 관기를 끼고 가는 옛날 군수나 부사나 관찰사 무리들을 상상하거나, 관현고생(管弦鼓笙)으로 화음을 맞추어 읊어대는 시조의 풍류가 연못 위를 흐르는 옛날 시대의 그림자를 쫓아가 보면, 진정한 남원 정서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곳의 인사들이 역설하는 바이다.

광한루의 이름을 더욱 드높인 것으로 춘향전이 있다. 춘향이 얼마나 미인이었던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한 번 남원 땅을 밟아보라고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춘향전은 조선의 추신구라(忠臣蔵)[36]라고도 할 수 있는 인기 각본으로 조선의 일종의 독특한 가극이다. 원래는 운림초부(雲林樵夫)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전기소설에 불과하지만, 각종 각양의 춘향전이 만들어져, 남원과 광한루와 춘향을 꼭 들어맞게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광한루가 없으면 즉 꽃동네에서 놀지 않고, 꽃동네에서 놀지 않으면 즉 춘향을 볼 수 없고, 춘향을 볼 수 없으면 곧 이 한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지리산

지리산은 남부 조선에서 산 중의 왕이요, 해발 1,800여m, 3도 8군에 걸쳐 있는 아주 큰 산이다. 산의 높이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의 특색은 그 광대한 산 전체를 뒤덮은 원시림에 있다. 일본의 도호쿠(東北)·교토·도쿄의 각 대학 연습림도 이 산중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길은 남원에서 화관(和冠) 유적이 많은 1,500척의 운봉고원으로 올라, 호즈(保津)나 토네강 상류도 도저히 못 미치는 낙동남강의 계곡을 거슬러 가면 금방 산기슭이다. 산기슭에 사는 주민들은 목재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므로, 산에 들어가면 졸참나무·자작나무·느티나무·느릅나무 등의 원시밀림이 우거져 있고, 올

36 주군의 한을 풀고자 목숨을 걸고 복수를 한 후, 모두 자결을 했던 아코번 번사 47명의 행동이 민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평화로운 시대가 백여 년 가까이 지속되던 에도시대 중기에, 이미 과거의 미덕이 되어가고 있던 무사도를 그들이 체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후에 이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가부키, 닌교조루리, 만담, 극작 등 모든 분야에서 거듭해서 창작되었다. 이처럼 아코번 사건을 다룬 창작물을 모두 '츄신구라'물이라 부르고 있다.

라가다 보면 침엽수 지대에서 관목지대로 옮겨가고, 지의대(地衣帶)의 편린마저 볼 수 있다. 동백 밀림이 있는가 하면, 지리산 전나무, 지리산 향나무도 군생하고 있다. 한여름에 이미 가을 풀이 바람에 휩쓸리는 것을 보면서 고산 식물의 군락에 이르는 등, 조선 남부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정취이다. 산 중에는 실상사, 화엄사, 쌍계사 등의 말사가 수없이 많고 그 모두가 경승을 차지하고 있어서, 조선은 물론 멀리 내지와 중국 등에 거주하는 서양인이 백 명 가까이 매년 이 산에 와서 그해 여름을 즐거운 캠프생활로 보내기도 하는데,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해 가고 있다.

연혁

원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으로 당의 고조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 땅에 도독부를 두고, 얼마 후 신라가 이를 병합하여 대방군이라 하였고, 후에 다시 남원군이라고 칭했는데, 고려조가 되자 부(府)를 두었다가 다시 군으로 복귀시켰다. 조선조 초기에 부사를 두고 운봉·순창·임실을 관할하게 하였다. 영조 4(1728)년에 군이 되었고, 전라도 관할로 옮겨져 고종 32년에 다시 관찰사를 두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하고 전라북도 관찰사의 관하의 군이 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의 결과, 전라북도 장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3월, 부군통폐합으로 운봉군을 합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세

남원군은 남쪽으로 열려 있고, 북쪽으로는 닫힌 지형상 천험의 요해(要害)와 천혜의 이점이 넘쳐서, 고래로부터 군사상 중요시되었던 땅이고, 동부에서 날개를 펴듯이 오는 지리산의 지맥은 군의 동북쪽을 관통하여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고,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경남 진주를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군의 중앙을 지나 섬진강 상류를 이루고, 그리하여 성수산의 맥으로 인해 지형은 산간부와 평야부로 나뉜다. 산간부는 구 운봉군 일대 7개 면에 걸친 고원이고, 평야부는 적성·순산·요천·율천의 유역으로 경지 14,000ha를 껴안고 있고, 수리 편이 좋고 토질이 비옥하여 각종 농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인구

1927년 3월의 조사에 따르면, 남원군 내의 인구는 일본인 호수 184호·인구 596명, 조선인 호수 21,905호·인구 107,179명, 중국인 23호·66명이다.

교육

남원군의 교육기관으로 일본인 교육을 위한 남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있고, 조선인 교육을 위해 사매·수지·남원·김지·운봉·아영·산동·보절·대강·인월·산내의 각 지역에 공립보통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생도 수는 모두 합쳐 남자 2,256명·여자 310명이다.

교통

경전북부선이 1930년도에 전주에서 남원까지 개통될 예정인데, 이 철도 개통 후에 남원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교통로는 전주·여수선·광주·안의·남원·무주·남원구례 등이고, 구례선 이외에는 모두 매일 정기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

금융

남원에는 식산은행 남원지점 및 남원금융조합이 있다. 모두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원활한 지방금융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 운봉·금지의 두 곳에 금융조합이 설치되어 있다.

농업

남원군의 주요 농산물은 우선 첫째로 쌀이고, 1926년도의 작부면적은 1,385ha, 수확고는 194,551석, 보리는 274ha에 수확고 31,000석이다. 쌀은 벼의 상태로 전주방면으로 많이 반출되고 있다.

19. 순창군

지세

순창군은 전라북도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 52㎞, 남북 32㎞, 면적 545㎢이고, 동쪽은 남원군, 서쪽은 정읍군 및 전라남도 담양군에 접해 있고, 남쪽은 전라남도 곡성군 및 담양군에, 북쪽은 정읍군 및 임실군에 접해 있다. 그리하여 서북부 및 북부는 노령(蘆嶺)의 준험한 산맥이 있고, 그 사이사이로 상당한 경지가 있다. 동남부에는 섬진강 상류 적성강 및 군내 팔덕면 청계리 소재 금성산에서 발원한 경천 유역은 비옥한 땅이 평탄하게 펼쳐져 있고 토질이 풍요롭다.

연혁

순창군은 백제의 도실군(道實郡)이었다가, 신라에서 순화(淳化)라고 개칭되어 고려에 이르러 이름을 순창이라고 고치고, 나아가 현이 되어 남원군에 속하게 되었다. 명종왕 5(1174)년에 감무를 두고, 충숙왕 원(1294)년에 군으로 승격하여 군수를 두었다. 관할면이 18면에 이르고, 조선조를 거쳐 1914년 3월 제도혁신에 의해 임실군 영계면을 순창군으로 전속시켰고, 동시에 면제 정리를 실시하여 현행의 12면 126리가 되었다.

기후

순창군은 대략 기후가 온화하여 한여름 8월에 33℃ 내외를 오르내리고, 엄동설한 2월의 기후도 영하 11℃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첫눈은 대개 11월 하순에 내리지만, 때때로 중순에 내리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눈은 2월 하순이 보통이다. 첫 서리는 첫눈보다 약 2주간이 앞서서 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늦어질 때에는 첫눈과 같은 시기에 내리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서리는 대략 3월 하순이 상례이다.

인구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는 일본인 69호·인구 196명, 조선인 14,407호·인구 69,792명, 중국인 9호·18명이다.

교육

순창군의 일본인 교육기관으로는 순창공립심상소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1913년 7월에 개교했고, 1927년 6월에 신 교사가 준공되어 조합원 49호, 조합경비 3,364원, 1호 평균 부담액 27원으로, 현재 생도는 16명, 관리자는 야마모토 한쥬로(山本判十郎)씨, 교장은 모리 운조(毛利運造)씨이다. 모리씨는 1922년에 교장으로 임명되어 오늘까지 열성을 가지고 아동교육에 임하고 있다. 그 외 조선인 교육기관으로는 순창·쌍치·동계·무림·금과·복흥·유등의 각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아동의 총수는 남자 1,315명, 여자 156명 합계 1,371명이다.

금융

순창군의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순창금융조합이 있다. 1910년 7월에 창립되었고, 대부금 137,000원, 예금 18만원, 조합원 1,110명, 현 이사 가사마 타사부로(笠間太三郎)씨는 1927년 5월에 이사에 취임하였는데, 일반인들로부터 좋은 이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농업

1926년도의 쌀 작부면적은 7,144ha, 수확고는 77,194석, 보리는 5,001ha의 작부면적에, 수확고 는 39,807석이다. 콩류의 작부면적은 2,674정보 10,151섬이다.

공산품

순창군의 중요 공산품으로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종이 및 종이 제품으로, 연간 생산액은 18만 5천여 원에 달한다. 그 다음은 직물인데 이것도 매년 14만 5천 원의 생산액을 내고 있다. 또한 여기에 순창군의 산물로 특기해야 하는 것은 약주(藥酒)이다. 1년 생산액이 실로 24만 원을 돌파할 기세이고, 이 군의 중요 산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약주의 판로는 전 조선에 미치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이다.

교통

순창군의 교통은 매우 불편하고, 호남선에서 순창군으로 들어오려면 송정리에서 담양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동차로 순창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 외에 순창-남원 간에도 자동차가 정기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순창 간의 운임은 다른 곳에 비해 아주 비싸다.

20. 금산군

지세

금산군은 전라북도의 동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충청북도에 솟아 있는 천마산의 지맥으로 도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은 충청남도 대전군에 접해 있으며, 서쪽은 전주군, 남쪽은 진안군, 동남쪽은 무주군과 경계하고 있다. 금강 지류인 신천이 금산군 역내를 관류하고 있고, 그 외 몇 줄기의 작은 하천은 있지만, 천마산의 여맥은 군내 전부에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가 지극히 적고 따라서 경지도 적다. 도로는 연차별로 개수하여 최근에는 크게 편리해졌고, 대전·무주·진안·영동·옥천 등으로 통하는 도로가 주도로이지만, 그 중에서 대전도로는 우마차의 교통이 빈번하고 게다가 자동차 편이 있어서 금산군으로서는 주요한 화객운수의 통로가 되고 있다.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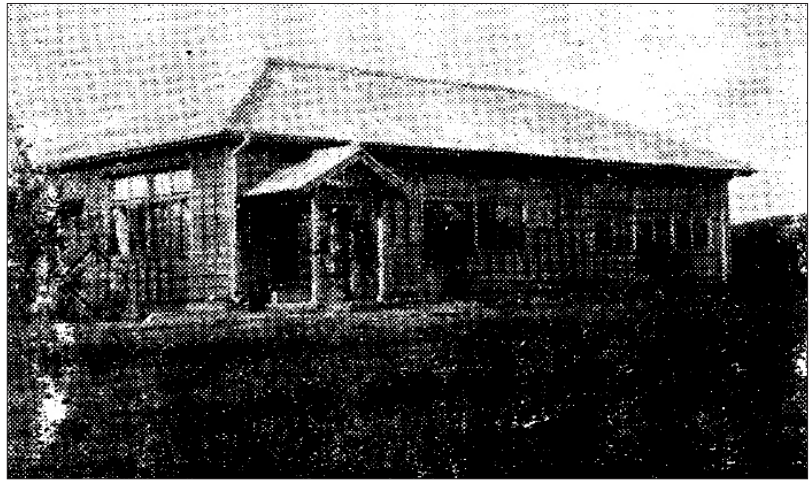
금산군의 기후는 대략 온화하고 한여름 8월이 되어도 32℃ 내외이고, 한겨울인 2월에도 영하15℃를 내려가지 않는다. 첫눈은 대략 11월 중순에 내리지만, 이를 때에는 초순에 눈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인구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금산군의 인구는 일본인 호수 98호·인구 358명, 조선인 호수 12,328호·인구 67,998명, 중국인 59호·인구 77명으로 총계 67,433명이다.

교육

일본인의 교육기관으로 금산심상고등소학교가 있지만 46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조선인의 교육기관으로는 금산·진산·추부·제원·이부의 각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있다.



순창소학교

농업

금산군의 벼농사 면적은 53,480ha이고, 수확고는 약 8만 석에 달하며, 그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드물게 보는 쌀이다. 그 외 우량한 콩, 팥은 조선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는 상황이고, 그 생산액은 콩 22,000석, 팥 1,800석 내외이다.

축산

금산군의 축산도 또한 전라북도에서 가장 발전하였고, 1922년 2월 축산동업조합이 설립되면서 점점 더 축우와 기타 장려를 한 결과, 현재는 소 5,152마리, 돼지 3,705마리, 닭 106,980마리에 이르고 있다.

잠업

뽕밭 면적은 2,890ha이고 사육 호수 또한 3,380호에 이른다. 따라서 누에소립 매수

도 여기에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고, 1년 봄·여름·가을누에를 통틀어 약 6천 장에 이르고 있다.

금산인삼

금산인삼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하였고, 그 품질이 우량하여 결국 그 명성이 전 조선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이 군의 부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삼재배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제상황도 매우 윤택해졌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경작면적은 948.6ha, 경작인원 은 580명, 연 생산액 10,548kg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금산인삼의 재배 방법은 다른 산지와 달리 비료를 주지 않고 천연 그대로 생육하기 때문에, 그 품질 및 정기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서, 조선 각지로부터 주문이 끊이지 않는 상태이다.

경비

금산읍내에 금산경찰서가 있고 그 외 각지에 순사주재소가 있어서 치안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장 고노 켄키치(メ野健吉)는 근엄한 성격의 소유자로, 열심히 근무하고, 항상 관내 풍기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성적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아사히(朝日) 정미출장소

금산지방에서 매년 다른 지방으로 이출되는 미곡은 약 8만 가마니이다. 여기에 착안한 군산 아사히 정미소는 이곳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정미에 종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업무를 더욱 확장하여 용담에 분공장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나스 만뵤에(那須萬兵衛)씨가 주임이 되어 산미 개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스 주임은 원만하고 모난 데가 없는 외교적 수완가이며, 동시에 온화하고 근직(謹直)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다.

21. 임실군

임업

임실군은 전라북도의 산간부에 속하고 임야면적이 42,037ha로서 총면적의 73%를 차지한다. 삼림분포상황을 대략 설명하면, 침엽수 27,612ha, 천연치수 7,085ha, 침활엽수 848ha, 활엽수 591ha, 초생지(草生地) 및 모래 땅 789ha이다. 임야 총면적의 85%는 성림지 및 치수지이고 나무를 심지 않은 미립목지(未立木地)는 극히 작은 면적에 그치고 있다. 재적(材積; 목재의 체적)이 1,174,326㎥에 이른다. 기후풍토는 임업에 적당한 데다가, 여기에 적극적 지도장려 및 보호를 하는 한편, 미립목지 및 황폐지에 대해 식수를 독려하여 임목축적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군내 수요의 목재 및 연료소비량의 공급은 물론, 장래에 인접한 남원 및 전주 방면으로 이 목재들이 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극히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귀중한 공업원료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일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921년 이후 이 지방 유지들과 의논하여 식림의 장려와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임업의 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하에, 삼림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과거 3년간의 실행 성적을 보면, 사업 시행이 매우 순조롭고 우량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조합원이 받는 이익도 매년 증가의 형세를 보여주고 있다.

식림 장려를 위해 사용되는 묘목의 공급은 오로지 자급자작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작년부터 군영식림묘단을 경영하여 생산한 묘목을 실비로 조합원에게 배급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종은 곰솔·소나무·밤나무·상수리나무·삼나무·노송나무·물오리나무·잣나무·탱자나무·떡갈나무·잎갈나무·전나무·화백나무이다. 시업 면적 10,065㎡, 파종량 3석 5말 4되, 이식 수는 45만여 그루이다. 크게 키운 성묘 45만여 그루, 어린 나무 100만 그루 정도이다. 그 중에서 곰솔이 가장 많아서 7,260㎡, 파종량은 1말이다. 소나무·밤나무·상수리나무가 주요 수종을 이루고 있고, 군내의 1년 연료 소비액은 약 28만원인데, 거의 임야지대의 부산물인 소나무가지·솔잎·풀등으로 충당하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절약하는 것은 식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임업 행정상 눈앞의 긴급사항이 되어 근래에는 각지에 연구를 시켜 실행하게 하고 있다. 온돌을 개조하고 연료를 남벌하는 폐해를 없앰으로써 삼림애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관공서를 비롯하여 관공서 공무

원·여인숙·요리집·주막에 개조를 재촉하고, 이어서 점차 일반에게 보급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선전강화회를 열고, 포스터 선전을 하면서 연료절약을 추진하여 식림사업을 조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단에 함께 하려고 했다. 우선 1924년도에 임실·둔남 두 면에 시작하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사업으로 개조를 필요로 하는 총 12면, 13,909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물감(水柿)의 원산지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에서 생산되는 물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홍씨의 조상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심었다고 한다. 앞으로 물감을 더 많이 식재하도록 힘쓴다면, 전 부락이 거의 물감의 원산지로 명성을 알리게 될 것이다. 그 식재 방법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정조식으로 심은 뿌리 자국이 있다. 물감은 보통의 물감과는 다른 이채를 띠고 있다. 특히 기후풍토 관계로 인해 거의 옥전리(玉田里) 한 부락이 전유해서 재배하고 있다. 옥전 물감의 이름은 지금도 특종 산물로 진중하게 여겨지고 있고, 물감은 성숙기에 이르면 감의 육장(肉漿) 전부가 액즙이 되고, 당분의 함유량이 많아서 마치 벌꿀과 같다고 한다. 옛날에 왕실에 헌상하기도 했는데, 당시 조선 내 각지에서 종묘(種苗)의 이식이 격증하여 명성이 전라북도 전체에 퍼졌다. 그 후 한때 보호 장려의 길이 끊겨 점차로 쇠퇴하였고, 수령이 노쇠함에 따라 이 명산품도 지금은 매우 소수가 되었다. 나무가 썩거나 말라버려서 순수한 계통의 뒤가 끊어지려고 하므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전멸하게 될 비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서, 군에서는 이 물감나무를 부흥시킬 목적으로, 군의 삼림조합으로 하여금 응급보전책으로 1924년도에 접본 3천 그루를 기르게 해서, 내년 봄에 순량종의 접목을 결행하여 그 번식을 도모하고, 장래에 옥전 물감을 특산물로 만들어, 그 평가와 명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2. 무주군

경부선 영동역에서 하차하여, 자동차로 갈아타고 약 1시간을 가면 무주군에 도착한다. 무주는 전라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금강의 수원지가 이곳에 있으며, 풍광이 맑고 아름답고, 수려한 고개들이 많은데, 그중에도 적상산(赤裳山)의 단풍은 자연의 조화가 극치를 이룬 조화의 기묘함이 있다. 이곳에 지팡이를 짚고 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

연혁

무주군은 옛날에 무풍(茂豊), 주계(朱溪)의 두 현을 합병한 것이다. 무풍현은 신라시대에 무산현이라고 불리던 것을 경덕왕 시대에 무풍이라고 개명하고 개령군의 산하 현이 되었다. 명종 2년에는 감무를 두었다. 주계현은 백제 시대에 적천(赤川)현이었는데, 신라시대에 단천(丹川)이라고 개명하였고, 고려조에 다시 주계라고 개칭했는데, 조선조 태종 14(1414)년에 드디어 이것을 병합하여 무주군이라고 칭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인구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는 일본인 호수 68호·244명, 조선인 9,614호·인구 49,375명, 중국인 20호·77명이다.

교육

일본인의 교육기관으로 무주공립심상소학교가 있어서 약 32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조선인 교육기관으로는 무주·안성·무풍·적상·부남·설천의 각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1,300여 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만 일면 일교(一面一校)를 실현하고 있다.

임업

임야면적이 54,000ha로서 전군 지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적 임지라고 칭할 만큼 원생림도 적지 않다. 이 산림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임산물의 생산을 풍부하

게 하고 민력의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치산치수를 완성함으로써 각종 산업을 진전시켜, 이 산업들의 약진을 주창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을이 다가오면서 무주군 삼림조합의 창립을 보게 되었고, 그 이래로 무주군 삼림조합은 군의 시설과 함께 힘을 합쳐 임업사상을 고취시키는 선전활동을 하였고, 열심히 식림을 장려하면서 시대에 적절히 순응하는 지도를 하여, 날이 갈수록 면목을 일신하고 있다. 무주군의 임산물에는 목탄·목재·숯·수피·열매·약초 등 산물이 많고, 연 생산액이 60만 원이다. 그 중, 목탄은 충청남북도·경상북도로 운반되고, 그 외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과 함께 다른 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명성이 자자하다.

연습림

홋카이도(北海道)제국대학 조선연습림은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데, 총면적이 24,000ha이다. 지형이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으며, 남쪽은 봉우리를 경계로 경상남도에 접해 있고, 서·북·동의 세 방위는 민유지에 접해 있다. 또한 덕우·적상·삼봉 등의 명산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하여 성림지 및 미립목지는 5대 3의 비율로 섞여 있으며, 현재 축적은 침엽수 약 32,000석, 활엽수 약 27만석이다. 수종의 대부분은 졸참나무이며, 그 가운데 침엽수는 적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나무·오엽송·주목 등이 조금씩 있을 뿐이다. 이 숲은 1914년 4월에 조성한 이래 사무소를 무주읍내에 두고, 전문학술적 모범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1919년에 시업안(施業案)을 편성하여 제반 경영에 임하고 있다. 교관 및 학생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감시소를 2곳에 신설하여 청원경찰관을 주재하게 하고, 다른 순시인과 함께 산림의 보호에 임하고 있다. 조림사업은 시업안의 확정과 동시에 실행되었고, 1,500ha에 약 400만 그루를 심었는데, 앞으로의 조림은 천연 치수를 키워나가게 되면 숲의 양상이 더욱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일변하여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 주임은 와타베 요시로(渡部義郎)씨. 온순하고 착실하며, 사교적인 응대도 정중함의 극치를 보이는 사람이라, 타인들에게 크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경비와 금융

무주읍내에 무주경찰서가 있다. 서장 가와바타 간타(川畑勘太)씨는 근엄하고 부지런하게 항상 관내 풍기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임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을 크게 올리고 있다. 또한 금융기구로서는 무주금융조합이 있는데, 현재 총 대부금 12만 원을 돌파하여 지방경제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다. 이사 히에데 지헤이(稗出治平)씨는 매우 근면한 사무가이다.

통신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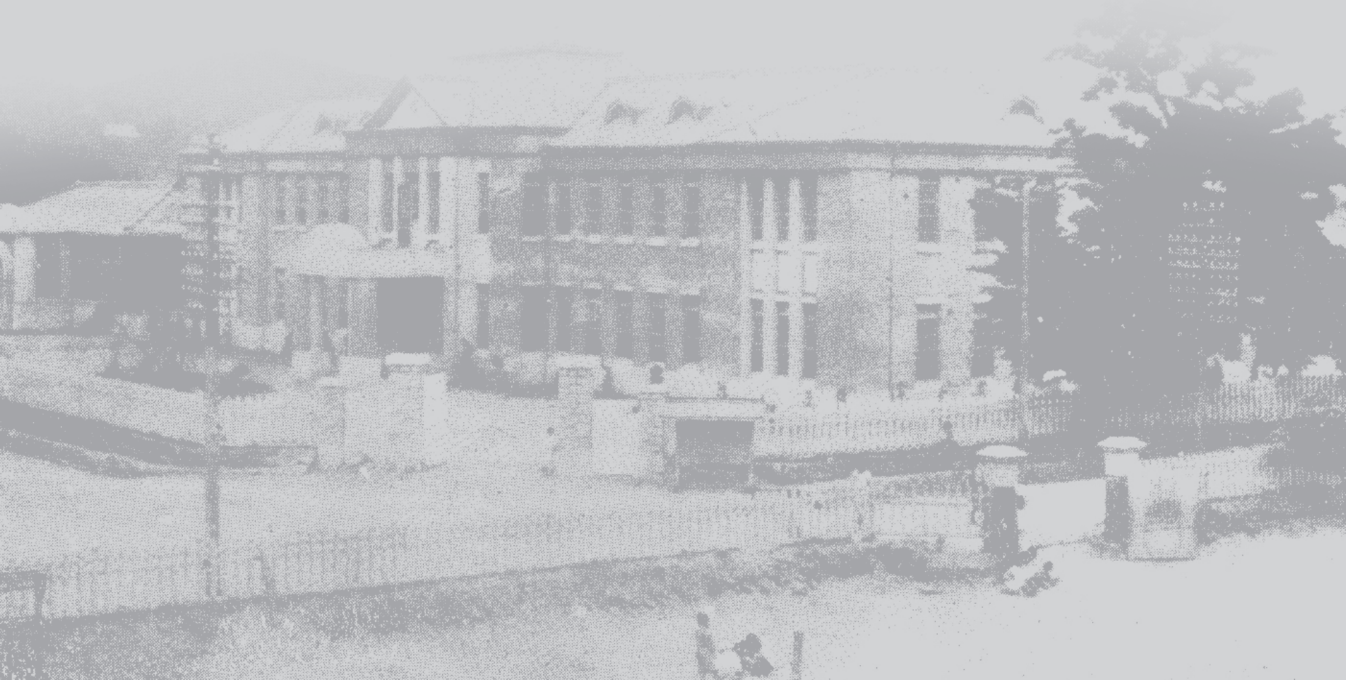
무주읍내에 우편소가 있다. 소장 우스이 마코토(薄井誠)씨는 근면하고 견실한 사람이고, 통신기관을 한층 더 기민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군수 배석린(裵錫麟)씨는 근면하고 솔직한 좋은 군수로서 명성이 높고, 서무주임 가미죠 신이치로(上條新一郎)씨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군수를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타 학교조합에는 관리자 야마모토 햐쿠노스케(山本百之助)씨가 있고, 여관 무주관(茂朱舘)에는 야마나카(山中)씨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상당한 유력자이다.

명승

적상산은 읍내에서 12㎞, 무주 남쪽에 솟아 있는 명산으로 해발 1,030m이고, 사면이 암벽으로 험준하게 몇 층을 이루고 있다. 서·남·북의 세 방향으로부터 양의 장처럼 좁은 길이 이어져 있어서, 무언가를 잡아야만 겨우 오를 수 있을 정도이다. 산 전체에 특히 단풍잎과 칡덩굴이 많고, 10월 중순에 온 산이 단풍으로 타올라 금수를 수놓은 듯 찬란하다. 적상이라는 이름도 바로 그 경치에서 기인한 것이다. 산 위의 조망은 웅대하고, 시계 안에 충북의 속리산·충남의 계룡산이 들어온다. 산 정상의 절벽 위에는 성벽이 있고 적성산성(赤城山城)이라고 부르고 있다. 산위에 고찰 안국사 및 호국사 등이 있다.

Ⅲ. 전라북도의 사업계와 경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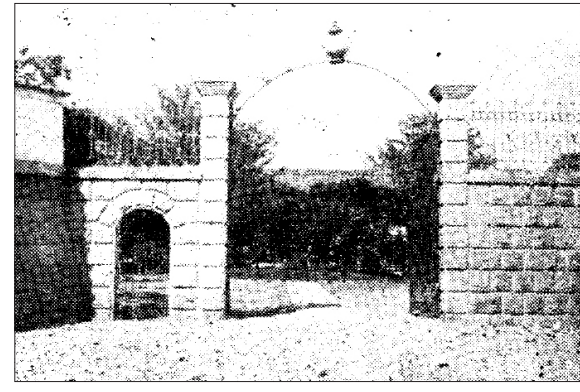
◈ 전북 사업계와 경영자
◈ 전북 사업가의 경영 개황



Ⅲ. 전라북도의 사업계와 경영자

◈ 전북 사업계와 경영자 ◈

● 이리 | 주식회사 대교(大橋; 오하시)농장



조선에서 농사경영자로서 일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대교농장은 전라북도 익산군 구 이리에 사무소를 두고, 김제군 하리면에 분장을 두고 있다. 현재 1,300ha의 논을 소유하고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275만 원의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농장주인 오하시 요이치(大橋與市)씨가 사장이다. 오하시씨가 조선에서의 농사경영이 유망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천천히 경영계획을 세웠던 것은 1943년 8월이었다. 그 당시의 일본인은 조선의 사정에 어두웠고, 특종기사 이외에는 조선 내의 산업으로 농사경영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오하시씨는 이러한 시대였음에도 일찍이 여기에 착안하였고, 또한 이리가 장래 유망한 땅이라는 것까지도 간파하여 논을 매수하였고, 동시에 이리 시가지에서 경영을 시작했을 때에는 셋집이나 부지를 무료대여하여. 이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의 이리는 모두 오하시씨의 선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현재는 오하시 요이치씨의 아들인 시로(四郎)씨가 상무이사역으로서 경영 임무에 임하고 있

다. 시로씨는 농과대학 출신으로, 작은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오하시 가문의 큰 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임 야마자키 조헤이(山崎增平)씨는 1919년에 취임한 이래, 지주와 소작인의 협조를 유지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지성과 견실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소작인도 농장 및 야마자키씨의 은덕에 감복하여 소작인의 불평을 들은 적이 없고, 소작쟁의도 일어난 적 없이, 서로 일치 협력하여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미개발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중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지경(地境) | 대창(大倉; 오쿠라) 농장

오쿠라 요네키치

지경 대창농장은, 1904년 처음으로 오쿠라 남작[37]이 조선 내 농사 경영이 유망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서서히 경영계획을 세워 사람을 시켜 토지 매수를 개시하고,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자, 군산의 오쿠라 요네키치(大倉米吉)씨에게 경영 임무를 맡겼다. 요네키치는 오로지 한 뜻으로 농사경영에 몰두하여, 그 시설은 해가 갈수록 진척되었고, 오늘날에는 논 600여 ha를 소유하고 있고, 소작인 수는 450호·1,60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사이에 오쿠라씨는 분투하고 노력하여 소작인을 지도하면서 농사 개량을 도모하여, 자신이 소관하는 농장 소작인들이 모내기를 하는 데 필요한 볍씨를 모두 우량종으로 배포하여 품종 개량을 갱신하기 위해 극력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성적은 뚜렷하게 나타났고, 또한 소작료도 수확량 대비방식과 일정량 납부방식 두 가지를 모두 받고 있지만, 소작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여 그들을 애호하고 고락을 함께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온정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오쿠라씨가 소작인을 대우하는 것이 마치 아기를 대하는 것 같고, 또한 소작인들이 오쿠라씨를 보는 것

37 일본의 실업가이자 오쿠라 재벌의 설립자인 오쿠라 키하치로(大倉喜八郎)를 가리키는 듯 하다.

이 자애로운 아버지를 대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오쿠라씨 최근에 공공계에도 몸을 담고 있는데, 그 겸손함과 사양하는 인격으로 내외의 사안을 절충하는 데 원만함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문제의 진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희생을 바침으로써 군산의 제일인자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농장주임 시이나(椎名)씨는 1917년에 취임한 이래,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협조를 도모하고, 그들을 덕으로 대하면서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장촌 | 금촌(今村; 이마무라) 농장

전라북도 산업계의 공로자인 금촌농장 농장주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씨는, 1905년 익산군 대장촌에 거처를 정하고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농사경제에 착수하였다. 당시 대장촌에는 일본인이 불과 2호만 있었고, 교통도 불편한 데다가 환경이 적막하고 불안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마무라씨는 은인자중하면서 훗날의 광명을 기약했다. 논을 하나하나 매수하여 스스로 농부들을 지휘하면서 분투노력하였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와 소작인의 지도계발에 유의하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농사의 개량발달에 진력했다. 특필해야 할 것은 조선 부인들에 대한 노동장려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원래 조선의 부인들은 노동을 기피하고 집안에 칩거하는 나쁜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마무라씨는 그 폐해를 교정하고자, 상품을 내걸거나 노임을 많이 주어서 노동을 장려했다. 그러자 최근에는 노소를 불문하고 부인들의 노동열이 왕성해졌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 농장의 공적이 아닐 수 없다.

이마무라씨는 그 외에도 또한 스스로 양잠, 양계를 하여 소작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금촌양계장은 전라북도에서 보기 드물게 규모가 상당히 커서, 매년 전라북도 각

군에 종계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실로 수 만에 이르고 있다. 이것 하나만큼은 다른 농사경영자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바이다. 또한 이마무라씨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정도로 덕망이 높다. 이것 역시 다른 농사경영자들이 도저히 추종할 수 없는 점일 것이다. 전년까지는 전라북도 평의원과 기타 공직을 맡았었는데, 자신의 영리보다는 토지의 개발, 사회공공사업에 공헌하여, 사방에 명성을 떨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자중을 기원한다.

● 함라면 | 관(關; 세키) 농장

전라북도 익산군 함라면 관농장주 세키 소이치로(關宗一郎)씨는, 처음에는 수원 농사시험장의 기사로서 조선에 건너왔지만, 관리 생활의 무미건조함에 싫증이 난 세키씨는 1911년에 사직하고, 같은 해 4월 이곳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농사경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잡화도·소매상을 경영하며 분투노력하여 오늘날과 같은 재력을 쌓았다. 세키씨가 과거 20여 년 동안 분투한 이야기 속에는 실로 눈물겨울 정도로 노력한 흔적이 생생히 새겨져 있다. 현재는 논밭을 합쳐서 110ha를 소유하고 있고, 스스로 소작인을 지휘하여 품종 개량과 기타 시설을 시도하면서,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양잠과 양계가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을 소작인들에게 지도·장려하여 부업이 유리하다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세키씨는 천성이 호탕하고 분방하여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대국적으로 사안을 살펴 대성공을 기하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과 확신이 서면 작은 이해관계를 희생하더라도 과감하게 물러서지 않는 도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작인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섭하는 듯한 언동을 하지 않고, 큰 골자만을 붙들고 지도·장려하고 있다. 그

래서 소작인도 기개와 도량이 크고, 아량도 넓으며, 온정이 있는 그의 인격에 탄복하여, 그의 명이라면 기꺼이 복종하고 있다. 또한 세키씨는 의지가 굳고 솔직한, 이른바 현대의 '데모신사'와 같아서 얄팍한 마음은 세키씨의 어디를 보아도 없는 것 같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는 담화도 잘 나누고, 잘 웃고 호쾌한 기운을 주는 쾌남아이다. 올봄에 금성리에 약 2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 김제군 죽산 |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씨

김제군 죽산면 교본(橋本)농장주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씨는 히고(肥後)[38] 미나미세키(南関)에서 고고한 소리를 내면서 태어나, 쿠마모토 중학교를 당당히 졸업한 후, 육웅교(育雄校)[39]에 들어가 청운의 꿈을 안고 러시아 령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유학 3년 만에 러시아어에 정통하고, 그곳에서 오노다(小野田)시멘트회사 출장소의 주임이 되어 활약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국교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귀국하였다. 1905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거처를 군산으로 정하고, 농사 경영과 정미 및 정염업을 시작하였다. 군산의 공공사업에 공헌한 것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거처를 현재의 김제군 죽산면으로 옮겨, 간척사업에 착수하여 고생한 끝에 150ha의 옥답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그의 노력의 산물이다. 죽산면 일각에 뜨거운 태양 아래 찬연히 빛나는 구리 지붕의 양식건물, 그의 노력이 보답을 받아, 400명의 소작인은 그를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경모하고 있다. 하시모토씨의 인격 덕행이 높은 것은, 혼자서 자기와 관계된 소작인들에게서만 공경을 받고, 존중받는 데 머물지 않고, 해가 갈수록 점차 이웃에 사는 일본인과 조선인들, 그리고 농사경영자 중의 선배로서도 항

38 지금 일본의 쿠마모토현.
39 일본제국시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교이다.

상 동료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하시모토씨는 이미 6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원기발랄하고 그 의기가 장년을 넘어서는 기개가 있었다. 이것은 온전히 의지가 확고하고 극기심이 강하여 유혹을 떨쳐내고 섭생을 중시하며,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하시모토씨가 이주하던 당시의 이 부근 일대는 언제나 가뭄과 수해를 입고 있던 곳이었으나, 하시모토씨가 이곳에 거처를 정하면서, 다른 농사경영자들과 협력하여 1921년에 처음으로 보(洑)를 완성하여, 오늘날과 같은 옥답을 만들어냈다. 그 사이에 스스로 진흙투성이가 되어 지휘감독했다고 하므로 그 고심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하시모토씨는 진실로 분투하는 실업가이자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후속 세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인재이다. 현재는 사업을 아들인 타츠미(巽)씨에게 일임하고, 관선 전라북도 평의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고, 김제학교조합 관리자로서 김제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 서수면 | 전(槇; 마키) 농장

전라북도 옥구군 서수면 신기리 전 농장은 1924년 3월에 개설하였다. 농장주 마키 류타로(槇瀧太郎)씨는 1912년부터 1923년까지 서수면의 천기(川崎; 가와사키) 농장에서 10여 년간을 하루같이 부지런히 일에 힘쓴 사람이다. 1924년에 현재의 땅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농장의 경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다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시설 경영이 아주 좋아져서 드디어 오늘날과 같은 상승세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의 고심과 노력, 헌신적인 분투는 문외한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의 성공은 결코 요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정성과 공로에 대한 당연한 보수이다. 마키씨는 온후하고 정이 두텁고, 철두철미하게 지성과 견실을 다하며, 일체의 언동을 규율에 맞게 하려고 하는 지조있고 견실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마키씨는 아들과 함께 약 50종의 품종 시범작 논을 설치하고, 또한 전라북도 종묘장 및 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품종개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경운 노역을 하여, 말없이 조선 농민들 안에 있던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스스로 획득한 식량으로 살아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던 그 인격의 위대함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 김제군 | 중시(中柴; 나카시바)산업주식회사

김제군 청하면 중시산업주식회사는 논 약 600ha와 밭과 집터를 합쳐 150ha를 소유하고 있고, 이 농장을 중심으로 하며 소작인은 1,500명에 이르고 있다. 사장 나카노 소자부로(中野宗三郎)씨는 야마구치(山口)현 사람이고, 아들 소이치(宗一)씨는 아버지를 도와 항상 지주와 소작인의 융화를 도모했고 또한 저축심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 과거 2년 동안 소작인의 저금이 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10만 원에 달하게 된다면, 소작인들은 모두 무이자의 금비(화학비료)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공진회 또는 품평회 등에는 앞장서서 소작인을 인솔하여 참관하고, 또한 매월 농사강화회를 개최하는 등, 농사의 지도계발에 노력하고 있다. 놓쳐서는 안 될 미담이 있다. 그것은 1926년도에 소작료를 징수해 보니, 의외로 수확이 적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금을 소작인에게 분배·반환했다는 것이다. 또한 볍씨는 도의 종묘장이나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원종답 및 채종답을 설치하였고, 이듬해에는 위탁채종묘를 각 부락에 설치하고, 소작인에게 배포하여 품종개량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금비 대부 이자는 금융조합의 이율과 동일하게 하고, 평소에 소작인을 애호하였으므로, 소작인은 나카노씨를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흠모했다. 나카노씨는 1927년 가을 중앙축산회에서 축산공로자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사비를 들여 축산 강습회를 열거나 또는 우량종돈을 무료로 배포하고, 개량 계란을 배포하는 등 그 공적은 실로 적지 않다. 나카노씨는 과묵한 성격이라 함부로 입을 놀리지는 않지만, 자기주장을 발표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기탄없이 말하려고 하고, 원하는 바를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한번 입을 열면 조리정연하게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논리를 펴고, 주의주장을 할 때에는 어떠한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개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강하고 또한 절조를 지키는 것에 충실한 인물이고, 끊임없이 수양과 고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그 고상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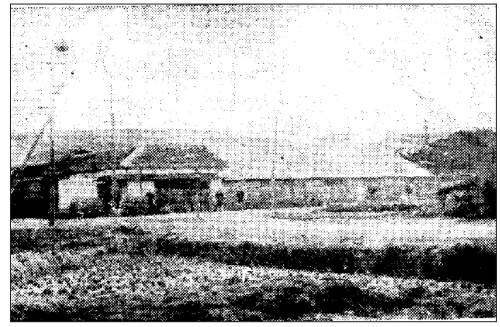
● 군산 | 모리 키쿠고로(森菊五郎)씨

군산 미곡상의 거두이자 군산 건설의 원로인 모리 키쿠고로씨는, 군산에서는 아주 오래된 사람 중 한 명이다. 개항 전후의 군산시대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리 오래된 편은 아

니지만, 일찍이 여러 선배들을 능가하여 군산 미곡계의 패권을 쥐었던 모리씨는 1909년경에 이시다(石田), 쿠보타(窪田) 두 사람이 공동경영하던 매갈이 공장을 매수하여 업무를 크게 확장하였다. 그 후 1911년 4월경에 쌀값이 천정부지로 인상되었을 때, 많은 미곡상들은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 내다보고 팔기만 하던 때에, 혜안을 지녔던 모리씨는 시세가 오를 것이라고 외곬으로 버텨내어, 거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격전을 치르고 일확천금을 거둬들였다. 그리하여 동부와 서부 두 곳에 정미공장을 차려 거의 독무대의 기세를 보여주었다. 1916년에는 미곡상 조합의 명예이사로 추대되었고, 또한 같은 해에 전북 가마니 익명조합 책임사원에 이어서 미곡상 조합장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 사장, 남선고무(南鮮護謨)주식회사 사장, 미곡상 조합장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업에 관계하며, 자리가 데워질 틈도 없이 동분서주하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모리씨는 아와지(淡路) 출신으로 진지하면서도 패기가 있는 진취적 기상이 넘쳐서, 사회공공사업에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진력한다는 사실은 부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관선 도 평의원을 지냈고, 부의원도 지냈고, 상의원으로서도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 군산 | 아카마츠 시게오(赤松繁夫)씨

아카마츠 시게오씨는 애히메현 우와시마군 타마츠무라 아자 나니와츠(愛媛県宇和島郡玉津村字浪花津)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51세이다. 우와시마 명륜중학교 졸업 후에 향리에서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한편, 촌장 또는 촌회의 의원이라는 공직에도 천거되었지만, 1904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군산에 거처를 정하고, 간장 양조업을 개시했다. 그 이래로 20여 년 동안 '깃코 아카(キッコー赤)' 양조를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는 연 2만 석을 생산하여, 부 내는 물론 호남선 연변 각지에 판로를 가지게 되었다. '깃코 아카'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일본, 조선 각지의 박람회나 공진회에 이름을 올려 상패를 받은 숫자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아카마츠씨가 군산의 공공사업에 열성을 보이고 진지하게 임한 것



은 부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군산의 사쿠라 소고로(佐倉宗五郎)의 화신이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심중에 생각하는 것이 결백하여 사리사욕의 마음이 없고, 여태까지 거액의 돈을 공공사업에 기부했으며, 내외의 지명인사들과 교제하며 항상 경제계의 문제에도 사회 각 방면의 문제에도 모두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더라도 입에서 불을 뿜는 듯한 말솜씨가 있었고, 지조가 건실하며 단연한 모습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인물이다. 1916년 상업회의소 평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20년 6월부터 1923년 6월까지 2기 동안 부회장의 중임을 맡았고, 작년의 선거에서 회장이 되었다. 아카마츠씨는 이처럼 군산부정이 점점 더 다사다망해지고, 축항문제로 인해 도쿄로 경성으로 부민을 대표하여 동분서주하여 자리가 데워질 틈도 없었고, 그래서 가업도 돌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직을 버리고 권토중래하여 가업에 정진할 것이라 한다.

● 군산 | 오사와 토쥬로(大澤藤十郎)씨

1902년 2월, 군산항이 무역항으로 개항된 이래 오늘날까지 쌀의 군산으로 알려지기까지에는 시대의 진운이 함께 했던 결과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인들의 충심어린 협력으로 인한 결정의 발로라 생각된다. 그중에서 위대한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군산의 창시자이자 공로자인 오사와 상회의 주인 오사와 토쥬로씨는 군산의 오사와가 아니라 조선의 오사와가 되었고, 지금은 군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어, 나이가 고희에 가까워졌지만, 편한 인쿄(隱居)[40]를 하지 않고, 각 방면의 사업에서 벌이는 활동은 실로 장년들을 능가하고 있다. 오사와 옹은 군산 무역계의 권

40 살림이나 사업의 책임을 물려 주고, 그 직을 떠나서 한가하게 삶. 또 그 사람.

위이자 원로이다. 오사와씨는 개항 전 이미 해운업을 열었고, 개항과 동시에 오사카상선회사 군산 대리점을 경영하였다. 그 부대사업으로 거룻배부(艀部)를 설치하고, 나아가 재목 도매상 및 조선소를 개설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해운에 수반된 육송군(陸送郡)을 설립하여 바다로 육지로 군산 무역계에서 눈부신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군산에서 수많은 기선회사 대리점을 비롯하여, 운송업 및 재목부 등 각종 사업이 모두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남을 보였고, 지금은 1년에 130만 석의 수이출을 하고 있다. 미곡의 수송에서도 항상 상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사와 옹은, 인격과 인망은 새삼 더 붙일 말이 필요없다. 군산을 사랑하는 일념은, 대외적으로 각 방면에서 항상 제일선에 섰고, 상업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부의회 또는 도 평의원 등에 천거되어, 부정에 있어서나 상공업에서나, 그리고 사회공공 모든 방면에 알선·진력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는 영예를 얻어, 군산 역사상 찬연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 군산 |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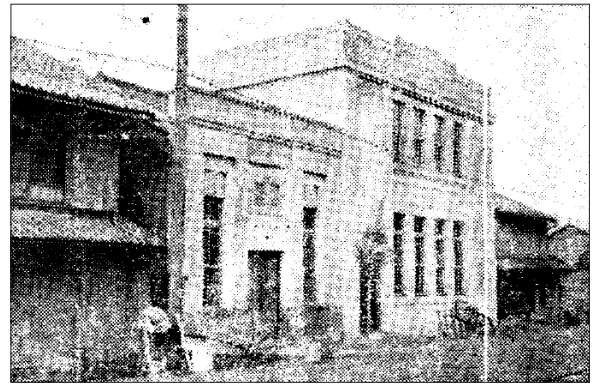
바다로 육지로, 무역계의 중진으로 운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시(中柴)상사주식회사는 작년 1월 나카시바 만키치씨의 개인 경영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나카시바 만키치씨가 사장으로 종횡무진 뛰어난 솜씨를 발휘한 이 회사의 영업종목은 회조(回漕)부, 육송부, 상사부, 대리부 기타 종류로 구별되어 있다. 점포에 내걸었던 여러 개의 간판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영업 종목을 취급했는가를 알 수 있다. 조선우선회사 대리점을 비롯하여 킨카이(近海)기선 및 오카자키(岡崎) 기선의 양 대리점부터, 메이지 고베 해상(明治神戸海上)·대북조일(大北朝日)·동경해상(東京海上)·태평양해상(太平洋海上) 등의 각 화재보험회사 외에 메이지생명보험(明治生命保険)의 대리점 등을 운영했다. 운송부는 역전에 사무소를 두고, 상사부는 쌀과 잡곡 및 비료가마니를 비롯하여 삿포로맥주, 하쿠츠루(白鶴)의 쌉쌀한 맛과 달콤한 맛을 즐기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연유(condensed milk)

를 비롯하여, 파미르 및 송진 등 각종 식료품 잡화의 도매상을 경영하였는데, 호남 일대에 두루 대대적인 판로를 보유하고 있다. 나카시바씨의 인격과 인망은 새삼스레 되풀이할 것도 없이, 이미 각 방면에서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 상기상략에 뛰어난, 이른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그 밑에서 일하는 회조부 주임 오시카타(押方)씨, 상사부 주임 이마무라(今村)씨, 운송부 주임 이와모리(岩森)씨, 모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수완가들만 모여 있다. 나카시바씨가 오늘날의 지위와 거액의 재보를 만질 수 있게 된 것은 분투노력한 데 대한 선물이겠지만, 명민한 매처럼 상재와 계획을 가지고 성장하여 천성이 실업가다운 소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군산의 개척자이자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 오사와씨에 이어 원로로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일찍이 민단의장이 되었고, 또한 부의로서 부정을 위해 공헌한 사람이다. 최근이 신변이 다망하여 표현상의 공직은 하지 않고 있다. 아직 회갑이 되기 전이고 심신 모두 장건하지만 한층 더 보양하기 바란다.

● 군산 | 아베 에이타로(安部榮太郎)씨

군산부 본정통 미곡무역상의 일각에 최근 건축한 백아양관(白亞洋館) 2층 건물이 의연하게 솟아 있어 이채를 뽐내고 있다. 이것은 미곡무역 및 건축재료계의 거상으로 알려진 아베 에이타로씨의 점포이다. 그는 도사(土佐)[41] 출신으로 1902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처음에는 금융업을 경영할 목적이었지만, 패기넘치는 그는 군산에 와서 쌀의 집산지로 장래에 발전할 기운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미곡상으로 일찍 변경하고 중도에 천 석을 적재할 수 있는 범선을 새롭게 건조하여 오사카와의 사이에 직접 거래를 개시한 이래, 상운이 좋아서 순조롭게 거만의 부를 쌓을 수 있었기에, 미곡업계의 혜성으로 일찍이 대표주자로 무게감을 보였고, 그 패권을 쥐고 1910년 4월 군산미곡상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장이 되었고, 한때는 군산미곡업계에서 아베씨의 명성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다. 1912년경 아베씨가 매입한 벼를 가득 실은 수십척의 연안회착선이 군산항의 입구에 도미노처럼 전복하여 항구 내 일원이 벼로 산을 이루어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

41 현재의 일본 고치(高知)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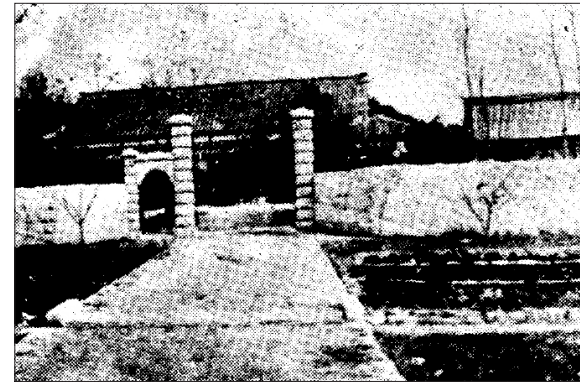
데, 그 이래로 최근에는 곡물무역은 조금 줄이고, 건축재료 특히 재목부에 손을 넓히고 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고 이재의 길에 밝고 성품이 온후하며 덕망을 겸비하고 있으며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잘 조화시켜 군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원래 상업회의소 부회장과 군산거류민단의장 군산전기회사 사장 등에 천거되어 사회공공방면에 공헌한 것은 일일이 예를 들기 힘들 정도이다. 군산전기주식회사 중역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회사 기타 상공계에 항상 하마형에 오르는 것을 보면, 군산 재계에 역시 은연중에 잠재 세력이 있고 그의 인격과 수완이 일반 부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군산 상공계의 개선발전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 대장촌 | 호소카와(細川) 후작가문 농장

후작 호소카와 모리타츠(細川護立)씨가 경영하는 호소카와 농장은, 사무소를 전라북도 익산군 대장촌에 두고 그 부근 일대의 비옥한 토지 약 2천여ha의 논을 경영하고 있고, 또한 전라남도 담양군에 지부를 두어 그 부근에도 또 1천ha의 논을 소유하여 합계 약 3천ha의 논을 경영하고 있는데, 일본인이 조선 내에 3천ha의 논을 소유하고, 수천 명의 소작인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 경영자로서는 아마도 이 거두뿐일 것이다. 호소가와 후작이 조

선 내의 논의 경영이 유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가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유의미한 사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천천히 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1902년 무렵이었다. 호소카와 후작은 이 시대에 일찍 그 앞길을 달관하고, 이렇게 방대하고 대담한 투자를 통해 대규모 계획을 세워, 감연히 소신대로 시설경영의 길을 나아가 오늘날의 성황을 이루었다. 그 날카로운 눈에는 오로지 경탄경복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호소카와 후작은 명문가로서 자본력도 풍부한 사람이었던 데다가, 어진 부하들이 많아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탁월한 상신을 하여, 시설 경영의 실무에서도 완전무결하게 검토되었는데, 비록 어진 신하가 훌륭한 상신을 하더라도 주군이 현명하지 못하여 이른바 신하의 상신을 허용할 만한 이해와 아량이 없으면 도저히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배인 나가하라 쿠니히코(永原邦彦)씨는 1912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17년 4월에 호소카와가문의 요청으로 조선에 건너와 현직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강 줄거리를 잘 파악하여 산미의 개량증식을 지도 장려하고 있다. 행운과 자중자애를 빈다.

● 황등 | 가타기리 와조(片桐和三)씨



전라북도 도 평의원, 서천 수리조합장, 임익수리조합 평의원, 황등학교조합 관리자, 황등소방조장과 그 외에도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다. 황등의 가타기리 와조씨는 1906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잠시 동안 가와사키(川崎) 농장에 몸을 담았지만, 1907년 4월 익산군 황등에 지반을 정하고 향리에서 근면한 농부 5명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조선인 소작인의 지도감독을 하게 하여, 한 걸음씩 농사경영의 길을 걸어가, 수익과 자기 고유의 자본을 이용하여 점차로 논밭의 매수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수리조합의 설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현재의 임익수리조합의 조직은 주로 가타기리씨의 제창과 진력에 의한 것이다. 그는 수리관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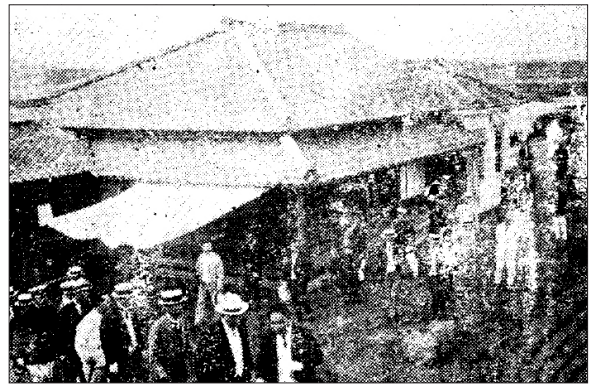
필요를 역설하였고, 한층 더 통절하게 필요하다고 조선 농민들을 설득하여 일본인 영농자와 협력하여 그 기운을 양성하여 이제 그 실현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임익수리조합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이고, 그 산파역이자 어머니 역할을 한 공로는 완전히 그의 양어깨에 걸려 있던 있던 일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높은 덕망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다른 농사경영자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일 것이다. 이것은 논리보다 증거이다. 호남의 보고에 한 걸음 들어온 사람이거나 호남 땅에 거주하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높은 덕망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렇게 관민 모두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는 원인은 성격이 담백하고 또한 의협심이 넘치며, 피와 눈물이 있는 점이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요컨대 그는 자기 영리 이외에 토지의 개발회사와 공공사업에 공헌하기 위해 전념하고, 성의껏 그리고 흔쾌히 노력하는 인격자이다.

● 대장촌 | 다사카 사사부로(田坂佐三郎)씨

1904년 익산군 대장촌에 토지를 정해 농사 경영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는 군산에 거주하며 이것을 관리하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1908년 거처를 대장촌으로 옮겨 한 걸음씩 경영의 길을 걸어갔고, 현재의 소유답은 실로 120ha에 이르고, 소작인 총호수 147호를 거느린, 이 지방의 대지주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과묵한 성격으로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정정당당하게 기탄없이 말하려고 하고, 원하는 바를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한 번 입을 열면, 조리 정연하고 일사불란한 기개가 있다.

그는 또 자신의 소작인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 준다. 그래서 일반 소작인은 그의 인격과 견식과 의의에 감동하여 아직껏 한 번도 소작쟁의 등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는 또 한편으로 소작인의 부업에도 주의를 기울여 가마니짜기나 양잠 등에 힘을 쏟았고, 그것을 지도장려하였다. 그 일에 진력한 공로는 실로 위대한 것이다. 그 외에 그는 대장촌 학교조합의원, 면협의회원, 수리조합평의원 등의 공직에 임해 행정에도 참여하여 지방의 발전에도 진력하고 있다.

● 군산부 미면 | 미야자키 케이타로(宮崎佳太郎)씨



미야자키 케이타로씨가 현재의 지위를 만들어, 사회적으로도 재화가 생기는 근원이 되는 위치에 있지만, 사치라든가 화려한 풍은 없고, 매우 검소하다. 미면에 있는 장남 야스카즈(保一)의 주택도, 건너편(서천군 서남면)의 저택도 이름 높은 조선의 미야자키 옹의 주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수하기 이를 데 없다. 여기에 반해 농사 경영에 대해서는 타인이 도저히 추종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쏟아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여서 새삼 덧붙일 말도 없다.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어, 이미 나이가 고희에 이른 노구를 이끌고 헌신적으로 간척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옹은 쿠마모토현 아마쿠사군 오시마무라(熊本県 天草郡 大島村)에서 태어났다. 한반도 개척의 일원이 되고자 원대한 포부를 품고 인천에 상륙한 것은 1890년 봄이었다. 그로부터 1903년 10월 경성에서 옥구군 미면 축동으로 거처를 옮겨, 처음에 60ha의 황폐지 논을 매수하고, 그 이래로 전심으로 농사경영에 노력한 결과, 현재는 논 면적 540ha를 차지하였고, 소작인은 무려 7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옹은 첫 번째 계획인 농사경영에 성공하였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계획으로 군산의 대안에 있는 서천군 서남면에 약 308ha의 간척지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옹은 사업상으로나 공공적으로나 자신에게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공공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공헌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1921년 10월에 대일본농회 총재로부터 명예 표창을 받았고, 그 외 금배 3조, 은배와 상장을 받는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1927년 6월 사이토 총독이 이 지역을 시찰했을 때는 아주 친숙하게 옹의 저택을 방문하였고, 서로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 옥구군 금광리 | 오쿠라(大倉) 남작 가문 농장

오쿠라 남작이 조선농사경영이 유망한 점에 착안하여 사람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 전북 대평야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경지이고, 지질은 비옥하여 농사 경영에 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자, 고 나카니시 죠이치(中西醸一)씨를 주임으로 초빙하여, 1903년에 처음으로 군산에 오쿠라 농장을 설치하고, 토지 매수를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오쿠라 남작은 농업기술자를 보내 종자의 선택과 비료의 개량, 경운 방법 등을 연구하여 그 기후풍토에 맞는 것을 몇 가지 시험을 거쳐 열심히 조선인 소작농의 개량에 노력하여 조금씩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선의 논은 고래로부터 천수에 맡기고, 관개는 아주 조금만 하여서, 어느 날 아침에 가뭄이 왔을 때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뿐 다른 방책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구제할 길은 오직 하나, 수리관개사업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남작은 우선 수리관개사업의 속성을 역설하고 다른 농사경영자들과 함께 전북평야 수리기성동맹회를 일으켜, 드디어 1910년에 임익남부수리조합을 설립하고, 그에 이어 익옥수리의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농장의 수확도 해가 갈수록 양호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현 주임 하라다 히코시로(原田彦四郎)씨는 1911년 농장 주임으로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고심을 거듭하며 소작인을 지도하고, 농경법을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여 자운영의 재배를 장려한 결과, 수년 전에 비해 그 수확도 배가하게 되었다. 이는 모두 하라다씨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옥구군 옥산면 | 문종구(文鍾龜)씨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기현(岐峴) 농장주 문종구씨는 전북에서 모범적 인물로서 그 이름이 유명한데, 그의 모친인 고씨도 어진 부인으로 아주 유명하다. 고씨 부인은 전북 옥구군 옥산면 쌍봉리에서 태어나 18세 때에 문한규씨의 부인이 되었다. 당시 문한규씨는 공사감독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자주 집을 비웠고, 따라서 고씨는 항상 남편을 대신하여 가사 일체를 돌보았는데, 1886년에 악질에 걸려 남편은 가족과 함께 모두 사망하였고, 고씨 자신과 차녀, 차남만 남았다. 고씨는 이 슬픈 운명을 당했으면서도 정조를 지키고

효와 의를 다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자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항상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고, 박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 일을 임금이 들으시고, 황송하게도 효부열부로 표창하기로 하고, 1926년 5월 폐하로부터 대정덕행록을 하사받았다. 이처럼 어진 모친의 교훈을 받은 문종구씨는 16세 때부터 농사 경영에 임하였고, 현재는 약 400ha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작년까지는 전라북도 도평의원으로서 전라북도의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공공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사재를 투자하여 그 일에 진력하는 의기를 지닌 사람이었기에 그 부근의 농민은 모두 그의 덕을 경모하고 있다. 농사는 기리하라(桐原) 주임이 임무를 맡아서 품종개량은 물론, 작년에는 약 15ha의 땅에 시험적으로 자운영을 재배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확장해서 전 면적에서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돼지를 소작인에게 배포하여 퇴비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비료를 자급하는 길을 강구하였디. 또한 매년 4월 17일에는 소작인조합을 개최하여 우량소작인을 표창하고, 소작인의 경조화복에 대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 소작인 경조공제회를 설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하튼 문씨의 인격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제 | 이케 마스미(池眞澄)씨

김제 미곡계의 거물이자 전북 미곡계의 중진으로서 김제 미곡상조합장 이케 마스미씨를 추천하는 것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건 아마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천성인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사람이나 장소를 안중에 두지 않고, 소신을 단언하기를 꺼리지 않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도 있다. 하지만 지위가 향상되고, 자산이 증대되고 나이가 든 탓일까, 최근에는 겨우 그 성질이 변하여 모난 구석을 많이 삭이고 있는 모양이 보인다. 김제 미곡상조합원 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자칫하면 일치단결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의 수완이다. 고베(神戶)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금융계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미곡업계에 들어간 것은 1919년이었다. 마침 그 무렵에 제국의 재계는 미증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듬해 1920년에는 그 반동이 와서 재계는 급전직하로 쓰러졌다. 이 난관

을 벗어나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장에 확장을 도모하여 현재는 김제 아니 전북에서 일류의 쌀장사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정도가 되었다.

● 김제 | 히노 키스케(日野喜助)씨

사람의 일생은 주사위놀이와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면의 진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김제의 미곡상으로 그리고 자산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김제 제일류에 있는 히노 키스케씨의 반면은 이러한 격언을 기분좋게 무너뜨린다. 즉 그의 전반기 반생은 철두철미하게 맹렬한 분투의 그림이다. 그리고 그 분투노력한 결정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로 하여금 오늘날의 재력을 쌓게 한 것이다. 이곳에는 요행도 없다. 모두가 하나하나 쓰라리게 고생한, 그의 뜨거운 땀으로 이룬 것이다. 이곳에 히노씨의 진면목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정의와 정리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단호하게 언동을 하는 성격이므로, 조금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타인이 불행하거나 불우할 때는 자기의 이해나 영욕을 잊어버리고, 진력을 다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통쾌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성의와 아름다운 마음과 정조를 경모하고, 수어지교를 맺는다는 것이다. 한때는 학교조합의원과 그 외의 공직을 역임하면서 공공을 위해서도 진력하였지만, 현재는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 김제 | 하시다 츠루지로(橋田鶴次郎)씨

호남선 김제역 앞에 미곡상이면서 또한 숨겨진 농사경영자로 하시다 츠루지로씨가 있다. 그는 실제로 활동하는 인사이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가게의 경영방침 등에 관해 물어보면, 단숨에 쉬지 않고 경청할 만한 의견을 이야기한다. 그는 재치있고 경쾌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생각하고…호탕하고 대담하고…정직하고 결백한 사람이다. 김제 하시다의 쌀이라고 하면, 조선 내는 물론 오사카·고베·나고야 및 그 외에도 명성이 자자했고, 질과 양 모두 확실한 보증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의 결백함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미곡상으로서 또한 농사경영자로서 김제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고, 온후하고 독실한 인사이다.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업방침이 매우 견실하고, 김제의 상인 중에서 그

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이다. 또한 그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솔선해서 진력하고, 나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며, 또한 장래에도 그러할 사람이며, 미곡계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김제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 김제 | 세토 마사시로(瀨戶政四郎)씨

비료·담배·석유·잡화상으로 김제 사업계의 중진이고, 동시에 김제 거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원로이다. 세토 마사시로씨는 인정이 두텁고 따뜻한 사람으로, 오늘의 성공을 본 것은 완전히 그의 노력의 결정체일 것이다. 이렇게도 사업에 충실한 그와 같은 원로를 우리 김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신진 사업가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실함으로 오늘날의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그의 일생은 실로 입지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에 거주하는 히로시마현 사람은 성공자도 적지만, 이렇게 히로시마현 사람이 자주 해외에서 발전하려고 하는 웅지를 펼치는 것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성공자가 향리 청년의 피를 끓게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반도의 땅, 지금은 모국의 연장이 되어 있지만, 그가 조선에 건너 올 당시에는 국위가 지금과 같지 않아서, 경멸과 모욕의 시선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반도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사업임에 틀림없다. 현재는 바쁘고 격렬한 가게 업무에서 멀리 물러났고, 아들 두 명이 협력해서 기민한 장사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 김제 | 쿠로다 켄타로(黒田健太郎)씨

김제 읍내의 건축청부업과 재목상으로 무게감을 보이고 있는 쿠로다 켄타로씨는 쿠마모토현 출신으로, 조선으로 건너온 지는 이미 십수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분투노력하여 오늘날과 같은 재력을 쌓게 되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고 사악함을 증오하며, 동정심이 깊고 의협심이 넘치며, 타인의 불행과 불우를 듣고 알게 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자기의 이해득실을 돌아보지 않고 진력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가게에 수년 간 일하던 점원 모씨가 무언가의 이유로 무리하게 퇴직하여 별도로 재목상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그는

그런 일은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더욱 더 공부하여 우량한 재료를 각 수요처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바빠졌다고 한다. 또한 그는 건축청부업자의 신진으로서 관변에도 민간에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의 건축에 대한 견적은 가장 정확하다고 일컬어지며, 재료의 구입이나 용인들의 고용에도 독특한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보기 드물게 어진 부인이고 남편이 부재 시에는 가게 전부를 맡아 점원들을 지휘하고 활동하고 있다.

● 김제 | 아부시(阿部市; 아베이치) 농장

오사카의 아베 이치타로(阿部市太郎)씨는 일찍이 조선의 농사경영에 착안하여, 자금 6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 지금은 800ha의 논, 밭과 산림을 합쳐 약 160ha, 1,300명의 소작인들과 함께 농사의 개량에 힘쓰고 있다. 현 주임 가와사키(川崎)씨는, 이 농장 창립 이래의 공로자이다. 사운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은 오로지 그의 수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농장의 시설로는 1923년 경우(耕牛) 40마리를 구입하여, 연부상환 방식으로 소작인에게 대여하고, 1925년도에는 저축으로 완납하게 하였다. 1926년도 봄에는 농사자금으로 일 인당 7원 또는 20원까지 환불을 했던 것은 농사개량시설 중에서 이채로운 것이었고, 계속 이어서 일 인당 5원의 저금을 하게 하여 농사 개선에 투자하게 하고 있다. 올봄부터는 동력장치를 붙여 정미업도 개시하였고, 김제·부안에 약 100ha의 경지정리를 시공 중이므로, 이것이 완성되면 아마도 이 지방에 크게 이득이 될 것이다.

● 김제 | 이시카와현(石川縣) 농업주식회사

전라북도 김제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이시카와현 농업주식회사는 1908년에 창립되었다. 그 당시의 지배인은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였다. 현재의 지배인은 혼다니 아이지로(本谷愛次郎)씨인데, 그가 취임한 이래 사운이 점점 더 번성했고, 자본금 40만 원, 논 1,500ha, 연수입 14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생각컨대 김제에서 농사경영자 중의 백미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경영 중에 특히 이채로운 것은 금비(金肥) 대금을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농회(奬農會)를 설치하여, 상

호 공영의 목적하에 3개년 소작계약장농금을 교부(소작료 완납자에 대해 1석당 20전씩)하고, 이것을 저축하게 하였는데, 이미 8천여 원에 이르고 있다. 기타 농우·우차·수차·농기구의 대여 등과 같은 농가의 부업에도 주의를 기울여 농촌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지배인 혼다니씨는 보기 드물게 온후한 인사이다.

● 김제 | 조재식(趙在軾)씨

김제에서 미곡상으로 신용이 있고 견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김제역 앞의 조재식씨는 올해 불과 30세의 청년실업가인데, 선정이 온후하고 인격자이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쌀 업계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경이롭게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란 느낌이 든다. 시대는 이미 정미계를 두고 투기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여 너무나 영리 위주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정미업자는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독실한 인격자인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조재식씨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1913년에 처음으로 김제 읍내에서 조선인 대상의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김제는 지세 관계상 전북쌀의 집산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1923년 현재 역전에 공장을 건설하여 정미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후 사업은 나날이 발전하여 정미업 외에도 밤, 수입쌀, 석유, 비료 등도 취급하고 또한 운송업도 겸업하고 있다. 현재 이 상점에서 취급하는 정미는 1년을 통틀어 약 15만 가마니 이상에 이르고, 조선 쌀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가 그와 같이 신용이 있고 자산도 상당히 있는 견실한 조재식씨와 같은 미곡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김제로서는 실로 자랑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생인 조재한씨는 두뇌가 명석하여 무슨 일이든 하나를 듣고 열을 알 정도로 총명하고, 가게 일은 혼자서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조재식씨의 수완에는 실로 탄복할 만한 것이 있다. 조재식 상점이 발전하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 부용 | 사토 코스케(佐藤好助)씨

전북 김제군 부용학교조합 관리자 사토 코스케씨는 1918년에 처음으로 조선으로 건너와 부용에 거처를 정하고 농업에 종사해 왔다. 당시의 부용은 현재와 같이 일본인은 적었고, 소학교도 설립되지 않아서 모두 아동 교육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

다. 그래서 부용의 유지들이 서로 도모하여, 1918년 설립에 착수하여 1919년에 드디어 개교하게 되었다. 당시의 관리자는 나카지마(中島)씨였는데, 1923년에 사토씨는 나카지마씨의 뒤를 이어받아 관리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년간 모든 방면에서 열심히 활약하였고, 그 사이에 가장 곤란하다고 여겨졌던 교사를 신축하기 위해, 약 4,500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201.3㎡(61평)의 훌륭한 교사를 완성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크게 희생한 것은 물론, 직접 그 일을 담당했던 관리자의 노력 또한 실로 적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는 히로시마현에서 태어났는데, 천성이 온후하고 정의가 두텁고 철두철미하게 지성을 다하고 견실하며, 일체의 언동을 기준에 맞춰서 행하는 지조가 견실한 인물이다. 게다가 가정생활도 원만하여 신망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 부용 | 오스미 에츠조(大隅悅藏)씨

부용역전의 오스미 에츠조씨는 1913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처음에는 군산에 거처를 두고 활약했지만,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부용역이 쌀의 집산지로 가장 유망해진 것에 착안하여, 군산에서 부용으로 거처를 옮겨 정미업을 개시하였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고면려하여 오늘의 재산을 이루었고, 김제군내에서 미곡상으로 확고부동한 패권이라고 불리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분투노력의 길은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1년에 취급하는 정미 수량은 실로 4만 가마니를 넘었고, 게다가 1926년부터 동력을 부착하여 정미능률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업에 열심인 한편, 공공사업에도 진력하여 현재는 김제미곡상조합 평의원, 부용학교조합 의원으로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고 과감하며 자신감이 강해서 한 번 숙고한 끝에 결심한 것은 단호하게 감행하는, 진실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하고 솔직하여 허세를 부린다든가 잘난 체하는 것 등은 그의 어디를 둘러 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후쿠오카현 치쿠죠군 미케카도촌(福岡縣築上郡三毛門村) 출신이며, 올해 39세로 한창 일할 나이이다.

● 정읍 | 가나모리 겐조(金森)씨

정읍의 대표적 인물이자 사업계의 중진으로 가나모리 겐조씨를 추천하는 것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도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천성인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사람이나 장소를 안중에 두지 않고 소신을 단언하기를 꺼리지 않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도 있다. 하지만 지위가 향상되고, 자산이 늘어났고, 나이도 든 탓일까, 최근에는 겨우 그 성질이 변하여 모난 구석을 많이 삭이고 있는 모양이 보인다. 그는 처음에 군산에 거처를 정하고 정미업을 경영했지만, 그로부터 거처를 정읍으로 옮겨 정미업 외에 담배의 원매거래소를 운영하였고, 농업의 확장도 도모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정미업자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정읍 제일류에 위치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그가 밟아 온 분투의 흔적을 찾아가 보면, 후배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부인은 현명하고 정숙하며, 자제들은 총명하여 내외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영업부문은 아들이 혼자서 일을 처리하며, 수 명의 점원을 고용하여 활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 정읍 | 사토 코스케(佐藤孝助)씨

맑고 깨끗한 인격자로서 사토 코스케씨를 추천하는 것은 정읍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독실한 크리스트교 신자로서 정읍의 교회에서 존중받으며, 욕심이 적고 담백하여 돈이나 지위에 집착하지 않으며, 애정이 두터운 그는 1908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에 거처를 정했었다. 그로부터 정읍에 온 것은 1916년인데, 그 이래로 철물점을 경영하여 오늘날의 성공을 거두었다. 천성이 온후하여 온정이 넘치고, 두뇌는 명민하여 어떤 것이라도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투시력에는 경탄할 따름이다. 인정이 잘 통해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여 자기의 주의주장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용과 자제를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은 큰 호감을 가지고 그를 대한다. 공직으로 학교조합 의원, 금융조합 평의원 등을 역임했고, 공공사업에도 진력해 왔는데, 현재는 약 660㎡(200평)의 토지를 크리스트교 교회에 기부하고, 사재 약 4천 원을 투자하여 교회당도 신축 중이다. 그는 도쿠시마현 오에군 가쿠시마손 아자 가쿠무라(徳島縣麻植郡学島村 字学村)에서 태어났고,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

● 정읍 | 소메카와 도쿠이치(染川德一)씨

정읍은 종래에 후미진 작은 소읍에 지나지 않았는데, 1911년 철도공사의 개시와 함께 호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전한 곳이다. 소메카와 도쿠이치씨는 바로 그해 1911년에 처음으로 정읍에 거처를 정한, 정읍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학교조합 관리자가 되어 공공사업에 진력하고, 현재는 학교조합 소유의 학교답·학교림·공동묘지 등 약 45만(원)의 재산은 그가 관리자 당시에 불하를 받아 학교조합재산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정읍의 인사들 사이에서는 잊혀졌을 지도 모르겠다. 그는 1924년에 정읍에서 전기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자, 바로 창립 임무를 담당했고, 창립 이래 오늘날까지 경영의 임무를 담당하여 양호한 성적을 올렸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노력에 대한 선물이다. 이번에 전기 합병에 즈음하여 스스로 물러나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고 있다. 그는 정의를 사랑하고 사악함을 증오하며 동정심과 의협심이 많고, 타인이 불행하거나 불우할 때는 자기의 이해나 영욕을 잊어버리고, 진력을 다하여 분주하게 움직여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통쾌한 인물이다. 요컨대 그도 역시 앞길이 풍부한 신사이다.

● 신태인 | 아카키 미네타로(赤木峰太郎)씨

전북 쌀 업계의 거두 아카키 미네타로씨는 조선산 쌀 업계의 은인이다. 앉으나 서나 항상 산미의 증수와 품질개선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는 1913년에 현재의 신태인 역전에 정미공장을 세우고, 30마력의 신식 기계를 장착하여, 종업원을 독려하여 정미에 종사하겠다는 공고한 결심으로, 품질이 뛰어난 제품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천성이 실질적이고 강건하며 의지가 강한 노력주의자이자, 말보다 실행을 앞세우는 사람이다. 게다가 두뇌는 명석하고 기민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항상 향상일로를 위해 수양하고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이다. 그래서 같은 신태인쌀이라고 하더라도 아카키씨의 쌀은 다른 것보다 10~20%가 비싸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산미의 개량조제에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정미업뿐만 아니라 약 140ha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전북에서 숨은 농사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장사는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선의 정미계에 드러나는 그의 노력은 괄목할 만한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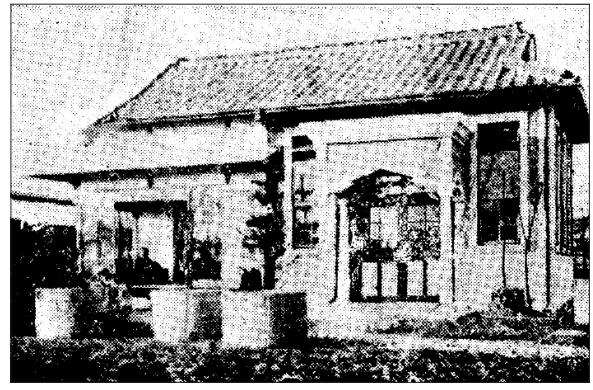
● 옥구군 | 도곡(嶋谷; 시마타니) 농장

농장주 시마타니 야소야(嶋谷八十八)씨가 현재 땅을 택하여 농사경영을 시작한 것은 1905년 봄이었다. 그 이래로 전심으로 농사경영에 몰두하여, 시설은 해가 갈수록 진척되어 현재는 논과 기타 경지를 합하여 약 1,600ha를 소유하고 있고, 1,400명의 소작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 사이에 그는 열심히 분투하여 소작인을 지도하면서, 농사의 개량과 진보를 도모하였고, 우량종자를 배포하여 종자의 갱신을 추진하였고, 3천여 원을 투자하여 줄모 새끼를 구입하여 소작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하였으며, 단책형 묘자리의 모범을 보여주는 등, 산미 개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오사카 시장에서 시마타니 농장쌀은 조선쌀 중에서 그 어떤 쌀보다도 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다. 또한 그는 항상 소작인을 애호하고 고락을 함께 하였기에 소작인들로부터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공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농사경영자들 사이에서 훌륭한 선배로서 항상 후배들의 추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농장은 몇 년 전부터 경지정리에 착수하여 이미 150ha 정도는 완성한 상태이다. 이 농장에는 아직 소작쟁의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이 지극히 원만하며, 지주와 소작인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농장은 1927년 3월 조직을 일부분 변경하여 전답대지 등 약 273만㎡(825,000평)과 자본금 30만 원의 시마타니농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주주는 전부 동족 집안들이다. 농장의 사무는 물론 시마타니 농사주식회사의 사무 일체도 아들인 아츠시(篤)씨가 전부 인수하여 처리하고 경영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천성이 온후하고 정의가 두터우며, 매사 철두철미하고 지성과 견실을 갖추고, 일체의 언동을 자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굳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

● 함라면 | 김병순(金炳順)씨

익산군 함라면 김병순씨는 올해 34세의 청년실업가이자 대지주로서 자산이 약 50만 원이라고 한다. 그는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당시 34세의 한창나이 여성이었던 모친 윤씨는, 57세가 된 오늘까지 독신생활을 계속하며, 사회의 유혹을 극복하고 재산을 쌓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병순씨의 오늘이 있는 것도 역시 모친 윤씨의 노력의 선물이다. 그래서 김병순씨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모친과 상담하고 결행하였다. 또한 김병순씨는,

사업에는 매우 열심이고 향토 사람들을 지도하여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기부를 하고 있다. 1922년에 함라보통학교 설립 때에는 일금 3,500원을 기부하였고, 1924년의 가뭄 때에도 약 1,500원을 내어 빈민들을 구제하였고, 기타 위생조합, 제국군인후원회 등에 다액의 기부를 하였다. 이런 이유로 포상 조례에 따라 오늘까지 총독 및 다른 곳으로부터 표창받은 일이 매우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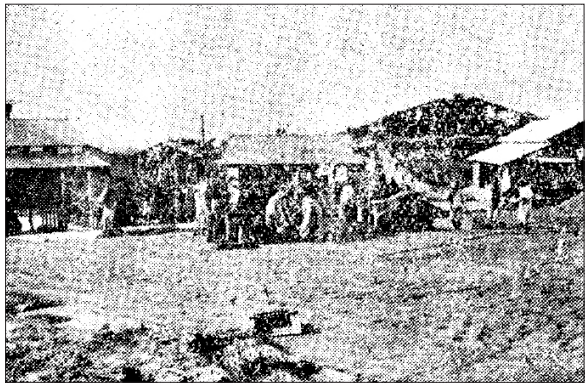


또한 그는 현재 학무위원 면협의회원 등의 공직도 수행하고 있고, 약 1,000명의 소작인을 보유하고, 15명의 농감(農監)을 두고 산미의 증수, 품종개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라 지방의 신뢰를 양 어깨에 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함열역전에 함화(咸和)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함열 | 촌정(村井; 무라이) 정미소

전북 쌀 업계의 중진으로서 함열에 거주한 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함열역전 촌정 정미소의 주인 무라이 토메키치(村井留吉)씨는, 도야마현 니시토나미군 후쿠오카마치(富山縣西礪波郡福岡町)에서 태어났고, 1912년 2월에 처음으로 조선에 건너왔다. 그리하여 함열에 거처를 정하고 처음에는 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함열이 전북쌀의 집산지로 정미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데 착안하여 미곡상으로 전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상당히 큰 고생을 했지만, 현재는 함열의 미곡상으로서 전라북도 내에서 미상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온전히 그의 분투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사업에 충실한 그와 같은 인물을 함열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진사업가의 귀감이 되기도 하여 진정으로 기쁜 현상이다.

꾸밈이 없고 진지하며, 겉만 번지르르하지 않고 건실한 사람이다. 오늘날처럼 사업을



성공하게 된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실로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정미공장을 확장하여 올해 새롭게 20마력의 동력을 더 장착하여 30마력이 되었고, 스스로 진두에 서서 많은 고용인들을 지도하면서 현미의 조제에 종사하고 있다. 조제고는 매년 약 6만 가마니 이상이다. 그는 또한 한때 함열학교조합 의원과 기타 공직에 선출된 적도 있지만, 오래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함열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또한 그의 사업은 조선정미주식회사와 제휴하여 일하고 있는, 패기있는 한다(半田)씨의 뒤에는 이 사람이 있고, 앞으로의 활약은 실로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아직 36세의 장령으로, 한창 일할 나이이고, 앞으로 전북의 정미계에 대두하게 되는 날에는 괄목할 가치가 있다.

● 고창군 부안(富安)면 | 홍해(洪海)농장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홍해농장의 농장주 홍종철(洪鐘轍)씨는 고창읍내에 거처를 정하고, 논 300여ha를 소유하고, 오로지 농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27년 부안면 마스토미(枡富) 농장 과수원을 매수하여, 그곳으로 옮겨 가, 같은 해 9월 농장사무소를 신축하고 오로지 농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오늘날까지 사재를 털어 공공을 위해 진력한 일이 매우 많은데, 고창고등보통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마스토미씨 등과 함께 노력하였고, 이 학교의 오늘이 있는 것은 온전히 그의 선물이다. 1927년 관선 도평의원에 선출되어 도정에도 참여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그리고 홍해농장의 사과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는 전 조선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쿄·오사카·고베 각지는 물론, 조선의 각지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1년의 산출액이 60만 원이라고 한다. 그는 이 과수원에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연 생산액이 100만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올해 35세로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

● 정읍군 용북면 | 지전(池田; 이케다) 농장

전북의 숨은 농사경영자로서 정읍군 용북면 신덕리에 지전 농장이 있다. 이 농장을 처음 시작한 이케다 이치로(池田一郎)씨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고, 현재의 경영주는 아들인 코(效)씨이다. 선대 이케다 이치로씨는 1909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쿠마모토(熊本) 농장, 동척(東拓) 등을 거쳐 1912년에 현재 땅을 선택하여 개간과 함께 농사경영에 착수했다. 1914년 동척을 사직하고 전심으로 여기에 종사하기로 한 이래로 10여 년이 지나면서 시설경영이 호조를 보였고, 결국 오늘의 성운(盛運)을 보게 되었다. 그 동안의 고심노력과 헌신적인 분투는 문외한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성공은 결코 요행도 아니요 우연도 아닌, 오로지 그의 성의와 공로에 대한 당연한 댓가이다. 이케타 코씨는 19세 때에 조선으로 건너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영임무를 맡아서, 온정과 덕으로 소작인들을 대하여 잘 교화시켰고, 그래서 소작인들은 모두 그 덕에 감동하여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논은 관리지를 합하여 약 100ha이다. 철두철미하게 지성을 다하고 견실하게 일하며, 언동 일체를 자제하면서도 지조가 매우 건실한 인물이다.

● 지경 | 이노우에 곤자부로(井上權三郎)씨

옥구군 지경에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경영을 하고 있는 이노우에 농장 농장주 이노우에 곤자부로씨는 현재는 100ha의 논을 소유하고 있고, 사용 소작인은 약 300호이다. 이 사이에 그는 열심히 분투노력하여 소작인을 지도하고, 농사개량을 도모하고, 자기 소관의 농장 소작인 전부의 모내기에 필요한 볍씨는 일본의 우량종을 배포하여 품종 개량과 갱신을 위해 극력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모내기법을 개량하기 위해, 다른 이에 솔선하여 정조식 모내기, 단책 못자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경운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다른 농장보다 수확이 많아졌다. 여하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이른바 성공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제 잇속만 차리는 사람이 많고, 부정행위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라도 법망에 걸리지 않는 한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를 통해 축

재한 사람도 있지만, 그는 소작인을 위해서라면 적지 않은 희생도 치르고 있다. 그 점이 그의 아름다운 점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이다. 또한 그는 지경학교조합 의원, 면협의회 회원 등의 공직도 수행하여 사회 공공을 위해서도 진력하고 있다.

● 지경 | 대원(大園; 오조노) 농장

전라북도 옥구군 지경에서 유일한 현미업자로 오조노 토스케(大園十助)씨가 있다. 현미업 경영자인 오조노씨는 농사경영자로서도 손꼽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솔선하여 시비·품종, 경운의 개량 등을 하고, 산미 개량에 노력하여, 우량미를 정선하여 군산의 시장에 냈다고 한다. 실로 이상적인 방법이다. 군산의 가게는 대량의 거래점으로 업계에 지명이 높은 상점이다. 산미 증식으로 인해 오조노씨의 사업의 장래는 점점 더 유망하고, 한층 더 번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천성이 온후하고, 동정심이 넘치며, 두뇌가 명민하여 어떠한 일이든 직감적으로 관찰하는 힘이 경탄할 만하다. 세상일을 통달하고 있고,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애써 존중하고, 자기의 주의주장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관용과 자제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매우 큰 호감을 사고 있고, 지경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항상 사회공공사업 등에 사재를 털어 진력하고 있다.

● 임피역전 | 히가시카와 신츠치(東川新槌)씨

이리-군산선 사이에 임피역이라는 작은 역이 있다. 이곳에 사는 히가시카와 신츠치씨는, 1911년 9월, 조선의 농사경영이 유망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조선으로 건너와 현재의 임피역전에 거처를 정하고, 농사경영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소작인 및 부근의 농민들을 지도하고 품종개량과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의 성실함은 관계 소작인은 물론 소재지의 일반 농민들까지 감화시켜, 종래에 조선인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게으른 폐풍이 크게 혁신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또한 공공사업에도 진력하였고, 겸손하고 사양하는 인격으로 내외간의 절충을 원만하게 중재하고, 게다가 공공문제를 진행할 때는 자신의 재력을 써서 지역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주의에 의한 정신생활의 확장을 근본적인 의의로 삼고, 최근에는 완전히 신앙생활에 들어가 역전

에 가정집회를 열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어질 것이요, 찾아다녀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는 모두 얻게 된다"고 하고, 스스로 진두에 서서 신의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인격미를 고양시키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 지경 | 카이 산지(甲斐三二)씨

카이씨가 조선에 건너온 것은 1907년이었다. 현재의 땅을 선택하여 농사경영에 착수하였는데, 당시에는 아직 교통편도 열리지 않아 적막하고 불안하기가 형언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는 이 사이에 은인자중하면서 훗날 광명을 기하였다. 논밭 등을 점차로 매수하여 조선 농민을 지휘하고 이끌면서 오롯이 전심으로 농사개량과 발달에 진력해 왔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선 부인들의 노동을 장려하였고, 어느 때는 보통 임금보다 더 많이 주어서 벼를 훑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들 자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도 그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는 소작인의 부업으로 가마니 제조를 왕성하게 하여 상당한 성적을 올렸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부업에서 얻는 일반농민들의 이익은 매우 많았다. 이 또한 오로지 그의 노력의 결과였고, 소작인은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면협의원, 재향군인 지경분회장, 학교조합 의원, 익옥수리조합 평의원 등의 공직을 맡아 사회공공에 대해서도 몸이 가루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황등 | 전북축산주식회사

전북축산주식회사는 1916년의 호경기 시대에 탄생한 회사로서, 영업 종목은 축우 및 자금 대부, 가마니 판매 등이다. 전년도의 대부 소는 28마리, 연부금 3,275원이었고, 현재 총 94마리를 소유하고 있고, 연부금 총액은 8,569원이다. 불과 20만 원의 자금에 5만 원의 불입일 뿐이지만, 비교적 견실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1926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입부는 1,679원, 축우 대부료 5,218원 27전, 대부금 이자 9,415원, 가마니 수익금 등을 합쳐 수입 합계는 16,644원에 이르고, 영업비 기타를 빼고 7,342원의 순수익을 내어, 연 8%의 배당을 하고 있다. 사장은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씨이고, 전무는 가타기리 와죠(片桐和三)씨, 지배인은 박지근(朴智根)씨이다. 박지근씨는 회사 창립 당시부터 지배

인으로 취임하였고, 한때는 재계의 변동으로 인해 슬픈 지경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회복하여 오늘과 같이 견실하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그의 수완 덕택이다.

● 이리 | 이리통송(通送)합자회사

이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운송업 중 하나인 이리통송합자회사는 1920년 3월 조직을 개편하여 합자회사가 되었고, 견실한 영업을 계속해 왔다. 1925년에 출자자를 이마이 타쿠지로(今井宅次郎)·나스 코지(那須綱二)·마츠우라 히데오(松浦英夫)의 세 명으로 개편하고, 마츠우라씨가 대표사원이 되어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80여 평의 창고를 보유하고, 이리역의 중계는 물론, 기타 이리역에 집산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리무역 1,800만 원이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리가 만경강의 개수공사와 이후의 경전북부선의 개수로 인해 운송의 취급 건수도 아주 많아졌고, 인구 증가와 함께 운송업은 점점 더 번영을 초래할 때가 되었다. 주임 마츠우라씨는 온후하고 착실하여 화물주 측의 신용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사랑하고 의협심 있는 인사이자 청년실업가이다.

● 이리 | 하라다 츠요시(原田剛)씨

이리의 실업가로서 그리고 신사로서, 인격자로서 인망을 한 몸에 모으고 있는 하라다 츠요시씨. 그는 처음에 농사경영을 하는 한편, 담배의 원매 거래를 겸업하고 있었는데, 대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몇 년 간 경영해 온 담배 원매 거래를 전주의 원매 거래 회사에 양도하고, 전심으로 그 사업계획에 몰두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작년에 이리 시가지의 신개지인 히노데정(日の出町)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저택을 세웠는데, 이 동네에서 이채를 뽐내고 있고, 그 정원은 수천 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목하 계획 중인 신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척되어 왔다고 한다. 앞으로의 활약은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상식이 풍부하고 인정이 잘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직감하여 자기의 주의나 도덕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여 이해와 동정을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리 시민들로부터 점점 더 존경과 추모를 받는 민간의 중진

으로서 손꼽히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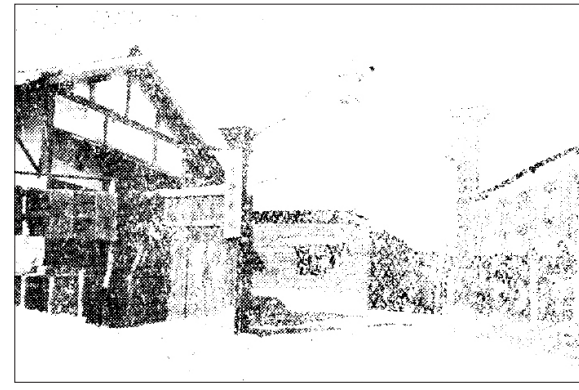
● 이리 |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리 지점은 지방 산업의 개발과 함께, 경지를 정리하고, 자비(紫肥)[42]를 장려하고, 동척촌을 신설하는 등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1921년도부터 정읍군 천원에 동척양잠촌을 설치하여 잠업을 극력 장려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사 소유지의 대부분은 전북평야의 논이 주를 이루고, 밭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야부에 거주하는 농가는 벼농사 본위이고, 그 외에 부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농가경제는 예상 이상으로 빈약한 데가 있고, 평야부의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우선 평야부에 거주하는 농가들에게 부업 수입의 길을 강구도록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기하고자 했다. 그 부업으로 가장 적절한 양잠을 장려하기로 하고, 정읍군 입암면의 회사 소유지 60ha의 일부에 뽕밭(桑園)을 설치하여, 이곳을 양잠 장려의 기본지로 삼아, 점차로 각지에 보급해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착수했는데, 아직 시간이 그리 흘러 가지 않았음에도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 외에 회사는 소작인 및 이주민 등을 위하여 농업창고를 설치하여, 수확시기에 벼를 맡기고, 그에 대해 상당한 자금을 융통해 주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지배인은 히사마츠(久松)씨인데, 그는 온후하고 독실하며 모난 데가 없는 외교가이고, 또한 두뇌가 명석한 수완가이다. 의지가 견실하여 부귀를 자랑하지 않고, 권세를 부리지 않는 좋은 지배인이다. 부지배인은 야마구치 쇼켄(山口正賢)씨인데,

42 콩과의 다년초.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목초로 전 세계에 널리 재배하게 되었다.

그는 근검 솔직하고 진지하며, 온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내외로 신망이 두텁고 평판도 아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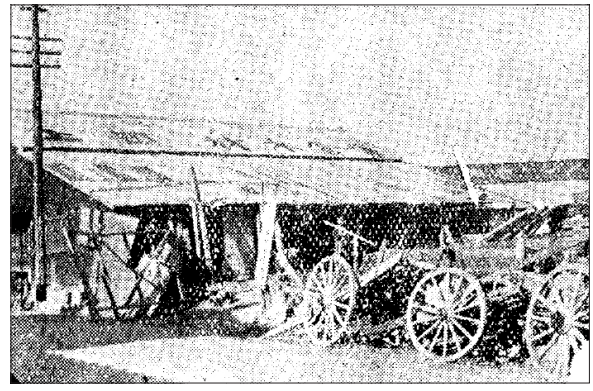
● 이리 | 화성(華星)농장



이리 화성농장은 조선 굴지의 부호인 경성의 백인기(白寅基)씨가 경영하는 농장이다. 처음에는 전주에 사무소를 두고, 삼례, 이리와 기타 전라북도의 각 군에 퍼져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것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1908년 11월에 전주 및 삼례에 있는 사무소를 폐쇄하고, 이리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던 것이다. 그 이래로 농장은 소작인의 지도계발에 유의하며, 전심으로 농사의 개량발달에 진력하여 벼농사, 보리농사, 콩, 양잠, 녹비 재배 또는 수리관계 등에 많은 진력과 공헌을 하고 있다. 농장주인 백인기씨는 경성의 일류 실업가로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었고, 쾌활하며 겉과 속이 같고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하며, 동시에 자신감이 강하고 한 번 숙려한 끝에 자신의 의사가 옳다고 믿고 결심한 것은 물불 안 가리고, 멈추지 않고 감행하고 실행하는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이다. 또한 동정심이 많고 의리도 깊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말 그대로 꽃도 열매도 있는 좋은 사람이다. 그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농장에서는 아직 한 번도 소작쟁의가 일어난 적이 없고, 지주와 소작인 사이가 실로 원만하다.

또한 화성농장 지배인 아오타 다케지(青田竹治)씨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협조를 잘 유지했고, 천성이 담백하여 사람들을 접하는 데에 장벽이 없고, 특히 공공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이리금융조합장, 익산면협의원 등에 천거되어 매우 바쁜 농장 사무를 하는 한편으로, 이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통이 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리 | 우에다 쿠마지로(上田熊二郎)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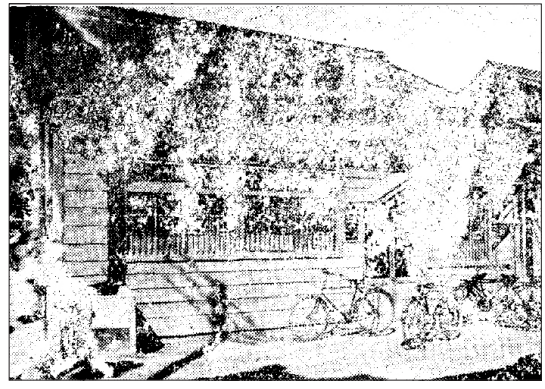
이리 히노데정에서 토목건축 청부업을 하는 우에다 쿠마지로씨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남자로서의 체면을 세우고 있다. 그는 야마구치현(山口県) 출생으로, 1925년 이리역전의 아오키(青木) 식당을 건축한 이래로 그 명성이 매우 높아졌고, 일이 빠르고 친절하다는 평판이 나서, 이리에 있는 문화상회도, 영국사(榮國寺)도, 메이지 여관의 일부도 그리고 함라공립보통학교도 모두 그의 손으로 세워졌다. 그는 건축청부업 외에 목재상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저렴하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 보통 청부사들보다 10~15%는 싸게 공사를 해 준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싸게 해 주기 때문에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에다씨는 청부업자들 사이에서는 진귀한 인격자이다.

● 이리 | 사사키 나오사부로(佐々木直三郎)씨

이리 사카에정통(榮町通)에 각종 도기류와 살림 도구와 기타 잡화 일체를 풍부하게 갖추고 크게 영업하고 있는 사사키 상점이 있다. 점주인 사사키 나오사부로씨는 아주 뛰어난 수완가로, 수년 동안 경영해 왔던 인쇄사업도 새롭게 공장을 건축하여 이상적인 인쇄소를 실현시킨 후, 각종 기계와 기구를 완비하여 착착 성가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사사키씨는 이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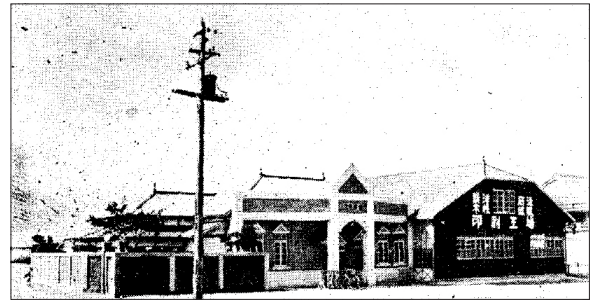
손꼽히는 수완가이자 유력자로서 대표적인 실업가 중의 한 명이다. 장사를 할 때는 일종의 독특한 솜씨를 발휘하였고, 보험 대리점이나 금융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범위도 넓고 금액도 많은 데다가, 은행이나 기타 신용도 매우 두터운 편이다. 그가 이러한 오늘날의 지위와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불요불굴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얻은 선물이다.

● 이리 | 삼남(三南)은행 이리 지점



전주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삼남은행이 이리에 지점을 설치한 것은 1924년 3월이었다.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리 지점의 업적은 조선 전체의 금융계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호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그 일례를 제시하면, 이리 지점은 전주 본점보다 예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리 지점은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데, 지금은 50만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리 각 은행 및 금융조합의 예금 총액 230만 원 중 약 1/4은 삼남은행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개척지의 이리에서 삼남은행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삼남은행 이리 지점은 지금은 이리 금융계에서 확고부동한 훌륭한 은행이 된 것이다. 대출도 상업 대출을 주로 하고, 게다가 2개월 기한으로 대출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회수 곤란에 빠진 적은 단 1건도 없다고 한다. 은행으로서는 매우 드문 예이다. 호성적을 거둔 데다가 견실미까지 더하고 있다. 지점장 사토무라 쇼이치(里村章一)는 1924년 이리 지점이 개설되었을 즈음에, 식산은행 간부로부터 아깝다는 말을 들으며 식산은행을 사직하고 삼남은행에 들어와, 이리 지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리 지점장으로 부임한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은행 사무에 정통하고, 열심하면서도 솜씨도 좋은 사람이었다. 일반 거래객에게는 정중하고 친절을 바탕으로 접하기 때문에 평판도 매우 좋았다. 은행도 곧 사옥의 신축에 착수하게 되어 있고, 회사는 점점 더 융성을 보려고 하고 있다.

● 이리 | 문화상회(文化商會) 야마우치 토오루(山內哲)씨



인쇄·석판인쇄·서양식 장부·각종 제본 등을 전업으로 하는 문화상회 주인 야마우치 토오루씨는 1924년 5월 이리 금융조합 이사를 사임하고, 7월에 이리 우편국 옆에 문화상회를 개업했다. 이래로 이곳의 이점을 이용한 그의 활약상은 널리 각 방면에 선전되어, 각 방면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여, 1년 간의 인쇄고는 약 4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번에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고, 히노데정의 중앙에 당당하고 의연한 528㎡(160평)의 대공장을 신축하면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에는 모두 동력을 사용하였고, 게다가 참신한 활판인쇄기 6대·최신식 대량 제조생산 석판 기계 1대·석판 수동인쇄기 2대·양장 제작기 2대·종이절단기 2대를 장착하여, 한층 더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였고, 어떠한 대량 주문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 상회의 인쇄는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교정도 틀리는 적이 없어서, 이 상회에 한 번이라도 주문해 본 사람은 언제까지나 바뀌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가게에 대해 내가 직접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상회의 인쇄는 전북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조선에 그 이름이 퍼져 있다. 상회 주인 야마우치 토오루씨는 소박하고 솔직하지만, 홍정 따위는 없는 마치 대쪽 같은 인물로서, 누구든 그에게는 호감을 갖고 대한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활동가인데, 옷차림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몸에는 거칠고 값싼 의복을 걸친 채 직공들을 거느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때로는 스스로 관아나 회사 등 단골에게 배달을 하는 등, 눈이 돌아갈 지경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이리 금융조합의 평의원이고, 사회의 신용도 두텁기에 업무가 점점 더 융성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 이리 | 이리금융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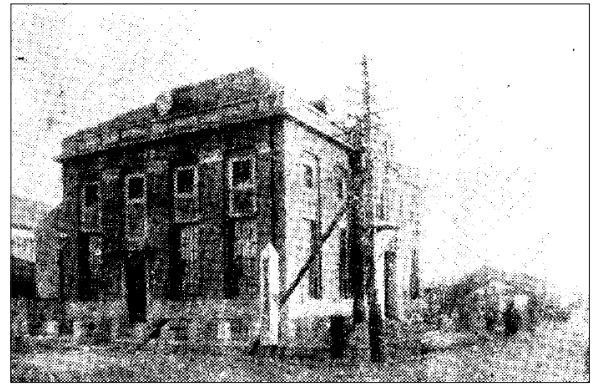
이리금융조합은 1920년 도시금융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줄곧

온건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21년의 예금은 불과 10만 원 내외였는데, 1926년 말에는 37만 원이 되었고, 대출금도 1921년에는 아직 15만 원이었던 것이 1926년 말에는 35만여 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조합원은 일본인 333명, 조선인 103명으로 합계 436명이고, 출자금 1,292구좌이고, 1926년도의 잉여금은 9,840원에 이르며, 7%의 배당을 하였다. 조합장은 아오타 타케지(青田竹治)씨이고, 이사는 미야나가 가메토시(宮永亀年)씨이다. 이 조합이 이렇게도 견실한 발달을 이루어낸 것은 무엇보다 미야나가씨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한 결과이다.

● 이리 | 아사기리 아사노죠(朝霧浅之丞)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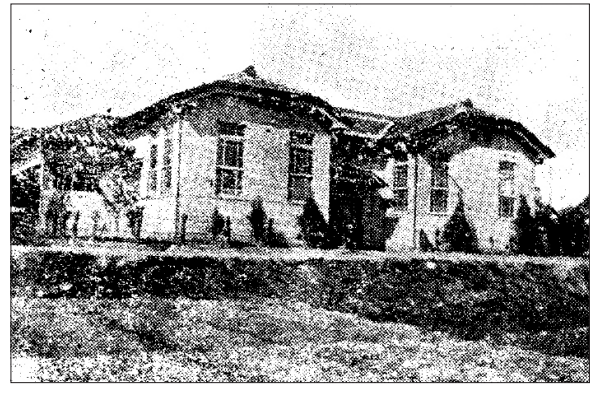
이리의 토목건축청부업 아사기리 아사노죠씨는 오카야마 현 가츠다군 구몬손(岡山県勝田郡公文村)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부터 료가와쿠미(菱川組)에 들어가 17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1904년 오카야마 사단의 매립공사를 완성한 것을 시작으로, 1909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경의선 토목공사를 완성시켰다. 그 후에 호남선으로 들어왔다. 호남선 제2, 제3의 2공구를 시행하였는데, 지경-임피간·군산항 인입선 등은 모두 그의 손으로 완성한 것이다. 1914년 료가와쿠미에서 나와 독립하여 1918년에 이리에 거처를 정하고 익옥수리조합공사·강경방수후공사 등의 공사를 시행했다. 이 부근의 큰 공사는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난공사라고 여겨졌던 용진수리조합공사 같은 것도 모두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 완성하였다. 그는 의협심이 강하고, 사회공공을 위해서는 재화를 아끼지 않고 기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구몬소학교에도 상당한 기부를 하였다고 한다. 여하튼 그와 같은 고결한 인격자가 이리의 일각에 있는 것은, 이리의 자랑이다. 그리고 그는 또한 독실한 크리스트교 신자이다.

● 이리 | 식산은행 지점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이 전주농공은행 터를 물려받아 이리에 지점을 설치한 당시의 이리는, 철도가 막 개통했던 무렵이었고 거래도 지극히 미미했던 곳이었다. 이래로 몇 가지 곤란을 극복하고, 당 지점이 오늘의 대성공을 거두게 된 까닭은, 모두 역대 지점장들의 민첩한 재능과 각고면려한 데 대한 선물일 것이다. 이리의 발전과 함께 자금 수요는 매년 증가하였고, 최근의 1년 통계를 보면 예금 1,439만 원, 환불 1,397만원, 대출 717만 8천 원, 회수금 339만 9천 원이었고, 현재 지점장 오츠카 코로쿠(大塚廾六)씨는 의지가 견고하고, 두뇌가 치밀하며, 더욱이 민완가여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 이리 | 천성당(天誠堂) 의원



이리 사쿠라정(櫻町)의 일각에 훌륭한 병실과 모든 의료설비를 충실하게 갖춘 천성당 의원이 있다. 원장은 쿠마모토 의학사인 문치순(文致淳)씨이다. 그는 처음에는 전라북도 함열에서 공의(公醫)로 개업했는데, 이리가 교통의 중심지이자 장래가 유망한 곳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1926년에 이리로 거처를 옮겨서 개업한 것이다. 그는 또한 이리의 공의로서, 순종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의사(刀圭家)로서, 일반 환자들의 신망이 두텁고, 의협심이 풍부하여 가난

한 환자에게는 무료로 진찰을 해주는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평판이 좋고 항상 바쁘기 그지없다. 또한 치과부를 설치하는 한편으로, 익산면 협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도 공헌하고 있다.

● 이리 | 쿠사가야 히데노스케(草ケ谷英之助)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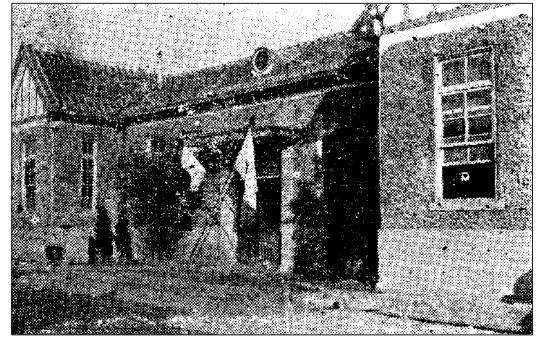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은 "쿠사가야씨는 영리한 사람으로 처세가 능란하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울러 그것은 쿠사가야씨의 인물됨을 모두 묘사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영리하고 처세술이 능란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다. 그가 존경받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억제하고 편달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향상의 길을 걷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다. 가게는 문방구, 서적·잡지 및 차를 판매하고 있고, 호남총포화약주식회사 지점도 겸업하고 있는데, 지극히 신용이 있는 점포이다. 특히 점주 히데노스케씨는 식견이 있고, 사려가 깊고, 온후하고 착실한 실업가로서, 사회의 신망도 두터워서, 이리학교조합 의원, 이리금융조합 평의원 등에 천거되었다.

● 이리 | 츠치구루마 진사쿠(土車仁作)씨

이리 츠치구루마 상점은 석탄·연탄·기계유·휘발유·석유·토관·만년 기와·간편 우물벽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업을 하고 있는 이리에서 대표적인 상점이다. 점주인 츠치구루마 진사쿠씨는 이리의 유력자로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현재 익산면 협의회

원으로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츠치구루마씨가 공공방면에 진력해 온 공적은 적지 않다. 이리를 사랑하는 일념으로 면협의회의 석상에서는 불을 토하는 듯한 지론으로 발언하여, 항상 회의장에서 인기인으로 이채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점포의 업적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 소장 실업가로서 민완가라는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츠치구루마씨는 요즘 욱일승천의 기세이다. 앞으로의 활약이야말로 반드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이리 | 회생(回生)의원 카나메 마사시치(要政七)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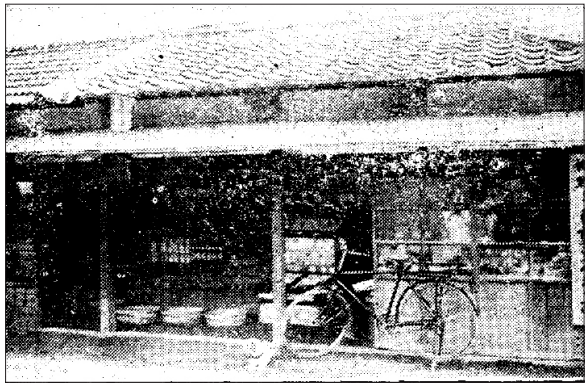


이리 사카에정(榮町)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회생의원의 원장 카나메 마사시치씨는 나가사키 의학사로서, 온후하고 늘 '웃자'주의이다. 입원실 등도 완비하고 있고, 또한 환자에 대해 주의 주도하고 간절하여 평판이 매우 좋다. 그는 이전에는 고창에 살았는데 이리 땅이 교통상 장래에 발전할 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고창에서 이사를 와서 현재의 장소를 정하고 개업하였다. 그 이래로 의료기계의 구입과 의원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업적을 쌓아 순조롭게 발전했고, 올해 봄에 입원실의 일부를 개조하고, 뒤뜰에 2층 주택을 신축하는 등 분투노력한 결과, 드디어 오늘날의 기초를 쌓아올렸다. 이리고등여학교, 소학교, 보통학교 등의 촉탁의사이고, 의사로서 진실로 안성마춤인 사람이다.

● 이리 | 야마노 야스타로(山野安太郎)씨

이리의 창시자이자 이리에서의 성공자로서, 이리역 앞에서 키슈(紀州)[43] 밀감 및 과일 도·소매상을 경영하는 야마노 야스타로시가 있다. 이리에서 성공인은 상당수 있지만, 이

43 현재 일본의 와카야마(和歌山)현 전역과 미에(三重)현 일부.



야마노씨 등이 그 중에서 주요한 인물일 것이다. 향리는 가사마츠 요코(笠松誉行)씨와 동향이라고 하니까,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이다. 이리에서는 본고장 키슈 밀감의 특약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아졌고, 현재는 호남선 중에서 판매량이 많기로는 야마노 상점에 미칠 만한 곳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야마노씨는 히노데정에서 유력자로서, 동네일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진력과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이고, 솔직한 기질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리 | 익산금융조합

익산금융조합은 최근에 착실한 발전을 이루어 예금 151,280원, 환급 135,218원, 대출 125,380원, 회수금 119,615원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출의 대부분은 농사자금인데, 당국의 농사개량 장려와 맞물려서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사장 아사다 사부로(浅田三郎)씨는 진지한 사무가로서, 조합원의 신망이 아주 두텁다.

● 이리 | 가사마츠 스구유키(笠松譽行)씨

이리의 미곡상이자 숨은 농사경영자로서 가사마츠 스구유키씨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소작인을 지도하고 농사개량을 도모하였는데, 볍씨를 배포하고 우량품종의 개량 및 갱신에 노력하였고, 비료를 배포하여 산미증식을 도모하고, 소작료는 지극히 저비율로 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농장에서는 소작쟁의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다. 소작인의 형편을 항상 이해하고 동정하여, 그들을 애호하고 고락을 함께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온정을 그대로 드러냈고, 소작인을 대우하는 것을 마치 아기 돌보듯 하고, 또한 소작인들은 그에 대해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느끼고 있다. 그는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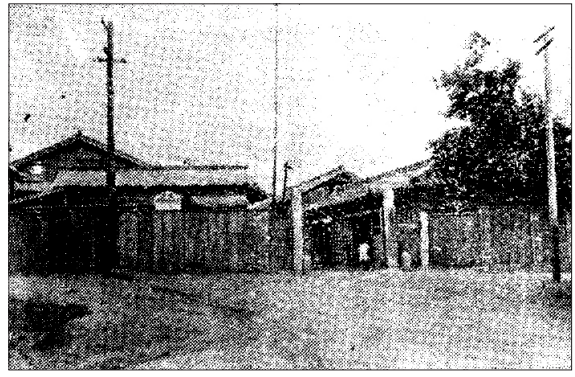
어 공직은 전부 사퇴했는데, 공공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쏟아 진력하고, 겸손하고 사양하는 인격으로 내외를 절충할 때 원만함을 유지하고, 첫 대면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면모는 천진의 미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의 장래가 한없이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일관된 성의와 온정을 가지고 인격의 빛을 발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한층 더 그 인격이 고양된다. 그는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타인에게 적은 돈을 융통해 준 적이 있었다. 변제일이 왔을 때, 그가 이자를 은행이자 이상은 결코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미담으로 항간에 떠돌고 있다. 이 일 하나를 보더라도 그가 누구에게서나 존경과 흠모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덕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이리에 있어서 성실하게 노력 건투하고 있다는 것은 이리의 자랑이다.

● 이리 | 츠루야(ツルヤ) 지점 이이지마 유조(飯島祐造)씨

이리 츠루야 지점은 개점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리의 잡화양품점으로서 확고부동한 정도가 되었다. 상품은 우량품을 아주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서 다른 가게의 추종을 불허한다. 참신한 유행물들은 모두 츠루야의 손으로 팔려나간다. 따라서 물품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양품을 싸게 파는 것을 모토로 하고, 손님들에 대해서는 친절을 제일로 삼는다. 지점장 이이지마 유조씨는 야마나시현(山梨県) 사람으로 이리에 오기 전에는 군산의 본점에서 오랫동안 솜씨를 발휘한 사람이다. 이제 겨우 서른 나이를 갓 넘겼는데, 장사와 사교술에는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리에서 청년실업가로서 견실한 행보를 해 왔기 때문에, 1927년에 설립된 쇼와회(昭和會)에서는 그를 회계간사로 선임하여 금전출납과 기타 일체의 일을 맡겼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얼

마나 신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츠루야 지점의 앞날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 이리 | 금정(今井; 이마이) 정미소



이리의 깨끗한 인격자로 이마이 타쿠지로(今井宅次郎)씨를 추천하는 것은, 이리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마이씨가 개인 경영을 하고 있는 이마이 정미소는 1911년에 개업하여, 30마력의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1년의 조제고가 약 3만 석에 이른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트교 신자로서 이리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애정이 두터운 사람이다. 한때는 학교조합 의원과 기타 공직에도 있었고, 음으로 양으로 이리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진력한 바가 크다. 최근에 와서는 영업 방면에 전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산 | 군산병원 도츠카 소타로(戶塚總太郎)씨

군산병원은 원 군산민단병원장이었던 의학사 가게야마 유조(影山勇蔵)씨가 1916년 9월에 개업하였다. 가게야마씨가 도쿄로 귀환하게 되면서 현 원장인 도츠카 소타로씨가 1919년 8월에 2만 원을 투자하여 그 뒤를 계승했다. 도츠카씨는 시즈오카현(静岡県) 출신으로 현립 하마마츠(濱松)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츠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의 지케이카이(慈惠會)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12년 8월 졸업하면서 지케이카이 의학사의 칭호를 받았다. 같은 해 1년 동안 지원병으로 군무에 복무했고, 그 후 당시 군산에 개업하고 있던 양부 도츠카 가이치(戶塚嘉一)씨를 찾아 조선으로 건너온 것이 1915년 봄이었다. 당시 의사계는 수준이 매우 유치하고, 조선인 개업의가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신진 의학사로서 그는 수완이 뛰어났고, 강인하면서도 담백하였고, 그래서 민중적이었다. 일반환

자에 대한 친절이 크게 평판이 나서, 명의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5년 10월에 군산부 공의로 선발되어, 군산중학교를 시작으로 각 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유곽조합의 치료의, 우편국·해항의 검역위원, 군산경찰의를 겸임하였다. 그 외에 제일생명보험, 다이쇼생명, 메이지생명, 동양제국보험회사의 진찰검사의를 촉탁받아 밤낮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격무를 하는 한편, 군산상공주식회사 사장, 제국재향군인 군산분회 회장, 정우회(町友會) 호화(互和)회장, 군산신사 우지코 소다이(氏子総代)[44], 애국부인회 간사, 군산자아단(自衛團) 단장, 군산의사회 회장, 군산 체육협회 이사, 그리고 그 외에 셀 수없이 많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공공적으로도 공헌하고 있다는 것은 대서특필해야 한다. 수 차례에 걸쳐 그 공로를 표창받은 영예도 안고 있다.

● 군산 | 한다 타키요시(半田瀧吉)씨

군산 미곡상조합의 중진 한다 타키요시씨는 와카야마현 출신의 소장으로 동향 선배인 부산의 하자마(迫間)씨 댁에서 사업 감각을 단련하여, 1903년경에 군산으로 와서 오로지 미곡무역에 종사하였고, 본바닥에서 성장한 사람인 만큼 상기상략에 예민하고 이재에도 밝아 종횡무진한 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실력과 수완을 인정받아 미곡상조합 평의원으로 천거되어, 일찍부터 쌀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18년 경성에서 텐니치츠네지로(天日常次郎)씨를 중심으로 설립된 조선정미주식회사가 군산 지점을 설치할 때, 그와 공동사업으로 회사 사장 겸 군산 지점장에 취임하여 본정통(本町通)에 공장을 건설

44 한 신사에 속해 있는 지역민들을 우지코라고 하고, 그 우지코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신관과 협력하여 신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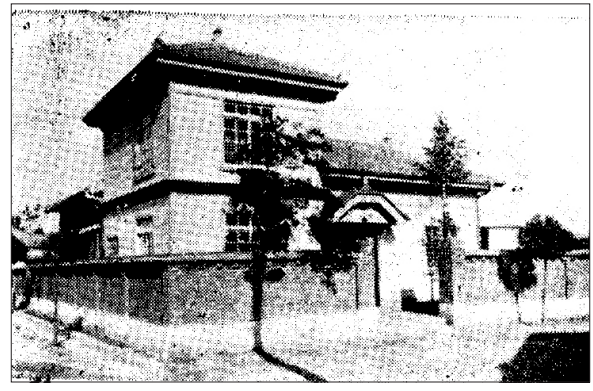
하고 1,650㎡의 건조장과 75마력의 기계동력을 장착하여, 사용 인원 200여 명을 거느리고 회사의 초석에 점점 더 견실한 맛을 더하여, 해마다 융성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는 목하 군산미곡신탁회사 상무, 미곡상조합 평의원이 되었고, 4기째 상업회의소 의원직을 맡고 있다. 사회공공에 공헌하고 군산 쌀 업계의 중요한 인재이다.

● 군산 | 토이즈미(豊泉) 양행

군산 사카에정(榮町)의 중심 와타나베(渡邊) 포목점과 마주 보면서, 양품, 잡화, 여성 화장품, 시계, 귀금속을 파는 토이즈미 양행이 있다. 가게 앞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쇼윈도에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상품이 풍부하고 품종이 다종다양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다. 아이들의 장난감부터 각종 양복을 비롯하여 일본 및 서양 악기, 귀금속 장신구류 및 실내장식 용품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종류가 있다. 품질도 좋은 데다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있고, 기타 특약판매 같은 것도 제조사를 잘 선정하여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본인과 조선인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다. 점주인 토이즈미 마사키치(豊泉政吉)씨는 남양군도에서 구미 각국까지를 무대로 삼아, 청년 시대부터 세계 각지를 20여 년간 다니며 활약분투한 사람인 만큼, 그 분투의 역사를 지면만 충분히 허락된다면, 소설보다 더 기이한 전기를 저술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해외로 웅비하여, 20대에 일찍이 남양군도에서 사업을 창업하여, 지배인으로서 그 비범한 재주를 발휘하여, 일약 백만금을 획득했는가 하면,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날아가 무역, 식림 사업, 광산업 등 모든 방면에 손을 뻗쳤다. 한때는 도쿄에서 사업계의 괴짜로서 경이로울 정도로 장래를 촉망받던 사람이다. 그는 만년에 과거의 파란만장한 생활에 질

려, 안주의 땅을 조선에서 찾고자 했고, 작년 봄에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고 문학 방면에 가장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신문잡지나 기타에 건필을 휘둘러 투고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는 군산부정의 중견인물로서 존중받게 될 것이다.

● 군산 | 군산토목합자회사 이토 에이타로(伊藤榮太郎)씨



군산부 신흥동에 웅장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토목건축청부업계의 중진이자 군산토목합자회사 대표인 이토 에이타로씨는 1885년에 이와테현 와가군 타치바나손(岩手県和賀郡立花村)에서 태어나, 청년시대부터 토목건축에 뜻을 두고 향리인 이와테와 홋카이도 지방의 크고 작은 공사를 청부하여 명성을 떨쳤다. 해외 웅비의 장대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뜻을 조선에 품고 봉황의 날개를 펴 조선으로 건너와 1914년 2월에는 스가와라구미(管原組)의 직원이 되어 대구정차장 건축공사를 훌륭하게 준공시킨 것을 시작으로, 이어서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수많은 대소 공사를 완성하여 비범한 솜씨를 발휘하였다. 대안에 있는 서천수리조합 서부저수지 제언 축조, 급수탑 축조공사 및 군산중학교 특별교실과 기타 신축공사는 모두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 군산부내에서 한 공사도 적지 않으며, 목하 동진수리조합 제6구 제13지선 신설공사를 청부받아, 완성을 향해 착착 진행 중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진취적인 기상이 넘치고, 사사로운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호남 공사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만큼 이 업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그를 접해 보면 속깊이 사람을 잘 받아들여서 일종의 그리움마저 느끼게 된다. 지금은 사상이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조선 내의 토목건축청부업계는 해가 갈수록 번성하고 있어서, 그는 다년간 쌓아온 것들을 쏟아부어 점점 더 큰 활약을 할 것이다. 그는 사회공공방면에서 항상 진력을 다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를 진전시켜 대성할 것이고, 전도양양하므로, 한층 더 건재와

분투를 빈다.

● 군산 | 야마모토 가즈오(山本一男)씨

영고성쇠는 세상의 이치라고 하지만, 미곡상만큼 부침성쇠가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배아미이든 정미이든 위탁정미든 모두, 그날그날의 시가(相場)에 지배를 받는다. 최근 미가의 격변으로 인해 군산 쌀 업계도 적지 않은 상처를 받게 된 것 같다. 그 와중에도 확고부동하고 점점 더 융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점이 야마모토 가즈오씨의 상점이다. 그는 이재에 뛰어나고, 또한 두뇌가 면밀하여 등락을 짐작하는 선견지명을 갖추고 있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전광석화와 같이 과감하게 결행할 줄 알고, 기회를 포착하는 비범한 재주를 갖고 종횡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하여 적확하고 견실한 이득을 올려 지금은 군산 쌀 업계의 중견인물이 되었다. 1921년 7월 히라하루 토미쿠라(平春富蔵)씨를 의지하여, 강경에서 군산으로 와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거만의 부를 쌓았고, 최근에 신흥동에 웅장한 저택을 신축하고 있다. 사람됨이 과묵하고 온건하여 추호도 으스대는 풍이 없다. 본적은 히로시마시 도테마치(広島市土手町) 출신으로, 나이도 아직 불혹이 되지 않았으며, 작년에 쌀가게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의(학교조합의원)에 제2위로 당선되는 등, 신진 실업가로서 장래가 촉망된다.

● 군산 | 화강(花岡; 하나오카)상점

군산 쌀 업계의 투사이자 거물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오카 츠루마츠(花岡鶴松)씨이다. 그는 야마구치현 쿠마게군 우마시마(山口県熊毛郡馬島)에서 태어났다. 1902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미곡과 기타 무역업을 개업하여 지극히 진지한 태도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서둘지 않고 소걸음처럼 온건하고 착실한 영업태도를 보여주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여, 1914년 행정(幸町; 사이와이정)에 부지 3,960㎡의 광대한 토지를 얻어, 현재와 같은 정미업을 개시했다. 이 공장의 기계능력은 30마력으로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공장의 위치가 유리한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건조장과 공장의 배합이 좋아서, 성적이 우수한 군산 굴지의 공장이다. 이렇게 십수 년 동안 분투한 결과 오늘날의 성과를 보았고, 5조통(五條通) 모퉁이의 구 가옥에서 6조통의 웅장한 저택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는 거류민단 당

시부터 수년 간 연이어 군산상업회의소 의원으로 천거되었고, 공공사업에 진력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목하 미곡신탁회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군산 | 마츠마에(松前) 양품점

군산 메이지정통(明治町通)에 점포를 개축하여 장식을 단 아름답고 화려한 가게로서, 항상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점원들은 물론 점주까지 일반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짬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호평을 모으고 있는 것은 양품, 잡화, 장신구, 화장품을 파는 마츠마에 양품점일 것이다. 이 가게는 지금은 동업종계의 중진으로 그 패권을 쥐고 있다. 점주 마츠마에 젠쿠로(松前善九郎)씨는 원래 히라노 가시치로(平野嘉七郎)씨의 금융부 지배인으로 다년간 정근했었던 사람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히라노씨가 도쿄로 귀환하자, 사직서를 내고 현재의 자리에 개업하였다. 그는 스스로 점원들보다 앞장서서 활동하고,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모토로 하여 시종일관한 결과, 오늘날의 융성을 보게 되었다. 그는 애히메(愛媛) 출생으로, 조선에 건너와 20여 년의 세월을 지냈고, 이에 견실한 기초를 쌓았던 것이다. 그는 매우 온후한 신사이고, 공공심이 두터워서 군산중학교 설립 기성회를 설치하여 실행위원에 천거되었고, 수 차례 당국에 절충진정하고, 이전에는 군산제국재향군인분회장, 학교조합 의원 등의 공직을 맡아 지역발전에 애쓰고 있다.

● 군산 | 모리타 츄타로(森田忠太郎)씨

군산 토목건축청부업 모리타 츄타로씨는 애히메현 우와지마시 와레이쵸(愛媛県宇和島市和霊町)에서 태어났다. 올해 67세로 고희에 가까운데도 장년을 능가할 정도로 이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가 군산에 온 것은 1920년인데, 조선 내 각지는 물론 멀리 만주까지 날개를 펴고 천군만마 속을 달리던 옛 무사이다. 성정이 호탕하고 게다가 두뇌도 면밀하며, 사려가 깊은 점은 그의 사교 태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한번 이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질릴 때까지 해내는 견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인품과 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의 부하로 일해 본 사람은 모두 마음으로 복종한다. 그에게 적의를 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철도, 지방수리공사, 경지정리 등 그의 손을 거친 공사는 헤아릴 수 없

을 정도이다. 그는 작년에 학교조합의원 선거 때에 공사 현장인 신의주에 있었고, 의원이 될 마음이 없었는데, 정내의 유사 및 청부업계의 간절한 소망을 끊어내기 어려워, 선거 전날 조선으로 돌아와 진두지휘를 하여 당선되었다. 현재 군산토목건축청부업 조합장으로 천거되었다.

● 군산 | 마츠바 미츠사부로(松場蜜三郎)씨

군산 본정통에 마츠바 상점이 있다. 전 점주인 마츠바 엔타로(松場延太郎)씨는 1903년에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한상선주식회사가 군산지점을 개설했을 때 지점장으로 군산에 왔었다. 그는 히로시마현(広島県) 출신으로, 1887년 부산에 상륙하여 니시무라(西村)상점에 들어갔고, 상기상략에 예민했던 그는 바로 매매 주임이 되었고, 그 후 이 회사에 들어가 군산지점장으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그 이래로 그는 일의전심으로 업무에 분투노력하였고, 러일전쟁 이후의 시대변천에 따라 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자신의 직책을 수행했다. 그 후에도 군산에 거처를 두고, 미곡상을 경영하여 절대적인 신용을 얻었고, 상업회의소 의원, 금융조합 미곡상조합 평의원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06년 현 점주 미츠사부로씨를 서양자로 맞아들여, 본인은 최근에 요코다정(横田町)에 웅장한 저택을 신축하여 은거생활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날의 성공을 성취한 것은 현 점주인 미츠사부로씨가 경제계의 추세를 달관하는 눈을 가졌고, 그리하여 몇 년 되지 않아 거액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 군산 |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씨

사토 마사지로씨는 애히메현 출신으로 1865년에 태어났다. 1905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군산에 거처를 정했다. 조선에 건너올 당시에는 조선인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대금업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시가지의 경영에 착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셋집을 건축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당초에는 갈대밭이었던 지금의 신흥동 일대의 넓은 땅을 경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오늘날에는 집들이 즐비하여 번영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사토씨가 일찍이 군산의 장래 발전을 내다보고, 경영에 모든 방책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금 야마테(山手) 유곽은 그가 소유지를 16,500㎡ 기증했던 곳이다. 그 위대한

공적은 크게 경의를 표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는 공을 이루고 이름을 높여서 유유히 여생을 도쿄에서 보내면서, 군산에는 가끔 돌아오고 있다. 지금은 대금업보다 농사 경영과 식림 사업 등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경응의숙(慶応義塾) 출신으로 오사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경제부장의 요직에도 있었는데, 언론계와는 완전히 손을 끊고, 당시 모리무라구미(森村組)의 뉴욕 지점장이었던 현재 총지배인 무라이 야스카타(村井保固)씨의 출자를 얻어 오늘날의 큰일을 이루었다. 요컨대 적수공권에서 백만장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재에 매우 밝고 처세 비결도 상업감각도 모두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지(理智)를 발휘하여 일을 처리하고, 전심성의로 일관하였기에 그것이 그의 사회적 신망을 얻게 해 주었다. 그는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공공사업에도 알선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군산축항수도기성동맹회장 등에도 추대되어 군산부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다.

● 군산 | 군산미곡상조합

군산미곡상조합은 1903년 일본영사관의 인가를 얻어 수출상조합을 조직하여 미곡수출무역에 공통된 이익을 옹호하는 한편, 상거래의 개선향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것이다. 1907년 군산상업회의소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 회의소의 희망에 따라 이것을 양도하기까지는

본 조합이 쌀 검사를 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군산쌀로 향상시켰던 기초를 만들었다. [군검(群檢)]이라는 적색 짐 표시는 그 당시 쌀 검사의 검증으로서, 오사카 시장의 영업자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었다. 본 조합의 공적으로는 곡물수출세 철폐운동으로, 당시의 조합장 가나모리 겐죠(金森玄三)씨가 대표로 도쿄에 가서 제국의회에서 대활동을 시도하였고, 그 후 다년간에 걸쳐 현안을 해결한 것은 매우 뚜렷한 공적이다. 미곡상조합의 당초 목적은 동업조합의 공익단체가 되는 것과 함께, 조합원 간의 매매기관으로서 상호 거래상의 원만과 정확을 기하는 데 있었다. ①거간꾼의 단속, ②하마(濱)법의 제정, ③도량형기의 통일을 하는 것이었다. 본 조합은 처음에 29명으로 성립되었고, 조합장은 아베 에이타로(安部栄太郎)씨였다. 그 후, 해가 갈수록 발전하여, 각종 주요 도시들과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1917년 인천에서 제1회 전조선곡물상조합 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매년 1회, 조선의 어딘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그 후 1920년에 총독부령으로, 종래에 일반 도시에 존재하는 시장을 단속해야 한다고 구 시장규칙에 대폭 수정을 가했고, 그와 동시에 군산곡물시장도 그 시장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1922년에 인가를 얻어 현 제도와 같은 곡물시장을 경영하게 되었다.

● 군산 | 나카지마(中島) 의원

군산 의료계에서 칭송이 높은 군산부 요코다정 나카지마 의원 원장 나카지마 아키라(中島明)씨는 히로시마현 출신으로 1888년 9월생이다. 올해 40세로 활동이 왕성할 때인데, 그가 조선에 건너온 것은 1910년 무렵으로, 독학으로 각고면려한 끝에 드디어 의술개업시험에 훌륭히 합격하였다. 같은 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여 현재 자리에 개업했다. 그 후, 군산형무소의로서 오랫동안 근속하였고, 군산경찰서 검역위원 등을 겸임하며 비범한 수완을 인정받아,

큰 신망을 얻어 오늘날과 같은 명성을 구가하게 되었다. 그는 이화학에 매우 조예가 깊고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1910년경에는 수천금을 투자하여 뢴트겐과를 설치하였는데, 아마도 조선에서 개인의사가 이렇게 대규모의 뢴트겐과를 둔 것은 그 효시가 될 것이다. 그는 이번 가을에도 교토에서 전국적으로 뢴트겐 강습회가 개최되자, 거기에 출석하여 자광선 응용치료를 비롯하여 폐결핵의 치료 등 수십 과목에 걸쳐 그 업계의 대가들의 강습을 듣고 귀국하였는데, 최근에 공회당에서 지역의 유지들을 초빙하여 실험한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다사다망한 몸으로 의사에만 만족하지 않고, 사회사업의 일단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사람들의 보호사업을 기획하여, 사재 수천 원을 투자하여 명도사(明道社)의 창설을 주재하여, 사상의 선도에도 공헌하였다. 또한 그는 보기 드문 인격자로 목하 군산학교조합 의원, 남선전기주식회사 전기연구회 상무위원 등에 천거되어 공공면에서도 중심인물로서 중시되고 있다.

● 군산 | 와타나베(渡邊) 포목점

군산부 사카에정 번화가의 중심이 되는 장소에, 대리석 간판으로 최근에 공들여서 의장을 만든, 아름답고 화려한 쇼윈도에 누구라도 한번은 발을 멈추고 바라볼 것이다. 합자회사 와타나베 포목점은 군산 제일의 노포이다. 그리고 재고품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아주 염가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1926년 4월 합자 조직으로 변경하여 현 지배인 타츠미(辰巳)씨가 이어서 경영 업무에 임하고 있고, 다수의 점원을 잘 통솔하여 원만하게 이끌고 있는데, 그의 세련된 사교 태도는 내외의 기운을 잘 받아 지금은 절대적인 신용을 얻어 업적도 점점 더 융성해지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에게 와타나베의 상품이라면 어떤 물건이라도 절대로 틀림없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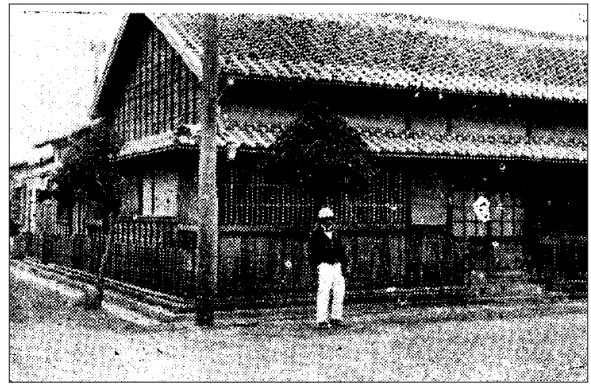
에, 너도나도 와타나베의 가게로 가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판매고도 높아지고, 그리하여 생겨난 신용은 영구히 와타나베 포목점의 보물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한층 더 빼어나게 좋고 확실한 물건을 골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은 군산의 와타나베가 아니라 호남의 와타나베로서 호남선 일대에 걸쳐 단골들을 가지게 되었다. 지배인 타츠미씨의 인격은 이미 일반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군산에서 모범적인 실업가로, 온후하고 독실한 사람이며, 이 정도로 순진하고 덕이 높은 인사는 보기 드물 것이다. 더욱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반인들로부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 군산 | 가하라 죠타로(香原助太郎)씨

조선 양조계는 근년에 아주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요컨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우량품이 계속 나온 결과이다. 점차 일본으로부터의 수이입품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현상이다. 전라북도 양조계의 웅진(雄鎭) 가하라 죠타로씨는 후쿠오카현 교토군 칸다손 아자 하마다(福岡県京都郡苅田村字濱田) 출신으로 1909년 7월 군산으로 와서, 쌀의 군산인데도 아직 일본 술이 이입되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술 양조장을 창업하였다. 처음에는 지극히 소규모로 시험적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연구한 결과, 아주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이에 점점 더 힘을 얻어, 쌀을 정선하고 물을 엄선하는 데 면밀한 주의를 하면서, 각고면려한 끝에 드디어 긴죠(吟醸)로 이름을 날린 '가오리마사무네(香正宗)' 및 '아즈마(吾妻)'를 만들어내어 내외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가오리마사무네'는 황송하게도 그 전해에 현재 천황의 성혼 때, 궁내성에 헌상하여 가납(嘉納)의 영광을 입었던 것을 비롯하여, 각종 양조품평회 또는 신주 시음회 등이 개최될 때마다 출품하여 우등 또는 금은패를 수령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지금 그 명성은 조선 전체에 걸쳐 확고부동한 조선의 명주가 되었다. 현재는 매년 1천 석을 양조하지만, 그래도 아직 공급부족이라고 한

다. 그의 사업은 전도양양하고, 부단한 노력에 의해 그 판로가 조선 전체에 분포하고 있고, 업운도 점점 더 융성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신변이 다망하기 그지 없지만, 사회공공사업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 현재는 부협의회원 및 군산상업회의소 상무위원의 두 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군산부정을 위해 그리고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 군산 | 이시쿠라 신이치(石倉新一)씨



군산의 건축청부업자로 그리고 목재상으로 중요시되는 메이지정의 이시쿠라 신이치씨는 청년시대부터 청부사업에 종사하여 상당히 활약해 온 사람이다. 바야흐로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1895년에 조선 개척의 일원이 되어 조선으로 건너왔다. 당시 군산은 각종 사업가가 크게 주목하여 이 땅을 간성(干城)으로 삼는 바람에 가옥의 건축과 정미소와 창고업 등이 점점 더 건설되고 있었다. 그는 이 시대에 순응하여 매우 온건하고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큰 신용을 얻어 군산의 주된 정미소 또는 창고는 거의 그의 손으로 지었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건축계에서 종횡으로 활동을 계속하여 업적은 날로 융성을 더해갔고, 업계에서 신망을 얻게 되었다. 이시쿠라씨는 아주 온후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아주 고상한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의 모범인물로서 신뢰받고 있고 남다른 성의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는 군산에서 그 인격과 인망, 역량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언제나 음지의 사람으로 군산부정을 위해서도 사회공공방면에도 알선 등을 위해 진력했다. 현재 상업회의소 상무의원으로서 공헌하는 바가 크고, 출신지인 시마네현(島根県) 출신으로 의지가 견고한 대장부이다. 앞으로도 한층 더 자중하고 건재하기를 빈다.

● 군산 | 이토 코자부로(伊藤光三郎)씨

이토 코자부로시는 올해 61세로 회갑을 맞이하여, 도요켄(東洋軒)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회갑연을 열었다. 그의 본적은 미에현 안노군 스구리손(三重県安濃郡村主村)에 있고, 1867년 5월 14일 이세(伊勢)의 나루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토도가(藤堂家)의 번사(藩士)였지만, 메이지 유신 때에 본적지로 귀농하였다. 어릴 때는 집이 가난하여 학비를 댈 길이 없었지만, 향학심에 불탄 그는 참고 견디며 굳은 의지로 독학 자수하여, 1888년 소학교의 교사를 출발점으로, 1894년 미에현 아야마군 누노비키(阿山郡布引) 심상고등보통소학교 교장이 되어, 수십 년 동안 교육에 종사하면서 공헌하였다. 1906년에 3월에 조선으로 건너오면서 사직하였고, 같은 해 4월 25일에 군산으로 왔다. 그로부터 군산실업계로 들어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의 온건하고 착실하게 시대의 진운에 순응하여 나아간 결과, 순조롭게 세 아들을 교육하는 한편, 1912년 군산거류민단 의원 및 상업회의소 평의원 등의 공직에 나갔고, 그 후 학교조합 의원이 되어 교육 및 기타 공공계에 진력하여 군산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1918년 군산식료품시장 창설 때에는 그 참모로서 그 일에 몰두하여 중요한 임무를 다했다. 오늘날과 같은 식료품시장으로 발전 팽창하게 된 것은, 현재 관리인인 장남 타다타카(忠孝)씨의 솜씨에 대한 선물이다. 그는 고문으로서 후원했고 힘이 되어 주었으며, 또한 민단의원 재직시에는 상수도의 완성, 부 행정구역 확장 또는 민단의 마지막 마무리 사업이던 군산신사의 설립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조합의원으로서는 중학교, 고등여학교 등의 계획건설에 진력했다. 그의 공적은 위대하다.

● 군산 | 세토야마 덴조(瀬戸山伝藏)씨

1899년 5월, 군산 개항과 동시에 오사카상선주식회사 군산대리점으로 오사와상회의

경영이 시작되어, 시라카와마루(白川丸)호가 정기선으로 배치되었고, 러일전쟁의 종국을 맞을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시라카와마루는 400톤의 소형기선으로 골격과 구조가 좋고 경쾌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였다. 아이들까지 기선이라고 하면 금방 시라카와마루를 가리킬 정도로 친숙감을 느꼈던 배였다. 이 배의 선장이 현재 군산항 출입선박에게 배의 진로를 안내하던 세토야마 덴조씨의 부친인 세토야마 덴타로(伝太郎)씨이다. 시라카와마루의 선장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라카와마루의 '할아버지'로 통할 정도였다. 민단시대에, 군산부민 유지로부터 포상과 함께 세 개 한 벌의 은배를 받을 정도로 군산항의 이른바 은인이었다. 그는 가고시마현 가지정(鹿児島県鍛冶町) 출신으로 엄부의 가업을 잇고자 오사카 상선학교에 들어가 순조롭게 졸업하였고, 갑종 선장의 면허를 취득하여 1926년 군산으로 와서 아버지의 업무를 승계받은 것이다. 현재는 신흥동 고지대에 전망이 탁 트인 곳을 선택하여 웅장한 저택을 지어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종 기능에 의한 수입이 막대하기도 하지만, 해상의 풍랑이 높고 노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배들을 맞아 다시 항구 내로 들어가는 위험과 고초를 생각하면, 그 수입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는 기지가 풍부하고, 마음이 활달한 기질이어서 모든 일에 겉과 속이 따로 없고, 매우 활발한 사교 수완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공공적인 일의 중심이 되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로서 인망이 두텁다. 군산학교조합 의원으로 당선은 앞뒤로 2회에 이르고 군산 부정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 군산 | 마스다(増田)양복점

양복이라고 하면 바로 전주통의 마스다를 연상한다. 군산에 본점을 두고, 전주와 강경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마스다 양복점은 시대에 적합한 영업태도상의 새로운 방식과 유행의 선구자가 되어, 충실한 자본력으로 대량생산을 도모하고, 고객에게 염가로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지금 마스다는 호남선 양복계의 권위자로서 사회적으로 신용과 인기를 얻고 있다. 점주인 마스다 요시츠구(增田吉次)씨는 온후하고 독실하다는 평판이 높고, 성심성의껏 일을 처리하고, 검소하고 착실함을 으뜸으로 여긴 결과, 오늘날과 같은 절대적인 신용을 얻어 융성하는 운을 가져왔다. 현재는 장남 타네키치로(種吉郎)씨에게 가게 업무를 맡기고, 부속 사업인 석탄 및 신탄(薪炭)과 기타 연료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회공공사업에도 부지런히 힘을 쓰고 있는데, 특히 종교적 신앙심이 두터워서 군산 이즈모대사(出雲大社)교회소 우지코 소다이(氏子総代)로서 항상 원조와 알선을 하는 곳이 있다. 여하튼 군산에서 실업가 중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덕을 갖춘 인사이다. 목하 군산신용조합장, 부협의회원에 3회, 상업회의소 평의원에 3회 선출되었고, 이어서 두 석을 가지고 있으며 군산부정을 위해서도 군산상공회를 위해서도 공헌하고 있다. 그는 사가현 히가시마츠우라군 하마사키(佐賀県東松浦郡濱崎)에서 태어나, 러일전쟁 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양복점을 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귀환하여, 1904년에 조선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경부철도의 연선에서 상업을 경영하였지만, 1905년에 군산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군산 | 우에다 에이키치(上田榮吉)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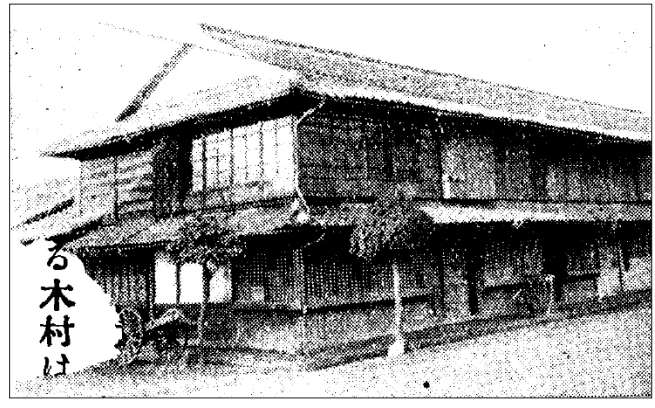
군산 유일의 청량음료수 제조원인 전주통 우에다 에이키치씨는 3회에 걸쳐 부협의회원에 선출되어 중심인물로 존중받았고, 군산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쇼와의 히코자에몬(彦左衛門)[45]으로 그 명성을 구가한 경골지사(硬骨漢)로서 변론이 웅건하여 혀끝이 불을 토하는 듯한 기개가 있고, 흥이 나서 끓어오르면 변성을 지르며 방약무인한 탈선 행태도 보여주기도 하고, 기이한 말과 경고문구를 섞어서 청중이 배를 움켜쥐고 웃으면서 쓰러지게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오쿠보(大久保)[46]의 면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야마구치현 쿠가군 유우마치(玖阿郡由宇町) 출신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가업이었던

45 메이지시대부터 다이쇼시대에 일본에 살았던 정치가이자 은행가이며, 대지주. 신문경영자이기도 했던 이노우에 히코자에몬을 가리킨다.

46 메이지 유신의 주요 공신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를 가리키는 듯하다.

간장 양조에 종사했는데, 1904년 출정하는 각지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싸웠던 공으로 금치(金鴉) 훈장을 사사받았다. 명예로운 용사였다. 개선 후 바로 조선으로 건너와 당초에는 벼 거간꾼 또는 잡화상을 경영했지만, 그 후에 청량음료수 제조업을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이래로 20여 년에 걸친 오랜 역사 속에서, 군산 특산품으로 삼엽(三葉) 사이다, 시토론사이다, 포도 및 라무네를 제조하고 있는데, 품질이 우량한 점에서 크게 정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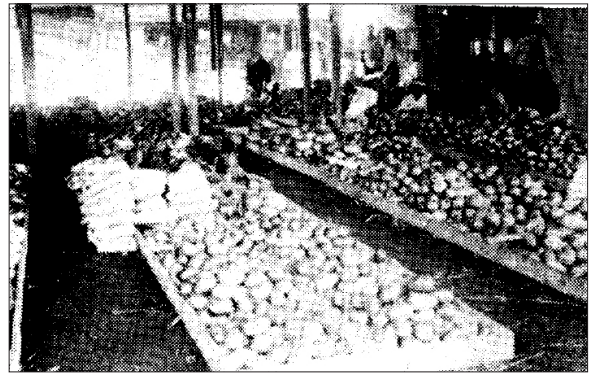
● 군산 | 군산통상합자회사



군산 실업가 가운데 젊은 수완가로 손꼽히는 군산통상합자회사 대표사원 니시무라 마타사부로(西村又三郎)씨가 있다. 그는 동향 선배인 군산의 원로 오사와 토쥬로씨에 의지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조선으로 건너와, 오사와상회에 들어가 상선회사 군산대리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그 후, 군산통상합자회사가 조직되자 대표사원으로 천거되어 군산운수무역계에서 종횡으로 활약하여,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기간에 오늘의 번영과 신용을 얻었고, 한때는 군산 실업계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로 그 명성을 구가하여, 전도가 촉망되는 사람이다. 작년에 가마니 시장의 격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상처를 입고, 그 이래로 일체 공직에서 물러나 만회하기 위해 오로지 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시마네현 출신으로 공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쿄로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에 들어갈 목적으로 공부하던 중이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도퇴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두뇌가 아주 명석하고 이재에 밝아, 군산 실업계에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각 방면에 활약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실력과 수완을 갖추고 있었고, 그

인격을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현재 군산 승인운송조합장 및 전충(全忠)운송업자동맹회장으로 천거되어 그 업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인물로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군산 실업계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상업계를 위해 크게 자중자애하기를 빈다.

● 군산 | 이토 타다타카(伊藤忠孝)씨



군산에서 유일한 공설식료품 시장은 1918년 11월에 창설되어, 이토 타다타카씨가 관리인으로 경영임무를 맡고 있다. 판매품은 주로 채소, 과실, 화초류이고, 이 시장이 오늘날과 같이 융성을 보일 때까지 몇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토씨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시장의 향상발전을 도모했다. 그 결과 업적이 큰 운을 불러왔다. 창립 당시에는 거래고가 불과 연 3-4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20여만 원으로 올랐고, 해마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중매인은 일본인 8명이고, 조선인 10명, 중국인 5명인데, 올여름부터 능률증진을 목적으로 중매인 1명에 대해 2명의 판매인을 지정하고,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전 7시 개시하는데, 생산자 즉 화물주가 새벽부터 눈사태처럼 몰려와서 짧은 시간에 수백 원의 거래가 매일 반복되는 상황은 마치 전장과 같다. 그리하여 사회사업의 일단으로 세운 시장은 진실로 공존공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도 해마다 팽창, 발전하면서 시장이 많이 좁아져서, 가까운 시기에 부내의 요충지를 선정하여 이상적 시장을 건설하게 되어 있다. 그는 군산 유지 중의 원로 이토 코자부로씨의 장남으로, 의기발랄한 젊은 신진 실업가이다. 일단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일은 쉽게 굽히지 않는 성품으로, 과단성 있게 결행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 직을 걸고라도 물러서지 않는 희생적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 군산 | 기무라(木村) 잡화점

군산의 긴자(銀座)인 전주통의 번화가 일각의 가장 유리한 곳에 웅장한 양관 2층 건물이 솟아 있고, 가게 앞은 화려하게 화·양품 잡화를 비롯하여 여행도구, 화장품, 장신구, 신발 및 군산부에서 독점 판매하는 도량형 기기를 취급하고 있다. 기무라 잡화점의 경영주가 선대의 다이토 마츠노스케(大東松之助)씨에서 현재 점주 다이토 키치타로(吉太郎)씨로 옮겨 간 것은 근년의 일이다. 기무라의 야고(屋号)[47]는 오사카의 기무라가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점주인 키치타로씨로 옮겨 온 이래 장사도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였다. 지금은 절대적인 신용을 얻어 판로도 상당히 넓고, 전남·북과 충남에 걸쳐 일대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게의 방침으로서, 화려한 선전이나 매출은 하지 않지만,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영업태도로 유행의 선구를 이루고, 충실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염가제공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성심성의를 으뜸으로 치고 있어서 단골들은 확고부동하고 언제 점포 앞을 들여다보아도 고객에게 파묻혀 있다. 기무라는 뭐라 해도 군산의 대표적인 거상이고, 영구히 그 성운을 보여줄 것이다.

● 군산 | 마치이 쥬타로(町井重太郎)씨

군산부 9조통의 가장 요충지에 인쇄 및 제본, 화·양지를 판매하는 마치이 인쇄소가 있다. 군산에서 유일한 종이상으로, 부내의 각 인쇄업자는 모두 마치이 상점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판매고가 군산 1위라고 하며, 날이 갈수록 신용을 더하여 지금은 인쇄 수요는 물론, 관아나 은행, 회사 등도 모두 이 가게의 상품을 보급받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부단한 노력은 착착 성공으로 이끌어 갔고, 현재는 수만의 부를 얻게 되었다. 그는 유익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식이 풍부하여 사교를 할 때 상처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협조적 태도로 자신의 주의와 절조를 내세우고, 모든 것을 담소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는 물론 일반 지방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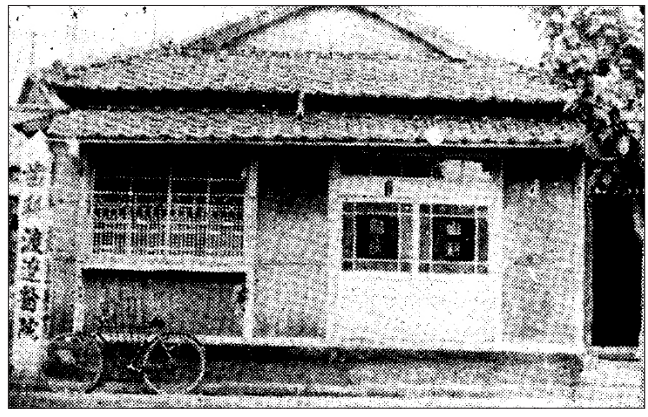
47 가게의 이름, 상정의 통칭이다. 근대의 기업체 명칭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어난 인격과 식견은 일반인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9조통의 정우회에서 선발되어 상업회의소 평의원에 당선되었고,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매우 열심한 종교가로서 신앙심이 두텁고, 전라북도 천리교지부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천리교의 사업 및 불교의 보급에 다년간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여하튼 군산에서 실업가 중에서 그만큼 순진하고 덕이 높은 인사는 보기가 드물다. 앞으로의 활약은 진실로 괄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 군산 | 오카다 스에키치(岡田末吉)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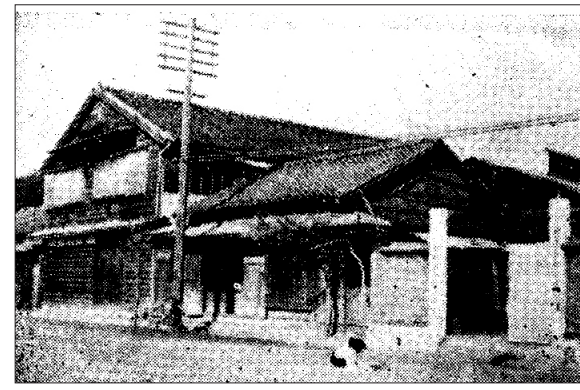
군산 전주통 오카다 상점은 상품이 풍부하고 고급품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가게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게이다. 품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모두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급품들 뿐이고, 하쿠츠루(白鶴), 킨로(金露)와 같이 일본에서 대표적인 긴죠 술(청주)을 독점 판매하고, 또한 오사카에서 유명한 호리카와(堀川)상점의 특약 판매로 가구류 일체를 거의 원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점주인 오카다씨는 군산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무역항으로 막 개항한 군산에서 맨손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각고면려한 끝에 사회적 신용과 인기를 얻어 오늘의 번영을 보게 되었다. 현재는 부내 각 곳에 지소나 셋집을 보유하여 수만의 부를 획득했다. 그는 한편으로 사회공공방면에도 진력하고 있는데, 그 공로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는 끝까지 은자로 지내는 것에 만족하여 공직에는 그다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전주통 정우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의(학교조합 의원)에 당선되었고 또한 군산상공회 상의원으로 천거되어 군산의 상업 행정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 군산 | 와타나베(渡邊) 치과 의원



문명은 사람의 육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특히 오늘날 완전무결한 치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치아는 음식물 소화의 제일선에 있고, 그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바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되고, 좋은 물건이라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 동시에 그 사람을 접하는 첫인상에서, 파안대소할 때 병적인 치열을 보여주었다가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병적 원리를 탐구하여, 여기에 미술적 기공의 극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백금이나 금을 씌우는 아름다운 의치야말로 문명의 과정이지 않을까? 군산에서 유일한 치과의학사로 칭송받는 메이지정 와타나베 치과 의원 원장 와타나베 모리(盛)씨는 홋카이도 오타루(小樽) 출신으로, 부친이 치과의사였던 까닭에 가업을 잇고자 오타루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도쿄치과의학 전문학교에 들어가 학업에 매진하여 1915년 8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본 최초의 치과의학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연구심에 불타던 그는 잠시 모교에서 연찬을 계속하는 한편, 도쿄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의 소망이던 해외로의 웅비를 지향하여, 조선이 아직 치과의술이 유치하다는 것에 주목하여 1923년 8월에 군산으로 왔다. 그는 두뇌가 명석한 사람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2등 한번 하지 않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의전을 졸업할 때는 1등 성적으로 명예표창을 받을 정도로 수재였다. 그러므로 병리면에서도, 기교면에서도, 어떤 난증이라도 신기하리만치 완치를 시켜주는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내는 물론 호남선 연선에서 아침 저녁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현재 군산금융조합의 서쪽 옆 공지에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의 웅장한 치료소를 신축하였다.

● 군산 | 우에노(上野) 양조장



전라북도 양조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양조품으로 청주 '만국(萬國)'이 있다. 1899년에 창업한 만국의 양조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확고부동한 기초를 쌓았다. 그리하여 청주 만국이 날로 그 명성을 높이게 되었던 것은 여기에 특별히 기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바이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조선 내 각지에서 몇 번인가 품평회 또는 공진회 등이 개최될 때마다 출품하여, 영예로운 우량 금패와 은패 등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받았다. 명실공히 품질이 우량함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어대전 기념 제2회 전국식료품평회에서 일등상 및 금배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금패만 해도 10개를 헤아리며, 올해 전라북도 제3회 청주 시음회에서도 우등을 차지했고, 이어서 경기도가 주최한 신주 시음회에도 최고의 우등상에 입상하였다. 우에노의 만국이 얼마나 우량품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은 조선의 만국으로서 널리 일반으로부터 애호를 받고 있고, 매년 판로의 확장과 양조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고인이 된 겐시치(源七)씨는 군산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고, 성공인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 호주 이사쿠(伊作)씨의 양어깨에 한층 더 중책이 실려 있다. 만국으로 이름을 알린 분고야(豊後屋)는 이 명성을 영구히 상처받지 않고 절대적 우량주로 만들어 갈 것이다.

● 군산 | 호남농구(農具)주식회사

호남농구주식회사는 항상 기계연구와 능률증진의 선구자였고, 충실한 자본력으로 대량생산을 도모하여, 고객에게 염가로 제공하는 것을 주의로 내걸고 운영되어 왔다. 지금은 일반 영농자들 사이에서도 신용과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회사는 1919년 10월에 창업하여 사토 마사지로씨, 나카시바 만키치씨 등이 핵심 주주이고, 오카키(岡季)씨가 전무로

서 양어깨에 경영 책임을 지고 활약하고 있다. 그는 다년간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관계로, 온후하고 독실하며, 성심성의껏 일에 임하고 실질을 으뜸으로 여겨 오늘날의 성가를 올려 신용을 얻었다. 그는 말하기를, 조선의 농사는 관민 일치의 노력에 의해 황무지는 미전이 되었고, 매년 수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쁘기 그지없지만, 일본에 비교하면 앞길이 매우 요원하다고 했다. 그만큼 조선 농사의 유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산미 개량과 증식은 현재 2대 목표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리의 완성 개량, 농기구의 보급, 시비의 장려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이 회사는 그 사명들을 앞에 두고, 밤낮으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며 자신 있는 농기구와 비료를 정선하여, 널리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군산 | 죠키(上喜)상회

군산 9조통 죠키상회는 철, 구리, 바탕쇠의 도매상으로, 그 외에도 건축용의 철재 일체를 취급하는 군산의 쇠철류의 무역상이면서 중진이다. 전라북도 일원에서 충남 일대에 걸쳐 눈부신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점주인 우에도 마사루(上田勝)씨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하느라 고생한 만큼 신출내기 인물은 아니다. 군산실업계에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사회로부터 그 실력과 수완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옳은 것은 옳은 것,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숨기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자신의 주의에 따라 일을 하고, 주의를 위해서는 쓰러지고 나서야 멈추는 정신의 소유자이고, 부끄러운 일이든 남의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손에 쥐는 것만 생각하는 장사치와는 상당히 달랐고, 이해관계를 도외시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주의대로 일관하는 사람이었다. 1925년 가을 당시 상의평의원이었던 그는 군산의 중요문제에 대해 의원 전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임원회에서만 결정해 버린 것을 보고, 바로 사직서를 던지고, 그 후에는 일체 의석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책임감이 강한 성격임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그 후 군산 상정을 위해 모두가 그의 출마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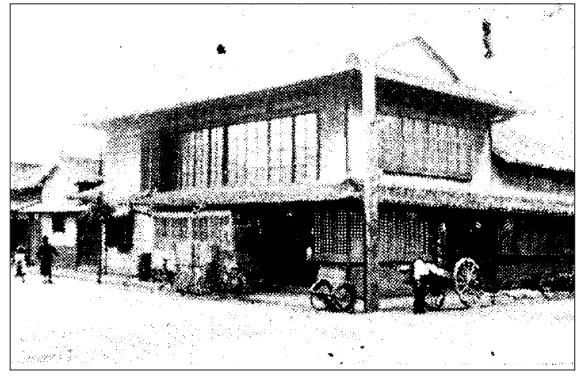
● 군산 | 마루이(丸井) 상점

군산부 4조통에 식료품, 잡화, 과일, 채소, 해산물부터 쌀과 잡곡 및 분재, 화초에 이르

기까지 일반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용품과 아침부터 몰려드는 고객들에 파묻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게가 있다. 마루이 상점이다. 현재는 군산에서 식료잡화계 및 석탄상으로 한편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점주 마루이 만조(丸井萬藏)씨는 돗토리현(鳥取県) 출신으로 20여 년 전에 조선으로 건너와 실천노력한 결과, 오늘날에는 수만 원의 자산과 절대적인 신용을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소탈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가게 내에서는 항상 자신이 주인이면서도 동시에 점원이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이고, 빈틈없는 장사 태도에 아주 많은 고객의 호감을 얻고 있다. 장사는 박리다매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어서 판로도 상당히 넓고, 군산은 물론 각 연안의 어업가 및 항구 내 출입 선박의 용달회사부터 은행, 회사 각 방면에 거의 압도적인 세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가게는 황해도산 신탄 및 만철회사 지정 석탄의 특약점으로 일반 수요가정 및 상선회사를 비롯한 기타 출입 선박들과 대량의 거래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매년 가운은 융성해지고 4~5년 전에는 현 점포를 시작으로, 4조통의 요지를 매수하였고, 그 외 다수의 셋집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성심성의껏 일하는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성실한 사람으로 가게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군산 | 히가키 마고사부로(檜垣孫三郎)씨

군산항의 수이입품 중 그 액수나 수량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면사포(綿紗布)이다. 1926년에 군산에 수입된 생당목 및 생시팅(무명)은 무려 708,342㎡이었다. 그 외에 인도무명 등의 면사포류 각종의 수이입 수량은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면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무역상에 히가키 마고사부로 상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조선 내의 각 방면의 관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온건하고 착실한 영업방침에 따라 절대적인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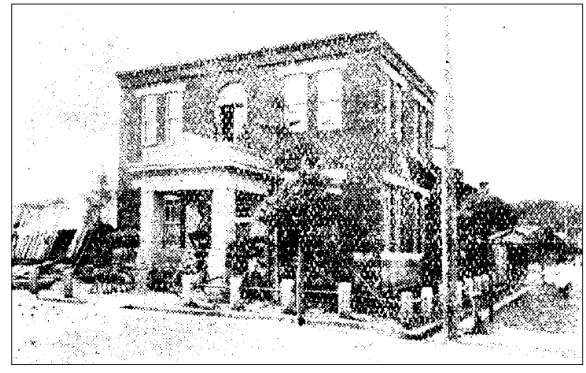
용을 얻고 있다. 이 가게는 1903년에 개업하여 현재는 군산무역계의 중진이다. 이 가게의 영업 범위는 전북 일원에서 전남, 충남 각 방면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점포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야마구치현 쿠마게군 호사무라(保佐村) 출신으로, 상업의 기회 포착이 예민하고, 상재가 뛰어나며, 종횡으로 활동하여 오늘의 번영과 신용을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온후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인격 그 자체인 것처럼 착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사상이 원숙하고 세련되어 있어서 사교 태도는 내외 모두 칭찬하는 바이다. 그는 여태까지 공직에는 그다지 진출하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사회공공방면이나 상공업 분야에 주선도 잘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양자인 케이(競)씨는 와세다(早稲田)대학 출신. 전도양양한 청년 실업가로서, 두뇌가 명석하여 10년 후의 군산이라는 제목으로 신문(군산일보) 지상에 넓고 깊은 의견을 발표한 것은, 부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히가키 상점은 앞으로 케이씨의 활약과 노력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다.

● 군산 | 야노(矢野)포목점 야노 사부로(矢野三郎)씨

군산 전주통에 야노 포목점이 있다. 물건이 잘 갖춰져 있고, 품질도 빼어나고 좋은 데다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다른 가게의 추종을 불허한다. 점주인 야노 사부로씨는 군산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1899년, 군산이 무역항으로 개항했던 무렵, 날마다 달마다 군산이 성장하여 시가는 밤낮으로 건설을 서두러던 와중에 이곳 군산에 들어섰다. 그 당시에 견직물과 면직물상의 효시로 야노씨가 이 가게를 개점한 것이다. 그는 조선 개척의 뜻을 품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개업한 만큼, 사사로운 것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순풍에 돛을 올려, 가격도 지극히 염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의와 방침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야노의 가게에서 산 물건이라면 틀림이 없다. 즉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일반 수

요자들에게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30년 사이에 얻은 신용은 영구히 야노 포목점의 보물로서 흠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매우 온후하고 인격자이다. 츠루야의 지배인 쿠도 츠루마츠(工藤鶴松)씨를 비롯하여 후쿠나가(福永) 포목점 점주, 전주지점 노자키(野崎)씨 등은 원래 이 가게의 점원이었던 사람이다. 그가 또한 사회공공방면에도 적지 않게 진력하고 있다는 것은 부민들이 주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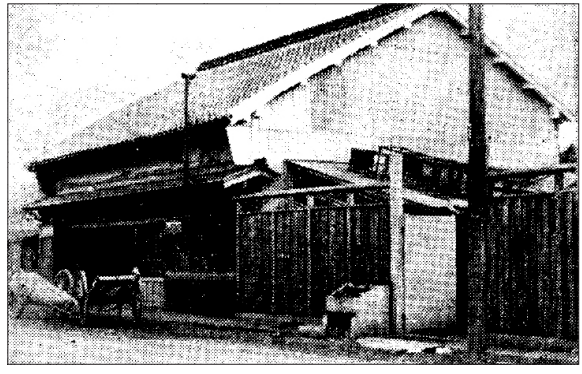
● 군산 | 타니모토(谷本)의원 타니모토 사이치(谷本佐一)씨



군산부 신흥동의 타니모토의원 원장인 타니모토 사이치씨는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1890년생이다. 올해 38세의 활동력 왕성한 나이이다. 개업은 1918년이라고 하므로, 이주 햇수로 보면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비범한 수완으로 일찍부터 군산 의학계에 두각을 나타냈고,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융성해졌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때를 가리지 않고 밤중에라도 바로 일어나 달려가기 때문에 환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고 있다. 그는 공부하기 위해 도쿄로 가서 10년 정도 고생을 하여 도쿄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이치(愛知) 의학전문학교에서 수학하고, 1916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의 총독부 병원의 외과·피부과의 무로타니(室谷) 박사 밑에서 2~3년 연구한 후, 군산으로 와서 처음에는 장재동에서 개업하였다. 그후 날마다 달마다 업무가 발전하고 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병원이 좁고 불편해져서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여 작년 12월에 공사비 1만 원을 투자하여 최신식 건축법으로 신축 이전했다. 2층은 입원실로 하여 명실공히 완비된, 벽돌과 석조로 외곽을 짓고, 지극히 견실한 구조물로서, 군산 개업의원 중에서 대표적인 건물이다. 요코다정과 그 일각에 의연하게 솟아 있으며 이채를 뽐내고 있다. 그는 인술이라고 하기에 걸맞게 호감을 주는 신사로서 온정미가 풍부하고, 덕망을 겸비한 신사이다. 가정도 일가 단란하게 화합

의 열매를 맺어, 명실공히 진용을 갖춘 그의 활약은 앞으로 괄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층 더 자중하고 건재하기를 빈다.

● 군산 | 후쿠다마타(福田又) 군산지점



군산항의 무역품 중에 수입하고 있는 물건 중에 그 액수에서나 수량에서 제일을 차지하는 것이 철, 지금(地金), 못, 철사, 아연, 철판류의 철물이다. 작년에 320,835kg이 이입되었고, 조선의 문화가 빨리 진척됨에 따라, 단층집이나 판잣집의 구식 건물이 서양식의 벽돌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점차 개조되고 있어서, 건축재료인 철물의 수요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호남선 일대에 걸쳐 가장 오래된 역사와 노포로서 전주통의 일각에 오랫동안 우선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철물상은 후쿠다마타 지점이다. 본점은 오사카에 있고 부산, 경성, 군산의 세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후쿠다마타는 일본에서 철의 거상으로 유명하다. 군산이 해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드나드는 탄토항(呑吐港)으로서 장래에 발전할 기운이 있다고 일찍이 주목한 후쿠다마타는 1899년 5월 출장소를 설치하여 선수를 쳤던 것이다. 그리고 러일전쟁 및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철물류는 나날이 등귀하였고, 특히 철의 가격은 천정을 모르고 오르는 상태였다. 호황을 만나 상당한 성적을 올렸던 것이다. 그 후, 지점으로 승격하여, 후루츠 이소키치(振津磯吉)씨가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유감없이 수완을 발휘하였다. 그는 매우 성실한 근면가로서, 다수의 점원을 잘 지도하고 통솔하여 일반인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유소년 시절부터 실제 경험과 지식을 연마하여 세련된 만큼, 이재에 밝았고, 상기상재가 뛰어나고, 사교 태도도 매우 원숙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그의 비범한 수완에 의해 점점 더 융성해 질 것이다.

● 군산 | 담배 원매거래조합

군산의 담배 원매거래조합이 전주통에서 메이지정으로 이전하여 사무소의 확장과 창고의 완비를 갖추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 조합은 군산부내를 직할지로 하고 김제·서천·대천·원평 5곳의 영업소를 관할하고, 각 영업소에는 하치장을 1~2곳에서 4~5곳을 설치하여 합계 15개소의 하치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영업소가 지정 각 소매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재 소매인 총 호수 69,483호가 있고, 조합장은 이소베 켄야(磯部謙哉)이다. 전매제도가 되기 이전의 동아연초시대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양도 일원에 담배 원매거래조합을 조직하여 담배 판매에 노력한 사람으로, 1918년 7월에 전매제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64세의 노령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전 조선의 조합을 통틀어 그 성적과 판매고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도의 매상고는 자그마치 84만 7천여 원으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올렸는지 알 수 있다. 옹은 군산상업회의소의 초대 회장으로 부정과 상공업에도 진력한 공적이 실로 적지 않다.

● 군산 | 츠루야(鶴屋)상점 구도 츠루마츠(工藤鶴松)씨

호남선에서 대표적인 화양(和洋) 잡화 및 화장품 도매상은 합자회사 츠루야이다. 구도 츠루마츠씨 개인이 경영하다가 1911년 8월 회사조직으로 변경하였고, 계속해서 그가 총지배인으로서 수완을 발휘하며 활약하고 있다. 전주통 일각에 도매부와 소매부를 분리해 두었는데, 고객이 끊임없이 가게를 메우고, 쇼윈도에는 항상 최신 유행품을 의장에 공을 들여 장식해 두고 있어서, 누구라도 한번쯤은 발길을 멈추고 바라본다. 뭐라고 해도 군산에서 대표적인 상점이다. 상품이 풍부하고 고급품이 갖춰져 있는 점은 다른 가게의 추종을 불허한다. 화장품은 쿠라부(クラブ)의 대리점이고, 코쿠요타비(國譽足袋) 외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의 특약 판매점인데, 전북과 충남 일원에 걸쳐 압도적인 세력을 지니고 있다. 지배인 구도 츠루마츠씨는 야노 포목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단련된 사람인 만큼, 장사도 능숙하고, 상기상략에도 민감한 수완가이다. 온후하고 착실한 성의와 노력을 모토로 삼아 오늘의 지위를 쌓아 올렸고, 현재 군산상공회의 중견으로서 그 세계에서 중요시되고, 신뢰와 신망을 한 몸에 모으고 있다.

● 군산 | 아카기시 헤이지(赤岸平治)씨

이른바 군산의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약 40명 정도인데, 그 중 한 사람으로서 돌다리를 두들기며 건너는 식으로 지극히 착실하게, 10년을 하루 같이 지칠 줄 모르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일해 온 숨은 성공인이 있다. 그것은 호남선 일대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타타미(畳表) 제조판매상으로 전주통에 점포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아카기시 헤이지씨이다. 그는 야마구치현 쿠마게군 출신으로, 어려서 향리의 타타미 가게(畳屋)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배워 독립된 장인이 되자, 1902년 4월에 고향 선배인 다나카(田中)씨를 의지하여 조선으로 건너왔는데, 당시에는 일본인이 불과 45호로 타타미 장인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했기 때문에, 월급 8원을 받고 소학교의 소사가 되었고, 한편으로 타타미와 돗자리갈이나 부업으로 우유 배달을 하는 등 모든 고생을 하였다. 그 후 그와 함께 소사 일을 했던 고지마 토라오(小島虎雄; 군산의 공로자 중 한 사람으로 카시마[鹿島]에서의 폭동으로 인해 동포 7명과 함께 참살당한 사람)와 공동경영으로 목장을 열어 우유업을 운영하여 거액을 번 적도 있었다. 그런데 소에 역병이 유행하여 거의 전멸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나, 견인불굴의 그는 이 곤란을 잘 견뎌내고, 본업인 타타미 가게는 여전히 열심히 하여 체류 일본인들의 편의를 살펴주고 있었다. 군산이 날로 팽창함에 따라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게 되자, 조선인 직공을 몇 명 고용하여 독려함으로써 그 주문에 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유는 형에게 양도하고 1926년 현 점포로 이전하였다. 그는 최근에 옥구의 옥야에 수만 원을 투자하여 수십 ha를 매수하여 농사도 경영하고 있는데, 자수성가한 장인에서 오늘날의 사업 성공을 거둔 것은 입지전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 군산 | 조선냉장고

조선에서 유일한 사업이자 군산의 명물로 알려진 원 가즈하라(葛原) 냉장고는, 작년 봄에 벽에 부닥쳐 결국 폐쇄라는 슬픈 지경에 빠졌다. 그 후, 공사비 85만 원의 거액을 들여 설비를 정비한 대공장은 허무하게 해망동에 버려져 있다가 결국 경매에 부쳐진 결과, 식산은행의 손에 넘어갔고, 이와쿠라(岩倉) 군산 지점장에게 경영 임무를 맡기게 되었으며, 작년 8월에는 이름도 조선냉장고로 개칭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게 되었다. 주임 이와쿠라씨를 비롯하여 원 가즈하라 시대부터 일해 온 호리베(堀部)씨, 기계주임 노구치(野口)씨, 창고주임 시가(志賀)씨 외 수명의 직원이 재생의 기쁨을 느끼며 활약하고 있다. 이와쿠라씨는 20년간 일해 온 식산은행을 사직할 때, 고용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는 오늘부터 은행을 사직하고 내일부터 분야가 전혀 다른 냉장고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너희들도 상인 아니 생선 가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일해야 한다. 인간은 자중독립이 소중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근면에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힘찬 훈계인가? 그때부터 그는 목숨을 걸고 업무에 임한다는 각오로 사원 간부들을 모아 물잔을 돌렸다고 하니, 정말 비장한 결심이 아닌가 한다. 공장을 들여다보면 85마력의 원동기 2대, 35마력 1대가 쉬지않고 돌아가고 있다. 밤낮으로 27,000㎏관을 제빙하여, 냉동실에는 생선이 암석처럼 얼어서 수백 톤이 저장되어 있다. 최근에 이 공장에서는 생선 가공품을 새로 고안하여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지금은 냉동사업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일본의 교토와 고베 지방이나 군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화물차로 운반하느라 언제나 군산역을 흥청거리게 하고 있다.

● 군산 | 키베 나카츠구(木部仲次)씨

군산역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야쿠미(花屋組)라고 표시된 한텐(半天)[48]을 입은 씩씩한 인력거꾼이 눈에 띌 것이다. 이들은 군산에서 교통기관의 선구자인 군산상업회의소 앞의 인력거 회사 하나야쿠미에 속한 인력거꾼이다. 경영자인 키베 나카츠구씨는 1910년 3월에 향리인 오이타현(大分県)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이래, 20년간 지치지도 않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려, 목하 30여 대의 인력거를 보유하고 20여 명의 인력거꾼을 고용하고 있다. 민첩하고 정중하고 친절한 이 회사는, 은행과 회사의 단골은 물론, 군산역 구내의 회사로 지정 배속되어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그는 인력거 회사에만 만족하지 않고, 옥구군의 옥야에 수십ha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반석과 같은 신용과 재보(財寶)를 쟁취하게 된 것은 모두 그가 분투한 것에 대한 선물임에 다름 아니다. 그는 지극히 온후하고 독실한 사람으로 동네 대표나 간사 등에 선출되어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가족은 주인 부부와 작년에 고등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딸 세 사람이 같이 살고 있으며, 가정은 지극히 원만하다.

● 군산 | 타카미 야사부로(高見彌三郎)씨

군산 타카미 야사부로 상점은, 가게의 외관은 언뜻 보면 소규모인 것 같지만, 그 안의 실질 내용은 매우 커서, 그 규모가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가게에서 파는 백미는 1개월에 약 3만 원, 1년 판매고는 36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 외, 외국쌀이 연간 약 1천 석 정도 팔린다고 한다.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압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쌀 가게 중에는 2등미를 1등미라고 파는 사람이나, 대만쌀이나 외국쌀을 섞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왕왕 있는데, 타카미 상점은 그렇게 상도덕을 무시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한 되 두 되라도 품질과 되와 가격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야사부로씨는 조선에 건너온 후, 아카마츠(赤松) 간장 양조소에서 오랫동안 정근하였는데, 1920년에 현재의 점포를 양도받아 형제 4명이 서로 협력하여 가운의 융성을 위

48 半纏, 袢纏이라고도 쓴다. 짧은 겉옷의 하나로, 깃을 뒤로 접지 않고 가슴의 옷고름 끈이 없다. 상가 종업원들의 작업복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해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성공을 보았다. 현재 택지를 1만 수천 원에 매수했다든지, 2층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욱일승천의 기세이다. 두 동생은 향리에서 신부를 맞아,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 군산 | 남선고무(南鮮護謨)주식회사

군산부 사카에정에 고무신을 제조하는 남선고무주식회사가 있다. 1925년 3월 쿠마모토 가즈오(熊本一夫)씨가 개인 경영을 하다가 주식회사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창립 후 3년 동안 나카시바 만키치씨와 기타 군산의 유력자인 아베(安部)·다나카(田中)·히구치(樋口)·모리(森)·이에마츠바(家松場) 씨 등의 명사들이 사장직을 역임하였고, 쿠마모토씨가 전무역으로 양어깨에 책임을 지고, 현재 약 7천여 명의 남녀 직공을 고용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기술 연구와 제품의 판로확장에 밤낮으로 전력을 경주하여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조선신발을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는데, 1년의 제조고가 자그마치 40만 켤레인데도 오히려 제품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사카에정에 전문 판매부를 설치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상대로 고무제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의 발안으로 신안특허 스펀지로 만든 '미사사' 베개와 같은 것은 큰 호평을 얻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그는 미곡상 시절부터 젊은 신진으로 전도유망한 실업가로서 촉망을 받았다. 그만큼 그의 눈부신 활약상은 장래의 군산 실업계에서 존중받을 것이라고 일반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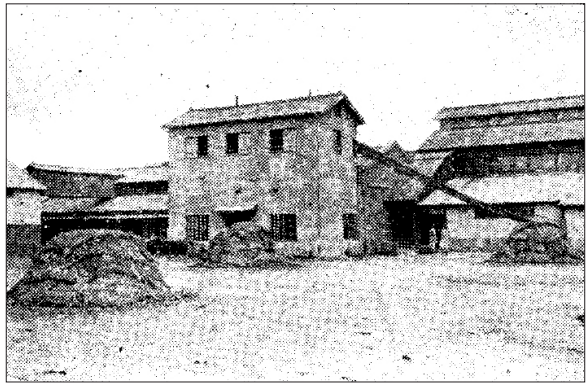
● 군산 | 대동(大同)양행

주식회사 대동양행은 1926년 4월에 창립하여, 몇 가지 사업을 경영하여 눈부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곡의 위탁판매 및 수이입을 비롯하여, 가마니와 마대 자루, 시멘트 돌가루, 비료, 외국쌀, 만주 특산물, 토지금융중개, 창고운송업 등 각종 사업을 경영하였다. 따라서 그 거래고도 거액에 달한다. 출장소도 전남 송정리, 충남 조치원, 경성, 서천, 일본에는 히로시마시에 설치되어 있고, 가깝게는 평양, 대구에 출장소 설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상권의 범위는 조선 전체에 걸쳐 있고, 멀리 만주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전무 요시오카 켄키치(吉岡憲吉)씨는 미곡계에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할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그가 회사 업무의 중책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서무주임 오다(織田)씨 또한 수완을 발휘하는 외에, 사원 일동이 협력 일치하여 열심히 사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마니, 비료, 시멘트 돌가루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업계에 명성이 잘 알려져 있고, 특히 가마니는 조선 내의 가마니 업계에서 중진으로 연 5백만 장을 돌파하였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가 전 조선 총대리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베(宇部)시멘트'는 '아사노(浅野)시멘트' 등 다른 것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환영받고 있다. 작년에는 동진수리의 20만 부대를 비롯하여 대량판매하고 있다. 돌가루는 히로시마현 키노에항(木之江港)에 100만 원의 대공장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20만 가마니를 판매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100만 가마니 정도의 판매는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이 회사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요시오카씨는 일본 히로시마 실업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기지가 매우 뛰어나고,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활달한 사교적 수완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공공 방면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 군산 | 조일(朝日; 아사히) 정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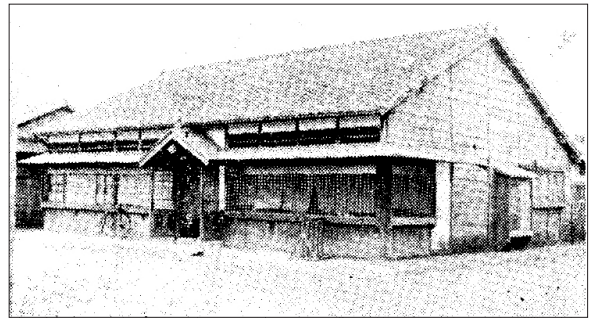
호남의 탄토항 즉 배가 드나드는 항구인 군산은 바다로 육지로 교통편이 있으며, 전북의 옥야를 배경에 두고 있어서 산미증식과 함께 군산항에 수집되는 산미는 매년 격증하고 있으며, 지금은 해외에 수이출하는 쌀이 150만 석에 이르는 성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전북쌀의 성가가 더 높아짐에 따라 정미 기관의 완비가 가장 긴요해졌다, 현재 군산에 개인 또는 회사조직의 정미공장이 대소 15곳이 있다. 그 중에서 그 업계의 대표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아사히 정미소 군산지점이다. 이 지점은 1920년 9월 1일, 자본금 100만 원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정백미 또는 현미업, 그 외의 물품 판매 및 도



매업, 화물운송 등을 영업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의 기초가 견실하다는 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다. 지점장으로서 상재가 뛰어나고 업무에 근면한 이노우에 마츠노스케 씨가 수완을 발휘하여 매년 사업의 융성을 보여주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회사는 재작년 조선산미중식을 되돌아보고, 사내에 새롭게 비료부를 설치하여 우수한 비료의 판매에 임하고 있고, 생산자에게 널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 판로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융성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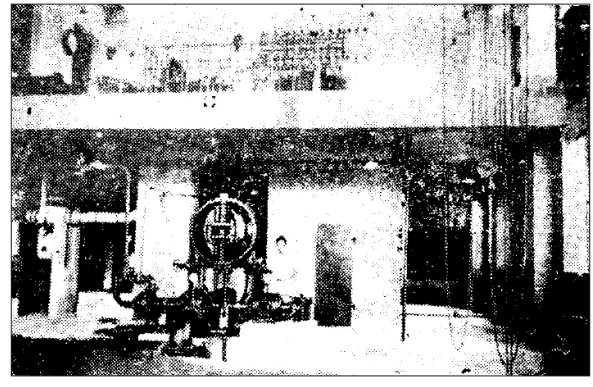
● 군산 | 우시오 쇼이치(牛尾正一)씨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書肆) 전업점으로서, 그리고 군산의 명산 쇼트의 제조발매원으로서 잘 알려진 야마토정(大和町) 이시미야(石見屋) 문방구점은 1906년에 창업했다. 점주인 우시오 쇼이치씨는 군산 상공계의 거장이고 사업계의 쾌걸이다. 그는 시마네현 나하군 오우치무라 오아자 우치무라(島根県大内村大字内村)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5사단에 입대하여 북청사변과 러일전쟁에 출정하여 훈7등에 서훈되었던 명예 용사이다. 1906년에 조선으로 건너온 이래 문방구상을 경영하였는데, 지금은 친척에게 넘겨주고, 잡지 『실업의 조선(実業の朝鮮)』도 8년간 경영하였는데, 이것도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현재는 군산무진주식회사와 군산상공주식회사의 사장을 겸임하며 수완을 발휘하여, 회사업을 진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리하여 그는 군산 실업계에 의연히 두각을 나타냈고, 자신의 인격과 재간을 인정받아, 예전에는 민단의원을 지낸 적도 있고, 1916년 상업회의소 설립을 인가받고 이어서 매기마다 평의원에 당선되었고, 작년에 개선 때에는 부회장으로 당선되어 아카마츠 회장의 보좌역으로서 무난하게 보좌를 하고 있다. 그는 군산상공계의 중심인물이고 또한 군산부정의 거물로서 그 인격과 수완과 역량은 장래 회장급의 인물이다. 한층 더 자중하고 건재하기를 빈다.

● 군산 | 남조선 전기 주식회사



다년간 현안이었던 군산의 전기문제는 올해 군산, 전북 양 전기주식회사의 합병이 성립되어 남조선전기주식회사로 개칭되었고, 본사를 군산에, 지사를 전주에 두어 회사의 기초를 굳히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의 업적을 보니, 제27회 상반기에 이익배당은 일반 재계가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 12%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자산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불입 16만 원에 대해 자산은 25만 6천 원으로 팽창하여, 창업 당시에 불과 1,614등, 원동기 100마력, 발동기 60kvA(킬로볼트암페어)로 시작하여 매년 증가 경향을 보여주었고, 1919년 상반기에는 실로 4,300등이 되었고, 1920년 6월에는 원동기 150마력, 발동기 100kvA와 구 기계 60kvA를 예비기로 편입하여, 10촉으로 환산하면 등수가 9,705등이 되었고, 나아가 1922년 하반기에는 8,300등으로 증가했으며, 제2차 증설에 착수하여 남만주철도주식회사로부터 150마력, 100kvA를 구입하여 1923년 9월에 장착을 완성하였다. 현재는 10촉 환산 등수가 12,000등에 이르러 얼마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올해 10월 9일 야마구치현 이와쿠니(岩國)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보고, 정관확정, 중역선거를 하였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신 중역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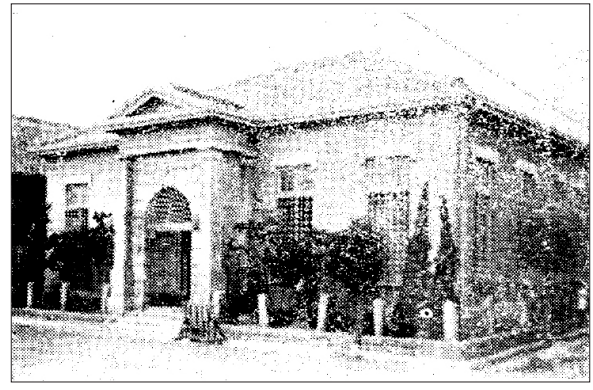
- 사장 : 칸바야시 이하치(上林亥八)
- 전무 : 히구치 토라조(樋口虎三)
- 이사(取締役) : 고세 모리지로(小瀨守二郎), 시로가네 이치타로(白銀市太郎), 요시모토 아키라(吉本陽), 쿠라시게 마사요시(倉重理良), 아베 에이타로(安部榮太郎), 이와무라 타카시(岩村隆)
- 감사 : 시마타니 토쿠사부로(島谷德三郎), 쿠니미츠 고로(國光五郎),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

● 군산 | 협동(恊同)해운주식회사

군산 해운계에서 중심이 되는 협동해운주식회사는, 1922년 현재 사장인 우에다 보쿠(上田朴)씨가 고베 야마시타(山下) 기선회사의 대표로서 군산에 와서 실지 시찰한 후에, 군산이 무역항으로서 유망한 점에 착안하여 이곳의 시타히라 후쿠사부로(下平福三郎)씨가 개인 경영하고 있던 운송가게를 계승하여 회사조직으로 변경한 것이다. 우에다씨는 원래 고베에 있으면서 야마시타 기선 및 가와사키 기선과 적지 않은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양 기선회사를 배경으로 하여 1923년 11월 협동해운주식회사라고 개칭하고, 설립과 동시에 자신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오사카 고등상업학교 출신으로 실력과 수완이 대단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라현 이코마군 야마마치 오아자 노가키(奈良県生駒郡山町大字野垣) 출신으로, 과거에 1년간 지원병으로서 오사카 보병 8연대에 입대하였다. 올해 37세로 아직 앞길이 창창하여 대성할 것이다. 전도양양한 그와 같은 소장 실업가가 있다는 것은 군산을 위해 크게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학교조합의원으로 천거되었다.

● 군산 |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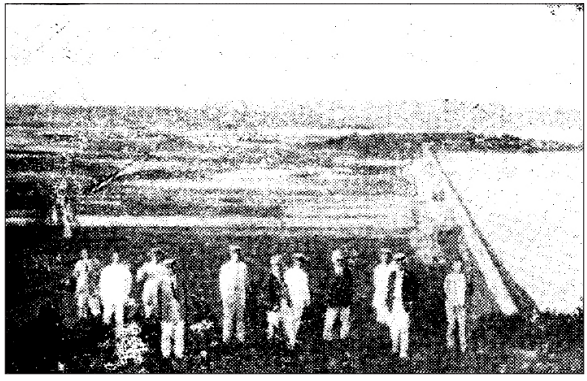
군산에서 미곡시장의 자매회사로서 쌀 업계의 유일한 금융기관인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는 1920년 9월에 창립하여 자본금 100만 원, 불입금 25만 원으로 설립하여, 1922년 7월 제2회 불입금 25원 등을 합쳐 현재는 불입금액이 50원이다. 영업 종목으로는 쌀, 잡



곡 및 기타 상품의 유가증권,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비롯하여, 창고업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있다. 이 회사의 특색을 말한다면, 더 덧붙일 것도 없지만, 군산미곡상조합 및 이 시장 구성원과의 사이에 특약을 맺어 연거래(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대금결제)하는 연결판매 쌀에 대한 인수인계의 위탁을 받아, 한꺼번에 파는 대금의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약정 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급금을 받고, 받은 쌀의 보관 또는 발송, 화환어음의 취급 등 일체의 대변을 해준다. 이른바 소자본으로 대량 거래를 완결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연거래를 정미(실제로 거래되는 쌀)화하고, 미곡의 집산액을 증가시키는 바가 적지 않다. 종래의 업적을 보면 그 이래로 매기마다 최저 연 12%, 최고 30% 이상의 배당을 하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사장에 미곡상의 거두 모리 키쿠고로(森菊五郎)씨, 그 보좌역으로 히라하루 토미조(平春富蔵)씨를 전무로 하여 오늘날과 같은 업적과 융성을 가져왔다. 전무인 히라하루씨는 1904년경부터 강경에서 해산물, 일본인·조선인 상대의 잡화, 소가죽 등, 각 방면에 손을 뻗쳐서 활약분투한 사람으로, 매우 성실한 인격자이다. 그리하여 경제계의 추세를 달관하고 경제시사문제를 조사연구하여 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에 수리적인 근거가 있고, 단상에 서더라도 논지와 조리가 정연하고, 구변이 유창하여 경청할 가치가 있다. 상의 부회장에 천거된 적도 있다.

● 옥구군 | 불이(不二; 후지) 옥구농장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는 1904년 처음으로 전라북도 익산군·옥구군 지방에 농장을 열었고, 조선 최초의 수리사업인 임익수리조합·대정수리조합·익옥수리조합 및 불이 옥구농장·강원도 철원의 중앙수리조합 및 불이 철원농장 등을 모두 경영 또는 주재하였다. 이 회사들이 조선의 토지개량을 한 면적은 32,100ha나 되고 있다. 이 사업



자금은 실제로 1,954만 3천 원으로 사업 완성 후의 증수 견적액은 연수 벼 73만 3천 석이나 될 예정이고, 개간사업회사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여,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더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자본금은 500만 원으로 수리왕이라는 경칭이 있는 후지이 칸타로(藤井寬太郎)씨가 전무로서 혼자 만사를 통괄하고 있다. 이 회사가 경영하는 군산 교외의 간척지는 옥구·금강 양 하천의 하류에 개재하여 옥구 소금의 산지로 이름이 나 있던 곳에서, 1920년 익옥수리조합 설립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여 총연장 14㎞의 대제방으로 바닷물을 차단하여 3년의 시간과 2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22년에 공사가 완성되어 2,500ha의 논을 개척한 것이다. 중앙에 있는 300ha의 옥구 저수지를 경계로 하여, 1929년도까지 일본인 자작농 333호를 이주시켜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이미 120호의 일본인 이주민과, 850ha에 조선인 소작인 85호를 수용하고 있다. 작황은 매년 수확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단당 수확고가 벼 약 5석 정도이다.

● 고흥 | 아사노 키하치로(浅野喜八郎)씨

전라북도 고창군 고흥학교조합 관리자·고창 재향군인 분회장·고흥 우편소장·양계조합장 등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고흥의 아사노 키하치로씨는 드물게 보는 고결한 인물이다. 그는 영농 외에 우편소, 잠종 제조도 경영하였고, 조선인에게 양잠·양계를 부업으로 장려할 때는 지도자가 되고, 선각자가 되어 노력한 일이 적지 않다. 그는 말수가 적고 침묵하는 성격으로 쓸데없는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자기주장을 발표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기탄없이 말하고, 원하는 바를 피력하기 위한 준비는 절대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하고 규율과 예의를 존중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성실하고 성의가 있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실하게 대하고, 부하나 사용인들에 대해서도 의협심과 동정을 보여주고, 재곡(財穀)을 아끼지 않고 대부해 주거나, 또는 은혜롭게 나눠주면서 구제해 온 미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고흥 아니 고창군의 제일인자로서 확고부동한 지위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 김제군 백구면 | 이노우에(井上) 농사합명회사

김제군 백구면 이노우에 농장은 1927년 봄에 조직을 변경하여 이노우에 농사합명회사로 개칭하였다. 사장 이노우에 코이치(井上工一)씨는 나이가 82세로 1848년생이라고 하는데, 허리도 꼿꼿하고, 시력도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는 야마구치현 출생으로 1905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농사경영에 착수하였고, 시종일관 황무지를 미전으로 바꾸어 오늘의 성공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왕성하게 양잠에, 경작에 때로는 손수 괭이를 들고 일을 하는 등, 산미 개량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농사 시설에서 항상 동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분투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공공심이 두터워서 동네 주민 또는 여행자가 반드시 대장촌 역에 하차하여 만경강을 건너서 왕래하는 것을 보고, 단독으로 도선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고, 지방 산업의 계발 유도에 전력을 쏟으며, 지치지 않는 노옹이다. 부디 더욱 건강하시길 빈다.

● 용담 | 후지카와 츠요시(藤川剛)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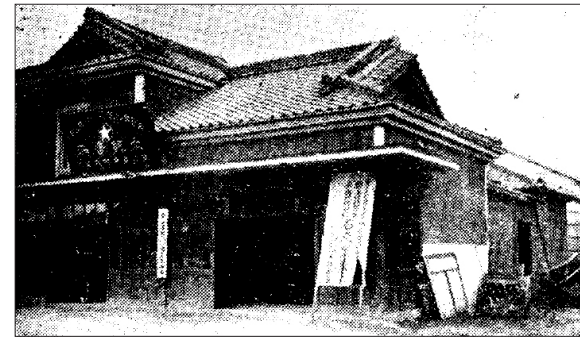
진안군 용담 후지카와 농장주 후지카와 츠요시씨는 처음에는 경찰계에 투신하였지만, 관리 생활에 질린 그는 1921년에 현재의 땅을 골라 경찰을 사직하고 농사경영에 착수하였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매우 분투하였다. 그 노력의 결정체가 오늘의 재력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는 지극히 질박하고 성실하여, 어느 것도 어정쩡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싫어하고, 철저하게 해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격의 인물이다. 표면상으로는 온후하게 보이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털끝만큼도 모난 곳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주의나 절조가 상처받지 않는 한에는 애써 조화로운 태도를 가지고, 일을 담소로 해결하고 진전시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가슴 속에는 의연한 정신을 품

고, 주의 신념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단행하려고 하는 진취적이고 과감한 기상이 넘친다.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기예를 품은 인사이다. 현재는 용담면 협의회원으로서 공공사업에도 진력하고 지역의 발전과 소개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 용담 | 에구치 마츠사부로(江口松三郎)씨

진안군 용담의 숨은 독농가 에구치 마츠사부로씨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용담에 거처를 정하고 상업을 경영하는 한편으로 농사 경영에도 착수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후 20여 년간 고된 일을 참아가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면려분투하며 노력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 소작인의 지도계발에 유의하며 전심으로 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진력하였다. 더욱이 축산도 중시하여 축우, 양돈 등에도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천성이 온후하고 독실하여 타인과의 교제는 겸손과 애정을 신조로 하여, 털끝만치도 자신의 재력과 지력을 자랑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읍내의 일본인과 조선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공공사업 등에는 다른 이들보다 앞장서서 기부하고, 토지개발 등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쾌히 성심성의를 다하여 노력하는 인격자이자 숨은 독농가이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 독농가를 용담의 산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북 산업개발을 위해 기쁘기 한량없는 바이다. 전북 산업을 위해 에구치씨의 자중을 비는 바이다.

● 동산촌 | 동산(東山)산업주식회사



전주군 조촌면 동산촌에 본사를 두고 이리역전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동산산업주식회사는 최근에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 올해 상반기에는 12%의 배당을 했고, 전북 사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사장인 사이토 츠토무(斎藤勤)씨는 전북의 농사경영자로서 그리고 동산의 유력자로 알려져 있고, 지배인 임씨는 소장 실업가이자 민완가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중책을 맡아서 호남선 연선 일대에서 멀리는 충남, 전남에까지 상권을 확보하여 활약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된 특약비료는 대일본인조비료주식회사의 제품인데, 그 외에도 전기화학공업주식회사의 석탄질소의 판매도 하고 있고, 기타 농기구와 발동기도 판매하고 있다.

● 김제 | 동진(東津)농업주식회사

동진농업주식회사는, 사이메이텐노(斉明天皇)의 원병선 수백 척이 꼬리를 물고 입강하여 백제의 부흥을 도모했던 일본의 원군마저도 나당연합군에게 패하여, 드디어 백제는 멸망의 비운을 초래했던 역사로 그 이름이 높은 백강, 지금의 동진강 어귀에 2,000ha의 간척지를 개척하기 위해 1926년에 설립된 것이다. 그 이래로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척되어, 이미 축제 공사는 전부 끝났고, 나머지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사장은 아베 후사지로(阿部房次郎)씨이고, 일본의 3대 방적 중 하나인 동양방적회사의 사장으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다. 지배인 후쿠이 쥬키(福井重記)씨는 막부 말기를 장식했던 '백호대'로 유명한 아이즈번(會津藩) 출신으로, 좋은 품성을 평가받아 참모본부에서 프랑스 대사관으로 옮겨 재직하였으며, 예비역 대좌(대령)의 영예직도 가지고 있다. 이 광활한 2,000ha의 간척지가 그의 손에 의해 미전으로 바뀌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다.

● 전주 | 야마모토 에츠조(山本悦藏)씨

전주를 넘어 전라북도의 공공문제를 위해 실로 18여 년간 한숨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달려 온 사람이 전주의 야마모토 에츠조씨일 것이다. 그는 항상 사회공공의 대국에 서서 사업의 앞날을 고찰하고, 또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일찍이 유식자들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남몰래 경의를 표하고 있는 바이다. 그는 천성이 활발하고 과단성 있게 결행하는 마음이 강하고 의협심도 풍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력분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격의 소유자이다. 상식이 풍부하고 인정을 베풀어야 할 사정을 잘 알고 상대방의 사상이나 감정을 잘 직감하고, 자기의 주의나 신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와

동정으로 대우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존경을 받고 있고, 전주 내 민간의 중진으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관선 도평의원으로서 도정에도 참여하며, 기타 면협의원, 학교조합의원, 기타의 공직에도 있었으며, 사회공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공로는 실로 적지 않다.

● 전주 | 이엽사(二葉社; 후타바샤)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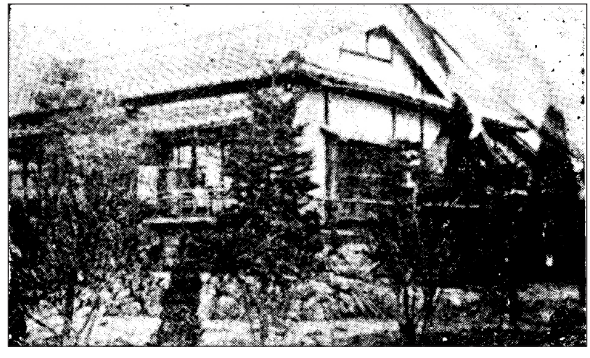
주식회사 전주 이엽사 농장은 소유하고 있는 논이 각지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이것을 전주부·삼례부·서수부·황등부로 나누어 1,000ha의 논과 200ha의 밭에서 1,700명의 소작인과 함께 연 수확 12,000석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옥구군 서수면의 농장은 고 가와사키 후지타로(川崎藤太郎)씨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1926년에 이엽사가 매수한 것이다. 이엽사의 총지배인은 사이토 신이치(齋藤信一)씨인데, 그는 39세의 나이로 한창 일할 나이이다. 첫 번째 취미가 승마인데, 승마는 농사 감독을 할 때 응용할 수 있다. 그는 동분서주하느라 매우 바빠서 자리를 데울 틈도 없을 정도이다. 그의 고향은 쌀의 산지로 유명한 니이가타현(新潟県)이고, 그 현의 기타칸바라군 쿠로카와무라(北蒲原郡黒川村)에서 고고한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다. 1915년 10월에 조선으로 건너와 이엽사에 들어갔고, 그 이래로 계속 이엽사에서 일하면서 현재는 전주 시미즈정(清水町)에 자택을 가지고 있고, 삼례, 황등, 서수를 왕래하며 산미의 개량증식에 진력하고 있다. 그는 보기 드문 인격자이며, 정의로운 사람이다.

● 옥구군 | 삼곡(森谷; 모리타니)농장

옥구군 서수면 신기리 삼곡농장의 농장주인 모리타니 겐이치(森谷元一)씨는, 1906년 현재의 땅을 선정하여 농사경영에 착수했다. 그의 가문은 선조 대대로 쇼야(庄屋)를 지낸 호농(豪農)으로서 가문의 지위가 높았고, 메이지 유신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부친은 촌장으로 추대되어 마을을 다스리는 일에 진력하고 공헌하고 있다. 사업을 개시한 이래 여러 가지 난관과 고생과 싸우면서 점차 업무를 확장하여 현재는 자기 소관의 논밭과 기타를 합쳐 약 800ha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소작인도 600호를 안고 있는 대지주가 되었다. 그 사이에 그는 품종개량, 시비, 경운의 개선, 축우 장려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산미의 증식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종교심이 돈독했고, 혼간지(本願寺) 즉 진종(浄土真宗)을 연구하여 조예가 깊었으며, 교리와 경전에 통달하고 있었고, 신앙과 신념이 지극히 굳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소작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영적으로 계발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지론으로 보면, 일반 조선인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종교이거나 하기 때문에, 대개 화려한 것에 빠지기 쉽고 허영심에 쫓겨 자제와 절약을 하는 미풍이 부족한데, 이것은 단체생활을 통해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인간으로서는 큰 결점이 되므로, 우선 종교적 신앙을 품게 하여 그 약점을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종 종교강연회를 열어 그것들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소작인의 경조사나 화복에 대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소작인들로 하여금 경조공제회를 만들게 했고, 그 성적은 해가 갈수록 좋아져서 오늘날에는 이상적인 모임이 되어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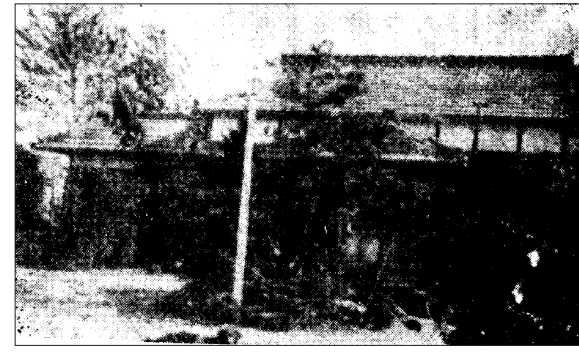
● 이리 | 오우기 요네스케(扇米助)씨



이리의 창시자이자 이리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우기 요네스케씨를 추천하는 것은 이리에서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이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08년에 이곳으로 들어와 살면서 상업을 경영하는 한편, 토지 매수에도 종사하였고, 한때는 이리 교외에 농원을 열었던 적도 있다. 현재는 군산항의 대안에 있는 수동리에 약 100ha의 토지를 매수하여 간척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리에 거주하면서 무진(無盡) 관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접할 때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상하 구별 없이 원만하고 평화로워서 모난 곳이 없다. 게다가 이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 이리 | 이타이 신조(板井信藏)씨



이리의 제일인자 이타이 신조씨는 조선의 농사경영이 유망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리에 영주하겠다고 결정하고 농사 경영에 착수했다. 그 옛날에는 군복에 긴 칼을 찬 병사였던 이타이씨가 너무나 변한 농민으로서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시원시원한 군인 기질 그대로 개인 경영의 농장에도 힘을 쏟는 외에, 이리를 위해 또는 시민을 위해 진력해 온 점은 대서특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방면에서도 이리를 사랑하는 일념은 대외적인 일에서 항상 제일선에 서서 돌격하거나 돌격하기 위해 분투를 계속해 왔다. 호남선 개통 당시의 이리는, 사카에정 근처의 한 선을 가지고 있었던 데 불과하고, 그 외에는 논 또는 산이었지만, 거기에 정연한 도로를 부설하고 현재와 같은 대 시가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타이씨 등의 노력과 큰 영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시민회장으로서 도정에 참여하였고, 도정에 대한 의견은 열기를 뿜어내는 불같은 기세로 당국에 건의하고, 산업의 개발, 상공업의 발전에 적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이타이 신조씨의 인격과 인망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특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전라북도 도민들이 알고 있는 바이다.

● 이리 | 전북상사(全北商事)주식회사

전북상사주식회사는 1920년에 창립되었다. 영업 종목은 만주밤, 콩깻묵을 비롯하여 외국쌀 각종, 비료·금융·농사경영이 주된 종목이고, 그 외에 창고업도 운영하고 있다. 회

사의 거래는 개인 상인들과는 달리 다소 엄격한 경향이 있다. 성실 제일을 모토로 하여 박리로 주문에 응하고 있는데, 이는 확실하게 시대에 순응한 방식이다. 또한 회사의 중역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오키 후사오(大木房男)씨가 지배인으로서 혼자서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 오키씨는 와세다 대학 상과 출신으로 이리학교조합 의원, 익산면협의회원 등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다망한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한편으로 이리의 공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항상 비료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선의 토질에 가장 적합한 전북상사만의 독특한 비료를 발매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라고 들었다. 창업한 지 8년째를 맞이한 전북상사는 이제는 해마다 업적이 융성해져서 호남 실업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도 오로지 지배인 오키 후사오씨의 명민한 두뇌와 발군의 수완에 의한 바가 크고 회사는 회기마다 5%의 배당을 계속하고 있다. 이 또한 주주의 대부분이 친척관계인 오키 일가이기 때문에 다른 영리회사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상재라는 측면에서 귀두인 그는 인격에서는 올바르고 부처님같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거래처의 각 상인들이 공명하고 있다. 신뢰를 주는 말이다.

● 이리 | 타무라 류스케(田村龍助)씨

이리 사카에정에서 가장 신용이 있고 견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생선·해산물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타무라 상점의 타무라 류스케씨일 것이다. 그는 장사에 수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돌발한 이리 문제나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론을 주장하는 웅변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학교조합이나 면협의회 회원의 선거 때에는 항상 추천을 받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나올 때가 아니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사카에정 아니 이리의 유력자로서 확고부동한, 훌륭한 인격을 지닌 실

업가로서, 조만간에 이리를 위해 활약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천성이 강직하고 과단성과 자신감이 강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용맹스럽게 매진을 마다하지 않는 기상이 넘치는,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남자이다. 기개가 있고, 정의를 사랑하여 사악함을 미워하고, 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를 접해 본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타무라 상점의 내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오늘날과 같은 융성을 보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타무라씨가 다른 사람보다 몇 곱절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요인으로 숨어 있다. 이리 시민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군산 시장에서 생선을 매수하는 데에 스스로 나가기도 했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한숨도 쉬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한 부단한 노력은 결국 오늘을 있게 하였다. 그는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

● 이리 | 아리마 칸타로(在間甚太郎)씨

이리의 토목건축청부업자 아리마 칸타로씨는 철두철미하게 남자로서의 의지로 버텨 온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청부일에 만일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해서 반드시 완성시켜 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용도 증가하고 각 관청이나 수리조합 등으로부터 공사의 뢰를 받게 되었다. 각 보통학교나 이리고녀, 이리종묘장 등은 모두 그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또한 이리직공조합 간부로서 진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리소방조직의 부조장으로서 지휘통솔하고 있는데, 기골이 늠름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이 세계

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 군산 | 마츠모토 이치고로(松本市五郎) 씨

조선비료계에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다. 군산 본정의 미곡 시장 앞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군산흥업주식회사의 기초를 닦은 전무였던, 군산의 으뜸 공신(元勳) 마츠모토 이치고로씨이다. 그는 미곡의 위탁판매, 농잠 기구, 종묘, 가마니와 비료의 제조판매를 영업종목으로 하여 회사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그의 활약으로 매년 회사가 융성해지고 있고, '비료라면 군산흥농의 마츠모토 전무에게 가서 들어보라'고 할 정도로 비료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호남선뿐만 아니라 조선 비료계의 스타일 것이다. 혜안을 지닌 그는 일찍부터 조선농업계의 오늘날이 있을 것을 달견하고, 미곡의 집산지인 이 군산에 흥농회사를 발기하였고, 이 회사가 오늘날과 같이 융성한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실로 그의 비범한 혜안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지금의 농업계에서 비료는 없어서는 안된다. 이 회사가 창립된 지 벌써 8년이 지나, 이제는 홀로 비료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는 매우 온후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사교에도 지극히 원숙하여 사회 각 방면의 문제에 관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을 한 번 열면 도도하게 논의를 끌고 가는 힘을 지니고 있다. 지조도 건실한 데다가 단정한 풍채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는 당당한 인물이다. 그의 인물적 가치는 군산에서 보지 못할 리가 없어서, 이미 상의회장의 직책에 천거되었고, 지금은 특별평의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그의 인격과 인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 전주 | 오키 료사쿠(大木良作)씨

전주무진주식회사 사장, 담배 원매거래회사 지점장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사업에 관계하고 있고, 전북의 실업계에서 제일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 중에 오키 료사쿠씨가 있다. 그는 독립자영으로 분투노력하자는 주의의 소유자이다. 조선에 온 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결과, 결국 오늘날의 기초를 구축한 것이다. 그는 천성이 근엄하고 과묵하며, 상대방에게 쉽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첫대면한 사람에게는 완고한 인물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의가 두텁고, 일단 맹세한 일

은 물불 가리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는 인격자이다. 사원을 대할 때도 자애롭게 부모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돌봐주기 때문에 부하들은 모두 그의 고풍스럽고 자애로움에 감격하고 공경하여, 분골쇄신도 마다 않고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 이는 모두 그의 인격에 의한 바가 크며, 반드시 특필할 가치가 있다. 앞날이 창창한 그의 전도는 양양하다. 전북 사업계에서 그의 활약은 실로 관심을 가지고 볼 가치가 있다.

● 전주 | 마츠모토 후쿠이치(松本福市)씨

경전북부선의 전주역전에 있는 합자회사 마츠모토 운송점은 운송업 외에 만철무순탄(滿鐵撫順炭)·와카마츠탄(若松炭)·관염(官鹽)·지나원염(支那原塩)의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편, 조선화재·메이지화재·복수(福壽)화재·메이지 생명·공제생명 등 각 사의 전주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사원인 마츠모토 후쿠이치씨는 전주의 유력자이자 실업가로서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지만, 그는 동정과 의협이라는 미덕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진력분주하여, 의뢰자가 흡족해 할 심정을 생각하고 혼자서 기뻐할 정도로 덕성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로부터 항상 존경받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기가 있는 사람이다. 철두철미한 남자의 의지로 버텨온 사람이다. 특히 그의 의기는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 전주소방조의 보배가 되었고, 다년간 소방조의 우두머리로 전주소방조를 지휘하였고, 몇 번인가 은퇴를 희망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도 허락을 받지 못했다. 어쩌면 지금 전주 소방조에서 그를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그는 전주의 공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 이리 | 철도병원 후쿠오카 에이타로(福岡榮太郎)씨

이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철도병원은 호남선의 개통과 함께 철도의 부속병원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관제의 변혁으로 인해 현재는 이 병원의 병원장인 후쿠오카 에이타로씨가 경영하고 있다. 최근에 이 병원은 의료기계와 병원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여, 이리 의료계의 권위로서 중시되고 있다. 원장 후쿠오카 에이타로씨는 제국대학 출신으로, 이리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의학사이다. 온후하고 과묵하며 모난 데가 없어서 의료인으로서는 진정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보기 드문 인격자이자 학자풍의 군자이며, 학술의

권위를 지키기에는 가장 적임자인 인재로 유식자들로부터 크게 경외를 받고 있다. 필요한 것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고, 또한 초연하게 지내면서 결코 자신이 스스로 우쭐해하는 풍은 없고, 신의와 온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 실행하고 있다. 내과, 소아과는 그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고, 환자는 항상 많으며, 멀리 군산, 대전 방면에서도 그의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 이리 | 타케이치(武市)치과의원

호남 교통의 중심지인 이리의 사카에정 3정목에 있는 타케이치 치과의원은, 이리의 치과의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장 타케이치 치쥬로(武市知十郎)씨는 일본치과의학사로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 오랫동안 그 방면의 대가 아래에서 연찬을 쌓았고, 그 후에 조선으로 건너와 이리에서 개업했다. 그가 쌓아 온 학식과 숙련된 기술은 일반 환자의 신뢰를 얻어, 의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천성이 따뜻하고 좋으며, 겸손하여 그 평판이 매우 좋다.

● 이리 | 김화형(金和炯)씨

이리에서 유명한 대부호이자, 전라북도 내에서 유수의 대지주로서 전심으로 농사에 친숙해지고 있는 한편, 이리 공공사업을 위해서도 진력하여 이리보통학교의 학무위원으로서 학무행정에 공헌하고 있고. 온건하고 독실한 실업가로 일컬어진다.

● 이리 | 조선 면화(棉花)회사 이리공장

전북에서 무명을 만드는 공장은 조선면화주식회사 이리공장 단 하나뿐이다. 조선면화는 조선 쌀 업계의 큰손인 주식회사 조일 정미소나 일화제산(日華製汕)주식회사와는 자매회사이고, 중역 및 주주 모두가 일본, 조선의 유력자이다. 그리고 면목화로 잘 알려진 전남의 목포에 본사 및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리공장도 금산·무주의 양 군 외에는 전부 지정 판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면화가 나오는 계절의 이리 공장은, 200명 내외의 직공을 고용하여 밤낮없이 작업을 계속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매년 사업이 융성해지고 있고, 날마다 달마다 발전하는 이리의 공업으로서 장래가 크게 촉망되고 있다.

주임 미야오(宮尾)씨는 공장을 설치한 이래로 계속 주임으로서 분투를 계속하고 있는데, 두뇌가 명석한 수완가인 까닭에, 이리공장도 산업 개발과 함께 자연스레 업무도 풍성해지고 있다.

● 전북 잠종업(蠶種業) 조합

전라북도 잠종업조합은 누에 종의 개선 및 판매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폐해를 교정하며 업무의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1920년 8월에 창립되었다. 그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전북 잠업을 위해 노력한 공적은 매우 심대하다. 그 덕분인지 전북의 양잠은 그 세력이 크게 발전하여 이 조합이 1921년도에 배포한 잠종은 춘잠 25,000매, 하·추잠 18,000매였던 것이, 1926년도에는 춘잠만 31,500매에 이르렀다. 이 조합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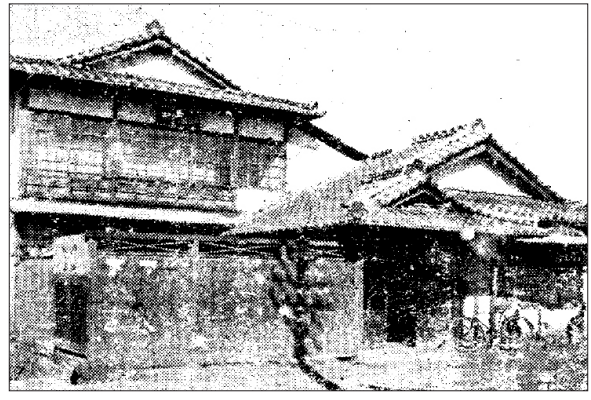
① 잠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것.
② 잠종 매매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는 것
③ 잠종을 심사하는 것
④ 잠종을 위탁판매를 하는 것
⑤ 사업상 필요한 물품의 공동구입을 알선하는 것
⑥ 잠종의 공동저장고를 설치하거나 또는 특정한 장소에 공동저장하는 것
⑦ 잠종업에 관해 중요사항을 자문이 있을 때는 그에 답신하고, 건의·청원하는 것
⑧ 강습회 및 강화회를 개최하는 것
⑨ 품평회를 개최하는 것
⑩ 전술한 것들 외에, 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리고 이 조합은 사무소를 익산군 이리 전북상사주식회사 내에 두되, 임원은 아래와 같다.

- 조 합 장 : 다사카 사자부로(田坂佐三郎)
- 부조합장 : 쿠스타 세이이치(楠田精一)

- 평 의 원 :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 이노우에 코이치(井上工一).
마키 니조(牧二三), 강대술(姜大述), 쿠니에다 마츠키치(國枝松吉)
- 서 기 : 고타니 테이기치(小谷悌吉)

● 이리 | 하시모토(橋本)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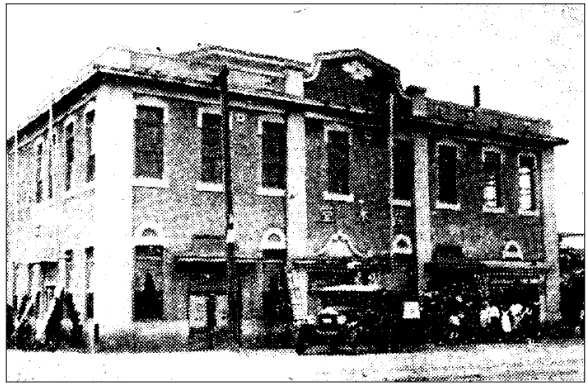


이리역전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도모타 사이(友田さい)씨가 경영하는 웅장한 건물의 하시모토 여관이 있다. 이 여관은 이미 10년 전에 개업하여 여관 시설도 전부 완비하였고, 손님을 대하는 데에도 다른 여관에서는 볼 수 없는 친절함과 정중함을 다하고 있어서, 여행객들은 여정을 위로받고 만족하여, 한번 이리에 와서 하시모토 여관에 투숙한 사람은 반드시 그 후에도 이 여관에 투숙하므로, 오늘날 재계가 불황을 맞고 있는 시대에도 태연히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여 점점 더 번영하고 있다.

여주인이 솔선하여 손님을 소중하게 맞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업원들도 감화를 받았고, 팁을 받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하거나,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시중을 들거나 하는 박정함이 없고, 마음으로부터 친절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 여관에 투숙하면 마치 집에 기거하는 것과 같은 즐거운 기분이 되고, 가족적인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여주인은 고생을 해 본 사람이어서, 세상의 단맛과 신맛을 다 겪어 보고 인정을 베푸는 데 철저한 만큼, 손님을 접하는 장사에는 적임자였다. 이 가업이 번창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이리 | 아오키 켄이치(青木權一)씨

호남선에 한 걸음 들어선 사람은 누구나 이리역전에 그 위관을 보여주는 아오키 식당



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곳의 경영자 아오키 켄이치씨는 히로시마현 출생으로 오늘의 기초를 쌓기까지 아주 많은 고생을 했다. 그는 처음에 이리 사카에정통에서 '키카쿠(きかく)'라는 요리 및 도시락업체를 경영하였는데, 1926년 2월 역전에서 땅을 선정하여 약 660㎡의 광대한 가옥의 신축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6월 완공하여, 옮겨 왔던 것이다.

경영자 아오키 켄이치씨는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조금도 여지가 없는, 마치 대나무를 쪼개놓은 듯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그는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내세워 자만심을 보이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일은 추호도 없고, 지극히 겸손하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활동가로서, 옷차림같은 것은 거의 신경쓰지 않고, 소박한 옷을 입고 다니며, 다른 요리사들과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1926년 이리가 호남의 중앙에 있고, 쌀의 저장판매가 철도운수 관계로 유망해지는 것에 착안하여, 이리 원정통(元町通)에 약 429㎡의 벽돌로 쌓은 얼음창고를 건설하여 매년 약 30만kg의 우량한 얼음을 저장해두고, 호남 각지의 수요자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아오키 식당의 앞날이 점점 더 융성해지더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가 더욱 더 분투하기를 빈다.

● 전주 | 박기순(朴基順)씨

박기순 씨는 1858년 5월 5일 원적지 전라북도 익산군 익산면 이리에서 태어났다. 1901년 11월 28일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었고, 1906년 7월 3일 시종원(侍從院) 부향(副鄕)에 임관, 1908년 2월 20일 전주농공은행장에 취임, 1911년 8월 20일 전라북도 도군수에 임관, 1916년 5월 5일 전북철도회사 사장에 선출, 1918년 10월 12일 전주금융조합장에 취임, 같은 해 10월 20일 조선식산은행상담역에 취임, 1919년 2월 26일 조선잠업회사 사장

에 취임, 1920년 3월 15일 삼남은행 대표에 선출되었는데, 중도에 교체되기는 했지만, 그 후에 재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 1920년 3월 15일 전북축산회사 사장에 취임, 같은 해 12월 전주면협의원으로 선출, 1921년 10월 15일 전주여자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에 취임, 1924년 2월 전주향교 문묘 장의(掌議)가 되었다.

그는 천성이 온후하고 독실하여 성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산 100만 원 이상을 소유한 부호이지만, 의협심이 강해서 빈민을 긍휼히 여겼고, 기타 공공사업에도 진력하여 이 방면에 투자하는 금액이 실로 대단한 액수이다. 공공사업을 위해 금전을 기부하여, 독지기부상을 수여받은 것만 해도 전후로 29회에 이르고 있다.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하여 감수포상(紺綬褒賞)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1924년에 전북의 가뭄 구제기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솔선하여 1만 원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전주 교풍(矯風)회장의 임무를 맡아 구호사업에도 종사하는 등, 그 미거(美擧)와 선행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게재한 것은 주된 것들일 뿐, 그 외에도 항상 그의 눈에 띄는 적빈자 등을 구제한 일은 한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아무리 자신에게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에 크게 기부하는 마음씀씀이는 손톱의 티끌만치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빈민의 피를 빨아먹는 심보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 현대에, 그와 같은 진심으로 비단결같은 대 자선가가 전북 땅에 있다는 것은, 전북 사람으로서는 마음 든든한 바이다. 또한 신용을 가장 중시하는 은행의 장으로서 그와 같은 인물을 모시는 것은, 진실로 적임자이기 때문에, 민중은 안심하고 그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삼남은행이 이 대 덕망가를 대표로 선출한 것은, 그 은행은 물론 일반 지방민의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927년 대표 지위에서 물러나, 아들인 박영철(朴榮喆)씨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리의 자택에서 여유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 불이 | (不二)전북농장(과) | 후지이 칸타로(藤井寬太郎)씨

해마다 70만의 인구과잉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제국의 인구·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 지워진 중대한 책무, 즉 어떻게 해서 증식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한 끝에, 산미증식계획이 되어 나타났다. 조선의 수리왕 후지이 칸타로씨를 사장으로 추대한 불이흥업주

식회사도 또한 산미증식계획을 목표로 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산업개발전의 기수이다. 이 회사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토지개량사업은 불이전북농장 임익수리조합, 불이서선(西鮮)농장 대정(大正)수리조합, 불이옥구농장, 익옥수리조합, 불이철원농장 중앙수리조합이고, 전북농장은 2,000ha, 서선농장 3,200ha, 옥구농장 1,900ha, 철원농장 4,000ha, 중앙수리 8,800ha이다.

총연장 72㎞ 용수로의 대간선을 굴착했다. 금강·만경강의 하류에 개재하는 간석지 2,500ha를 간척하기 위해 192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22년에 완성한 것이 익옥수리조합이다. 사업비 약 500만 원이었던 대 수리조합으로서, 이 개량사업으로 1년 간의 증수 19만 5천 석이라는 숫자가 나와 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무튼 조선의 수리왕 후지이 칸타로씨가 목숨을 걸고 시행한 대사업으로서, 산업입국의 찬가로 칭송받았고 다행다망한 산업전 너머로 확약된 승리의 영광이 던져졌다.

또한 불이전북농장은 1904년 6월에 창업하여 처음에는 후지모토(藤本)농장이라 불렀지만, 1914년 5월 불이흥업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 불이농장의 소유지는 약 2,000ha 이상에 이르고, 스스로 시작전(試作田)을 두어 품종개량, 산업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농장의 지배인은 사토 후쿠타로(佐藤福太郎)씨인데, 그는 오산리 학교조합 관리자로서, 그 외 공직을 지니고 지역의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 그는 청렴결백, 온후하기가 군자와 같고, 보기 드문 인격자이자 덕망가이다.

● 정읍 | 박흥규(朴興奎)씨

전라북도 정읍군의 부호이자 유명인이며, 의협심 넘치는 덕망가인, 전 전라북도 도평의회원, 중추원 참의 박흥규씨가, 정읍의 발전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산업개발과 기타 공공사업에 진력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실로 거만의 액수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오히려 이것을 유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활발하고 마치 질풍신뢰(疾風迅雷)와 같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로부터 신과 같이 존경을 받고, 전라북도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그 명성이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덕을 흠모하여 그의 저택을 방문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손님방이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그는 이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대우하는 등, 너무

나 진정한 호걸다운 점이 있다.

그는 정읍군의 산업이 위축되어 부진한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하면서 무언가 구제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선 그 진보와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의 금융기관을 일으켜 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유지와 상의하여 도시금융조합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것을 완성시켰으며, 또한 정읍전기주식회사 사장으로서, 그리고 정읍면장으로서 다년간 정읍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은 실로 적지 않다. 하지만 그는 작년 가을 부친의 부음을 듣고, 공직을 모두 사임하고 지금은 중추원 참의만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정읍의 박흥규씨는 호남의 쾌걸이요, 확실히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오늘까지 이룬 것은 성공의 첫걸음일 뿐, 앞길이 창창한 그는 앞으로도 반드시 더욱 활약하여 그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이제 호남의 쾌걸에서 조선의 영걸(英傑)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쾌남아에게 자중자애가 있기를 기원한다.

● 정읍 | 박치규(朴治奎)씨

전라북도 정읍의 유력자로서 그리고 전북의 부호로 알려져 있는 박흥규씨의 동생이다. 박치규씨는 정읍의 미곡상으로서 나아가 호남선의 미곡상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고, 그 조제고와 수이출고가 항상 정읍의 미곡상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더 견실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는 천성이 온후하고 사람과의 교제는 겸손과 애정을 신조로 하여 털끝만치도 자신의 수완을 자랑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정읍의 일반인들로부터 항상 존경과 애모를 받고 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며, 일사불란하게 정리하며, 금융면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견실하게 자금을 출자하기 때문에, 좀처럼 착오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박치규 상점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일인 것이다. 자애를 기원한다.

● 전주군 삼례 | 전주 삼례산미개량조합

전라북도 전주군 삼례는 일반인들에게 전북쌀의 집산지로서, 그리고 우량 전북쌀의

산지로서 잘 알려져 있다. 삼례의 미곡업자는 삼례산미개량조합을 조직하여 확실한 산미의 개량과 거래를 도모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거래가 확실하다는 점, 조제미가 우량하다는 점, 게다가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비로 합격미 한 가마니에 대해 2%씩을 조합비로 내고 있다.

삼례는 시장이라는 지위에서도 전북의 유일한 미곡산지 시장이고, 그러한 관계상 1년의 총수입출고가 15만 가마니 이상에 달하며, 그 중 반수가 2등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삼례쌀이 얼마나 우량한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은 삼례개량조합의 자랑으로 삼기에도 충분하다. 현재의 조합원 수는 11명이고, 오기타 도쿠타로씨가 조합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오기노 가메노스케씨가 부조합장을 맡고 있고, 마츠다 쥬이치로씨가 회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조합의 전도는 양양하고 행운도 많다. 아울러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오기타 도쿠타로(荻田德太郎)　▷오기노 가메노스케(荻野亀之助)
▷이시무라 세이하치(石村淸八)　▷야마모토 쵸자부로(山本長三郎)
▷마츠다 쥬이치로(松田重一郎)　▷오카노 타이이치로(岡野泰一郎)
▷와키타(脇田) 상점　▷다나카 마사오(田中正夫)
▷주식회사 후타바샤(二葉社)　▷황두현(黃斗賢)
▷박헌영(박헌영(朴憲永)

● 전주군 삼례 | 오기타 도쿠타로(荻田德太郎)씨

전라북도 삼례 실업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오기타 도쿠타로씨가 있다. 그는 1916년에 독립하여 삼례 땅으로 와서 정미업을 시작한 이래, 견실하게 기초를 굳히고 현재는 삼례 제일류의 미곡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다. 그는 항상 외관을 꾸미지 않고, 언뜻 보면 배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고 일면으로는 매우 동정심이 깊은 이른바 피와 눈물이 있는 협객이다. 전주평야를 발아래에 두고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공장을 설치하였고, 소학교 옆에는 분공장을 설치하고 신식의 정미기를 장착하여 종사자를 독려하고 있다. 그는 철석과 같은 강고한 결심으로 품질의 선량, 제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례산미개량조합장으로서 삼례쌀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컨대 그가 삼례의 사업계에서 성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층 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그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건실한 성격과, 절대 꺾이지 않는 굳센 의지가 가져 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그의 노력은 괄목할 가치가 있다.

● 전주군 삼례 | 야마모토 쵸자부로(山本長三郎)씨

경전북부선 이리-전주 간의 중간에 삼례라고 하는 전북쌀의 집산지가 있다. 삼례에는 또한 이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품고 있다. 야마모토 쵸자부로씨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정미업이 왕성한 삼례에서 그 업계의 거물로 알려져 있고, 지극히 예민한 실업적 재주와 정확하고 치밀한 상업전술로 미곡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까지는 삼례산미개량조합장으로서 삼례쌀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대단히 노력한 사람이다.

삼례정미소의 야마모토 쵸자부로씨라고 하면,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삼례 실업계의 중진으로서 오늘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그의 역량과 수완이 삼례에 오늘날의 번영을 유치하는 데 큰 공적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 비범한 수완을 기다리는 것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다.

● 전주군 삼례 | 마츠다 쥬이치로(松田重一郎)씨

전라북도 삼례에서 미곡상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으로 마츠다 쥬이치로씨가 있다. 그는 1914년경에는 삼례에 있었지만, 한때 전주로 옮겼다가 다시 삼례로 돌아와서 왕성하게 정미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삼례의 무역이 미곡의 집산을 융성하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 발전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삼례의 수이(輸移)액의 대부분이 미곡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삼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결과라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업무에 대한 포부가 매우 두터운 만큼 대단히 열심히 일한다. 삼례산미개량조합원 중에서도 소장이며 기예의 수완가로 이 조합의 회계사무를 담당하고, 산미의 개량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일순간 만나보기만 해

도 다른 어떤 악감정도 품게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온후한 인사이다. 삼례의 정미사업이 이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산미의 성가를 얻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업자들을 위해 그리고 삼례를 위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 황등 | 달관산(達觀山) 채석장

전라북도 황등의 돌이라 하면, 전북은 물론 조선을 넘어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돌산의 이름이 달관산 채석장이라고 한다. 이 채석장은 가타기리 와죠씨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아오키 쵸조(青木長藏)씨가 전권을 쥐고, 다수의 중국인과 조선인 직공을 고용하여 미술조각물, 건축용 자재, 토공용 재료 등을 왕성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멀리 일본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지극히 다망하고, 그래서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아오키씨는 1910년 10월에 이곳 황등 땅에 온 이른바 황등의 창시자이자 성공인이다. 담백하고 쾌활하며, 게다가 의지가 강고하여 황등의 유력자로서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고, 사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 익산군 황등 | 황등금융조합

황등은 이리에서 북쪽으로 8㎞, 호남선 황등역이 있는 곳으로, 전북의 3대 시장 중 하나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황등시장이 있는 곳이다. 이리에서 기차로 가면 10분 조금 더 걸리고, 육로로 걸어가면 1시간이 걸린다. 황등에서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황등금융조합이 있다. 조합원은 508명, 조합장은 가타기리 와죠씨이고, 이사는 쿠리하시 야스노리(栗橋保德)씨이다. 이 조합은 수년 전에는 업적을 그다지 올리지 못했지만, 쿠리하시 이사의 활약에 의해 업적이 크게 올라가서, 예금 약 25,000원, 대부금 약 80,000원으로 농사의 개량진보와 함께 자금의 수요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쿠리하시 이사는 의협심이 넘치면서 온순하고 정중하여, 조합원은 물론 일반인들로부터도 좋은 이사라는 평판을 듣는다.

● 익산군 황등 | 모리(森) 정미소

전라북도 익산군 황등이라고 하면 요교(腰橋)보가 있어서 유명한데, 황등의 미곡상이

자 황등의 유력자인 모리 기사쿠(森義策)씨가 있다. 모리씨는 이전에 이리에서 정미업을 경영하였지만, 깨달은 바가 있어 1920년 8월에 이곳 황등에 거처를 정하고, 10마력의 발동기를 장착하고 정미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황등 부근에서 나는 쌀은 대부분 그의 손으로 움직이는 형세가 되었다. 매년 3만 가마니 이상 조제하고 있다.

그는 정미업을 하는 한편, 약 1정보의 뽕밭을 가지고 양잠에 종사하여, 부근의 조선인에게 양잠이 조선 농업의 부업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산업개발에 노력하는 등, 그는 실로 부지런히 분투하는 인사이자, 황등에서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 익산군 황등 | 함열(咸悅) 금융조합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역전에, 함열에서 유일한 금융기관인 함열금융조합이 있다. 현재의 조합원 총수는 762명, 예금 약 50,000원, 대부금 약 12만 원이고, 농사개량의 장려와 함께 자금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조합장은 임준희(林準熙)씨, 이사는 나카무라 모모에(中村百衛)씨이다. 임씨는 온순하고 착실하며, 나카무라 이사는 지극히 진지하고 근검 역행하는 사람이다. 이 조합은 종래에는 그럭저럭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전임 이사인 후지이 콘노스케(藤井近之助)씨가 부임한 이래, 그의 노력에 의해 다소 면목을 일신했다. 현 이사 나카무라씨는 필사의 각오로 이 경영임무에 임하여, 불량 대부금의 정리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 이르러 조합원의 근검저축심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모범조합으로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불량조합이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이사 이하의 조합서기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 김제 | 승부(枡富; 마스토미) 농장

전라북도 김제군 월촌면 월봉리를 중심으로 김제군내에 520ha의 논과 약 90ha의 밭을 소유하고, 약 620명의 소작인을 거느리고, 산미의 개량증식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승부농장이다. 농장주 마스토미 안자에몬(枡富安左衛門)씨는 독실한 크리스트교 신자로 알려진 온후한 인사이다. 그는 1927년까지는 항상 고창군 부안(富安)면의 농장에 있었고,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을 위해 그 지방의 유력자 황종철(黃鐘轍)씨와 함께 노력했

고, 그리하여 교사를 신축하였고, 전 총독 사이토가 그 현장에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교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고창은 교통과 기타 편의시설이 아주 나빠서 항상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던 그는, 1927년에 고창의 농장을 황종철씨에게 양도하고, 김제군 월촌면의 농장으로 이전했다. 이 농장의 투자금은 8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액은 60,000여 원에 이르고 있다. 그는 최근에 전심으로 농사에 개량에만 진력하고 있다.

● 김제 | 구수(溝手; 미조테) 농장

전북 김제군 김제 미조테 농장은 처음에 김제읍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지만, 사업을 갱신 확장하면서 김제역전에 사무소를 신축하고, 읍내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투자액은 60,000원, 논 160ha, 밭 15ha였고, 소작인은 약 350명이었다. 주임은 나카츠카사 키요시(中務潔)씨인데, 그는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신진기예였다. 그에 의해 이 농장은 착착 견실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실로 내 일 같아서 기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다.

● 김제군 백구면 | 시마모토 잇페이(島本一平)씨

전라북도 김제군 백구면 유강리에 숨겨진 농사경영자로서 시마모토 잇페이씨가 있다. 시마모토씨의 오늘은 말 그대로 입지전적이며, 그가 고군분투해 온 데 대한 선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조선의 농업이 유망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으로 건너와, 바로 현재의 땅을 선택하여 농사경영에 착수하였다. 그 이래로 그는 아주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홍수와 싸우고, 어떤 때는 가뭄 때문에 고민하면서 악전고투하여 오늘의 성공을 보게 되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논은 약 100ha에 이르고, 김제군에서 유수의 자산가가 되었다. 이와 같이 그가 전북 사업계의 성공인의 한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그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건실함과 백절불굴의 강인한 마음이 가져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업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는 부용소학교를 신축할 때 거액의 기부를 했다. 작년에 새집을 짓고 점점 더 견실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괄목할 가치가 있다.

● 신태인 | 구보타 마사오(窪田正夫)씨

신태인의 미곡상 구보타 마사오씨는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조금도 없고, 아니꼬운 점도 없고, 아주 깔끔한 인물이다. 천성적인 자질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가 젊었을 때부터 세상 풍파를 견뎌내고, 고생을 거듭한 결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련됨이 길러졌기 때문일 것이다. 신태인 미곡상조합장으로서 신태인의 쌀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정미업을 하는 한편으로, 승합자동차의 경영자로서 전북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 또한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다. 구보타 상점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치밀한 두뇌, 뛰어난 사무능력, 견실한 계획, 원활한 응수 등이 오늘의 융성을 초래한 원인일 것이다. 그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대신에, 자기 의견을 발표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기탄없이 말하고 싶은 바를 피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묻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태인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 이리 | 조선잠업합자회사 쿠스타 세이이치(楠田精一)씨

조선의 잠업은, 돌아가신 고종황제 시절에는, 누에의 생산액이 전 조선을 통틀어 1만 2천 석에 불과한 상태였다. 원래 조선의 기후풍토는 양잠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정 이래로 총독부로서는 줄곧 장려지도를 했고, 그 결과 1927년도에는 3십여 만 석의 누에를 생산하여, 일본에도 상당수 이출하여, 조선의 잠업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웅변해 주었다. 또한 조선의 양잠은 생산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유리하다. 일본에서는 누에 1석에 약 80원이 필요한데, 조선에서는 37~38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므로, 조선 농업의 부업으로서 지극히 유리한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탄생한 조선잠업합자회사는 창립 이래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쳤지만, 그것을 돌파하여 전북을 넘어 조선의 잠업계에 공헌한 점이 실로 적지 않다. 대표사원 쿠스타 세이이치씨는 전북잠종업조합 부조합장으로서 전북의 잠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면서, 회사를 위해서도 분투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잠업계의 권위자로서 존경받고 있다.

● 김제 | 야마다 가이치로(山田嘉一郎)씨

전라북도에서 미곡의 집산지인 김제역 근처에 있는 야마다 정미소의 경영자 야마다 가이치로씨는 아직 40세도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작은 미곡상의 점원을 거쳐 독립한 후, 가장 번잡한 미곡정미사업을 경영하였는데, 감히 덮을 수 없는 생기 넘치는 활동과, 견인불발의 소질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융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야마다씨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참기 어려운 경영상의 난국에 처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온몸으로 그 굴레를 벗어나, 선배의 후원으로 겨우 활로를 찾는 등, 겪은 고생이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니다. 멀리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마치 시대의 산물로서 아무런 고뇌도 없이 오늘의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곡절을 이겨내며 고생한 끝에 오늘의 융성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는 전해에 김제학교조합의원에 당선되어 공공사업을 위해서도 노력하였고, 김제의 발전과 김제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익산군 팔봉면 | 소진문(蘇鎭文)씨

전라북도평의회원, 익산군 팔봉면장으로서 전라북도의 유력자로 소진문씨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는 다년간 팔봉면장으로서 면 행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작년에 도평의회원 개선 때에 민선 의원으로 팔봉면에서 출마하여 황등의 박지근(朴智根)군과 백중지간으로 경쟁하였는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는 천성이 영민하고 재기발랄한 사람이다. 두뇌도 명석해서 아무리 복잡한 사무라도, 한번 그의 투명안경과 같은 눈에 비추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적확하게 문제의 핵심이 판명된다. 그리고 그는 패기도 넘치는 대단한 활동가이다. 그래서 외교도 능숙하여, 누구를 응대하더라도 원만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 그리고 일본어도 아주 능통한데, 아무튼 현대에 보기 드문 모범적 인물이고, 익산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 익산군 황등 | 서성(西成; 니시나리) 농장

전라북도 황등에 서성농장이 있다. 이 농장은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의 부호 최우락(崔禹洛)씨가 경영하고 있는데, 1921년 9월에 창립되었다. 소유토지는 약 320ha이고, 소작인에 대해서는 항상 부업 및 저축을 장려하여, 매년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

다. 그리고 이 농장은 군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소생비료도 제조하여 전년도에는 약 7천 가마니 정도를 제조했는데, 이 또한 양호한 성적이다. 주임은 송석희(宋錫禧)씨이다. 그는 오랫동안 일본에 유학했던 만큼 모든 사정에 정통하고 있어서 농장의 주임으로는 최고 적임자이다. 일반인들은 서성농장이 확실히 좋은 주임을 얻었다고들 한다. 그는 사업에 대단히 열심이고, 조선의 개발은 산업의 조장과 산미 증식에 기대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200여 명의 소작인을 지도하여, 산업발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는 천성이 영민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어떤 일도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고 할 정도로 총명하며,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의 인물됨 중 아주 큰 부분이다. 자애를 빈다.

● 함라면 | 이배원(李培源)씨

전라북도 익산군의 굴지의 자산가이고, 1천 수백ha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함열역전에 삼성(三成; 미츠나리)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원만하고 온후한 인사로서 항상 공공사업에 공헌하고 있다. 그가 오늘날까지 사회공공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실로 누만금에 달할 것이다. 함라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및 교사의 신축 등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하튼 그는 이 지방에서 모범적인 인물이자 없어서는 안 될 인사이다.

● 정읍 | 후카다 야스토시(深田泰壽)씨

전북 쌀이 조선 쌀 중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성가를 얻게 된 까닭은, 산미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수이출미의 검사를 실시했던 결과라는 것은 세상의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읍에서는 미곡의 품질이 그다지 우량하지 않다고, 이 지방의 정미업자들이 항상 탄식을 하던 형편이었다. 그러던 사이에 후카다 야스토시씨는 품질향상을 위해 다대한 노력을 하였고, 정읍 쌀의 개량을 위해 큰 고심을 하였다. 후카다 야스토시씨를 정읍 미곡상 아니 정미업자의 제일인자로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흔들리고 있던 정읍 미곡상조합의 중심인물이 되어 정읍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공적이 실로 적지 않다. 그는 온후하고 독실하며, 말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상당한 준비를 하고, 인정미가 있다. 청렴결백하며, 적어도 부정하고 불의한 언동을 하는 사람과는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인사이다. 크게 자중자애하기를 빈다.

● 군산 | 야구치(谷口)여관

군산 메이지정 상업회의소 앞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커다란 현관을 갖춘 이층 건물의 웅장한 여관이 있다. 이것이 군산의 대표적인 야구치여관으로, 군산을 오가는 지명인사들은 거의 독점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대소 수십 개의 객실이 있고, 내실이나 외관이 명실공히 완비된 대여관이다. 여관 주인 야구치 이타로(谷口伊太郎)씨는 군산의 살아 있는 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된 사람으로, 1894년 8월 청일전쟁 당시에 이미 조선에 와 있었다. 아마도 군산의 창시자 중 첫째 사람일 것이다. 오늘날에는 밝은 번화가를 이루고 있지만, 당시에는 갈대와 억새풀만 무성하여 들어갈 수 없는 곳 투성이였다고 한다. 게다가 음침한 초가지붕의 온돌집이 밀집해 있었고, 일본인은 4~5호 정도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오이타현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 만큼, 사회의 단맛과 신맛을 모두 맛보았다. 의협심이 매우 강하고 강인한 협객같은 사람이다. 처음에 군산조를 조직하여 선박의 하역을 운반하는 거룻배업을 경영하였고, 짐꾼들의 우두머리로서 수백 명의 부하들을 통솔하여 내외의 신망과 세력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두머리(오야붕), 대장 등등으로 존경받는 군산의 명물 남자였다. 따라서 군산의 공공사업에는 적지 않는 희생을 치르면서 진력하고 있는데, 군산소방조와 같은 것은 그가 솔선해서 조직하여, 최초의 조장이 되었다. 현재 여관은 부인에게 맡겨두고 있고, 회현면에 수십 ha의 토지를 개척하여 뽕밭을 열어 양잠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부인도 고생을 많이 해 본 사람이라, 여관을 혼자 떠맡았고, 장남은 최고학부에 입학하였으며, 기타 여러 명의 아들과 딸들도 각각 교육을 받게 하였다. 여주인으로서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때로는 상냥하고 산뜻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어서, 손님이 항상 많아 만만세를 부르고 있다.

● 군산 | 마사키(正木)조선소 마사키 쇼타로(正木庄太郎)씨

군산항에서 옛날에 선박의 피난 장소였던 서빈(西濱)해안의 산기슭에 밤낮으로 망치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있는 큰 조선소가 있다. 서쪽은 넓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충남 서천군과 마주 보고 있고, 고개를 들면 군산공원의 검푸른 풍경이 들어오고, 번화한 시가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이곳만은 24시간 평화로운 유장함이 넘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군산에서 유일한 대표적 조선소로 알려진 곳이다. 1907년에 마사키 쇼타로씨의 경영하에, 현재 60여 명의 목수와 직공을 독려하여 일반해운업자의 수요에 응해, 새로운 배를 건조하고, 파손선의 수선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히로시마현 아키군(安芸郡) 출신으로 고등소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쿠레(呉) 해군 공창(工廠) 조선부에 들어가, 직공으로 수년간 조선 기술을 습득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의 전운으로 급박한 정세가 되어 거국적으로 국난에 대처하던 때, 그는 현역병으로 쿠로키(黒木) 제2군에 배속되어 만주 벌판으로 출정한 명예 용사이다. 개선 후 한일관계로 다사다망하게 보내다가, 이듬해 뜻을 세워 군산으로 와서 조선소를 창업하는 한편, 배 도구상 및 청부업을 운영하였고, 그 이래로 20여 년간 분투노력한 결과, 드디어 반석과 같은 신용과 재력을 획득하고, 지금은 조선업계의 중진으로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성격이 지극히 온량하고 독실한 인사로, 오랫동안 지역의 소다이(総代)로서 지역의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 그는 대단히 자식 복이 많아서 3남 4녀를 두었고, 장남은 가업을 잇고자 오사카 고등공업학교 조선과를 작년에 우등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기륭항(基隆港) 거선 기사가 되었고, 차남은 동양대학에, 삼남은 히로시마 중학에서 학창생활을 하고 있고, 일가가 단란하고 화합하여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

● 군산 | 군산주조(酒造)주식회사

군산 요코다정의 일각에 긴 굴뚝이 의연하게 서 있고, 여러 동의 창고나 흙벽광이 주택과 이어져 세워져 있다. 이것이 군산주조주식회사의 주조소이다. 전무인 가와노 소자부로(河野惣三郎)씨는 에히메현 태생으로, 1899년에 지금의 게이오대학의 전신인 게이오의숙(慶応義塾) 출신이다. 러일전쟁이 끝나고 조선에서 통감정치가 실시되어, 조선개척문제가 일본에서 논의되고 선전되었던 1906년에 한반도 개척의 일원이 될 것을 지원하여,

전라북도의 산천 경지의 상황을 시찰하고 장래의 조선은 농업이 발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농산품을 이용하는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군산으로 와서 술 양조업을 개시하였고, 그 이래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불과 2~3백 석을 양조했지만, 현재는 천 수백 석의 양조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회사 제품이 우량한지를 알 수 있다. 조선양조업계의 대표적인 순 청주인 "이나히메(稲姫)"는 최신의 과학적 양조법을 가미한,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양조법을 가와노씨가 수십 년 동안 고심하고 연구한 끝에 드디어 완성한 것이었다. 여기에 지순지고의 순한 술을 양성하게 되었다. 나다자케(灘酒)[49]를 능가하는 군산주의 일품이다. 그래서 군산은 물론 실제로 전 조선의 각 방면에 퍼져 있는 술부대들의 가정에는 "이나히메"가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호평을 얻어 사랑받고 있다. 특히 "이나히메"는 각지의 품평회나 공진회에서 신주 시음회 등이 개최될 때마다 출품하여 금패 우등상을 받아 최고의 영예로운 표창을 받았다. 이처럼 성가를 올린 "이나히메"는 영원히 순 청주의 정화로서 군산의 자랑이 될 것이다.

● 군산 | 요코야마(横山) 양조주식회사

전라북도 양조업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빛나는 명성을 얻어 호남 각 방면에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고 대단한 호평을 얻고 있는 것은 군산부 메이지정 요코야마 양조주식회사의 양조품 "킷코 미츠와(キッコー'ミツ輪')" 간장이다. 사장인 요코야마 요이치(横山與一)씨는 군산의 창시자이자 원로 중의 한 사람이다. 1903년에 군산으로 와서 잡화수입 무역의 거상으로 왕성하게 활약하는 한편으로, 명민한 그는 일찍부터 군산이 오늘날의 융운을 가져올 것을 달견하고 택지를 매입하였고, 그 위에 셋집을 건축하여 집주인이 되었고, 충남 서천에 수백 정보의 대농장을 개척하여 수백만의 부를 쌓아 올린, 이른바 입지전적인 성공인이다. 그러는 동안 군산 상공업계에 적지 않은 기여와 공헌을 하였고, 민단시대부터 의원으로서 그리고 상업회의소 평의원으로서 몇 기에 걸쳐 진력한 사람이

49 효고현 일대에서는 나는 고급 청주

다. 공을 이루고 명성을 얻은 그는 각종 사업은 지배인에게 맡기고, 수년 전에 군산에서 도쿄로 귀환하여 지금은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면서, 군산에는 때때로 들러보는 정도이다. 이 회사는 타니가와 사쿠마(谷川佐熊)씨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활약하고 있다. 타니가와씨는 올해 39세로 활동이 왕성하며, 쿠마모토현 가미마시키군(上益城郡) 출신으로 쿠마모토현립 상업학교를 우등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장의 추천으로 바로 요코야마 상점에 들어가, 시종일관 요코야마가문을 위해 근면하게 역행하여 내외를 잘 통솔함으로써 다수의 점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그리하여 충실한 이 회사의 '미츠와' 간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진정으로 대표상품이 되었고, 그 오래된 역사로 빛나는 성가와 사실들은, '미츠와' 간장이 지금까지 각지의 공진회에서 금패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 군산 | 시미즈(淸水)합명회사 시미즈 야스노스케(淸水保之助)씨

현재 군산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전당포 영업소가 45호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재력을 소유한 대표적 노포는 군산 사카에정에 있는 시미즈 합명회사이다. 사장 시미즈 야스노스케씨의 개인 경영에서, 1921년 8월 자본금 50,000원의 합자조직으로 바꾸었는데 모두 일가족이다. 그의 나이가 고희에 가까운데도 편하게 은퇴를 하지 않고, 늙었지만 기력이 정정하여 영업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는 단고(丹後)[50]의 치리멘(縮緬)[51]으로 유명한 미야즈항(宮津港)에서 고고한 소리를 내며 탄생했고, 그 집안은 치리멘 직물의 도매상이었다. 그는 청년시절까지는 그다지 고생을 하지 않고 중국 서적이나 와카(和歌)나 하이쿠(俳句) 등을 가까이 하면서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친이 돌아가신 후 가운이 점점 기울어져,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일가의 흥망을 양어깨에 짊어져야 할 운명에 처했다. 그래서 크게 발분하였고, 러일전쟁의 전운이 급박해지기 시작한 1904년 5월 호기를 잡아 출정병과 함께 인천에 상륙하여 군산에 구두끈을 풀었다. 그때 그는 이미 불혹의 나이라 사리분별이 뚜렷했다. 명민한 그는 일찍이 하층 영세

50 지금의 교토부 근처 지방의 옛 이름.
51 견직물의 일종으로, 바탕이 쪼글쪼글한 비단.

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인 이른바 전당포가 유리한 사업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토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왕성하게 활약했다. 그 결과, 돈은 이자가 이자를 낳았고, 유저당 등에 의해 점점 더 박차를 가하며 불어나, 현재는 시가지의 조선인 부락 일대가 거의 그의 택지이거나 셋집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금리도 막대한 것이었고, 지금은 자산이 수십만 원인 부를 쌓아, 1919년 8월 웅장한 저택을 신축하였고, 취미인 서화와 골동을 즐기는 한편, 많은 손자들을 데리고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 군산 | 히키지 토라지로(引地寅次郎)씨

군산 법조계에 그 이름이 유명한 히키지 토라지로씨는 원래 공주지방법원의 판사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관직을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어, 강경과 전주를 거쳐 1923년에 군산부 신흥동에 히키지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그는 미야기현(宮城県) 출신의 소장파인데, 공부하기 위해 도쿄로 떠나 10년 동안 고초를 겪고, 니혼대학(日本大学)에서 공부하여 1913년 판검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1915년 가을에 아키다구(秋田區) 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되었고, 1917년 공주지방법원 판사로 전근을 왔다가, 그후 강경지청으로 전임되어 명판관이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상식이 풍부하고 또한 인심을 살피는 눈이 있고, 조선에 있던 10여 년 동안 조선의 관습, 인정, 풍속에 정통하게 되었고, 항상 법률문제 이외에 사회 각 방면의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입을 한 번 열면 거침없이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뒤집을 수 없는 의견과 웅변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인격과 인망은 확실히 군산 법조계 안에서 은연중에 세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부협의원에 천거되어, 군사와 부정을 위해 항상 공헌하고 있다. 장래를 위해 한층 더 자중과 건재를 빈다.

● 군산 | 미츠토미 카하치(光冨嘉八)씨

군산 9조통에 의연히 솟아 있는 은행가의 성곽 안 한복판에 군산인쇄회사와 문주당(文珠堂)이라는 이름의 도장포가 있다. 이것이 미츠토미 카하치씨의 인쇄가게이다. 관아를 비롯하여 은행, 회사, 학교 등 모두 거의 독점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신용을 얻었고, 영업상의 바탕이 깊이 쌓여 있다. 그는 사가현 사가시(佐賀県佐賀市)에서 출생하여,

군산에 구두끈을 푼 것은 1907년 봄이었다. 혼자 힘으로 봄바람과 가을비를 맞으며 약 20여 년간 분투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지반을 개척한 것이다. 그는 일찍부터 군산 실업계에 의연하게 두각을 나타냈고, 각 방면에서 활약하였다. 이는 분명히 실력과 수완을 가지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1914년에 학교조합의원에 천거되었고, 그 이래로 계속 매기마다 당선되었다. 1923년 부협의원에도 천거되어, 현재 2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소방조장, 상무회 부회장, 군산인쇄회사 사장, 군산 경마구락부 회장 등의 요직에 있고, 회사 업무가 바쁜 중에도 공공방면의 알선 등에도 진력하고 있어서, 군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이다. 군산에서 크고 작은 문제나 때로 분규가 일어났을 때, 미츠토미씨가 등장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할 정도로 세력과 덕망이 있다. 거구의 위용이 당당한 그의 용모는 늠름하고 근엄하여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풍모를 보이지만, 그와 한 번 무릎을 맞대고 그 온화한 마음을 접하고 나면, 그 마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온정미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군산에 신진 실력 실업가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도량, 인망, 실력의 세 박자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적다. 경험이나 연배로 보더라도 앞으로 수완을 발휘할 것이고, 전도양양한 그의 건재를 빈다.

● 익산군 여산 | 여산(礪山) 산미개량조합

자본가로 하여금 조선의 농업에 대해 흥미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을 위해 토지개량에 대한 사업가를 초빙하는 것과,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가를 찾는 것은 지극히 용이하다. 이 점은 일본에 비해, 자본적으로 조선의 자원이용개발이야말로 급속하고 대규모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특히 조선에서, 다액의 국탕(國帑)을 투자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려고 하는 까닭이다. 실로 조선은 일본의 인구식량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 자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산업제일주의를 반도의 목표로 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당면한 조선의 시대 현상을 돌아보면, 산업 중에서 축이 될 농업 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산미의 개량증식은 농가의 경제향상과 농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극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산미의

수이출에 의해, 해마다 다액의 부를 조선 내에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의 진전을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익이 매우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즉 산미의 개량증식이 통치상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중요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본 사업을 수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커질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 점에 주목하여 전라북도 아니 조선에서 최우등미의 생산지인 여산 지방의 산미를 개량증식할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여산산미개량조합니다. 이 조합은 1924년에 처음 창립되었는데, 1924년은 호남지방에서 아주 드문 대가뭄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가 없었다. 이후 1926년 사업의 제일보가 된 현미의 조제를 개시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도 극히 적었는데, 일본인 14명, 조선인 9명이었다. 그래서 1925년도의 사업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면, 총 현미 조제고 2,928가마니에 달했고, 그 중 일등미가 1,373가마니, 이등미가 1,179가마니, 삼등미 362가마니였는데, 이는 조선에서도 미증유의 우량미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 남부지방의 김제, 신태인, 정읍, 이리, 삼례, 전주, 함열 지방에서 산출된 현미의 대부분이 삼등 또는 사등미인 것과 비교하면, 실로 천양지차이다. 그리고 해를 넘겨 1926년도의 사업 개황을 보면 총 조제고 2,089가마니였고, 그 중에서 특등미가 29가마니, 일등미 900가마니, 이등미 1,371가마니, 삼등미 280가마니, 사등미 9가마니라는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는 약 3천 가마니 이상의 조제를 보여줄 것이고, 그리하여 사업은 점점 더 견실한 발전을 이루어, 현재의 조합원은 이시자키(石崎) 조합장 이하 43명이나 된다. 그리고 조합은 산미개량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미 증식, 품종의 개량통일을 도모하여 조합원은 다수가 개량종인 '곡양도(穀良都; 코쿠료미야코)[52]'를 선택하여 이것을 짓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이므로 여산미는 군산 시장 및 오사카 시장에서 1석당 가격이 다른 쌀보다도 1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조합장 이시자키 신타로(石崎新太郎)씨는 조합이 설립되던 당시부터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위해 진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산 산미개량조합의 오늘이 있는 것은, 그리고 여산미가 조선 제일의 우량미로서 일본에서 선전되고 있고, 그 성가를 올리고 있는 것은 모두 조합장의 노력의 가져다

52 1899년경에 일본의 야마구치현에서 탄생한 벼의 품종. 야마구치시에서 '미야코(都)'라는 품종을 거듭 개량하여 만들어 냈다.

준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 동산(東山)농사회사 전북출장소

이와사키 아키지(岩崎男)가 조선 내에서 농사경영이 유망하고, 국가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극히 유의미한 사업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서서히 경영계획을 세워 제반 조사와 사업개시 준비를 갖추고, 창립에 착수한 것은 1905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다수가 조선의 지리와 기타 사정에 어두워서, 특종한 것 이외에는 조선 내의 산업으로 농사경영이 유리하고 유망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이와사키 아키지가 이 시대에 일찍이 그 앞날을 달견하고, 이처럼 대담한 투지로 대규모의 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소신대로 시설 경영의 걸음을 내디뎌서, 오늘의 성황을 보게 된 형안에는 경탄하고 존경해 마지않는다. 그로부터 농장은 점점 더 견실한 발전을 이루어, 1919년 10월에 조직을 개편하여 동산농장 및 수원에 있는 농장을 합쳐서 동산농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산농장은 전북출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지배인 와타나베 코조(渡邊幸造)씨는 작년에 부임하였는데, 1천여 명의 소작인을 지도장려하여 산미 증식을 도모하고 있다. 그는 자신감이 강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정의가 두터워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반 소작인은 물론 전라북도민 일반으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일관된 성의와 온정을 품고, 세련된 인격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한층 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다. 회사를 위해, 산미증식을 위해, 한층 더 분투하기를 빈다. 그리고 자중자애하기를 빈다.

● 이리 | 히다카 토메이치(日高留市)씨

세상에서 미곡상만큼 부침과 성쇠가 격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쌓아 두었던 쌀(연미)이든, 현재 거래되는 쌀(정미)이든, 위탁미이든 그날그날의 상장 즉 시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최근 2-3년의 미가의 격변으로 인해 이리의 쌀 업계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파산의 비운에 빠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확고부동하게 점점 더 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리 히다카 정미소의 히다카 토메이치씨일 것이다. 그는 이재에 매우 밝았으며, 두뇌가 면밀하여 등락을 미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갖추고 있었고, 한 번

뜻을 정하면 과감하게 결행하여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는 재주를 종횡으로 발휘하며 활약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의 쌀 업계에서 카사마츠(笠松)씨와 이마이(今井)씨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견인물이 되었다. 그는 시마네현 출신으로 조선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고, 신진의 청년실업가로 장래를 촉망받고 있다. 자중을 빈다.

● 군산 | 타니가키 카이치(谷垣嘉市)씨

군산 미곡상조합 이사로서 군산 쌀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한편, 군산의 외상 시장에서는 '사고 파는 것'을 총괄했고, 모리 조합장의 보좌역으로 무난하게 보좌하고, 강함과 유연함을 잘 조화시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중책을 한 몸으로 해내고 있는 타니가키 카이치씨는, 재 조선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개척의 은인인 만큼 그 분투의 역사에 대해 지면만 충분히 허락한다면 거기에 소설보다 더 기이한 전기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에는 인천과 목포에 있었고, 실업계나 신문계에, 또는 관청에 재직하였고, 가장 요긴한 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고, 목포에서는 오랫동안 상업회의소 서기장을 지냈으며, 1917년 군산상업회의소 서기장으로 군산으로 옮겨 왔다. 그 후 현직에 취임한 것이다. 그는 효고현(兵庫県) 태생으로 소년시절부터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고생을 거듭했던 사람인 만큼, 인정을 살피는 데 능하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성심성의를 다한다. 언제나 조합 및 시장을 잘 통솔하였고, 안으로는 사원의 신뢰가 두텁고 밖으로는 그의 원만하고 세련된 사교 태도로 바쁘게 일하고, 타인을 배신하지 않고 지략을 종횡으로 사용하여 활약하고 있다. 그는 또한 두뇌가 매우 면밀하고 사무 능력이 뛰어났으며, 이재에 밝은 데다가 문필의 능력도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다사다난한 군산 쌀업계에 그와 같은 인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곡상 측에서 추대된 부협의원이다. 군산 쌀 업계를 위해, 부정을 위해 크게 자중 건재하기를 빈다.

● 군산 | 히구치 토라조(樋口虎三)씨

군산의 거두이자 원로의 한 사람으로 손에 꼽히는 사람들 중에 히구치 토라조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오사카 태생으로 군산이 아직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황량한 일개

한촌(寒村)이었던 시대, 즉 1899년 개항 전 해에 군산으로 와서 정착했다고 한다. 그 이래로 모든 고초를 견뎌내며 오늘날의 지위와 부를 쌓았다. 그는 인내심이 강한 것에서는 세속에서 말하는 교토·오사카 즉 특유의 상업 본고장에서 자란 사람인 만큼 누구보다 뛰어났고, 상기상략에 능하고, 종횡으로 활약을 한 사람으로, 1912년 군산전기회사가 창립되자 전무로 천거되어, 그때부터 일관적으로 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몇 차례의 파란과 곡절을 겪은 후, 다년간 현안이었던 군산의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군산·전북 양 전기회사를 합병하여 본사를 군산에, 지사를 전주에, 이리에는 출장소를 설치하여 회사의 기초를 굳히고 새로운 진용을 갖추어 오늘의 융운에 이르게 하였다. 그 공적은 대서특필해야 할 정도로 크게 경탄할 만하다. 그리하여 그의 실력과 수완은 일찍부터 인정받았고, 거류민단시대에 이미 수 차례 의석을 차지했고, 1915년부터 부정이 실시된 이래, 계속해서 매기마다 부협의원 및 상업회의소 평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924년에는 내외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얻어 회의소 회장에 취임하여, 회의소의 개선과 발달과 함께 군산 상공계의 진전을 위해 기여하고 공헌한 바가 적지 않았다. 언제나 회의 석상에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주장하였고,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인격이 고결한 점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 부협의원 및 상업회의소의 2석을 보유하고, 항상 부정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 전북 | 신태인 미곡상조합

수년 전에 총독부의 고관이 신태인을 시찰했을 때의 일이다. 신태인의 곳곳에 장소가 좁을 정도로 쌓아 올려져 있는 쌀의 산을 보고 쌀의 신태인에 감탄했다. 그 이래로 신태인에는 전북의 쌀의 집산지로서의 쌀의 신태인을 표징하는 표어가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조선 내는 물론, 오사카, 고베, 도쿄 방면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신태인은 쌀의 생명임과 동시에, 신태인만큼 전북의 각지에서 쌀을 이출하는 곳은 그 외에는 없다. 시험적으로 작년도의 총수이출량을 조사해 보면, 실로 30만 가마니에 달했다. 이 정도라면 쌀의 신태인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신태인이 이렇게 쌀의 이출력에서 다른 곳보다 우월한 것은 두 가지의 주된 요인이 있다. 하나는 그 배후에 호남의 보고라고 불리는 동양의 대평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신태인의 영업자들이 다른 평야의 산미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멀리 부안, 김제 방면에까지 손을 뻗쳐 산미를 끌어모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 넘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태인이 호남선 개통 이전에는 조선인 가옥 67호만이 있던 작은 부락이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커진 까닭은 땅의 잇점을 가지고 있다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영업자들 바꾸어 말하면 신태인 미곡상조합원 제군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신태인 미곡상조합이 생겨난 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1916-17년경에 동업자의 복리증진과 거래의 개선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때로는 연미의 매매마저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원래 미미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조합의 사업은 그다지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1925년 1월 산미개량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태인 산미개량조합을 설립했던 것이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미곡상조합의 효시이다.

조합 설립 당시의 조합원은 조합장 이하 43명이었는데, 그 후에 매갈이 사업이 불황에 빠지게 되었던 관계로 감소하여, 현재의 조합원은 37명이다. 조합 기구는, 조합장, 부조합장 각 1명, 평의원 8명의 임원이 있고, 설립 당시에는 아카기 미네타로(赤木峯太郎)씨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통솔해 왔지만, 1926년 10월 구보타 마사오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합의 목적은 공동일치하여 신태인쌀의 개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신태인쌀의 성가를 올리게 되는 동안, 여러 곡절을 겪기도 했다.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한 가마니당 5%씩 조합비를 징수하고, 이것을 조합의 사업비로 충당하며, 조합사무소의 신설, 미곡창고의 신축, 신태인공회당의 설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조합장　구보타 마사오

▷부조합장 박우서(朴佑緖)

▷평의원　아카키 미네타로, 모리와케 후지타로(森分藤太郎), 마츠시타 마츠타로(松下松太郎), 마츠바(松場)지점, 다카세 군키치(高瀨群吉), 김순규(金舜圭), 강대순(姜大順), 이순구(李舜九)

▷조합원　타키자와 치카시(瀧澤親), 오이시 요시타로(大石芳太郎) 오케가와 츄타로

(桶川丑太郎) 우바타 분노스케(羽畑文之助), 와키 타케코시(和気武越), 박영구(朴榮求), 이용구(李龍九), 박창서(朴昌緖), 박승혁(朴勝赫), 박성원(朴成元), 김병두(金秉斗), 김명규(金命圭), 김동운(金東運), 김치양(金致陽), 김경주(金京柱), 강한수(姜漢秀), 강하원(姜河遠), 강우삼(姜右三), 이희면(李熙冕), 이시창(李時昌), 이기수(李基洙), 은희화(殷熙華), 신윤명(申允明), 원용옥(元容玉), 최송열(崔松烈), 신영진(辛永珍)

● 김제군 공덕면 | 시로이 카츠토라(城井勝虎)씨

전라북도 김제군 공덕면 황산리에 숨은 경영자로서 시로이 가츠토라씨가 있다. 그는 쿠마모토현 태생으로, 처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이주민으로서 조선에 건너와서, 현재의 땅을 선택하여 농사경영에 착수했다. 이래로 그는 농사개량에 몰두하여, 녹비의 장려와 경운의 개량을 위해 애썼고, 오로지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천성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어서, 무슨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언동하는 것이 그의 본령이자 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정의를 애호하고 자신감이 강하며 자기가 올바르고 이것이라고 믿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소신을 역설하고 지지하는 데 물러서지 않는 담력과 기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무의 기상이 넘치는데, 유년시절부터 무를 단련했고, 검술 기량은 사범이 되어 가르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그는 공덕면 황산 산미개량조합장으로서 산미의 개량에 노력하고, 또한 부용학교조합의원으로서 공공사업에도 항상 진력하고 있다. 그의 자중자애를 빈다.

● 김제 | 하라다 요시츠구(原田吉次)씨

전북 쌀 업계의 중진이자 김제에 거주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김제읍내 하라다 정미소의 하라다 요시츠구씨가 있다. 그는 김제가 전북쌀의 집산지로서 정미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미곡정미업을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같이 김제의 미곡상이면서 유지로서 확고부동한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오로지 그의 분투 덕분이다. 이처럼 사업에 충실한 그와 같은 인물을 우리 김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진사업가의 거울도 되기 때문에 진실로 기쁜 일이다. 실질적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

고, 견실함으로 오늘날과 같은 사업의 성공을 거머쥔 그의 일생은 실로 입지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현재는 주택과는 별도로 정미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스스로 진두에 서서 많은 고용인들을 지도하면서 현미의 조제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그는 김제학교조합의원으로서 공직에 있으며, 공공사업을 위해서도 적지 않게 진력하고 있다. 심신 모두 장건하고 한층 더 섭생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 김제 | 김제 미곡상조합

김제 미곡상조합의 기원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16년 이곳 김제의 미곡상 연합이 동업자의 복리증진과 거래의 개선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조합원도 극히 적어서 불과 18명 정도였다. 그 후 시대가 진전되고 그에 따라 김제도 대단한 기세로 발전하여, 현재의 조합원은 52명이나 되었다. 창립 당시의 조합장은 이노우에 마타시치(井上又七)씨였지만, 현재는 이케 마스미(池真澄)씨가 조합장으로서 김제 쌀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항상 대량 거래에 종사하여, 김제의 쌀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미곡상 조합원이다. 아울러 같은 미곡상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태는 원래부터 동일하지 않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동력을 설비하여 정미공장의 경영을 주로 하면서, 백미 또는 현미의 수이출에 종사하고, 그와 겸해서 손님의 위탁매매도 취급하는 사람.
② 매갈이 공장의 경영을 주로 하고, 현미를 수이출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 지방에서 판매하고, 겸해서 손님의 위탁판매도 취급하는 사람
③ 주로 산지의 상인 또는 생산자의 위탁판매에 종사하는 사람.
④ 김제 또는 오지에서 매갈이 공장을 경영하고, 공동경영자 또는 자본주로서 산지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그것들로 인해 운반되어 온 현미 또는 백미를 김제에서 판매하거나 군산과 일본을 대상으로 손님의 위탁매매에 종사하는 사람.
⑤ 자신이 매입한 쌀을 수이출하고, 동시에 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매입주문을 받는 업무를 하거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 손님의 위탁매매를 취급하는 사람.

⑥조선쌀을 취급하면서, 외국쌀 또는 만주 조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람.

이상은 원래 대략적인 분류이다. 그리고 조합원 각자의 영업이 이 분류의 어딘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김제가 전북의 유일한 쌀 집산지로서 1년에 약 50만 가마니의 다량의 쌀을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다.

김제의 흥망은 김제쌀에 달려 있다. 그 김제의 흥망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미곡상 조합원들이여! 경들의 사명은 단순히 김제의 흥망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로 조선 사업의 발달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 일본의 눈앞의 난제인 인구식량문제에 부여하고 있는 힘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조합의 앞길은 다행히도 양양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조합장 이케 마스미

▷평의원 히노 키스케, 하시다 츠루지로, 야마다 카이치로(山田嘉一郎),
쿠니타 도쿠타로(国田徳太郎), 오카모토 켄지(岡本健次), 조재식

● 김제 |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씨

김제학교조합의 서기로서 햇수로 10년 간을 하루같이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미야모토 우이치로가 있다. 10년이라고 한마디로 하면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상당히 긴 세월이다. 그동안 관리자의 전위가 되거나 후위가 되어 학교조합을 위해 진력해 온 그의 공적은 실로 적지 않다. 그는 쿠마모토 태생, 사람을 접할 때는 겉치레말은 그다지 하지 않고, 성의를 피력하며, 추호도 음험하거나 정략적으로 대하지를 않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을 하여, 괜스레 상대방을 우롱하거나 기만하는 일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그의 본령이고 가치가 있다. 상식도 원만하게 발달하였고 인정을 살피는 데 철저하고, 사람과의 교제 등도 심오한 경지에 들어섰다. 요컨대 그는 꽃도 열매도 있는 통쾌한 인물이다. 크게 자중자애하여 한층 더 영달하시기를 빈다.

● 김제군 성덕면 | 강동희(姜東曦)씨

전라북도 김제군 성덕면의 대표자로서 우선 그의 이름을 드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1909년에 이미 전주공립보통학교 특별보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7월에 주사판임관 5등에 임명되어 무장군(현재 고창군에 병합)에 재직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무장군의 우체소장 촉탁을 거쳐 1911년 9월 전남 진산군으로 영전하였으나, 이듬해 1912년 1월에 관직을 사직하였다. 그리고 1913년에 다시 만경군에 근무하다가 1914년 김제군으로 전근하여 6급봉이 되었고, 1920년 4월에 다시 사직하고, 그 이후에는 자택에서 농사경영을 하였다. 그가 오늘날 관계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많은데, 김제국 축산동업조합 부조합장, 만경금융조합 감사, 만경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군농회 통상의원, 동진수리조합 평의원, 면협의회원, 김제농사조합 이사 등이 있고, 1920년에는 전북 도평의원이 된 적도 있고, 김제군내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거물로서 자타 모두 인정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금 43세이다. 남자로서 한창인 나이이며, 오로지 김제를 위해 그가 한층 더 건재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 지경 | 팔목(八木; 야기) 농장

오사카 실업계의 중진이자 일본 재계의 거두로 알려져 있는 야기 마사하루(八木正治)씨는 1917년 조선의 농사경영이 매우 유명한 사업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전라북도 옥구군 만경강 연안의 땅을 선택하여 농사경영을 개시하였고, 그 당시에는 경영의 전권을 불이흥업주식회사에 위탁하였지만, 1922년 불이흥업에 대한 위탁을 해제하고, 당시 불이흥업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던 가무라 분페이(加村文平)씨를 주임으로 초빙하여 경영 임무를 맡겼다.

이 지방은 황무지를 경지로 돌려서, 옥야를 열 수 있는 간척지의 매립에 적합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선인 모씨가 간척지 매립 개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개입시켜 그 권리를 얻어냈고, 1919년 2월 논 380ha 개간사업의 제1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1923년에 제2기 공사를 통해, 논 108ha의 개간에 착수하여, 실로 6천여 만원의 거금을 투자하였다.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여 이제는 580여ha의 논이 실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농장은 현재 소유한 논과 합하여 1천ha

의 광대한 면적이 되었고, 수리가 완전하게 되기만 하면, 1만 석의 수확이 확실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조선에서의 개간사업은 매우 용이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팔목농장과 같이 광대한 면적을 개인이 완성시킨 것은 전 조선에서 보기 드문 예이다. 주임인 가무라 분페이씨는 지주와 소작인의 협조를 도모하였고, 온정이 넘치며 두뇌가 명민하여 어떤 것도 직감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실로 감복할 정도이다. 그리고 인정을 살피는 데 능통하여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에는, 애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의 주의주장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는 가능한 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용과 자제심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야기씨가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주임이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수리편도 올해 안에는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 농장은 점점 더 양호한 성적을 올리게 될 것이다.

● 전주 | 미야자키 키치조(宮崎吉造)씨

전주 실업계의 제일인자로서 확고부동한 미야자키 키치조씨는, 1901년 불과 22세 약관의 나이에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실업계에 투신하여 회사를 일으키고, 개인경영으로 상업을 하기도 하고, 건축 방면의 사람도 되었다. 그중에서도 건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충분히 연구하였다. 그 후 그는 1907년 4월에 귀국했다. 일본국민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외로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부친의 허락을 얻어 1908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전주에 거처를 꾸미게 되었다. 그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거의 빈손이었는데, 하와이에서 연구한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취급해야겠다고 결의하고, 목재상을 운영하였다. 그가 전주에서 쾌완을 발휘하게 된 첫걸음이다. 그는 그 이래로 사업의 진전을 착착 도모하였고, 욱일승천의 기세로 업무는 확장되어, 지금은 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므로 신용도 날마다 달마다 커져갔고, 자산도 10만 원을 적립하게 되어, 현재 전주 실업계에서는 확고부동한, 가장 견실한 중심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왜 그가 불과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성공하여 거만의 부를 얻고, 신용도 두터워졌는가 생각해보면, 모두 그의 천재성과 쾌완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을 첫째 신조로 삼고 반드시 실행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타인들이 신용해 주기 때문에, 자신이 출장으로 타인을 찾아가서 일일이 직접 담판을 하지 않고서도, 대개의 용건은 상대방과 전신, 전화, 서면만으로 교섭을 해도 만족할 정도로 그 용건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또 일면으로 그는 쾌활하고 누구를 대하더라도 호의를 가지고 접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대할 뿐 아니라, 처음 대면을 하는 사람도 10년 지기처럼 성의를 가지고 대우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여하튼 돈이 생기면 벼락부자임을 과시하여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생기지만, 그는 이러한 마음을 약에 쓸려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토목건축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회를 설립하였는데 그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공영회는 그 외에 5명이 조직하여 일정한 적립금을 만들고, 그리하여 회원 중 누군가가 공사청부 입찰을 할 때, 그것이 보증금 납부나 공사재료 매입 대금을 지불할 때, 기타 인부의 노임지불 등을 위해, 회원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적립금이나 회장 자신의 돈이라도 서로 융통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재료는 미야자키 회장의 책임하에 전주, 군산, 이리 및 기타 점에서도 거래하고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편리한 조직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술은 마시지 않는다. 취미로 수렵 정도를 한다. 자애를 빈다.

● 부안 | 가와노 나가히사(川野長久)씨

전라북도 부안에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부안읍내의 입구에 흰 벽의 서양관이 누구의 눈에도 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북 실업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고부수리조합장, 부안학교조합관리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천야(川野; 카와노) 농장주 카와노 나가히사씨의 저택이다.

그는 조선의 농사가 아직 유치하고, 조잡한 것은 상상 이상이고, 개선 향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또한 조선농사의 개발은 실로 조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제국을 위해서도 눈앞의 최대 급선무임을 자각하고, 내선의 공존공영의 대국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장래의 유망한 농사경영은 크게는 국가를 위해, 작게는 일가를 위해 성공을 기해야 한다고 큰 결심을 하고, 단신으로 향리를 떠나 현재의 땅을 선택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처음으로 농사경영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1910년 3월이었다. 당시의 부안은 현재와 같이

자동차도 없고 교통도 매우 불편한 데다가 환경도 적막하고 불안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는 그 사이에 은인자중하며 훗날의 광명을 기하였고, 자본의 최대한도를 다 써서 논밭 등을 차례대로 매수하여, 오롯이 전심으로 농사의 개량 발전에 진력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금융업도 운영하였는데, 신용은 점점 더 견실해졌다.

그는 쾌활하고 겉과 속이 같으며, 당당하게 소신을 개진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강하고 한 번 심사숙고한 결과, 옳다고 믿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감행해야 하는 강렬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동정심이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명실겸비한 신사이다. 따라서 그가 오늘까지 향리 및 부안의 사회공공사업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기여하고 공헌한 노력과 물질은 지극히 큰 것이다. 요컨대 그는 보통의 경영자와는 모양이 다르고, 자기의 영리 이외에 토지의 개발과 사회공공사업에 진력하는 인격자로서, 지금은 사방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고, 문제가 많은 고부수리조합장으로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합원을 통솔하였고, 전북산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애를 빈다.

● 이리 | 고가(古賀)의원 고가 다이고(古賀第五)씨

전라북도 익산군 이리 고가의원 원장 고가 다이고씨는 천성이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분투하는 사람이고, 그의 범상한 수완은 일찍부터 이리 의료계에 두각을 나타내어,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융성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때를 가리지 않고 한밤중에도 바로 일어나 달려갔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 그 집에서 매우 신뢰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철도병원에 있었지만, 독립 개업하자 날마다 달마다 업무가 발전했고, 환자가 격증하여 병실을 증축함으로써 명실공히 완비하게 되었다. 그는 인술을 베푼다는 말이 어울리는, 감촉이 좋은 신사로 온정미가 넘치고, 덕망을 겸비한 신사이다. 환자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고 외과는 그가 가장 잘 보는 진료과목이라고 하다. 그의 활약은 앞으로 괄목할 가치가 있다. 한층 더 자중하고 건재하기를 빈다.

● 이리 | 야마자키 마스히라(山崎增平)씨

주식회사 대교농장의 지배인으로서 조선 유수의 대교농장을 좌지우지하는 한편, 이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사로 야마자키 마스히라씨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리가 작은 한촌에서 호남의 중심적 경제도시라고 일컬어지게 되기까지는 대교농장 및 야마자키씨 등의 진력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그는 니이가타현 태생으로, 지금의 전북지사인 와타나베씨와 동향이다. 농장 지배인으로서 조선으로 건너온 것은 1919년 2월이었고, 그 이래로 오늘까지 10년간, 지주와 소작인의 협조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 농장은 점점 더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는 원만한 평화주의자임과 동시에 공공문제에 진력하는 사람이다. 세상 일에 통달하여 사물의 표리를 구별하며, 아울러 조화와 타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리학교조합의원 및 익산면협의원 등에 선출되었고, 이리에서 진정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제일인자로서, 모범적인 신사로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이다.

● 이리 | 다카다 미노루(高田稔)씨

전라북도 전주, 부안, 정읍, 김제, 익산의 각 군에 걸쳐 약 2,100여ha의 광대한 논을 소유하고 있는 우콘(右近)상사주식회사 남선출장소의 지배인으로 다카다 미노루씨가 있다. 다카다씨가 1천여 명의 소작인을 지도계발하여 산미의 증식에 노력하고, 비료자금, 경우의 대부, 소작인의 부업을 장려함으로써 소작인의 정신을 감화하여, 선량한 기풍이 깃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업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매년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다카다 지배인 이하 직원들의 노력의 댓가이며,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 기쁜 일이다.

다카다씨는 천성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고, 자신감이 강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매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기상이 넘쳐나며,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신사이다. 또한 상식도 발달하였고 사교술에서도 교언영색의 누추함을 싫어하며, 철두철미하게 진지하고 성의를 다하여 임하는 사람이다. 현재는 전라북도 농회의 임원으로서 그리고 동진수리조합 상설위원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애를 빈다.

● 대장촌 | 나가하라 쿠니히코(永原邦彦)씨

익산군 대장촌 호소카와 후작가문 농장의 지배인으로서 일체의 것을 지휘하고 있는

나가하라 쿠니히코씨는, 1881년 1월 10일, 원적지 쿠마모토현 쿠마모토시 츠보이마치(坪井町)에서 태어나, 1922년 7월 도쿄제국대학 독법과(獨法科)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17년 4월에 호소카와 가문의 열망으로 조선에 건너와 현직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는 천성이 호탕하여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작은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항상 대국적으로 착안하여 대성을 기하고, 큰 이익을 얻을 승산과 확신이 있으면 작은 이해관계를 희생하는 것도 굳이 마다하지 않는 도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작인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섭하는 언동은 하지 않고, 전체 줄거리를 장악하여 지도장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작인도 그의 기개와 도량이 크고, 아량이 넘쳐나며, 온정이 있는 인격에 경탄하여 이 지배인의 명령에는 기꺼이 복종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두뇌가 명석하고 과감하며 자신감이 강하고 한번 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은 단호하게 감행하는, 진정으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에 호소카와 후작이 그 인물됨과 재간을 꿰뚫어보고,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다운 교제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작의 간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인생의 의기를 느끼며 기개를 품고, 이 대임을 흔쾌히 승낙하여 조선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강인하고 솔직하여 허세로운 언사를 하거나, 외관을 꾸미거나 자기의 진가 이상으로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등 이른바 현대의 데모신사와 같은 얕은 꾀는 그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마음에 든 벗과는 대화도 잘 하고 잘 웃고. 호쾌한 기를 보내는 등 쾌남아로서, 이전에는 두주불사라고 할 정도로 술 애호가였지만, 현재는 절주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의지가 굳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중자애를 빈다.

● 이리 | 아오다 타케지(青田竹治)씨

이리의 대표적 인물이자 사업계의 중진으로 아오다 타케지씨를 추천하는 것은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천성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나 장소를 안중에 두지 않고 소신대로 단언하여 기탄이 없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위가 향상되고 나이를 먹은 탓일까, 최근에는 그 성질을 바꾸어, 뾰족하게 모난 곳을 연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헌병 대위였는데, 퇴관하고 곧장 화성농장의 지배인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성이 담백하여

사람을 접하는 데에 장벽이 없고, 타인들로부터 무언가 부탁이라도 받으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력분주하는 덕성도 갖추고 있다. 특히 공공 일에 열심이어서, 이리금융조합장에 다시 추대되어 그 직에 있고, 이리학교조합의원으로 천거되는 등 각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명실을 겸비한 인물로서 전도가 촉망되는 인물이다. 크게 자애하기를 빌어둔다.

● 이리 | 가와모토 쿠니사부로(河本國三郎)씨

이리가 호남선 중앙의 경제도시로 지금과 같이 위대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요컨대 땅의 이치와 하늘의 때를 얻은 것과 아울러, 사람들이 결속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운에 편승하여 솜씨 좋게 좋은 곳으로 잘 인도하고, 대세를 촉진시켰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 하늘의 때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즉 산미증식계획, 수리사업, 만경강 개수공사, 기타 직접적으로 이리의 발흥을 촉진하는 여러 사업이 근래에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리는 도시로서는 아직 미완성품에 속하므로, 급무를 요하는 시설이 많이 있다. 이 난관을 등에 지고 일어난 익산면장 가와모토 쿠니사부로씨는 이리학교조합관리자이기도 하다. 이리 시민은 그의 수완에 기대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는 이전에 전북 철도의 전무역으로서 전북 철도경영의 임무를 맡았었는데, 이 철도가 국유화되자, 동시에 익산면장으로 취임하였던 것이다. 순수한 도쿄토박이(江戸っ子)인 만큼, 돈이나 지위에 집착하지 않고, 보기 드물게 청렴하고 고결한 신사이다.

● 이리 | 요코다 우노스케(横田卯之助)씨

이리 사카에정통에 요코다 우노스케씨가 경영하는 요코다 포목점이 있다. 물건이 잘 갖춰져 있는 점과 품질이 아주 좋고 확실한 점에서는 다른 가게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다. 점주인 요코다씨는 이리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옛날부터 이리에서 포목상을 개점했다. 그는 조선 개척의 뜻을 품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개업한 만큼 사사로운 일에는 미동조차 않고, 업무를 더욱 확장하여, 가격도 지극히 저렴하게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주의와 방침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요코다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틀림없다, 즉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인상을 일반 수요자에게 주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에 걸쳐 얻은 신용

은 요코다 포목점이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손상당하지 않고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

그는 매우 온후한 인격자이다. 그리고 사회공공 방면에도 적지 않게 진력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주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아들의 활약과 더불어 가문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 이리 | 야마우치 우마조(山內馬藏)씨

식료잡화점 방면의 영웅으로서 이리 사카에정 2정목 야마우치상점은 이리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이다. 점주인 야마우치 우마조씨는 온후하고 독실하여 착실하게 신용을 얻어 지반을 굳혀 왔고, 지금은 그 거래가 전북 전체에 걸쳐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리를 중심으로 한 이 부근은 견고하여 절대로 빠지지 않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상점이 항상 각종 산물을 생산지에서 직접 들여오고 있는 것은 상인으로서 가장 현명한 방책이며, 염가로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까닭이 된다. 통조림, 가미품, 양주, 청량음료, 수청식초, 건어물류, 주류, 맥주 기타 상품은 가격을 가장 낮춰 단골들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도량형기의 지정판매도 하고 있다. 아무튼 야마우치 우마조씨는 이리에서 유수의 자산가로서 그리고 견실한 상점으로 신용이 두텁다. 한편으로 그는 매기마다 이리학교조합의원으로 선출되어, 지역과 공공사업을 위해 다년간 진력하고 있다. 자중자애를 빈다.

● 이리 | 전도산양(田島山陽; 타지마 산요) 농원

전라북도 이리 부근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류는 맛이 좋다는 점에서는 조선 전체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것을 생산할 철이 되면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는 상태이다. 그 복숭아 산지인 이리에 가장 광대한 면적을 가진 과수원으로 타지마 산요 농원이 있다. 최초의 경영자는 타지마 히로시(田島弘)씨의 부친이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후에 타지마 히로시씨가 경영주가 되었다. 실제 일은 동생이 하고 있는데, 매년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타지마 히로시씨는 익산군 학교비 관리원(吏員)으로서 다년간 익산군청에 근속하고 있다. 딱딱한 그의 천성적 기질은 왕왕 첫대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완고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진정한 성격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세상 일에 통달하고, 사물의 겉과 속을 구별하는, 피와 눈물이 있는 사람이다. 요컨대 이리의 인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인사이다. 크게 자중자애하기를 빈다.

● 옥구군 임피역전 | 지전(池田; 이케다) 농장

전라북도 옥구군 임피역전에 지전 농장이 있다. 지전농장은 1907년 9월 농장주 이케다 요시스케(池田義亮)씨가 조선의 농사경영이 매우 유망한 점에 착안하여 현재의 토지를 매수하여 농사경영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그는 군산에 있었지만, 현재는 향리로 귀환하였고, 농장은 이케다 토요이치(池田豊一)씨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약 70ha이고, 소작인은 약 150명이다. 원래 조선의 논은 조선인의 오래된 인습적인 경작법에 따라 농사를 짓는 곳이 많은 탓에, 일본의 논에 비해 수확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는 일찍부터 이것을 우려하여 소작인을 지도장려하면서 쌀의 증수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확신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서른살이 되려면 아직 먼 나이의 소장파인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보면 경청할 가치가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을 보면 경탄하게 된다. 그의 앞날은 실로 양양하다. 크게 자애하기를 빈다.

● 이리 | 김병희(金丙熙)씨

전라북도 익산군 익산면 굴지의 부호이자, 익산면협의회 회원으로서 진력하고 있는 사람으로 김병희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소장실업가로서, 또는 온건하고 착실한 사상가로서, 향토 사람들 사이에서 중시되고 있는 사람이다.

● 부안군 줄포 | 다카하시 젠타로(高橋善太郎)씨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항은 전라북도 서해안의 유일한 어항이자 미곡의 집산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이 항구에서 군산이나 기타 다른 곳으로 이출되는 미곡은 매년 약 10만 가마니를 돌파한 상태이다. 이러한 미곡과 기타 운수의 해로(海路) 연락을 하는 줄포해운조합이 있다. 거기에는 전무이사가 경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카하시 젠타로씨는 1908년에 줄포에 거처를 정한 후 오늘까지 20여 년간 직접 간접으로 줄포 발전

을 위해, 그리고 공공사업을 위해 진력한 공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는 예민한 실업적 재주와 정확하고 치밀한 상업전술로 줄포해운조합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그 활동 모습만 언뜻 보아도 이 상점의 장래가 다망하고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카하시씨가 줄포의 융성을 위해 불가결한 위대한 존재임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들은 이 책을 간행하면서 줄포 유지의 건전을 빌어 마지 않는다.

● 부안군 줄포 | 아오키 토시오(青木叔夫)씨

전라북도 서해안 유일의 어항이자 미곡의 집산지로 불리는 줄포에는 또 한 명, 이 항구를 큰 발전으로 이끈 인재가 있다. 아오키 토시오씨와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다년간 줄포 발전을 위해 진력하였고, 또한 수산계에도 숨겨진 노력을 해 왔다. 그는 항상 수산가공품에 주의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그에게도 큰 확신이 있는 것 같으므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천성이 강인하고 과감성이 있어서 너무나도 남성적인 쾌남아이다. 쾌활하며 표리가 같고,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개진하며, 자신감도 강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좋다고 믿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감행하는 의지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동정심과 의협심이 넘치는 신사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더라도 줄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줄포를 위해 그리고 수산계를 위해 자중을 비는 바이다.

● 부안군 줄포 | 토미카시 켄고(富樫健吾)씨

줄포항 유일의 육로 교통기관으로 줄포운수조합이 있다. 줄포운수조합은 줄포-정읍, 줄포-부안, 줄포-흥덕으로 자동차를 정기운행하여 일반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 경영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토미카시 켄고씨이다. 그는 오랫동안 전라북도의 경찰관이었는데, 퇴임 후에 줄포를 영주의 땅으로 정하고, 이곳에 자리잡았던 것이다. 그는 운수조합 외에 수산계에도 손을 뻗쳐 활약하고 있다. 그는 천성이 작은 일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이 넘치고, 사업으로 남자의 목숨을 이룰 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돌파하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쾌남아이다. 담백

한 성격이지만 정의가 두텁고, 타인에 대해서는 장벽을 쌓지 않고 이야기를 잘하고 잘 웃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호감을 얻고 있으며, 현재는 줄포학교조합 관리자로서 공공방면에도 가능한 한, 힘이 미치는 한, 진력하고 있다. 자중자애를 빈다.

● 옥구 | 웅본(熊本; 쿠마모토)농장 쿠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씨

조선 유수의 대지주인 쿠마모토 농장은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과 정읍군 화호리에 사무소를 두고, 논 320여 ha의 광대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장주 쿠마모토 리헤이씨는 항상 도쿄의 본가에 있고, 농장은 지배인을 두고 경영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쿠마모토씨는 잇슈(壱岐国)[53]의 카츠모토(勝本) 태생으로, 학력은 시모노세키(下関) 상업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후 뜻을 품고 도쿄로 진출하여 케이오대학에서 공부한 적도 있다. 1904년 러일전쟁 중에 현금 3천여 원을 가슴에 품고 군산으로 온 것이 조선 생활의 첫걸음이었다. 당초부터 의형(처남)인 마츠나가 안자에몬씨와 오사카 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 사장 모토야마 히코이치(本山彦一)씨의 후원으로 토지 브로커를 전무로 두고 토지를 관리했다. 1910년경의 재계불황시대가 되면서 종래의 자본가들은 대개 금융이 경색되는 통에 고통을 받게 되었고, 또한 처음에 예기한 정도의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자, 매수했던 토지들도 보기도 싫어져서 팔아치우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권해서 사게 했던 책임도 있고 하여 그 토지 전부를 인수하여 관계를 깨끗하게 끊었었는데, 1912년부터 재계가 조금씩 신바람을 내기 시작하여 땅값도 점점 올라가고, 이어서 1914년에는 세계대전의 서막에 들어가면서, 조선의 재계도 세계적 팽창의 추세에 자극을 받아 호전되었고, 그 기세를 타고 아침에는 동쪽에서 1,000이랑의 토지를 합치고, 저녁에는 서쪽에 만경의 논을 곁들이는 기세가 되어, 순식간에 3,200ha의 대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가령 0.1ha 2백원이라고 견적을 내도 6백만 원의 장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최초의 휴대금과 대비하면, 말 그대로 2,000배의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리하여 쿠마모토씨는 부호로서, 공공적인 사업에 진력하였다. 그가 실천한 사

53 일본의 쓰시마(対馬) 섬과 규슈(九州) 사이에 있는 섬.

회봉사의 일단을 돌아보면, 우선 도쿄의 보인회(輔仁會)의 조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보인회는 도쿄시 내외의 25개소에서 약 200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가정적 기숙사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 하에 성립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처음에 히지야 료지로(泥谷良次郎)씨를 이사로 세워 그 감독에 임명하였고, 이어서 제일고등학교 교수인 타니야마 하츠지로(谷山初次郎)씨에게 청하여 그 후임으로 앉혔는데,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 1924년부터 장학자금으로 변경하여, 현재 20여 명의 수재를 선발하여, 각 대학으로 보내고, 국가의 양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쿠마모토씨의 품에서 지출된 경비는 연 총액이 3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군산교육회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공로는, 실로 적지 않으며, 육영부의 장학자금에 일금 1만 원을 기부한 것 등은 군산시민으로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농장은 각 곳 모두 열심히 분투노력하여 소작인을 지도하고 있고, 농사의 개량지도를 도모하여 산미증식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 (조선 쌀 업계에 공헌하는) 군산미곡신탁회사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 책의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지만, 여기에 다시 조선 쌀업계에 공헌하는 이 회사의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싣기로 한다.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는 1920년 4월에 창립하여, 공칭 자본금 1백만 원, 이미 50만 원의 불입을 종료했고, 적립금 126,600원, 이월금 22,2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종목은 아래와 같다.

영업종목

① 미곡과 기타 상품,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담보대출
② 미곡 가마니 위탁매매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③ 미곡 가마니 매매 중개 및 수이출이입 수속에 관한 일체의 업무
④ 미곡 가마니 매매계약의 이해에 관한 업무 및 매매보증
⑤ 창고 영업
⑥ 사무위임관리 및 대리 사무

일반신탁에 관한 업무

운용방법을 특정한 금전신탁	운용방법의 지정이 있는 금전신탁
운용방법의 특정 및 지정이 없는 금전신탁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신탁
유가증권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동산의 신탁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신탁
지상권의 신탁	토지임대차의 신탁
보호예치	채무 보증
부동산 매매의 중개	부동산 임대차의 중개
금전 대차의 중개	공채사채 또는 주식 모집 또는 그 불입금 수입취급
공채사채 또는 주식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의 지불취급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대차 대리 사무	재산관리 또는 청산의 대리 사무
채권 징수의 대리 사무	채무 이행의 대리 사무

업무의 특질을 들자면, 대출금은 미곡상조합 및 동 조합원과의 사이에 특약을 맺고, 군산미곡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연매계미(延賣繼米)에 대해서는 도미의 위탁을 받아 매립미(賣立米) 대금의 전액을 대출하고, 구입 약정한 쌀에 대해 일정한 보합금을 받고, 수미 및 수미보관 또는 발송 화환어음의 발행 등을 대변하고, 연매매수도미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모하고, 미곡의 집산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출금은 210여만 원, 창고에 보관한 개수는 17만 2천여 개이고, 대리 사무는 미곡상조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조합의 금전출납사무를 대리해 주고, 미곡상조합원과 매매당사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연매매 청산사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이어서 신탁업무 중 금전신탁은 신탁금의 운용을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지—면적 89만여ha—를 담보할 목적으로 수탁하며, 운용금이 이미 50만 원에 달한다(1927년 8월). 계산하는 시기는 매년 3월 말일로 정하고, 연 8회의 이익배당보증을 하는데, 실행배당은 10%를 내려가지 않고, 금전신탁은 장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운용방법으로 농사자금(경지담보대출이 가장 적당하고)이 안전하며, 동시에 농사진보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다. 계산 시기를 연 1회로 정한 것은 조선 농가의 현 상황이 연 2회의 계산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익배당률은 다음과 같다.

제1기	0.135	제2기	0.12	제3기	0.2
제4기	0.3	제5기	0.3	제6기	0.28
제7기	0.3	제8기	0.3	제9기	0.28
제10기	0.2	제11기	0.2	제12기	0.2
제13기	0.2	제14기	0.2		

또한 장래 계획으로는 ①창고업의 확장, ②토지신탁관리매매의 중개가 있는데, 창고업의 확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곡보관의 상황을 보건대, 양이 증가하고 보관 기간이 연장되어 매년 진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산미의 개량 조제가 진보하였고, 금융기관 및 매매기관이 정비되었기 때문이지만, 조선은 공기가 아주 건조하여 장기 보관에 적합하고, 또한 조선쌀의 판로가 확장되어, 수요지에 직접 발송하는 등으로 인해, 조선 쌀은 역시 조선의 집산지에 보관하는 편이 편리하며 유리하다. 그래서 당사는 현재, 회사 소유의 창고 약 3,300㎡, 빌린 창고 4,620㎡를 가지고 있는데도,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부족하여 도저히 장래의 수요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군산축항 완성에 즈음하여 완전한 일대 창고를 건설하고, 미곡의 집산을 편리하게 하며, 식량문제를 위해 보관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신탁관리매매의 중개에 대해서는, 신탁업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이고, 조선에서도 머지않아 이 법의 시행을 보게 될 것이므로, 당사는 이미 일본의 동법에서 범형을 찾아, 일반신탁업(금전신탁과 같은 것은 이미 이 업체에서 한다)에 종사하려고 한다. 그중에서 토지신탁은 현재의 조선에 가장 적당한 업무로서, 농사개발에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으며, 특히 본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 회사의 중역은 다음과 같다.

사장　　모리 키쿠로

상무이사　히타카 치요키치(日高千代吉), 한다 타키요시(半田瀧吉)

이사　　하나오카 츠루마츠, 시모다 키치타로(下田吉太郎),
　　오치아이 츠네스케(落合常助), 히라하루 토미조(平春富蔵)

감사　　나카시바 만키치, 요시나가 키치사부로(吉永吉三郎)

요컨대, 당사는 쌀의 군산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며, 매년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고, 현재 올해에는 그 산미의 개량, 조제의 진보, 금융기관 및 매매기관의 정비, 미곡보관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 익산군 여산 | 이시자키 신타로(石崎新太郎)씨

조선에서 제일 우량한 쌀을 생산하는 땅인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에 가장 오래된 조선의 개척자로 공적이 적지 않은 이시자키 신타로씨가 있다. 이시자키씨는 1915년에 퇴임하면서 현재의 땅을 선택하여 영주지로 정하고 농사경영에 착수했다. 당시의 여산은 일본인 거주자가 극히 소수여서 소학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불편한 지역이었는데, 1918년에 그는 이 지역의 일본인 거주자와 같이 도모하여 소학교의 설립을 계획하고, 1919년 개교를 실현하였다. 그 당시부터 그는 학교조합 관리자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간 모든 방면에서 활약하였다. 그동안 가장 곤란하다고 여겼던 교사 신축을 조합원의 다대한 희생은 물론, 직접 그 일을 맡은 관리자의 노력에 힘입어 성취할 수 있었다. 천성이 온후하고 정의가 깊고, 철두철미하며 지성과 견실을 다해 일체의 언동을 규율하려고 하는 지조있는 견실한 사람이다. 여산산미개량조합장으로 조선 쌀업계를 위해서도 진력하고 있다.

● 이리 | 삼중(三重; 미에)농장 아와 에이이치(阿波榮一)씨

전라북도 평야부의 중심지인 이리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삼중농장은 모로토 세이로쿠(諸戶淸六)씨가 경영에 관계하고 있다. 1917년 5월에 창업하여, 부안, 전주, 김제, 익산, 옥구의 각 군에 걸쳐 약 850여ha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전북 굴지의 대농장이다. 이 농장의 특색은, 소작인들에게 항상 저축을 장려하여, 결국 자기 소작지를 이 소작인에게 분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산미의 개량증식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고, 소작쟁의는 비슷한 것조차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배인 아와 에이이치씨는 미에현(三重縣) 태생으로, 온순하고 성실한 노력가이고, 소

작인과 지주의 협조를 유지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지성과 견실함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농장의 성적은 해마다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는 사람을 응대하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금방 인상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자애를 기원한다.

● 오산면 | 사나다(眞田) 농장

전라북도 익산군 오산면의 진전농장은 사나다 나오하루(眞田尚治)씨가 경영하는 곳으로, 1904년 4월에 창업하였고,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였다. 소유지는 약 2,500ha 이상에 달하고, 지배인은 사나다 쥬스케(眞田寿助)씨인데, 그는 소작인을 지도장려하면서 산미의 증식을 도모하고, 자기 소관의 농장 소작인 전부가 모내기하는 데 필요한 볍씨는 일본의 우량종을 배포하여 품종의 개량과 갱신을 위해 극력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이앙법의 개량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솔선하여 정조식 단책 묘대의 모범을 보이고, 경운에 노력한 결과, 진전농장은 다른 농장과 비교할 때 단보당 수확이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사나다씨가 얼마나 농사개량에 진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천성이 영리하고 게다가 해학이 있고, 소탈하며, 일을 할 때에는 열성으로 하고, 소수의 농장 사람들로 격무를 처리하는 수완은 실로 우러러 보게 된다. 공직에 나가 공공을 위해서도 진력하고, 평민주의자로서 호평을 얻는 사람이다.

◈ 전북 사업가의 경영 개황 ◈

군산부 아사히정(旭町)
나가타(長田)상점

정미상 / 정미업
☎ 長28 / 長23번 / 610번

군산부 본정통(本町)
마츠시마(松島) 정미소

미곡무역 / 정미업 및 위탁매매
☎ 548번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다나카 카메지로(田中龜次郎)상점

미곡무역 / 위탁매매
☎ 524 / 525번 [자택] 1056 번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나카타니 신키치(中谷新吉) 상점

미·잡곡류 / 무역위탁 / 정미업
☎ 412 / 1004번

군산부 9조통(九條通)
군산인쇄회사

대표자 미츠토미 카하치

인쇄 백반
양식 장부
☎ 515번 [자택] 158번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마츠우라 카오루(松浦薫) 상점

정선 현·백미 연(延)거래
주식유가증권 위탁매매
☎ 548 번

군산부 야마토정(大和町)
아사카 지키사에몬
(安積直左衛門)

미곡상 / 무역상
☎ 411 / 422번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와키타(脇田) 상점

미곡무역 / 정미업
☎ 103/ 554/ 927번

군산부 사카에정(榮町)
하시고(梯) 상점

농기구 및 비료 일체
☎ 306번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육석(陸石)정미주식회사 군산지점

☎ 153/ 243번

조선 군산부 아사히정(旭町) 9번지
미야코 소타로(都宗太郎) 상점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 대리점 / 대정화재보험주식회사 대리점
미곡상
☎ 216/ 747번 / [이체계좌] 경성 430번

조선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21

ツ 상점

주임　츠쿠모 무츠오(九十九六男)
[자택] 천산정(淺山)

미곡무역 / 연미(延米)위탁
☎ 312/ 723/ 921/ 458번
[전신약호] (カネタ)또는 (ツ)

군산부 개복동(開福洞)

시게타 카츠미치(繁田勝達)

舊 이름　카츠노스케(勝之助)

토목 / 건축 청부업
☎ 918번

군산 대정동(大井洞)

야마자키 큐지로(山崎久治郎)

토목 / 건축 청부업
☎ 752번

조선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공영(共榮)상회

군산 미곡상조합 거래원
미곡수출 중매 / 연매매 위탁
☎ 547/ 639/ (시장) 1103/ (전용) 1101번
[전신약호] (キ) 또는 (キヨ)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군산금융조합

☎ 447/ 757번
군산금융조합 강호정(江戶町)출장소
☎ 460번

전북 옥구군

옥구금융조합

☎ 261번

군산부 사카에정(榮町)

도미타야(富田屋) 포목점

합자회사
☎ 629번 / [이체계좌] 경성 1120번

군산부 아사히정(旭町)

가마쿠라야(鎌倉家)

갓포(割烹)요리
☎ 630번

군산토요회

조선은행 군산지점
조선식산은행 군산지점
조선상업은행 군산지점
한일은행 군산지점
쥬하치(十八)은행 군산지점

군산부 신흥동

고바야시 토라조(小林寅造)

금융업
☎ 348번

군산부 메이지정통(明治町通)

화월(花月)

회석(會席) 요리
☎ 150번

군산 신흥동 {법원지청 뒤}

다이요시(大よし)

회석(會席) 요리
☎ 262번

군산 산수유곽조합 (群山山手遊廓組合) [이로하 순]

상반루(常盤樓)	☎319번	금수루(錦水樓)	☎847번
방본루(芳本樓)	☎343번	방부도루(敷島樓)	☎133번
옥내가(玉乃家)	☎233번	옥송월루(松月樓)	☎327
군산루(群山樓)	☎503번	번군송학루(松鶴樓)	☎266번
산월루(山月樓)	☎824번	산칠복루(七福樓)	☎221번
마츠노야(松の家)	☎407번		

군산부 요코다정(横田町)

신월(新月)

회석(會席) 요리
☎ 262번

전라북도 고창군

김상호(金相鎬)

고창고등보통학교 이사

전라북도 이리 사카에정(榮町)

타베(田部)사진관

시미즈 소베에(清水宗兵衛)

☎ 116번

군산역전

오사와(大澤) 육송부

오사카상선주식회사 대리점 / 국제운수주식회사 대리점
조선총독부 철도국 승인점 / 조선총독부 세관화물면허취급인
조선운수계산교계 가맹점
☎ 763/ 1057번
통관(通關)부 ☎ 1001번
회조(回漕)부 ☎ 10/ 737번

[이체계좌] 경성 15128번

전북 정읍군 입암면 천원(川原) 정심(井深; 이부카)농원

원주 이부카 와이치로(井深和一郎)

전북 이리

이리좌(裡里座)

가토 히사키치(加藤久吉)

☎ 117번

전북 황등역전

카사리 이치로(笠利一郎)

토목 / 건축 청부

전라북도 정읍군

후쿠다 카이치(福田嘉一)

정읍 산업조합 이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산업조합

조선 전라북도 덕진(德津)

이의근(李義根)

미곡상

조선 전라북도 덕진(德津)

기무라 산노스케(木村三之助)

운송업

군산

고급명주 방코쿠(萬國)
토시카츠(年勝)

청주 양조원

우에노(上野) 양조장

1899년 창업
☎ 114번

군산부 요코다정(橫田町)

명주 이나히메(稻姬)

양조원

군산주조주식회사

☎ 226번 [이체계좌] 경성 2483번

사무소 호남선 이리 야나기정(柳町)

훈7등 야마구치 토메고로山口留五郎

제일징병보험주식회사 경성지사 전북감독소 소장
본사 도쿄시 교바시구 긴자 3정목 10번지
지사 경성부 영락정 2정목 64번지
[이체계좌] 경성 6736번

전라북도 정읍

정읍 자동차주식회사

☎ 153번

조선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항

니시요시 준
(西義順)
잡화무역상
☎ 29번

진 야스요시
(仁泰義)
견직 포목상
☎ 38번

도쿠 아즈마
(德生東)
잡화 포목상
☎ 30번

군산 승인 운송점 조합

내국통운주식회사 군산거래점 ☎ 211번
모리모토(森本) 운송점 ☎ 356번
나카이(中井) 통운부 ☎ 532번

군산부 본정(本町)
이에 후사키치(家房吉)상점
미곡상
☎ 29번

군산부 전주통(全州通)
와타나베 센조(渡邊仙藏)상점
식료품 / 잡화 / 소매
☎ 146번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
오키 유키토시(興順利)
잡화무역상
☎ 115번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
유코 아즈마(裕興東)
잡화무역상
☎ 116번

조선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항

아즈마 쇼와
(東唱和)
무역상

유코 아즈마
(裕興東)
잡화 무역상
☎ 28번

이 야스시
(怡　泰)
잡화 무역상
☎ 35번

조선 전라북도 덕진
다카히라 히로시(高平熙)

줄포 자동차 조합
고부 정류소
정읍 정류소
부안 정류소

조선 전북 이리
기무라(木村) 양복점
기무라 켄이치(木村兼一)
☎ 257번

조선 전북 이리
우시즈카 죠타로(牛塚助太郎)
금융업

조선 군산부 전주통
카지타 사부로(梶田三郎) 상점
당분·외국쌀·면포·조 무역상
☎ 長527번

조선 군산부 사카에정(榮町)
아츠미(渥美)상회
기계공구 / 철공업
☎ 長738번

호남선 김제
조재식(趙在軾) 상점
미곡 / 비료
☎ 114번

호남선 김제
쿠로다 켄타로(黒田健太郎)
토목·건축 청부 / 건축 재료
☎ 51번

전라북도 김제역전통
신풍(新豊)의원
원장 정공선(鄭公善)
☎ 131번

전라북도 김제읍내
벽성(碧城)의원
원장 정태호(鄭泰浩)
☎ 47번

전북 이리
이마이(今井) 정미소
미곡상
☎ 27번

전북 김제
히노(日野) 정미소
히노 키스케(日野喜助)
미곡상
☎ 108번

조선 전북 전주군 조촌면

카츠라기 이치타로(桂木市太郎)

농사경영

조선 전북 전구군 조촌면

모로 야조(茂呂彌藏)

농사 / 양계

조선 호남선 이리 **청목당빙고(靑木堂氷庫)**

호남선 제일의 저장고 / 1년 저장량 30만관
대량 주문에 응해 드립니다
☎ 124번

전북 김제

야마다(山田) 정미소

야마다 카이치로(山田嘉一郎)

미곡상
☎ 62번

호남선 부용역전

오스미(大隅) 정미소

오스미 에츠조(大隅悅藏)

미곡상

호남선 김제

이케 마스미(池眞澄) 상점

미곡 / 비료
☎ 17번

기분 좋은 안면을 위해서는

미사사 베개 (ミササ枕)

신안특허
고무 스펀지

영구적이면서 우아하고 고상함
전국의 여관, 진보적 가정에서는 거의 애용하고 있습니다

- 종 류 어른용·소아용·부인용 각종
- 판매점 전국·잡화점·가구점·고무점
- 제조원 히로시마 타무라공업주식회사

군산 남조선고무(護謨)주식회사

남선 총대리점

군산부 사카에정(榮町) 역전

전매특허·실용신안 (출원 중)

돌빼기(石抜) 전용 풍구(唐箕)
돌빼기(石抜) 겸용 풍구
현·백미 다듬질 풍구
개량초풍구
삼중망 일도 다듬질 만석
실용 완전 제승기
특허 개량쟁기

☎ 869번 [이체계좌] 경성 13110번

호남선 김제

세토 마사시로(瀨戶政四郎) 상점

잡화 / 비료 / 관제 담배
☎ 20번

전북 김제

하라다(原田) 정미소

하라다 요시츠구(原田吉次)

☎ 9번

각종 무진의 경영, 무진 외상금이 있는 분에 대한 대출금,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담보 대출금 등
지극히 편리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군산무진(無盡)금융주식회사

☎ 352/ 640번 [이체계좌] 경성 13087번

군산상공신탁주식회사

[이체계좌] 경성 2083번

각종 신탁예금 예치, 유가증권신탁 예치, 동산·부동산, 유가증권 담보대부금, 화물창고 보관 등에
대한 금융 등 취급
무엇이든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북 이리

가사마츠(笠松) 정미소

가사마츠 요코(笠松譽行)

☎ 28/ 274번

군산부 신흥동

가마다(鎌田) 의원

원장 가마다 가타(鎌田方)

☎ 756번

호남선 정읍

박치규 상점

가사마츠 요코(笠松譽行)

미곡 / 무역
☎ 122번

호남선 신태인역전

아카기(赤木) 정미소

미곡상
☎ 5번

아카기 미네타로(赤木峰太郎)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오와다(大和田) 치과의원

원장 오와다 죠지로(大和田助次郎)

☎ 267번

호남선 이리역전

친절·정중 하시모토(橋本) 여관

도모타 사이(友田サイ)

☎ 133번

호남선 정읍

사토 코스케(佐藤孝助) 상점

철물 / 화약 / 신문
☎ 20번

전북 이리

히타카(日高) 정미소

미곡상
☎ 145번

히타카 토메이치(日高留市)

군산부 장재동

히사고(ひさご)

회석 요리
☎ 1051번

아카기 미네타로(赤木峰太郎)

줄포항 해운조합

조합장 김연수(金年洙)
전무 겸 이사 다카하시 젠타로(高橋善太郎)

소속선 / 제1호·제2호 신줄포마루 발동기선
- 줄포항-군산항 정기회항 월 20회
- 일반화물 취급

호남선 신태인역전

구보타(窪田) 정미소

구보타 마사오(窪田正夫)

미곡상
☎ 23번

호남선 이리역전

친절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아사히야(朝日屋) 여관

우에다 유사(上田ユサ)

☎ 134번

군산부 9조통(九條通)

다카세(高瀨)합명회사 군산지점

견직물·모직물·견포·제 잡화 / 무역
☎ 長14/ 561번

전주

시타몬(下門) 벽돌공장

시타몬 타케히로(下門猛宏)

우리 벽돌공장을 증축하였으므로 우량품의 생산능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가도 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량주문하실 때에는 특별히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호남선 정읍

후카다(深田) 정미소

후카다 야스토시(深田泰寿)

미곡상
☎ 71번

군산상설 활동사진

희소관(喜笑舘)

관주 가와카미 요시조(河上好藏)

☎ 344번

군산부 전주통

야나기하라(柳原) 상점

일본식·서양식 철물상
☎ 347번 / [이체계좌] 경성 3353번

조선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아베(安部) 상점

목재 / 가마니 / 건축재료 / 미곡위탁매매
☎ 長16 / 長414 / 854번 / [이체계좌] 경성 829번
[전신약호] (ア) 또는 (アヘ)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니시우치 사스케(西内佐助)

금융 및 해산물

군산부 전주통
도쿠나가(徳永) 상점

미장이 재료 / 각종 비료
☎ 509번

군산부 야마토정(大和町)
군산 토산품의 권위 각 공진회 상패 수령 쌀과자 이즈모야(出雲屋) 본점

(과자 원료, 축하 떡 주문 받습니다)
☎ 506번

군산부 사카에정(榮町)
이즈모야(出雲屋) 지점

☎ 569번

군산부 본정(本町)
마츠바 미츠사부로(松場密三郎) 상점

미곡상
☎ 長440/ 419번

군산부 전주통
이치(一) 상회

미곡매매 / 연거래 위탁
미곡상
☎ 330/ 519 번

군산부 나니와정(浪花町)
우에다(植田) 상점

선구·어구·면사어망·삼실·감즙실 / 해산물
☎ 626번 / [이체계좌] 경성 8324번

군산부 본정통(本町通) 43
나카지마 토라키치(中島寅吉) 상점

선구(船具)상
☎ 139 / 646번 / [이체계좌] 경성 10077번

쌀의 군산을 대표하는 호남 유일의 경제지
일간 군산상보(群山商報)

사장 타지마 기이치로(田島儀一郎)

적확하고 신속한 보도
내용의 충실과 비약하는 지면

회석 (會席)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중화요리 동해루(東海樓) ☎ 257번	군산 아시정(芦町) 시장 앞 동영루(東瀛樓) ☎ 239번

군산부 전주통

금화각(錦和閣)

중화 북경 특등요리
☎ 853번

군산부 본정(本町)

하나오카(花岡) 상점

미곡매매 / 정미업 및 위탁매매
☎ 33/ 147번

전주 본정(本町) 4정목

테즈카(手塚) 간장 양조장

간장·미소(된장) 양조원
☎ 358번

군산부 전주통 2번지

선전제일 교통편람사(交通便覽社)

황국유신회(皇國惟神會) 이사 시바후지 요시오(柴藤義雄)

문화신안 명함 / 인물, 점포, 상품 기타 사진 동판기호에 맞게 제작하여 신속 조달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모퉁이 **아사노(淺野) 철물점**

사장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

영업종목
- 일본식·서양식 건축 철물
- 서양식 못. 철사, 철망
- 농잠 도구 각종
- 광산(礦山) 토공 용구
- 금고 및 소방도구
- 특선 도검(打刀)물 종류
- 냄비, 솥, 주물 제품

☎ 41번 / [이체계좌] 경성 979번

군산부 요코타정(横田町)

종4위
훈5등 법학사 사이토 소시로(齋藤宗四郎)

변호사
☎ 1025번

군산부 본정(本町)

키시다(岸田) 상점

키시다 츠네조(岸田常造)

미곡상
☎ 138번

전주 본정(本町) 2정목 1번지

이리==전주==남원간 승합자동차 영업
전북자동차상회

☎ 247/ 249번

이리역전

시멘트 토관 / 목재 및 시멘트 / 미장재료 각종
우에다 쿠마지로(上田熊二郎)

☎ 270번

조선 전북 전주 고사정(高砂町)

스기에(杉江) 종묘원

종묘 도·소매
☎ 440번 / [이체계좌] 경성 3028번
[전신약호] (ス) 또는 (スキ)

전북 전주 본정(本町)

미요시(三好) 상회

종묘 도·소매

[이체계좌] 경성 4005번

전주 다이쇼정(大正町) 2정목

후케 에이타로(普家榮太郎)

고객 여러분!
참마음으로 영업하는
가게

- 라지(ラーヂ) 자전거 및 부속품
- 자동차·자동자전거 수리
- 자동차·자동자전거 부품
- 라디오 수신기
- 각종 전기 기구의 수선 판매
- 미국제 휘발 램프

전북 전주 본정(本町) 4정목

전북비료주식회사

- 사장 오키 료사쿠(大木良作)
- 전무이사 오타 타케지로(太田竹次郎)
- 이사 최승열(崔昇烈)
- 이사 오키 후사오(大木房男)
- 이사 유창근(柳彰根)
- 감사 장병선(張炳善)
- 감사 최창환(崔彰煥)
- 감사 하야시 지(林 昌治)

☎ 408번

이리 사카에정(榮町)

치과·구강외과 타케이치(武市) 치과의원

치과의 타케이치 치쥬로(武市知十郎)

☎ 17번

전주 다이쇼정(大正町) 1정목

자본금 십만원
전주무진(無盡)주식회사

- **영업구역** : 전주군 / 임실군 / 진안군 / 남원군

☎ 279번
[이체계좌] 경성 1301번

무진영업 각종 무진회원 모집.
상세한 규정서 및 계약신청용지는 연락 주시는 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전북 함열역전

전북 함열미

현미가 우수한 것은 다음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찧을 때 감소가 적다는 점!! 벼를 서로 부딪히게 해서 벗기는 충돌식처럼 미질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에 넣어도 쌀이 접어져서 꺾이지 않는다.

② 저장미로 하기에 뛰어난 점!! 건조가 잘 되고, 껍질이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돌식으로는 건조가 잘 된 쌀은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가 불충분한 것을 현미로 만듭니다. 우리 회사의 현미는 낱알들을 손톱으로 벗긴 것과 같은 작용으로 탈곡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조되어도 절대로 쌀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종래의 절구와 같이 기접(肌摺)이 없기 때문에, 충해를 방지하고 변질미가 생기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③ 돌고르기 정선도 모두 독특한 방법으로 현미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돌고르기 정선 현미 전문 무라이(村井) 정미소

☎ 역전 5번
[전신약호] (ムラ井) 또는 (ム)

전라북도 옥구군

팔목(八木; 야기) 농장

이리 사카에정(榮町)

야마노(山野) 철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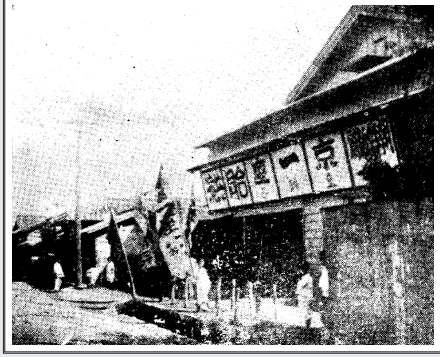
일본식·서양식 철물 / 명산 도검물
일본·조선 농기구 / 솥·냄비 주물
도·소매

김제군 백구면

소노다 시게루(園田茂)

전주군 조촌면

가츠라기 이치타로(桂木市太郎)



군산부 에도정(江戸町)

극장 郡山座

좌주 시마다 겐자부로島田元三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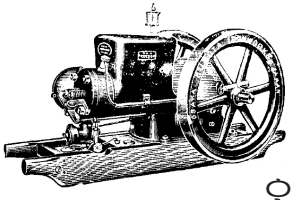
☎ 117번

군산부 사카에정(榮町) 143번지

동력과 매갈이·정미기

◎ 동력 쿠보타(クボタ)와 제트(ゼット) 석유발동기는 농주성(農株省) 비교 심사 중에서 연료가 가장 적게 들고 마력이 가장 강대한 것은 이 기계뿐이었다.

최고 제1위
쿠보타와 제트



2마력 반 / 3마력 / 5마력 / 7마력 반 / 10마력

- 매갈이 기계의 최고 권위 냉치(冷齒)식 인접기(籾摺機)
- 정미기계의 패왕 오쿠무라(奥村)식 무사(無砂) 정미기
- 기타 상기 부품 모두 재고 풍부

오소에가와(小副川) 상점

☎ 1050번
[이체계좌] 경성 6961번

조선 군산부 전주통(9조통)

와다 토지로(和田藤次郎) 상점

일본식·서양식 가구 및 부엌용 잡화
경대 / 바늘꽂이 / 횃대문화 / 난로 / 의자
테이블 / 기타

☎ 818번
[전신약호] (ワ) 또는 (ワト)

군산부 전주통

히로츠 슌이치(弘津俊一)

잡화상

☎ 218번

군산부 아사히정

히로타 슈지(弘田修二)

☎ 22/ 長304번

군산부 야마토정(大和町)

간바야시(神林) 약점

화장품부
양주잡화부

약품 전반 / 약점용 잡화 / 매약 / 고무제품
양주, 식료품 / 유제품 일반 / 염료·안료 일식 / 유명화장품 / 도량형 기기

☎141 / 555번 / [이체계좌] 경성 209번

전북 이리 사카에정(榮町)

마츠야마(松山) 약점

약과 화장품
조선총독부 계량기 지정 판매소

☎ 46번

김제군 김제

고키 도쿠타로(古木德太郎)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차상근(車相根) 정미소

☎ 長202번

김제군 부용
나카무라 키조(中村喜藏)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토요켄(東洋軒)

서양요리
☎ 269번

군산부 메이지정(明治町)
후지정(富士亭)

서양요리
☎ 2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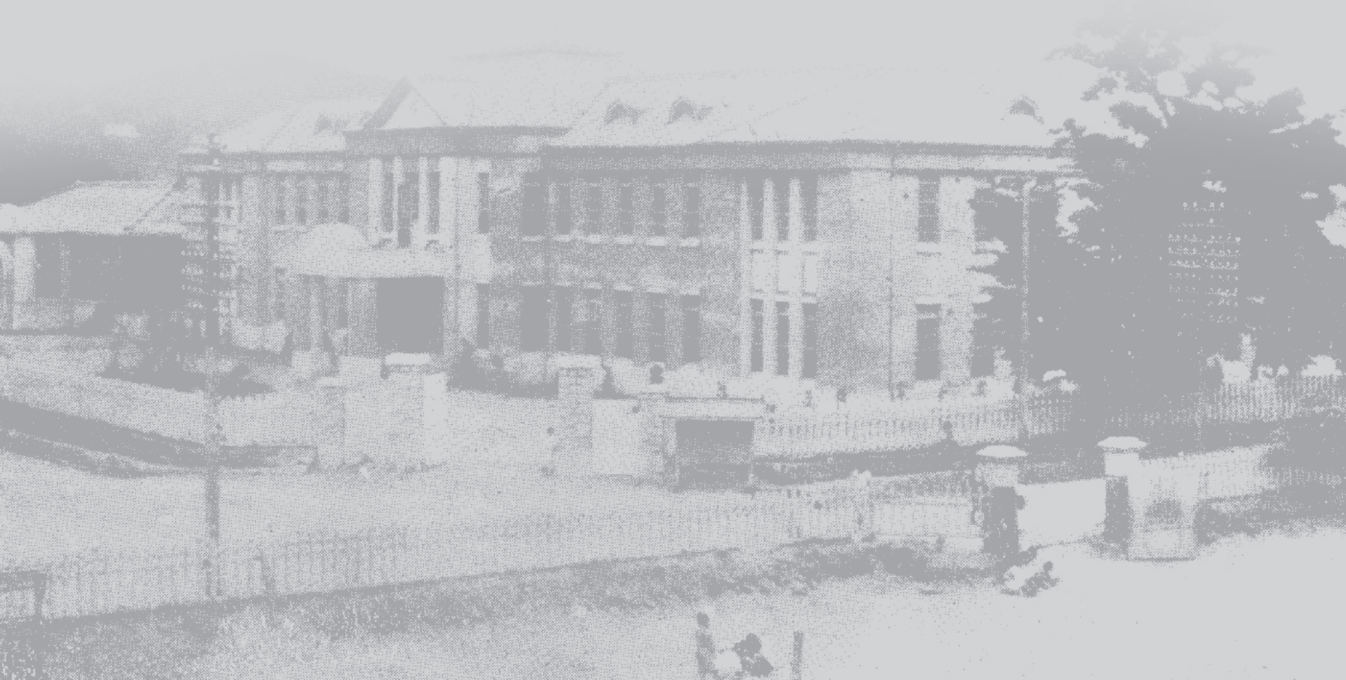
군산 유곽(貸座敷) 조합

이리 사카에정(榮町)
키요시히사(喜賀久)

福田元次郎

☎ 174번

옮긴이의 말 :
해제를 대신하여



옮긴이의 말 : 해제를 대신하여

1910년 8월의 '한일합병'부터 일본의 패전=조선의 해방에 이르는 1945년 8월까지, 일제의 통치는 크게 무단통치, 문화통치, '황민화정책'의 시기로 구분하여 파악된다. 조선총독부가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이고, 1920년대까지는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농업정책 일변도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산미증식'과 '농사개량'인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산미증식계획'의 입안 배경과 내용, 그리고 성과에 대해 알아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산미증식계획 추진기의 조선과 일본 ◈

일본은 19세기 이후, 항시적인 식량 수입국이 되었고, 수입무역 중에서 식량은 (원면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원료에 이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도, 한일합병 당초부터 조선 내에서의 식량자급과 함께, 공업원료, 식량의 수이출, 특히 이식(移植)을 위한 개량증식에 최대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 말까지 조선의 논은 여전히 강우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일본의 우량품종의 보급이나 시비의 증시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 외의 경종법(耕種法)의 개선도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곧바로 조선쌀을 일본에 이출하는 데 제약조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12월부터 실시한 '산미증식계획'은 종래의 경종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관개(灌漑)개선, 개간·간척 등의 토지개량사업을 전면

에 내걸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산미증식계획'을, 한편으로는 일본의 식량·쌀값 정책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직면한 식민지 지배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식민지 통치유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이 계획을 통해 장래 조선의 식량부족·쌀값 등귀에 대처함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적 지주로 삼고자 했던 조선 지주층을 경제적으로 일본과 결부시켜, 그들을 포섭함으로써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처럼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자본주의사회와 지주제 사이의 모순이 점차로 드러나고, 더욱이 일본의 제국주의 사회의 식민지지배체제가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입안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 농업뿐 아니라, 일본의 농업에도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식민지산업정책으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역사상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산미증식계획'이 식민지 농업뿐 아니라, 일본의 농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산미증식계획 입안의 계기를 식민지 내부의 요인과 일본 국내의 요인, 양쪽에서 찾아보고, 그 계획이 조선의 농업 부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1920년대 후반 이 책이 집필되던 당시의 전북의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농업정책의 흐름과 산미증식계획

1) 1910년대의 농업정책

식민지 통치의 제1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적 재편기이고, 그 주축이 된 것이 '토지조사사업(1910년 3월~1918년 11월)'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토지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조선총독부 재정의 재원이 될 지세(地稅)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주적 토지 소유를 옹호·육성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정적·권농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즉 지주층을 단순히 지배적 계급으로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지주제를 육성하려고 했다.

1910년대의 식민지 경영은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일련의 기초사업(철도·도로·항만 등의 정비)과, 그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관업(官業) 경영(소금·연초·인삼 등의 전매업)에 집중했었는데, 농업정책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식민지 산업정책의 중추로 수행되었다. 우선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은 그 목적을 "①식료품의 생산을 증식할 것, ②수이입 농산물에 대해 가능한 한 자급을 도모할 것, ③내지 및 인접국에 대해 수이출의 전망이 있는 산물은 생산의 개량증식을 힘써 도모하고, 조선 내의 소비를 절약하여, 수이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54]고 하였다. 즉, 조선 내에서의 식량 자급과 함께, 공업원료·식량의 수이출, 특히 이출을 위한 개량증식에 최대의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 강제적으로 '농사개량'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은, 곡물·면화·산견(産繭)의 3대 농산물의 증산정책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중에서도 산미증식정책이 농업정책의 기조를 이루었고, 이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은, 우량품종의 보급, 관개시설의 개선, 시비료의 증가, 건조조정의 개량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1910년대의 농업정책은 일본의 수요에 적합화하기 위한 상품작물화에 집중하여, 관개 개선이나 토지개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10년대 말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2)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

1920년 12월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은 종래의 경종법의 개선에 머물지 않고, 대규모의 관개 개선·개간·간척 등의 토지조사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산미증식계획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실시된 것은, '쌀소동'[55]

---

54 朝鮮総督府殖産局, 『朝鮮の農業』 1929年版, p.1.

55 1918년에 발생한 '쌀소동(米騒動)'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 폭동이었다. 1917년부터 1918년에 걸쳐, 쌀값이 폭등하였는데,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인플레의 일환이었고, 또한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쌀의 수요가 증대되었음에도, 기생지주제 아래에서의 쌀의 생산이 정체되어 공급부족에 빠진 것이 근본적 원인이었다. 그리고 지주, 쌀 상인들이 투기를 조작하여 매점매석을 했고, 내각이 지주와 상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 쌀 수입관세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시베리아출병으로 인해 한층 더 매점이 이루어졌던 점 등의 사정이 복합된 결과였다. 1918년 7월 이후, 쌀값은 더욱 폭등하였고, 민중의 생활난과 생활불안이 더욱 심화되어, 드디어 공전의 대폭동이 일어났다. 소동은 대략 4기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

으로 상징되는, 당시 일본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던 식량·쌀값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지배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의 '문화통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첫째, 악화가 예상되는 조선의 식량부족·쌀값 등귀에 대해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쌀 수확고는 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비해 인구는 착실히 증가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석을 웃돌았지만, 조선인은 0.7석(1915~1918년 평균)으로 일본보다 적었다. 일본 내부의 상황을 보면, 일본을 위한 식량공급지로 만드는 정책을 전개해야 했지만, 그것이 조선인의 식량 사정을 점점 더 악화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대규모의 수리관개사업을 시행하여 생산의 안정화와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생겨났다.

둘째, 조선의 지주층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적 지주로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쌀의 이출을 급증시킴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식량, 쌀값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그것을 식민지 지주제를 매개로 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주제를 강행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일본 미곡시장의 존재라는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출을 위한 미곡상품화를 급격하게 전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산미가 집중되어 있는 지주층에 부여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조선의 내부 시장이 아니라 일본의 미곡시장에 둘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식민지 지배의 사회적 지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지주층이 일본제국주의 사회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사회에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가 산미증식계획을 1920년대의 산업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산미증식계획은 이 시기에 전개된 민족분단지배의 본질로 삼은 '문화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문화통치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위치 지울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미증식계획은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주층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것인 만큼, 단순한 행정상의 문화통치보다 근본적인 정책이었고, 문화통치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 부여한 것이었다.

또한 외국쌀의 수입은 당시의 일본 자본주의사회가 안고 있던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켰고, 일본 정부는 식량 공급의 증대와 외국쌀 수입의 억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그리하여 산미증식의 제1기 계획에서는 ①조선 내의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②농가경제와 반도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고, ③아울러 제국식량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세 가지 목적을 내세웠고, 갱신계획에서는 ①제국식량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할 것, ②국제대차의 결제 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외래의 수입방지를 계획할 것, ③조선 내의 식량수요 증대에 대비할 것, ④농가경제의 향상 및 농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조선 전체 경제력의 신장을 도모할 것 등이 목적이 되었다. 이러한 목적이 설정된 것은, 일본이 식량, 쌀값 문제의 해결을 주로 식민지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결과이다. 갱신계획은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와의 이해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2. 산미증식계획의 내용과 성과

조선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당시 미곡의 단당 수확량이 일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다. 그 원인은 농기구의 기술적 수준이 낮았고, 경종경작법이 불충분했고, 무엇보다도 관개 설비를 갖춘 논이 적고, 대부분이 강우에 의존하는 천수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이 많았기 때문에, 관개수의 부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고, 품종개량, 비료의 증시 등의 농사개량도 생산력의 상승에 그다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에서는 종래의 우량품종의 보급, 자급비료의 증시, 기타 경종법의 개선에만 머물지 않고, 대규모의 관개 개선 등의 토지개량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산미증식을 내걸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의 토지개량사업비는 일본의 17~40%에 불과했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매수비와 노임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내에서보다 조선에서의 산미증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산미증식계획을 수행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제1기 계획에서는 사업의 중심기관으로 특수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다. 이 특수회사의 사무는 일반기업자를 위하여 기술이나 자금의 조달이나 알선을 하고, 이 특수회사의 자기 경영으로 개간 또는 간척한 토지는 자작농 창설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토지개량사업계획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는 독립된 주무과를 설치할 필요를 느껴, 1920년, 종래 총독부 관방 토목부의 소관이 되어 있던 농업수리에 관한 사무를 식산국에서 통할하고, 같은 해 11월 토지개량과를 신설하여, 오로지 토지개량사업계획을 수행하게 했다. 제1기 계획에서는 농사개량 및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약 900만 석의 증수를 도모했고, 그중에서 약 460만 석을 수이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1기 계획은 여러 이유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손질을 가해야 하게 되었다.

제1기 계획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1926년에 산미증산계획이 갱신되어, 실시되었다. 이 갱신계획의 특징은, 기업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거액으로 저리 자금을 정부가 알선하는 것, 둘째 1926년에 토지개량시행지역의 측량·설계·자금의 알선조달·공사감독 등을 대행할 사업 대행기관을 설치할 것, 셋째, 대폭적으로 조선인 지주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 넷째, 정부가 동양척식은행·조선식산은행 및 금융조합을 통해 14년에 총액 4천만 원의 자금을 알선하고, 그중 80%로 금비를 구입하여 이것을 모두 관개 설비를 갖춘 논에 시비하기로 한 것 등이다. 이 계획을 완성하면, 35만 ha의 토지개량을 통해 약 822만 석의 증수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조선 내에서의 쌀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은 수준에서 억누름으로써 500만석 이상의 이출량을 전망했고, 종래의 이출고와 합쳐서 약 1000만 석 이상을 이출하려고 했다. 이처럼 갱신계획이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제1기 계획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이 식량·쌀값 문제나 국제수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선쌀의 대량 이입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조선에서 토지개량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갱신계획은 쇼와(昭和)공황[56]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으로 인

56 1929년 10월에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를 휩쓸었던 세계 공황의 영향이 일본에까지 미쳐,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일본경제를 위기적 상황에 빠뜨렸던, 패전 전 일본에서 가장 심각했던 공황.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 거품(=일본의 대전 경기)이 붕괴되면서, 은행이 안고 있던 불량채권이 금융시스템의 악화

해, 계획 중도에 중지론이 대두되는 등 큰 좌절을 겪게 되었다.

이 산미증식계획이 가지는 성과 또는 의미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첫째, 관개 설비를 보유한 논이 점차로 증대되었다. 1918년의 관개면적이 약 37,000ha였던 것이, 1931년에 254,000ha로 증대되었다. 둘째, 비료 특히 금비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우량벼 품종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경지의 지력이 소모되어 비료의 증시가 필요해졌다. 셋째, 벼 재배법이 크게 개선되었다. 단책 못자리 및 정조식의 보급, 심경의 장려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상과 같이, 토지개량·농사개량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산미증식계획은, 한편으로 양적 측면·질적 측면·가격수준의 안정화 측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 목적이었던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제국식량문제의 해결'을 확실하게 이루었고, 동시에 외국쌀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당시의 일본의 국제수지 악화를 막았고, 다른 한편으로 1910년대에 이미 확립되었던 조선의 대일본 미곡 단일무역구조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구축했다. 산미증식계획 추진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무엇보다도 조선 농민의 심각한 식량부족·경제적 파괴를 초래했다. 농민들이 수확한 쌀은 고율의 소작료와 고리대금,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아주 적게 남은 벼만이 유일한 환금작물이 되었고, 이것을 팔지 않을 수 없었기에 쌀 소비량이 1930년대로 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에 들어서, 농민의 식량자급·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밭작물 개량증식계획'(1931년), '농촌진흥운동'(1932년)을 수립했고, '조선농지령'(1934년)을 반포하는 등, 지주적 농정에서 '농민적 농정'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자본과 기술의 부족, 경영규모의 영세성, 식민지 지주제의 강고한 존재 아래에서는 불가능했을 뿐이다. 결국 산미증식계획은 전개 과정 중에,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심

를 초래했고, 한때는 수습되는 듯 했지만, 그 후의 금본위제를 목적으로 한 긴축적인 금융정책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심각한 디플레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 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일본 농촌이었다. 생사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였고, 아울러 디플레 정책과 1930년의 풍작으로 인한 쌀값 하락, 조선과 대만으로부터의 쌀의 유입으로 인한 쌀 과잉이 증대함으로써, 농촌의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화·확대시켰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정책들은 모두 조선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쟁 체제와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구축 아래에서 이루어진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저서에 게재된 내용이 (재)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저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초판인쇄 | 2021년 12월 24일
초판발행 | 2021년 12월 24일

지은이 | 우츠기 하츠자부로(宇津木初三郎)
옮긴이 | 임경택
발행인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　화 | Tel. 063-280-7212 (Fax. 063-286-9206)
홈페이지 | http://jbstudies.re.kr

제　작 | 동인기획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1길 13
전　화 | Tel. 063-901-0066 (Fax. 063-901-0067)
등　록 | 제2010-000036호
이메일 | hun0205@hanmail.net

비매품
ISBN 979-11-92125-02-2 93060

ISBN 979-11-92125-02-2

비매품